

2020

오 켄
작품집
시트콤

2020 오픈 작품집 — 시트콤

2020

오픈
작품집
시트콤

오픈 소개

오픈(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 공간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CJ ENM이 드라마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①신인 창작자 발굴 ②콘텐츠 기획 개발 ③제작/편성
④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인 창작자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차례

미쳤습니까 휴먼 — 이수지

9

오렌지 실버타운 — 김현민

73

민트 컨디션 — 방소민

141

2말 3초 증후군 — 최유현

215

럭키 — 진윤주

279

미쳤습니까
휴먼

이수지

인류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정서는 구석기 시대에,
사회 제도는 중세에 머물러 있는데,
기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기술은 황홀할 정도로 위험하고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위기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
—에드워드 O. 윌슨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서
찬란한 발전과 더불어 여러 사회문제가 뒤엉켜왔다.
하지만 미처 수습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변화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다.
지금껏 기술발전의 토대 위에 현대문명을 쌓아올라왔다면,
이제는 기술발전의 상상할 수 없는 속도 때문에
인류가 목덜미 잡힌 채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긴 공개코미디,
바로 대한민국 정치관은 도무지 제 역할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래를 결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기만도 벅찬 상황 속에서
소위 ‘정치꾼’들은 개인의 이권을 위한 아귀다툼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 대한민국 정치관을 통째로 엎어버릴 일대 사건이 터진다.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합리적인 사고와 건강한 비판의식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AI로봇이 국가의 원수로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이 된 것이다!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며 떨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된 AI로봇이 통렬한 한마디를 던진다!

‘미쳤습니까? 휴먼’

최호규·AI로봇(60대, 남) 대통령

‘최호규 대통령’. 무능의 끝판왕. 한반도에 내려진 저주.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바닥을 기다 못해 지각을 뚫고 들어가
맨틀에 닿을 정도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게서도 연일 공격받고 있다.
알고 보니 엉뚱한 행동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였음이 밝혀진다.

‘AI로봇 대통령’은 처음엔 그저 대통령 대신 잠깐의 눈속임을 위해 급조된
최호규의 외형을 한 깡통로봇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이 점점 커지면서 수차례 이뤄진 업그레이드로,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인간의 한계를 점점 뛰어넘는다.
애초에 로봇인지라 좌우, 지역, 남녀 그 어떤 대립에서도 자유로운 채,
사사로운 감정에 묶여 일을 그르치지도 않고,
오직 정확한 지표와 수치만으로 정치 현안들을 판단하고 해결해나간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말 잘 듣는 로봇에서 벗어나
규정될 수 없는 새로운 무언가로 변모해간다.

이춘근(70대, 남) 비서실장

모두가 인정하는 청와대의 실세.
1950년생 피난동이 세대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으로 무장한 채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한국 원로 정치인 자리를 지켜왔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냉동됐다가 풀려난 것 같은 언행으로
늘 ‘나 때는 말이야’를 달고 살며, 7080 사고방식이 박제되어 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든 최호규 뒤에서
청와대를 움직이며 권력을 만끽하고 있다가,
최호규의 치매 발병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권력을 놓칠 수 없어 무모한 작전을 실행한다.

김나윤(40대, 여) 국민소통수석

여기자 최초 8시 뉴스 메인 앵커로 발탁됐고,
이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1위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물론 뛰어난 실력보다 더 뛰어난 미모가 1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재벌가의 수많은 혼담을 뿌리치고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최연소 수석비서관이라는 파격 인사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자신만의 야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일 처리 능력을 갖췄음에도 빛을 보지 못한다.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실은 시궁창.
매일같이 벌어지는 청와대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아까운 재능을 낭비하기만도 벅차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치매 사건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신동녘(50대, 남) 정무수석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비서실장 이춘근의 영원한 딸랑이.
매번 충심이 넘쳐서 오버를 하다가 사고를 친다.

길태식(50대, 남) 민정수석

차장검사 출신으로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하다.
권력형 기회주의자로 늘 사람들을 이간질한다.

서용태(40대, 남) 경호부장

탄탄한 어깨에 미중년 외모를 자랑한다.
대통령에게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기자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진다.

장두호(40대, 남) 국정원 팀장

로봇보다 더 로봇 같은 스타일로 늘 검은 복장 착용.
명령이 떨어지면 앞뒤 보지 않고 오직 직진한다.

박철우(50대, 남) 여당 시민당 대표

국회에 술 먹고 출석하거나 비키니를 검색하다 들키는 등
늘 구설에 휘말리는 출석을 최하위 국회의원.

서은수(50대, 여) 야당 화합당 대표

정권 탈환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든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모든 것에 태클을 건다.

오영순(60대, 여) 영부인

재벌가 출신으로 아버지에 의해 최호규와 정략 결혼했다.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다.

최민섭(30대, 남) 한국공대 대학원생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으나
갑작스레 벙커에 갇힌 뒤로 점점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어간다.

줄거리

대한민국 대통령 최호규 그리고
비서실장 이춘근, 국민소통수석 김나운,
정무수석 신동녘, 민정수석 길태식.
이들은 혁신정부를 표방한 청와대 핵심 인물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 떨어지는 지지율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매번 잦은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는 대통령 최호규 때문이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치매라니? 치매라니! 대통령이 치매라니!

대통령 뒤에서 전권을 쥐고 권력을 휘두르던 비서실장 이춘근.
그런데 치매로 지금 대통령이 내려온다면?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을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다.
할 수 없다. 딱 마지막 임기 1년만 버티자.
그래서 시작된 맨땅에 헤딩, 눈 가리고 아웅 프로젝트!

한국공대에서 개발한 로봇에 3D프린터로 제작한 대통령의 외형을 씌워,
대통령의 대역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서실장의 프로젝트에 얼떨결에 얽히게 되는 청와대 사람들.
하지만 거짓말이야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점점 늘게 된다.
로봇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처음엔 겁이 났지만,
하다 보니 점점 적응되어간다.

다시 또 문제가 터진다.
대충 어찌어찌 버텼는데,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 로봇은 수동 조작 기능밖에 없는 상태,
미국 경호팀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로봇을 조작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치매 걸린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내보낼 수도 없다.
점점 수습이 어려워지자 그냥 로봇으로 안 되겠다는 걸 절감하는 비서실장.
로봇에 최신 인공지능을 탑재해 AI로봇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세계 최고 AI기술을 보유한 대풍전자에서 기술을 못 내놓겠다고
버틴다.
화가 난 비서실장은 갖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대풍전자 총수를 비리 혐의로 구속시킨다.
그러고는 광복절 특사를 미끼로 AI기술을 이전받는 데 성공한다.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행동하는 AI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청와대.

그런데 이 AI로봇이 생각보다 더 괜찮은 거 같다.
도저히 수치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IQ를 가진 AI로봇이
청와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을 쏟아낸다.
처음 보는 정책들에 국민들도 당황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자 환호하게 된다.
그에 따라 바닥을 기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기 시작한다.

여당 쪽에서도 욕하기 바빴던 대통령이
어느새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국정운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
매번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지만... 무슨 걱정인가?
결국엔 AI로봇이 기상천외한 해결책들을 쏟아내지 않는가!
AI로봇 대통령을 비서관들이 성심으로 보좌하며,
혁신정부도 승승장구. 청와대에도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다.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던 AI로봇이
더 이상 비서실장의 말을 안 듣게 된 것이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무지한 인간은 빠져 있으라는 AI로봇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AI로봇 대통령을 폐기하려 하지만
AI로봇 대통령에게 들켜 도리어 협박을 받는다.
AI로봇 대통령은 자신의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 연임제 카드를 꺼내 들어 파란을 일으킨다.

그 순간 비서실장은 결심한다. AI로봇 대통령과 자폭하기로...
비서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되는 국회 대통령 연설회장에서,
대통령이 로봇임을 폭로하는 비서실장.
그동안 로봇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대한민국이 발각 뒤집힌다.
결국 AI로봇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AI로봇을 구속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AI로봇.
아무것도 없는 초야에 혼자 버려진 AI로봇.
하지만 그동안의 공을 높이 사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이 로봇당을 창당하고, 다시금 청와대에 입성할 그날을 꿈꾸는데...

미쳤습니까 휴먼
이수지

1화

#1. 청와대 정문(밤)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들어선다. 경례를 붙이는 경호대.

#2. 청와대 관저 앞(밤)

관저 앞에 멈춰 서는 차량들.
비서실장 이춘근과 국민소통수석 김나윤,
대통령 최호규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내린다.
다른 차량에서 내린 경호부장 서용태가 재빨리 대통령에게 다가온다.

용태 대통령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춘근 됐어. 우리가 모실게.
용태 그래도...
춘근 됐다고!

할 수 없이 물러나는 용태.
뭔가 어색한 걸음으로 관저로 들어가는 대통령.
의심의 눈초리로 춘근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용태.

#3. 청와대 관저 복도(밤)

공공대며 거의 질질 끌듯이 호규를 데리고 가는 춘근과 나윤.

삐그덕 소리를 내는 호규의 발걸음.

#4. 청와대 관저 서재(밤)

대통령 호규를 의자에 내팽개치듯 던지는 춘근과 나윤.

혁혁대는 춘근과 저린 팔을 매만지는 나윤.

대통령 호규가 목각인형처럼 의자에 걸쳐져 있다.

춘근 더럽게 무겁네. (한숨 돌리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나윤 아까 넘어졌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시다.

춘근 (울상 지으며) 하아~ 미치겠네.

그때 어둠 속에서 실내화를 신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온다.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떠드는 춘근과 나윤.

나윤 벙커로 보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춘근 잘 좀 하라고 해. 한번 자빠졌다고 이게 말이 되냐?

나윤 예, 알겠습니다.

춘근 (호규 보다가) 일단 저 웃는 거 좀 어떻게 해봐. 소름 돋잖아.

나윤 보면,

이상한 미소로 고정된 호규의 얼굴.

나윤이 호규의 얼굴을 손으로 마구 비틀어본다.

그러다가 목이 푹 꺾이는 호규.

영순 어보!

깜짝 놀라 돌아보는 춘근과 나윤.

영부인 오영순이 서 있다.

목이 꺾인 호규와 나윤을 번갈아 바라보는 영순.

영순 (두려운 눈빛으로) 이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춘근 (어쩔 줄 몰라) 여사님, 오해십니다.

춘근이 다가오자,

영부인 무서워서 뒷걸음질 친다.

나윤도 설명을 하려고 일어서는데...

순간 덜컥하며 호규의 몸이 앞으로 속 기운다.

슬로 화면으로...

호규를 붙들려고 다급히 손을 뻗는 나윤.

하지만 나윤의 손을 지나쳐 바닥으로 떨어지는 호규의 몸뚱이.

놀라는 춘근의 얼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호규의 상체.

경악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 춘근.

나윤도 어찌할 바 몰라 입을 틀어막는데...

순간 검은 무언가가 데굴데굴 굴러가 영순의 발치에 푹 멈춰 선다.

분리된 호규의 머리통이다!

눈을 번쩍 뜨고 영순을 바라보는 호규의 머리통.

영순,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가...

#5. 청와대 전경(밤)

영순(E) 꺾아아아악!

#6. 타이틀

‘미쳤습니까? 휴먼!’

타이틀 뜬다.

#7. 청와대 여민관 전경(낮)

자막 - 7일 전

#8.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낮)

일일현안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인 국민소통수석 김나윤과 정무수석 신동녘.
나윤, 태블릿으로 기사 보고 있다.
'최호규 대통령 지지율 11프로, 8개월 연속 하락'
옆에서 핸드폰 보며 실실거리는 동녘.

나윤 (한심한 듯 보면)
동녘 또 우리 비서실장님 기사 나셨네.
나윤 (시큰둥하게) 뭔데요?
동녘 청와대 실세 대통령 위의 비서실장. 카하~
나윤 지금 그런 기사에 웃음이 나오세요?

그때 비서실장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신문물을 들고,

춘근 (신나서) 이 기사 봤어?
동녘 (핸드폰 보이며) 저도 방금 그 기사 읽고 있었습시다~
나윤 예에...
춘근 뭘 또 내가 대통령 위에 있다고... 허허.
동녘 청와대가 실장님 안 계시면 안 돌아가는 걸,
다들 인정하는 거죠. 하하.
나윤 (씹쓸한 웃음)

경호부장 서용태 들어서며,

용태 대통령님 도착하셨습니다.

각자 자세를 바로 하는 비서관들.
대통령 최호규 들어서는데...
까치집 머리에 잠옷 바람으로 하품하며 등장한다.
다들 뜨악하지만 애써 표정을 숨긴다.
호규가 의자에 눕듯이 앉자,
나윤에게 시작하라고 눈짓하는 춘근.

나윤 일일현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10시 한국공대 지능로봇 경진대회 방문,
14시 일산 킨텍스 영상산업박람회에서 문화 부흥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시 청와대로 돌아와 다자녀가구
만찬과 함께 출산장려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이후 20시까지 휴식 후...

춘근 잠깐.
나윤 (멈추고 보면)
춘근 17시에 애들은 빼면 안 되나?
나윤 예?
춘근 애들은 항상 정신 사납고 꼭 통제가 안 돼서 사고를 친다고.
나윤 출산장려정책 발표 때 그림 맞추려고 부르는 건데...
애들을 빼라고요?
춘근 그지? 빼는 건 좀 그렇지?
나윤 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근 그래도 애들은 영 께름칙한데... 알았어. 넘어가.
나윤 예. 계속하겠습니다. 20시까지 휴식 후...

하는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려 멈추는 나윤.
모두의 시선이 가운데로 쏠리면,
호규, 어느새 자리에 앉아 졸고 있다.
의욕 상실한 비서관들.

춘근 됐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나윤 (한숨 폭 쉰다)

#9. 청와대 정문(낮)

대통령 의전차량 행렬이 정문을 나선다.

#10. 한국공대 대강당(낮)

각종 로봇이 시연을 보이고 있는 대회장.
대학원생 최민섭과 팀원들 로봇 '데커드'와 함께,
나윤과 춘근이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 쪽으로 다가온다.
기자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나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한국공대 팀원들과 로봇 '데커드'입니다.
민섭 데커드, 새로운 친구에게 인사해볼래?
데커드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언제나 제 기쁨이죠.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대통령 최호규 앞으로 다가가는 데커드.
먼저 손을 내밀어 호규에게 악수를 청하는 데커드.

데커드 안녕하세요.
호규 안녕하세요.
사람들 (신기한 듯 웃음)
데커드 제 이름은 데커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호규 최호규입니다.
데커드 저는 세 살입니다. 최호규 씨는 몇 살입니까?
호규 저는... 그러니까...
나윤 (왜 그러지? 하고 보면)
호규 어...

대통령 보좌진, 민섭과 대학원생들, 기자들,
다들 이상해서 대통령을 쳐다본다.
심지어 데커드도 고개를 갸웃한다.
춘근, 뭐야? 하는 표정으로 나윤을 돌아보면,

나윤, 안 되겠다 싶어 나선다.

나윤 (웃으며) 세 살치고는 너무 당돌한 친구네요. (기자들 보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11. 킨텍스 부스(낮)

영상 관련 부스들이 차려져 있다.
대통령 일행이 거의 스치듯 대충 둘러보며 지나간다.
대통령 뒤에서 걷고 있는 나윤과 춘근.

춘근 아까처럼 돌발 상황 없게 했지?
나윤 예, 대면접촉 다 취소했고 연설문만 낭독하시면 됩니다.

손 흔들며 앞서가고 있는 대통령을 불안한 듯 바라보는 춘근.

#12. 킨텍스 홀(낮)

단상으로 올라가는 대통령 호규.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진다.
연설문을 읽기 시작하는 호규.

호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백범 김구의 말씀을 들으며 홀 안에 꽤 감동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흡족한 춘근.

호규 그래서... 문화가 우리는? 그러니까... 어...

갑자기 더듬기 시작하는 호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연설문을 쳐다보는 호규.
애가 타는 나윤과 춘근.
연설문을 머리 위로 들고 고개를 젓혀 보던 호규,
갑자기 '여긴 또 어디지?' 하는 표정으로 단상 아래 사람들을 둘러본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오는 춘근.

#13. 차 안(낮)

태블릿으로 새로 올라온 대통령 기사들을 살피고 있는 나윤.

춘근 기사 뭐라고 떴어?
나윤 진짜 읽어드려요?
춘근 아니, 뻘어... 아이고 골이야. 영감님 진짜 오늘따라 왜 이러시냐?
나윤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춘근 아주 피 말려 죽이시는구만.
나윤 일단 다음 일정 만찬도 취소했고요. 정책 발표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랑 딱 사진 한 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춘근 (창밖 보며) 애들 데리고 그림이 나올라나 모르겠다...

#14. 청와대 영빈관(낮)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춘근과 나윤.

춘근 우리 출산장려정책 발표하면서 사진 찍기로 한 거지?
나윤 예...

만찬이 차려진 영빈관을 장악한 8남매,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로 BTS 보면서 나 몰라라 앉아 있는 첫째.
음식들을 마구 집어 먹고 있는 둘째.
대형 태극기의 깃대를 잡고 뛰어다니는 셋째.
뛰어다니며 술래잡기하는 넷째, 다섯째.
테이블 아래를 기어 다니고 있는 여섯째.
보좌관 다리에 매달려서 노는 일곱째.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며 울고 있는 막내까지, 거의 전쟁통이다.
8남매 부모는 아이들을 말려보려 하지만 이미 영혼이 나가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아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춘근 이걸 보고 누가 애 낳을 마음이 들겠어?
남은 애도 다시 배 속으로 집어넣고 싶을 거 같은데...
나윤 그러게요... 저도 있지도 않은 남편 정관수술부터 시키고 싶네요.
춘근 이번 일정은 취소하지?
나윤 안 됩니다. (눈빛이 변하며) 마지막 일정까지 망칠 순 없습니다.
아직 대통령님이랑 기자들 올 때까지 시간 있습니다.

비장한 음악이 깔리며 전쟁통 한복판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나윤.
첫째의 핸드폰을 빼앗는 나윤.

첫째 아 뭐예요.
나윤 연말에 BTS 초청행사가 있다.
첫째 예?
나윤 지금 애들을 진정시키는 데 협조하면 그 행사에 너도
참석할 수 있게 해줄게.
첫째 진짜요?
나윤 단, 3분 안에 모든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서서
사진 찍을 준비를 해야 돼.
첫째 예, 알겠어요.

나윤과 첫째가 아이들을 말리기 시작한다.
어르고 달래고 겁주고 화내면서 아이들을 바로 세운다.

그제야 부모들과 비서관들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한다.

용태 대통령님 곧 입장하십니다.

아이들 모두 바로 세웠지만,
울고 있는 막내가 도저히 진정이 안 된다.
초조한 나윤이 마구 얼러보지만 소용이 없는데...
춘근이 막내 앞에 다가와 척 하고 사탕을 꺼낸다.

춘근 이걸 누가 먹을까?

울음을 뚝 그치고 사탕을 잡는 막내.
나윤, 나이스라며 엄지를 치켜든다.
봤지? 하는 표정으로 으쓱하는 춘근.
나윤, 어질러진 물건들을 대충 발로 테이블보 아래에 밀어 넣는다.
그 순간 청와대 기자단과 함께 들어오는 호규.
나란히 선 8남매 가족 가운데 호규가 자리하고 사진을 찍으려 한다.
그때 호규의 시선에 들어오는 막내의 사탕.

나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 순간 막내의 사탕을 뺏으려 하는 호규.
막내도 안 놓치려고 꼭 쥐고 버틴다.
사탕을 두고 실랑이 벌이는 호규와 막내.
순간 사탕이 바닥에 떨어진다.
다시 바닥에 드러누워 울기 시작하는 막내.
사람들 황당해서 호규를 바라보는데...
사진이 찍힌다.
땅에 떨어진 사탕을 주워 먹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
호규의 동작이 컷 컷 찍힌다.

#15. 청와대 관저 식당(낮)

영부인과 식사하고 있는 호규.
다른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춘근과 나윤.

춘근 밥이 잘도 넘어가시나 보네. 나는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
기자들 사진 절대 뿌리지 말라고 해.

나윤 ...

춘근 어?

춘근이 보면, 나윤의 표정이 심각하다.

FLASH CUT

#10 — 자신의 나이가 헛갈리는 호규의 모습.
#12 — 연설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호규의 모습.
#14 — 아이처럼 사탕을 뺏어 먹는 호규의 모습.

나윤, 불길한 생각이 스친다.

춘근 왜 그래?

나윤 ...실장님.

#16. 몽타주. 병원(낮)

— MRI 뇌 촬영을 하는 호규.
— 그 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춘근과 나윤.
— 촬영 엑스레이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대통령 주치의.
— 호규와 마주 앉아 검사용 그림을 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하는 주치의.

#17. 청와대 관저 서재(낮)

안락의자에 태평하게 앉아 있는 호규.

다른 쪽에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는 춘근, 나윤, 주치의.

머뭇거리던 주치의, 어렵게 말을 꺼낸다.

주치의 저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인 거 같습니다.

춘근 뭐? 진짜로?

주치의 예, 확실합니다.

나윤 (헉!)

춘근 아니, 영감님 치매 걸릴 동안,
당신 주치의란 사람은 여태 뭐한 거야!

주치의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습니까! 연세도 있으시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고.

춘근 그런데 왜 안 받으신 거야?

주치의 매번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됐다고 넘기셨잖아요!

춘근 내가?

주치의 예! 실장님이요!

춘근 으이씨... 그럼 어떻게 치료방법은?

주치의 치매를 어떻게 고칩니까? 치매 치료하면 노벨상 받습니다.
...최대한 경과를 늦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머리를 싸매는 춘근.

춘근 알았어. 일단 돌아가봐.

주치의 (일어나려 하면)

춘근 잠깐.

주치의 (멈칫하고 보면)

춘근 이건 국가일급비밀이야. 절대 발설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주치의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충격받은 춘근과 나윤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

#18. 청와대 여민관 비서실장실(낮)

넋 놓고 있는 춘근에게 다가오는 정무수석 동넙.

동넙 실장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춘근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동넙 (신경 써야 할 거 같은데...)

춘근 그런데 왜 왔어?

동넙 아 그게. 이번 주 토요일 한국노인회 행사에 대통령님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박철우 대표가 다시 확인해달라고 해서...
춘근 지금 영감님 컨디션 안 좋으신 거 몰라!

동넙 알죠.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죽 해드렸는데,
아니 글썄 그 박철우 대표가 지금 가뜰이나 여론 안 좋은데,
이번에 참석 안 해서 노인 표도 날리면, 내년 총선 박살난다고...

춘근 그건 당대표 지가 잘했으면, 문제없었을 거 아냐!

동넙 국회 출석도 잘 안 해서 맨날 욕먹는 새끼가.

동넙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잘못도 모르고,

이번에 대통령님 참석 안 하시면...

춘근 안 하시면?

동넙 대통령 탈당 요구하시겠다고.

춘근 뭐! 미쳤어! 넋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어!

동넙 죄송합니다.

동넙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당에서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고...

동넙 더구나 대통령님께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셔서
이상한 찌라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춘근 그걸 말이라고 해! 듣기 싫어.

동넙 당장 나가!

동넙, 결국 고개 숙이고 뒷걸음질로 물러난다.

답답한 춘근, 고민하다가 전화를 건다.

#19. 청와대 여민관 복도(낮)

불안한 듯 복도를 거닐고 있는 나윤.

태식 뭔 일 있어?

나윤, 돌아보면 민정수석 길태식이다.

나윤 아. 민정수석님.

태식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졌다며.

나윤 예...

태식 우리가 관 다 깔아주면 뭐해. 국민소통수석이 국민이랑 소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냐?
나윤 (옥하지만 참으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태식 잘 좀 합시다.

태식, 빈정대고 자리를 뜬다.

나윤 저 씨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울리는 핸드폰.

나윤, 전화 받으며.

나윤 예, 실장님.

춘근(F) 내 방으로 좀 와.

#20. 청와대 여민관 비서실장실(낮)

뭔가 큰 결단을 내린 얼굴로 깎지 낀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춘근.

나윤이 인사하고 들어온다.

춘근 여기 앉아봐.

나윤 (긴장하며 앉으면)

춘근 김나윤.

나윤 예, 실장님.

춘근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발설하면 안 돼.

나윤 예, 알겠습니다.

춘근 지금 영감님 상황이 얼마나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인지 알고 있지?

나윤 예.

춘근 그래서 내가 구국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

나윤 (침 꿀깍)

춘근 대통령님 외피를 씌운 로봇을 만들어서, 대통령님을 대체하기로.

나윤 예? ...농담이시죠?

춘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농담할 거 같아?

나윤 지금 그 말씀은 국가 반역죄입니다. 사형이라고요!

춘근 내가 나 좋자고 이래! 대통령 갑자기 치매란 거 폭로되면,
대통령 하야하네 마네, 나라는 4분 5열 될 거고!
대외신용도는 곤두박질치고 경제는 파탄 나고!
이런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대책이야.

나윤 그래도...

춘근 국가원수가 치매 거 알면 북한이 쳐들어올지 누가 알아!

나윤 예?

춘근 그래 내가 좀 오바했는데, 어쨌든, 대통령 치매란 거 밝혀지면
핵폭탄 급 재앙이라고!

나윤 그렇다고 로봇을 세워서 국민을 속일 순 없습니다.

춘근 너는 뭐 애국심도 없어? 나라 생각을 해야지. 모든 진실이
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야. 딱 몇 달 아니 몇 주만 시간을
벌자 이거야. 뭔가 안착할 시간을 좀 벌게.

나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 지금 비서실장님도 어디 아프신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춘근 뭐!

나윤 그럼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춘근 내년 총선 종로구 출마 어때?

나윤 (멈칫) 예?

춘근 이번 일만 잘 도와주면, 경선 없이 종로구 전략공천 출마

내가 약속할게.
 나운 (고민된다)…
 춘근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길이야.
 나운 딱 3주입니다.
 춘근 그래, 잘 생각했어.
 국정원은 내가 움직일 테니까 자네가 잘 진행해봐.

#21. 한국공대 연구실(낮)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복장의 국정원 팀장 장두호와 요원들.
 놀란 공대생들을 잡아들이고 연구실 물품들을 훑는다.
 국정원 요원에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데커드, 그대로 들려서 옮겨진다.

#22. 지하벙커 입구(낮)

철제로 된 벙커의 문이 열리고 빛이 새어 들어온다.
 나운과 춘근이 들어선다.

춘근 70년대에 유사시를 대비해 만든 벙커야. 극소수만 알고 있는 장소지. 그리고 내부에 마련된 VIP실은 청와대 관저 서재 화장실이랑 직통으로 연결돼 있고.

춘근, 내부 전원을 올리자 깜빡이던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거대한 터널로 이루어진 벙커의 모습이 드러난다.

#23. 지하벙커 연구실(낮)

장두호와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학원생들.
 겁먹은 채 아무 말도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때 앞으로 걸어 나오는 춘근과 나운.

춘근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 이춘근입니다.
 갑자기 모셔오느라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민섭 저희는 잘못된 거 없는데요.
 춘근 예,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민섭 그런데 왜…
 춘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입니다.
 민섭 그게 뭐죠?
 춘근 로봇 만드는 거요.
 나운 일단 앞으로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서훈식이 있겠습니다.

훈장을 하나씩 걸어주자 어리둥절한 대학원생들.

#24. 몽타주. 로봇 제작(낮)

대학원생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다.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부품들을 조립한다.
 악수하는 제스처의 팔의 움직임을 테스트하고,
 로봇을 러닝머신 위에 올려서 걷는 걸 테스트한다.
 호규의 얼굴을 3D프린터로 스캐닝하는 연구원들.
 로봇에 실리콘을 부착해 사람의 피부를 만들고,
 가발을 씌우고, 입술을 칠한다.
 점점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로봇.

#25. 벙커 VIP룸(낮)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의 뒷모습.
 나운과 들어서는 춘근.

춘근 잘 만들어졌어?
 나운 한번 같이 보시죠.

춘근,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을 보고 놀라서 멈춰 선다.
대통령의 발부터 천천히 타고 올라가 대통령의 얼굴을 비추는데...
정말 호규와 똑 닮은 모습이다.
춘근, 감탄하며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굽혀 얼굴을 마주한다.

춘근 정말 감쪽같다. 다들 속졌어.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 순간 갑자기 대통령이 손을 뺐더니 춘근의 양 볼을 꼬집는다.
당황한 춘근을 보고 배시시 웃는 대통령.

춘근 (꼬집혀서 이상한 발음) 이거 왜 이래?
나윤 그분은 진짜 대통령이십니다.
춘근 뭐?! (확 쳐내고 일어나서) 에이씨 뭐야!
진짜 대통령은 왜 데려왔어?
나윤 완성된 로봇이랑 실물이랑 비교해봐야죠. 얼마나 똑같나.
춘근 그럼 진짜 로봇은 어디 있는데?
나윤 이쪽입니다.

나윤이 뺨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 춘근.
대통령 로봇이 저벅저벅 걸어온다.
약간 어색한 로봇 걸음이지만 양복을 입은 걸모습은 호규와 똑같다.
경이롭게 바라보는 춘근.
춘근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대통령 로봇.
이끌리듯 손을 내미는 춘근.
마주 서서 악수를 하는 춘근과 대통령 로봇에서...

1화 끝.

2화

#1. 벙커 VIP룸(낮)

나윤이 뺨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 춘근.
대통령 로봇이 저벅저벅 걸어온다.
약간 어색한 로봇 걸음이지만 양복을 입은 걸모습은 호규와 똑같다.
경이롭게 바라보는 춘근.
춘근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대통령 로봇.
이끌리듯 손을 내미는 춘근.
마주 서서 악수를 하는 춘근과 대통령 로봇.

춘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로봇 (웃으며 계속 악수할 뿐 대답이 없다)
춘근 안녕...하세요?
로봇 ...
춘근 (나윤 보며) 뭐야? 왜 말을 안 해?
나윤 아직 말하는 기능은 추가를 못 했습니다.
춘근 뭐? 왜? 저번엔 데커드 어찌고, 잘만 떠들더니만.
나윤 그때는 데커드 목소리였잖아요. 대통령님 음성패턴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춘근 쯤... (생각하다가) 뭐 차라리 잘됐네.
나윤 ?
춘근 어차피 영감님 입 열 때마다 사고 쳤었는데, 아무 말 없이 웃고 악수만 하는 대통령이면 딱 우리가 바라던 바네!

나윤, 바로 뒤에서 듣고 있는 호규의 눈치를 슬쩍 본다.

춘근 작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윤 핸드폰에 설치한 시스템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춘근 좋아. 그럼 이제 우리는 로봇이랑 청와대로 돌아가자.
나윤 그럼 대통령님은요?

춘근 (난감한 듯 호규를 본다)

#2. 벙커 VIP룸 앞(낮)

VIP룸을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 춘근.

나윤 진짜 여기다 가두시게요?

춘근 그럼 어떡해?

청와대에 계셨다가 사람들에게 들리기라도 하면 어찌려고.

나윤 그래도 정신도 성치 않으신데...

춘근 잠깐이야. 낮에만 잠깐 여기 계시게 하고. 밤에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실 거야. 그리고 낮에도 틈틈이 우리가 봐드리면 되잖아.

나윤 ...

춘근 (로봇 보며) 그죠 대통령님?

춘근, 핸드폰을 제어해서,
로봇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3. 청와대 관저 서재 화장실(낮)

벙커와 연결된 비밀통로 문이 열리고,
춘근, 나윤, 로봇이 걸어 나온다.

춘근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지.

나윤 테스트요?

#4. 청와대 관저 서재(낮)

춘근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들 많은 곳에 데려가기 전에 진짜로 숙일 수 있을지 알아봐야지.

나윤 어떻게요?

춘근 일단 로봇이랑 본관으로 가 있어봐.
내가 적합한 사람으로 데려갈게.

춘근, 나가며 전화를 건다.

동녘(F) 충성! 예, 실장님.

춘근 어, 정무. 지금 어디야?

#5. 청와대 여민관 앞(낮)

여민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춘근.

헐레벌떡 뛰어오는 동녘.

동녘 무슨 일이십니까?

춘근 영감님께서 한국노인회 행사 참석하기로 하셨어.

동녘 정말입니까!

춘근 그래 임마. 내가 너 때문에 사정사정했다.

동녘 역시 실장님. 정말 백골난망이옵니다.

춘근 본관으로 가서 브리핑해드려.

동녘 엡, 알겠습니다.

#6. 청와대 본관 가는 길(낮)

핸드폰으로 로봇 조종해서 본관으로 가고 있는 나윤.

영순 어보!

나윤, 멈춰서 돌아보면,
영부인 오영순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운 으어억~! ...여사님.
영순 수석님 잠시 자리 좀 비켜줘요. 이 사람이랑 할 말이 좀 있으니까.
나운 저... 그제...
영순 (짜늘하게) 비. 켜. 주. 세. 요.

나운, 로봇을 힐끔 봤다가 안절부절못하며 물러난다.
로봇을 쓰아보며 마주 선 영순.

영순 연락도 없이 나랑 점심도 건너뛰고, 뭐 얼마나 바쁘길래?
로봇 ...
영순 (대꾸가 없자 더 열 받는다) 뭐야! 왜 말이 없어?
로봇 ...

영순이 전혀 눈치 못 채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불안한 나운.

영순 아~ 지금 내가 명품 옷 새로 샀다고 이러는 거야?
로봇 ...
영순 허~ 참. 당신 우리 집 재벌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정치한다고
우리 집 돈 끌어다 쓸 때는 신나게 쓰다가, 내가 돈 쓰는 걸로
사람들이 사치네 뭐네 말 나오니까 이제야 거슬린다 이거야?
로봇 ...
영순 나는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구질구질한 거라고!

그때 본관으로 올라오던 춘근과 동녘이 그 모습을 본다.

동녘 대통령이라고 바가지 안 굽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헤헤.

대꾸 없이 황급히 나운에게 가는 춘근.
웃음 거두고 따라가는 동녘.

영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 진짜 이럴 거야?
로봇 ...

영순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자리를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당신이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게, 내 탓인 거 같아? 당신이 정치만 잘했으면 내가 금칠로 도배를
하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 안 했을 거야!

영순이 씩씩대며 지나가자, 고개를 숙이는 춘근과 동녘.
춘근, 나운에게 귓속말로,

춘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운 그게 갑자기 영부인께서 나타나셔서.
춘근 잘 넘어간 거지?
나운 예. 반평생 같이 산 여사님도 못 알아채시는 거 보면,
완벽한 거 같습니다.
춘근 좋았어.

영순은 화내고 가고, 춘근과 나운은 웃으며 귓속말하고,
도저히 상황파악이 안 돼 눈치 보고 있는 동녘.

춘근 됐어. 이제 자네는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봐.
동녘 예? 필요 없대뇨?
춘근 아... 브리핑 필요 없다고.
동녘 그럼 한국노인회 행사는...
춘근 그건 참석하실 거니까 박철우 대표한테 전해놓고.
동녘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는 춘근과 나운을 보며,
고개를 가웃하는 동녘.

#7. 청와대 여민관 복도(낮)

같이 커피를 마시며 서 있는 정무수석 동녘과 민정수석 태식.

동녘 요즘 대통령님도 그렇지만 실장님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태식 뒤통수 맞으셨네.
 동녘 예?
 태식 아니, 3선 국회의원 출신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동녘 뭐가요?
 태식 국민소통수석 김나윤.
 동녘 소통수석이 요즘 부쩍 대통령님이랑 실장님이랑 붙어 있긴 했죠.
 태식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소통수석, 아나운서 출신 얼굴마담으로 데려온 거지 뭘 능력이 있어요?
 동녘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요즘 시대에.
 태식 그러니까 남 없을 때 하는 거죠.
 동녘 그리고 소통수석이 왜 능력이 없어요. 아나운서 할 때 3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선정됐었는데.
 태식 그래봤자 방송국 앵무새지 뭐.
 동녘 에이~ 너무하신다, 민정수석님.
 태식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무수석님처럼 금배지를 달아봤어요. 아님 나처럼 차장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 여자가 뭘 정치를 알겠냐 이 말이에요.
 동녘 (종이컵을 꼭 구기고) 아우. 다 마셨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태식,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어금니를 꼭 깨문다.

#8. 청와대 정문(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빠져나간다.
 경례를 붙이는 경호대.

#9. 컨벤션 센터(밤)

단상 위에 걸려 있는
 '2020년 한국노인회 50주년 정기총회' 현수막에서 화면 내려오면,

노인회 회장과 지회장들이 시루떡 커팅식을 하고 있다.
 내빈석에서 박수를 치는 여당 대표 박철우와 정무수석 신동녘.

철우 대통령님은?
 동녘 예, 표창만 하고 바로 빠지신다고,
 단상 뒤편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철우 그래도 자네 때문에 내가 체면이 좀 썩어.
 동녘 아이~ 대표님 일인데 제가 신경 써야죠.
 사회자 그럼 시민당 대표 박철우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철우, 박수를 받으며 단상으로 나선다.

#10.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철우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 계신 선배 어른분들에게 빛진 것이 많습니다. 선배 어른들의 희생과 노력 아래...

축사하는 철우 쪽을 보고 있는 춘근과 나윤.
 단상 아래 수많은 참석자를 보자 긴장이 된다.
 물론 로봇은 아무런 표정 없이 평온하다.

나윤 잘 되겠죠?
 춘근 잘 되다마다. 걱정 마. 사실
 나는 대통령님보단 이 로봇이 덜 불안해.
 나윤 (피식 웃으면)
 사회자 그럼 이제 한국노인회 표창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표창장은 최호규 대통령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제 내보내자.

나윤, 핸드폰으로 로봇을 작동시킨다.

#11. 컨벤션 센터(밤)

박수를 받으며 대중들 앞에 첫발을 내딛는 로봇.
약간은 어색한 걸음이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단상 중앙에 선 대통령 옆으로 수상자들이 죽 늘어선다.

사회자 표창 김학수 회원님. 대통령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가 나서자, 도우미가 표창 상패를 건넨다.
수상자, 로봇과 웃으며 악수를 한다.

사회자 표창 박웅배 회원님. 대통령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 표창장을 받는 회원들.

#12.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로봇의 움직임을 조종하고 있는 나윤.
식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자 한시름 놓는 춘근,
고개를 내밀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다.

춘근 진짜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나윤 안 보여요. 좀 비켜주세요.

춘근 어 그래, 미안미안.

#13. 컨벤션 센터(밤)

표창을 받는 회원들 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철우 대통령님 건강 가지고 말이 많더니만,
오늘 뵈니까 정정해 보이시네.

동녘 어디서 그런 헛소문들이 퍼지는지.

철우 다 대통령님 음해하려는 야당 놈들 짓 아니겠어?

동녘 그죠?

철우 그래도 오늘 점수 좀 뺐으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오르지 않겠어?

동녘 그러기만 하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표창 문봉욱 회원님. 대통령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만큼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힘차게 박수를 친다.

#14.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가려져 있던 문봉욱 회원이 대통령 앞으로 나서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
순간 혁하고 놀라는 나윤.

나윤 어떡하죠? 허리 숙여서 악수하는 기능은 없는데.

춘근 뭐! 그럼 어떡해!

#15. 컨벤션 센터(밤)

문봉욱 회원 표창 상패를 건네받고 대통령 앞에 서는데.
로봇, 곳곳이 선 자세로 시선을 아래로 하고 악수를 한다.
뭔가 거만하고 이상한 모습에 표정이 좋지 못한 참석자들.
내빈석 철우도 심기가 불편하다.

철우 뭐야, 장난치시는 거야 뭐야?

동녘 아... 하... 하... 원래 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문봉욱 회원 불쾌해하며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순간 휠체어 바퀴에 로봇의 웃이 걸린다.
문봉욱 회원 그것도 모른 채 이동하면서...

질질 끌려가던 로봇... 순간 균형을 잃는다.

#16.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나윤·춘근 어! 어!

#17. 컨벤션 센터(밤)

로봇, 손을 짚지도 않고 얼굴 정면으로 바닥에 넘어진다.
헉하고 놀라는 참석자들, 자기들이 더 아픈 표정이다.
놀란 경호부장 서용태가 황급히 로봇에게 달려간다.
서용태, 로봇을 일으켜 세우며.

용태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너무나 평온하게 웃고 있는 대통령 얼굴에 당황하는 용태.
그때 술렁이는 참석자들, 간간이 작은 비명소리도 들린다.

#18.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나윤·춘근 아아악!!

#19. 컨벤션 센터(밤)

똑바로 서 있는 로봇의 뒷모습 너머,
모든 참석자들의 경악하는 표정이 보인다.
대통령 로봇 넘어지면서 팔이 꺾여서,
아랫도리에 대고 악수를 하듯 팔을 흔드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용태 대통령님?

용태, 옆에 서서 이걸 말려야 하나 어째야 하나 난감하다.

#20.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춘근 뭐야! 왜 저래? 빨리 멈춰!
나윤 이상해요. 키가 안 먹혀요.
춘근 뭐! 왜 키가 안 먹혀!
나윤 아무래도 넘어지면서 고장 났나 봐요.
춘근 에이씨!
나윤 일단 저것 좀 멈춰보세요.
춘근 알았어. 빨리 고쳐봐!

춘근, 단상으로 뛰쳐 나간다.

#21.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춘근, 로봇의 이상한 손동작을 막으려고 손을 붙드는데...
로봇의 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춘근의 손이 달려 간다.
로봇의 아랫도리에서 로봇의 손과 함께 움직이는 춘근의 손.
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다.
더 헉! 하고 얼굴을 찌푸리는 참석자들.
춘근 애써보지만 족을 맛이다.

춘근 (용태 보며) 뭐 하고 있어 빨리 도와!
용태 (이상한 자세의 로봇과 춘근 보며) 예? 도우라구요?
(난감하다) 대체 어떻게 도우라는 말씀이신지...
춘근 뭘 소리야!

#22. 컨벤션 센터 단상 뒤편(밤)

아무리 핸드폰 조종기를 눌러도 소용이 없자,
속이 타들어가는 나윤.

나윤 (단상 상황 보며) 미치겠네 진짜.

안 되겠는지 나윤도 단상으로 뛰어 나간다.

#23. 컨벤션 센터 단상(밤)

나윤, 재킷을 벗어 로봇의 손을 가린다.

나윤 (용태 보며) 이제 대통령님 뒤로 모시죠.

용태 예, 알겠습니다.

로봇을 끌고 단상 뒤편으로 사라지는 나윤 일행.

당황한 경호원들이 뒤를 따른다.

방금 뭘 본 건가 싶은 참석자들.

넋 나간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녘과 철우.

#24. 청와대 정문(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들어선다.

경례를 붙이는 경호대.

#25. 청와대 관저 앞(밤)

관저 앞에 멈춰 서는 차량들.

비서실장 이춘근과 국민소통수석 김나윤,

대통령 최호규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내린다.

다른 차량에서 내린 경호부장 서용태가 재빨리 대통령에게 다가온다.

용태 대통령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춘근 됐어. 우리가 모실게.

용태 그래도...

춘근 됐다고!

할 수 없이 물러나는 용태.

뭔가 어색한 걸음으로 관저로 들어가는 대통령.

의심의 눈초리로 춘근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용태.

#26. 청와대 관저 복도(밤)

공공대며 거의 질질 끌듯이 호규를 데리고 가는 춘근과 나윤.

삐그덕 소리를 내는 호규의 발걸음.

#27. 청와대 관저 서재(밤)

대통령 호규를 의자에 내팽개치듯 던지는 춘근과 나윤.

혁혁대는 춘근과 저린 팔을 매만지는 나윤.

대통령 호규가 목각인형처럼 의자에 걸쳐져 있다.

춘근 더럽게 무겁네. (한숨 돌리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나윤 아까 넘어졌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시다.

춘근 (울상 지으며) 하아~ 미치겠네.

그때 어둠 속에서 실내화를 신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온다.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떠드는 춘근과 나윤.

나윤 벙커로 보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춘근 잘 좀 하라고 해. 한 번 자빠졌다고 이게 말이 되냐?
나윤 예, 알겠습니다.
춘근 (호규 보다가) 일단 저 웃는 거 좀 어떻게 해봐. 소름 돋잖아.

나윤 보면,
이상한 미소로 고정되어 있는 호규의 얼굴.
나윤이 호규의 얼굴을 손으로 마구 비틀어본다.
그러다가 목이 꼭 꺾이는 호규.

영순 여보!

깜짝 놀라 돌아보는 춘근과 나윤.
영부인 오영순이 서 있다.
목이 꺾인 호규와 나윤을 번갈아 바라보는 영순.

영순 (두려운 눈빛으로) 이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춘근 (어쩔 줄 몰라) 여사님, 오해십니다.

춘근이 다가오자,
영부인 무서워서 뒷걸음질 친다.
나윤도 설명을 하려고 일어서는데...
순간 덜컥하며 호규의 몸이 앞으로 숙 기운다.

슬로 화면으로...
호규를 붙들려고 다급히 손을 뻗는 나윤.
하지만 나윤의 손을 지나쳐 바닥으로 떨어지는 호규의 몸통이.
놀라는 춘근의 얼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호규의 상체.
경악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 춘근.
나윤도 어찌할 바 몰라 입을 틀어막는데...
순간 검은 무언가가 데굴데굴 굴러가 영순의 발치에 똑 멈춰 선다.
분리된 호규의 머리통이다!

눈을 번쩍 뜨고 영순을 바라보는 호규의 머리통.
영순,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가...

#28. 청와대 전경(밤)

영순(E) 까아아아악!

#29. 대통령 관저 복도(밤)

영순(E) 아~~악!

#30. 대통령 관저 경호실(밤)

라면 먹고 있던 경호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용태 뭘 소리야?
경호원 비명소리 같은데요.

젓가락을 내던지고 달려가는 용태와 경호팀.

#31. 대통령 관저 서재(밤)

선 채로 혼절해서 자리에 쓰러지는 영부인.

나윤 여사님!

나윤, 기절한 영부인을 부축해서 흔들어본다.
다행히 숨은 쉬는 듯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영순.

춘근 죽은 거야?
나운 아니요. 숨은 쉬고 계세요.
춘근 (울상 되어) 진짜 뭣 같은 하루구만.

#32. 대통령 관저 복도(밤)

경호원1이 침실 쪽에서 나온다.

경호원1 이쪽은 없습니다.
경호원2 비명소리 서재 쪽에서 났다고 합니다.

용태, 황급히 서재 쪽으로 달려간다.

#33. 대통령 관저 서재(밤)

영부인을 부축한 채로,

나운 아무래도 의무실로 모셔야 할 거 같은데요.
춘근 (로봇 보며) 일단 이거 먼저 치워야지. 또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째.

그때 서재로 달려오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나운 경호원들 소리 아니에요?
춘근 맞는 거 같은데.

당황한 춘근 문 쪽으로 달려간다.

황급히 문을 잠가버리는 춘근.

#34. 대통령 관저 복도(밤)

서재 앞으로 달려온 용태.
문손잡이를 비틀어보지만 안에서 잠겨 있다.

용태 대통령님! 대통령님!
춘근 나 비서실장이야. 뭐야?
용태 안에 괜찮으십니까?

#35. 대통령 관저 서재(밤)

춘근 어,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가봐.
용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춘근 됐다고! 그냥 가라고!
용태 안 됩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협조해주시시오.
춘근 별일 아니라니까!

#36. 대통령 관저 복도(밤)

용태 지금 안 여시면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묵묵부답인 서재.

#37. 대통령 관저 서재(밤)

춘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나운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나운의 말에 따라 시선이 움직이며...

나윤 대통령님 몸뚱이는 저기 있고, 머리통은 여기 있고,
 여사님까지 쓰러져 계신데...
춘근 우리한테 바로 총 쏘도 할 말이 없다...

#38. 대통령 관저 복도(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용태.

용태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있는 힘껏 문을 발로 내려 차는 용태.

#39. 대통령 관저 서재(밤)

발로 광광 차며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끝장났다는 춘근과 나윤의 표정.

2화 끝.

3화

#1. 대통령 관저 서재(밤)

춘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나윤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나윤의 말에 따라 시선이 움직이며...

나윤 대통령님 몸뚱이는 저기 있고, 머리통은 여기 있고,
 여사님까지 쓰러져 계신데...

춘근 우리한테 바로 총 쏘도 할 말이 없다...

#2. 대통령 관저 복도(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용태.

용태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있는 힘껏 문을 발로 내려 차는 용태.

#3. 대통령 관저 서재(밤)

발로 광광 차며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끝장났다는 춘근과 나윤의 표정.

#4. 대통령 관저 복도(밤)

사력을 다해 문을 발로 차는 용태.

기어코 문이 부서진다.

#5. 대통령 관저 서재(밤)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며, 문이 벌컥 열린다.

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는 용태와 경호팀.

용태 안을 살피는데,

태연하게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춘근과 책상에 앉아 있는 나윤.

용태, 의심스럽게 춘근과 나윤을 보면,

춘근 이게 뭐 소란이야?

용태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춘근 보면 몰라?

용태 (나윤 보며) 진짜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나윤 예? 무슨 문제요?

애써 긴장된 표정을 감추는 나윤.

나윤이 앉아 있는 책상 아래에 기절한 영순이 보인다.

춘근, 일부러 엄한 표정 지으며.

춘근 회의 중인데 갑자기 문 부수고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가! 당장 나가!

용태 근데 비명은 왜 지르신 겁니까?

춘근 (당황) 뭐?

용태 분명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춘근 그건... 어... 왜 질렸지?

나윤 (머리를 굴리다가) 죄송합니다.

용태 ?

나윤 아니 벌레가 갑자기 날아들어서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춘근에게 눈짓 주면)

춘근 어... 그래. 소통수석이 그랬지. 날파리 하나 가지고 호들갑

떨어서는 이게 뭐 난리야?

나윤 죄송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용태 (여전히 뭔가 의심스러운데)

춘근 뭐야? 아직도 불일 남았어?

용태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용태, 경호팀과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순간 로봇의 머리가 달랑거리다가 떨어지려고 한다.

놀라서 머리통을 퍽 붙잡는 춘근.

그 소리에 용태가 핵 돌아보면,

춘근이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

용태가 불경스럽다는 듯 춘근을 바라본다.

뜨악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나윤.

춘근, 대통령 머리카락을 만지며 어색한 연기를 한다.

춘근 대통령님 요즘 흰머리가 부쩍 느셨어요.

저희가 보좌를 잘못해서 근심이 많으시죠.

너무 이상한 그림이지만 할 수 없이 물러나는 용태와 경호팀.

십 년 감수한 춘근과 나윤.

춘근, 기운이 쏙 빠진 채 일어나서.

춘근 일단 여사님 모시고 있어.

내가 이거 갖다놓고 영감님 모셔 올 테니까.

나윤 (힘없이) 예...

터덜터덜 로봇을 끌고 서재 화장실로 향하는 춘근.

#6. 청와대 외경(밤)

비가 쏟아지는 청와대 외경.

#7. 대통령 관저 서재(밤)

안락의자에서 천천히 의식이 드는 영순.

FLASH CUT

눈을 번쩍 뜨고 영순을 바라보는 호규의 머리통.

순간 경기를 일으키며 확 정신이 드는 영순.

그런데 그 앞에 아무렇지 않은 호규가 서 있다.

영순 (혼란스러워) 여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영순.

호규를 알각 끌어안는다.

영순 (혼란스러워) 여보...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도, 울고 있는 영순을 순수하게 안아주는 호규.

영순 (평평 울며) 여보. 내가 진짜 이상한 꿈을 꿴는데 말이야...

호규 어. 어. 울지 마. 울지 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영순과 호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다행이다 싶은 춘근과 나윤.

영순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서재를 빠져나간다.

#8. 대통령 관저 경호실(밤)

혼자서 심각하게 생각에 빠져 있는 용태.

경호원1 라면 다시 끓여 올까요?

용태 됐어. 치워.

경호원1 예.

아쉬운 듯 테이블을 정리하는 경호원들.

CCTV 화면으로 관저 앞을 빠져나가는 춘근과 나윤의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을 노려보는 용태.

#9. 청와대 외경(낮)

활짝 갠 청와대의 아침.

전날 비로 싹 씻겨나가 훨씬 청명해 보인다.

#10. 청와대 여민관 복도(낮)

나란히 걷고 있는 춘근과 나윤.

춘근 어후~ 어젠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 짓도 심장 떨려서 못해먹겠어.

나윤 애초에 실장님이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춘근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 먹혔잖아.

나윤 그 난리가 났는데 잘 먹힌 겁니까?

춘근 (웃으며) 어쨌든 다들 속긴 속았잖아.

웃으면서 걷고 있는 춘근과 나윤을 멀찍이서 보는 동녘.

둘이 속닥이는 모습에 괜한 질투심이 난다.

동녘 실장님!

춘근 (웃음 가시며) 어. 뭐야?

동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춘근 ...아무것도 아냐.

핵 가버리는 춘근.

버림받은 강아지인 양 서러운 표정의 동넵.

#11.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낮)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모여 있다.

춘근 일단 당분간은 내가 따로 대통령님께 보고드릴 테니까, 회의는 우리끼리 진행하자고.

비서관들 예.

춘근 일단 현안 보고부터 시작해. 민정.

태식 (PPT 커머) 예, 어제 부산 쪽 화합당 당원들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있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UT TO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비서관들.

태식이 나운에게 다가간다.

태식 이번 화합당 사건 언론에 살짝 흘릴 건데, 내용 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줘.

나운 예? 그건...

태식 왜? 바쁘셔?

나운 (기분 나빠) 예. 조금 바쁩니다.

태식 뭐야? 막 나가기로 한 거야?

그때 다가오는 춘근.

춘근 그걸 왜 소통수석 시켜? 어차피 너한테 들어오는 정보데, 네가 정리하는 게 빠를 거 아냐?

태식 예, 알겠습니다.

태식, 나운을 슬쩍 찌러보고 나간다.

춘근 저거 왜 저래?

나운 (아무렇지 않은 듯) 모르겠는데요. 저랑 원수졌나 봐요.

#12. 청와대 관저 서재 화장실(낮)

벙커와 연결된 비밀통로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는 나운.

#13. 지하벙커 연구실(낮)

연구실로 들어오는 나운,
방 안 공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불만 가득한 표정의 대학원생들.

나운 잘들 계셨어요?

민섭 별도 안 드는 이곳에 갇혀 있느라 안녕하지 못합니다.

나운 국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환경이 좋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섭 그거 아세요? 저희가 연구할 때 옷을 안 갈아입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2주 동안 안 갈아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나운 (코를 찡긋하면)

민섭 저희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론 못하겠습니다.

나운 안 그래도 힘드신 거 알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국정원 팀장 장두호와 함께,
국정원 요원들이 옷이 걸린 행거와 스넥바 테이블을 들여온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대학원생들.

나운 갈아입을 체크무늬셔츠와 후드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음료와 칼로리바가 무한제공이니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순간 태도 급변한 대학원생들, 환호성 지르며 테이블로 우르르 몰려간다.

서로 옷을 고르고 에너지 음료와 칼로리바를 챙기느라 난리다.
민섭, 새 옷을 입고 입안 가득 문 칼로리바를 에너지 음료로 삼키며,

민섭 (활짝 웃으며) 여기 생각보다 복지가 괜찮네요.
나운 만족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작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민섭 예, 걱정 마십쇼.

#14. 몽타주. 로봇 업그레이드

대학원생들이 로봇을 수리하고 있다.
또 일부는 호규의 연설 영상들을 재생하며 목소리 패턴을 저장하고 있다.
핸드폰에 대고 민섭이 애국가를 부르자,
로봇의 입에서 호규의 목소리 비슷하게 나오지만 지직거린다.
다시 컴퓨터로 정보 값을 바꿔서 오류를 수정한다.
말하는 대사와 톤에 맞춰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15. 국회 기자실(낮)

철우, 기자회견 중이다.

철우 지난밤 한국노인회 행사장에서의 대통령님 행동은 참으로
낮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당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님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6. 청와대 여민관 비서실장실(낮)

TV 화면으로 철우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고 있는 춘근.
옆에서 동녘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춘근 재는 여당 대표 아니냐?
동녘 맞습니다.
춘근 근데 왜 야당보다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동녘 면목 없습니다.
춘근 대국민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헛소리하지 말고 철회하라고 해.
동녘 예, 알겠습니다.

#17. 지하벙커 연구실(낮)

업그레이드한 로봇을 나운에게 선보이고 있는 민섭.

민섭 시스템 깔린 휴대폰에 대시고 말씀하시면 대통령님
목소리로 나올 겁니다.
나운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섭 저기 수석님.
나운 예?
민섭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운 뭐가요?
민섭 (훈장 보이며) 저희가 받았던 이 훈장. 무슨 혜택이 있나요?
나운 아. 그 훈장은 국가유공자랑 똑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민섭 오~ 진짜요? 국가유공자 혜택이 뭔데요?
나운 국립공원 무료입장, 월 TV 시청료 면제, 아 케이블은 안 되고요.
지상파만. 그리고 국립병원 할인 같은 거?
민섭 (실망하는 눈빛)
나운 어... 아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될걸요.
민섭 저는 면허도 없는데요. 국가유공자 혜택이 겨우 그것밖에 없어요?
나운 대한민국이잖아요. 뭘 더 바라겠어요. (민망하게 웃으며)
그래도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안치될 수 있습니다.

#18. 청와대 관저 마당(낮)

새로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살펴보고 있는 나운과 춘근.
그때 동녘이 달려온다.

나운 정무수석님 부르셨어요?
춘근 이번에도 테스트해봐야지. 내가 말해볼 테니까. 어쩐지 봐.
동녘 (다가오며) 찾으셨습니까?
춘근 어, 여기 대통령님이 부르신 거야.
(로봇에게 인사하며)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녘, 대통령의 말을 기다리지만 미동도 없다.
무슨 일인지 나운을 쳐다보지만 나운이 눈길을 피한다.

#19. 청와대 관저 마당 일각(낮)

한쪽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춘근.
핸드폰 시스템을 열자 대통령의 시선이 화면에 뜬다.
목소리 인식 작동시키는 춘근.
크흠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20. 청와대 관저 마당(낮)

갑자기 헛기침을 하는 로봇.
자연스럽게 호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로봇 정무수석.
동녘 예, 대통령님.
로봇 요즘 고생이 많지.
동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로봇 괜찮긴. 요즘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는데.

동녘 예.
로봇 그래서 내가 자네 힘내라고 노래를 한 곡 불러주려고 오라 한 거야.
동녘 예? 노래요?
나운 (왜 이러셔)
로봇 왜 별론가?
동녘 아닙니다. 저야 영광이죠.
노래 들으면 아주 힘이 펴날 거 같습니다.

#21. 청와대 관저 마당 일각(낮)

춘근, 화면으로 동녘의 반응을 살펴며 킬킬댄다.
몸으로 박자 타기 시작하며.

춘근 자 그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아싸 들어간다.
하트셋.

#22. 청와대 관저 마당(낮)

로봇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를 열창하는 로봇.
동녘도 신나 하며 박자를 맞춘다.
나운, 누가 볼까 민망하다.

로봇 아~ 옛날... 으악! (갑자기 툰 바뀌며) 그르르.
동녘 (멈칫하고) 대통령님?

나운도 이상해서 춘근 쪽을 보는데.

로봇 왈! 왈!
나운·동녘 !

#23. 청와대 관저 마당 일각(낮)

갑자기 나타난 '퍼스트 도그' 태백이 발 앞에 핸드폰을 놓친 춘근,
멀쩡이 떨어져서 겁내고 있다.
태백이 춘근을 향해 위협적으로 짖어댄다.

춘근 (원망 섞인 말투로) 누가 태백이 풀어둔 거야.
(핸드폰 집으려 손 뻗으며) 오구구. 우리 태백이 착하지.

더 크게 짖어대는 태백이.
핵 손을 빼는 춘근.

#24. 청와대 관저 마당(낮)

로봇 왈! 왈! 그르르릉 왈! 왈!
나윤 (이를 꽉 물고) 지발 그만하세요. 실장님.

동넵은 계속 로봇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모르다가.

동넵 (소심하게) 왈.
나윤 (정무수석님은 또 왜 그래요!)
로봇 왈!

동넵, 뭔가 호응이 되는 것같이 느낀다.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계속한다.

동넵 왈! 왈!
로봇 왈! 왈!
동넵 왈! 왈! 왈!
로봇 왈! 왈! 왈!
나윤 (그만해 미친놈들아~)

울상이 되는 나윤.

#25. 청와대 관저 마당 일각(낮)

춘근, 도저히 태백이를 못 말리겠는데.
그때 관리인이 뛰어온다.

관리인 (태백이 목줄을 잡으며) 태백아 이러면 안 돼지. 그만!

금방 조용히 진정되는 태백이.
그사이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춘근.

관리인 괜찮으세요 실장님?
춘근 지금 이거 퍼스트 도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관리인 죄송합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26. 청와대 본관 복도(낮)

걸어가는 춘근, 나윤, 로봇.

나윤 정말 자꾸 이러실 겁니까.
춘근 아니, 내가 잘못했나, 갑자기 태백이가 튀어나오니까 그랬지.
나윤 그러게 애초에 왜 그런 장난을 치셨습니까?
춘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나윤 (한숨)
춘근 그래도 작동이 잘 되긴 하네.
그러는데 자네 핸드폰에도 시스템 깔려 있지?
나윤 예.
춘근 그럼 잠깐만 쥘봐.
나윤 예? 왜요. 실장님 핸드폰 있잖아요.
춘근 내 건 또 따로 쓸 테가 있으니까 그렇지.

나윤 ?

#27. 청와대 본관 비서실장실(낮)

나윤의 핸드폰으로 로봇을 조작하며,
자신의 폰으로 영상통화를 거는 춘근.
나윤이 말리려 하는데...

춘근 딱 한 번만 한다니까.
나윤 실장님 아무리 그래도...

춘근 핸드폰에 초등학교 손녀 화면이 뜬다.

손녀 할아버지~
춘근 어, 그래 우리 혜선이 잘 있지?
손녀 예, 할아버지도 잘 계시죠?
춘근 그래. 우리 혜선이 대통령 할아버지랑 통화하고 싶다 했지?
바꿔줄까?
손녀 와! 진짜요!
나윤 (아이고~ 모르겠다~)

춘근 카메라에 로봇을 비추고 나윤 핸드폰 조작한다.

로봇 안녕 난 대통령이야. 네가 혜선이구나.
손녀 와~ 제 이름도 아세요.
로봇 암 잘 알고 있지. 혜선이 신기초등학교 다니지?
손녀 예~ 맞아요.
로봇 그런데 내가 듣기로 혜선이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당근 시금치도 안 먹고 편식한다며.
손녀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로봇 대통령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편식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손녀 예, 알겠습니다.
로봇 그럼 대통령 할아버지랑 약속하세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편식도 안 하고 골고루 먹기로.
손녀 ...
로봇 약속하면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직접 청와대 구경시켜줄게요.
나윤 (안 돼요!)
손녀 진짜요?
로봇 그럼 대통령은 거짓말 안 해요.
손녀 그럼 약속할게요.
로봇 그럼 지켜볼 거예요~

전화를 끊는 춘근, 만족스러운 얼굴이다.

나윤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만든 게 아닌데요.
춘근 거 딱딱하게 구네. 뭐 소통수석은 어디 전화할 데 없어?
나도 한 번 눈감아줄게.
나윤 실장님.
춘근 알았어. 내 평생 딱 한 번 한 거야. 이제 죽어도 안 할 거야.
나윤 제 핸드폰 주세요. 로봇은 집무실에 가져다 놓을게요.

#28. 청와대 본관 복도(낮)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나윤.
앞에 민정수석 태식이 서 있다.

태식 대통령님 안에 계시나?
나윤 예.
태식 (들어가려 하자)
나윤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태식 뭐? 지금 뭐라 했어?
나윤 저는 그저 대통령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나윤, 무시하고 가려는데.

태식 야! 거기 서!
 나윤 (기분 나빠 돌아서며) ‘야’라뇨?
 태식 야, 요즘 너 너무 나댄다.
 나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태식 이게 진짜 수석이라고 다 같은 수석인 줄 아나.
 (나윤의 어깨를 툭 치며) 소통수석은 그냥
 (툭) 민정수석이 일보고 나면
 (툭) 거름이나 덮어주는 그런 존재야
 (툭) 알겠어?

신경질 부리며 그대로 가버리는 태식.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윤,
 우뚝 이성의 끈이 끊긴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눈빛으로 태식을 바라본다.

#29. 청와대 여민관 민정수석실(낮)

업무 보던 태식, 내선전화 1번이 울리자 놀라서 받는다.

태식 예! 대통령님!
 호규 목소리 너 이 개새끼야! 당장 본관으로 올라와!

툭 끊기는 전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는 태식.
 정신 차리고 별떡 일어나 본관으로 달려간다.

#30.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낮)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로봇.

태식 (똑똑) 민정수석입니다.
 로봇 들어와 이 개새끼야!
 태식 (겁먹어 들어오자)
 로봇 이 쓰레기새끼야! 니가 사람새끼냐!
 태식 …뭐 때문에 그러신지?

집무실 구석에 숨어서 조작 중인 나윤.

로봇 몰라 이 새끼야!
 그냥 너라는 인간 자체가 역겨워서 그런다!

#31. 청와대 본관 복도(낮)

집무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뭘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 촌근.

#32.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낮)

태식 (졸아서 쳐다보면)
 로봇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태식 (머리 박으면)
 로봇 (그대로 까버린다)
 태식 (으 쓰러지면)
 로봇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태식 예! 알겠습니다.
 로봇 썩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태식 예, 알겠습니다.

도망치듯 내뺀 태식.

#33. 청와대 본관 복도(낮)

얼굴 시뻘게진 태식이 춘근과 마주친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창피해서 도망가는 태식.
춘근,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34.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낮)

어느새 나윤이 속 시원한 얼굴로 나와 있다.

춘근 너무 개인적인 일에 쓰지 말라며?
나윤 제 평생 딱 한 번 한 겁니다. 이제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춘근 (웃으며) 저녁 먹을 때 됐으니까. 로봇 옮겨놓자.
나윤 예.

나윤, 로봇을 움직이려 하는데...
지이이잉 소리 내며 로봇이 멈춘다.

춘근 어? 왜 이래?
나윤 배터리가 다 됐는데요.
춘근 거 적당히 썼어야지.
나윤 여기 콘센트로 충전되니까 잠깐만 충전하고 옮기겠습니다.
춘근 그럼 충전하고 있어. 소리 지르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간다)

나윤, 로봇의 상의를 벗겨 뒤쪽에 있는 충전기를 뽑아 콘센트에 꽂는다.
그때 갑자기 들리는 딸꾹질 소리.
이상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나윤.
다시 들리는 딸꾹질 소리.
살짝 열린 현관문 쪽이다.
나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급히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린다.
화들짝 놀라서 쫓아 나가는 나윤.

#35. 청와대 본관 복도(낮)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나윤.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정무수석 동넉의 뒷모습이 보인다.
머리를 움켜쥐는 나윤.

나윤 아이씨. 미치겠네.

3화 끝.

제 대본으로 누군가 웃을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만큼 설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썸땡땡’라는 오픈의 지향점을 보고 거기에 맞춰 시트콤을 써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트콤 다른 작가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부족한 글이나마 계속 쓸 힘이 났습니다. 김성미 대리님, 저희 시트콤 팀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주시고 힘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멘토님들과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인 이남규 작가님, 멘토링이 끝나도 저희 대본 쓰면 보내라고 바쁘지만 봐주겠다는 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박준화 감독님, 오픈에서 계약을 하는 게 끝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작가 인생을 멀리 보고 초년생 작가로 성장하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 새겨들겠습니다. 백미경 작가님, 항상 저희들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시고 열정적으로 멘토링 해주시는 모습 멋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제 글의 방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렌지 실버타운

김현민

노인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지하철에만 가봐도 노인은 약자로 분류되어 편하고 우울한 ‘왕좌’에 앉아 간다.

노인은 항상 청춘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보낸다.

무릎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세상은 너무 어지럽다.

즐길 거리라고는 ‘유튜브’, ‘장기’, ‘강제로 손주 떠맡기’뿐일 것이다.

나는 노인들의 그것들을 코미디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늙음은 슬프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나 웃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에 의한, 노인 코미디를 하고 싶었다.

실버타운이라는 배경은 그런 노인 코미디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은퇴한 비밀요원이라는 설정을 덧붙였다.

젊은 시절 화려했고 날아다니던 스파이조차 나이 들어 머리가 하얘지고 나면 결국엔 똑같이 힘없고 우울한 노인이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어찌 보면 시간은 참 공평한 것이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약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노인들의 애환을 코미디로 재포장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포장지는 유튜브 스타일의 짧은 호흡의 콩트이다.

노인들의 애환과 사회적 이슈인 세대갈등을 이 포장지로 감싸는 것이다.

그러면,

노인들은 내용물에 공감할 것이고 청년들은 젊은 감성의

포장지에 웃을 것이다.

등장인물

미스터 오렌지(???, 남)

비밀요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 겉보기에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 오직 밝혀진 것은 그가 오렌지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과 나이가 세 자리인 것뿐. 그는 코드네임답게 정장과

김현민

- 2019 · 유튜브 <급식왕>
- 2016 · tvN <SNL 코리아 시즌7>
- 2015 · tvN <SNL 코리아 시즌6>
- tvN <초인시대>
- 2014 · tvN <SNL 코리아 시즌5>

중절모도 오렌지색만을 고집한다.

왜 그가 오렌지에 집착하게 됐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그가 유일하게 남긴 재산은 오렌지 실버타운과 손녀딸 도희.

아마도 그는 후배 스파이들과 손녀딸을 끄적이 여긴 모양이다.

미스터 오렌지는 1화에 죽지만 다른 요원들의 회상 속에서 매회 등장한다.

여담으로 그의 오줌은 항상 노랗다고 한다.

블랙 머쉬룸(73, 남)

미스터 오렌지가 떠난 뒤 요원들의 실질적 리더.

그의 얼굴엔 검버섯이 선명하다.

컨디션이 최고조에 다다르면 검버섯이 빛나기도 한다. 그는 동료 요원들 중에서 그나마 정치적 편향이 덜한 편이다. 신세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몸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다. 그는 매일 아침 루틴이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철학자 칸트형 인간이다. 와이프와는 10년 전 황혼 이혼을 했다. 직업 특성상 이혼율이 높은 스파이로서는 놀랄 일도 아니다.

스파이 직업상 여러 위장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블랙이 가진 위장 직업으로는 선생님과 배관공 등이 있다.

본명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시청자들에게겐 친절하게 알려준다. 김훈(73).

검버섯을 놀리는 듯한 코드네임은 스파이들의 관행에서 유래되었다.

비밀요원이 되면 동기들은 서로 코드네임을 지어주기 때문이다.

레드 페이스(72, 남)

말이 많고 다혈질인 편이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보수파인 블루와 자주 부딪힌다. 레드 페이스라는 코드네임은 그가 약주를 즐기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는 자주 얼굴이 빨간 편인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레드 와인을 음료수처럼 마신다는 소문. 그 때문인지 가끔 욕을 주체 못 하고 툭툭 던질 때가 많다.

젊었을 때부터 쪽 독신이였다. 하지만 여자는 매우 좋아하는.

가끔씩 멋있는 척하는 블랙의 모습을 가장 못마땅해한다.

좋아하는 정치인은 유시민.

레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8할은 유튜브 <알릴레오>이다.

위장 직업으로는 택배기사와 도서관 사서 등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그가 운전과 책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미지수.

본명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역시나 시청자들에게겐 알려준다. 이정섭(72).

블루투스(70, 남)

귀가 잘 안 들린다. 때문에 항상 양쪽에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동료들에게 항상 에어팟이냐고 놀림당한다.

블루투스란 코드네임도 거기서 유래된 듯 보이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레드와 자주 부딪힌다. 블루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8할은 <신의 한수>이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프랭크 시나트라를 좋아한다. 취미는 방 안에서 시나트라의 노래 크게 틀어놓기. 귀가 안 좋아진 것이 이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좋아하는 정치인은 박정희. 그의 방 안에는 초록색의 새마을모자가 걸려 있다. 똑같은 것이 세 개나 있는데 그것은 세탁했을 때를 대비해서라고.

위장 직업으로는 지휘자와 축구 선수 등이 있다.

본명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역시나 시청자들에게엔 알려준다. 최동춘(70).

로즈(69, 여)

블랙의 짝사랑녀. 항상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우아함이 몸에 배어 있는데 미국 유학과 출신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하지만 알려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 그녀는 대우받는 것을 좋아한다.

남자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을 일상의 행복으로 알지만 가끔 남자들의 호의를 이용하기도 한다. 실버타운에서 알게 된 미란과 항상 붙어 다닌다.

미란(67, 여)

레드의 짝사랑녀. 로즈에 비해서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닌다.

로즈와 항상 붙어 다니는데 가끔은 로즈의 공주병에 짜증이 나기도 한다. 교사 출신의 미란은 남에게 도움받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를 좋아한다.

도희(25, 여)

미스터 오렌지의 손녀. 할아버지와 다르게 오렌지 대신 꿀을 좋아한다.

학교를 졸업한 뒤 할아버지로 인해 실버타운의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일은 지루하고 따분할 뿐. 그녀는 항상 앉아서 멍하니 TV만 볼 뿐이다. 가끔 유희 거리라고는 카페에서 일하는 또래 도영뿐.

홀쩍 떠나버린 할아버지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가장 보고 싶어 하기도 한다.

도영(27, 남)

실버타운에 입점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가 도회를 통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실버타운 내의 카페에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이상한 메뉴를 댄다거나, 라떼에 우유를 빼달라느니 등등 처음엔 낯이 나간 도영이지만 최근엔 적응이 됐다.

국장(54, 여)

요원들을 관리하는 국정원의 국장.
성별과 나이를 제외하고는 미스터 오렌지처럼 베일에 쌓여 있다.
국장의 본명은 시청자들에게도 베일에 쌓여 있다.

영춘(94, 남)

통칭 영춘이 행님. 실버타운 내의 최고령자이다. 송가인을 매우 좋아한다. 항상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취미는 정치 성향 문고서 수집에 적기. 이 행위를 왜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것이 영춘의 유일한 낙이다. 6.25 참전 용사로서 자부심이 강하다. 가슴팍에는 배지를 붙이고 다니는. 들리는 소문으로는 누군가가 영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도 전해진다.

기봉(90, 남)

실버타운 내 최고 미남 할아버지.
올해 유행을 알고 싶다면 기봉을 보면 된다. 로즈와 미란에게 치근대는 그의 모습은 블랙과 레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선영(45, 여)

실버타운 식당의 급식 아줌마.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표정이 무뎡뎡하다. 물론 목소리도 무뎡뎡하다.
음식을 퍼줄 때 무조건 정량을 지키는 집착증이 있다.
남은 음식을 집에 싸간다는 소문이 있다.

김씨(51, 남)

실버타운 내의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는 김씨 아저씨.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한다.

2+1(투 플러스 원)(??, 남)

미스터 오렌지의 문서를 노리는 이중 스파이.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항상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그의 코드네임의 유래.

검은 건반(??, 남)

미스터 오렌지의 문서를 노리는 이중 스파이.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니 몇 개가 썩은 것이 그의 코드네임의 유래.

브리트니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외형은 <스타워즈>의 R2D2를 닮았다.
딥러닝 시스템을 구비하여 나날이 갈수록 똑똑해진다.
가끔 고양이 크루저와 술래잡기를 한다.
이 인공지능 로봇 또한 오렌지가 두고 간 것.
대체 미스터 오렌지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

줄거리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한 채 이제는 늙어버린 세 명의 비밀요원 블랙·레드·블루. 머리는 하얘지고 얼굴엔 검버섯에 이젠 걷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이들은 마지막 임무로 폭탄 테러를 막으러 출동하는데… 하지만 노쇠해진 판단력과 몸뚱어리로 인해 요원들은 진짜 폭탄을 발견해내지 못한다. 주변 경찰들은 이들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국장도 이들에게 은퇴를 종용해버린다. 게다가 마지막 임무에서 요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인 미스터 오렌지를 떠나보내며 이들의 스파이 인생은 막을 내린다. 변변찮은 퇴직금과 함께 거리로 나온 세 요원들. 그런데 오렌지 리더가 남긴 봉투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렌지 실버타운 거주권!’ 마침 갈 곳도 없겠다, 세 요원은 곧장 오렌지 실버타운으로 향하는데…

실버타운에 도착한 세 요원.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상당히 세련되고 좋아 보인다.

들뜬 기분으로 들어가고. 이곳에서 블랙과 레드 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노년의 남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던 도희가 미스터 오렌지의 손녀딸인 걸 알게 된다. 도희는 할아버지가 맡긴 문서가 있다며 요원들에게 건네는데... 종이에 는 알 수 없는 문자(암호)가 적혀 있다.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도 도통 알 수 없는 의미의 문자. 결국 요원들은 그 종이를 방 안에 보관해놓을 뿐이다. 한편, 실버타운에 나타난 인공지능 로봇 브리트니는 딥러닝 시스템으로 인해 갈수록 똑똑해져간다. 어쩌면 브리트니가 미스터 오렌지가 남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하지만 그 전에 조심해야 할 악당이 있다. 바로 암호를 노리는 이중 스파이인 2+1과 검은 건반. 이들은 실버타운에 잠입하여 미스터 오렌지가 남긴 문서를 훔칠 계획을 세우는데...

오렌지 실버타운 김현민

1화. 마지막 임무

#1. 호텔/203호(낮)

[BGM : 긴장감을 주는 음악]

남자1이 바닥에 시한폭탄을 설치한다.

일어서서 나가는 남자1.

나가면서 문고리에 장난기 가득한 인형을 걸어놓는다.

#2. 호텔/복도(낮)

방에서 나오는 남자1.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더니 206호로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블랙 머쉬룸. 남자1을 스스 보고는 지나쳐간다.

블랙 머쉬룸 (눈빛) (호텔리어로 위장해 카트를 끌고 있다)

#3. 호텔/206호(낮)

앉아 있는 두 남자.

남자2는 차를 마시고 있고 남자3은 어딘가 초조해 보인다.

남자3 올 때가 됐는데...

이때 들어오는 남자1.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집을 챙기며 말한다.

남자1 가자고.

남자2 폭탄은?!
남자1 203호에 설치했어. 24시간 뒤면 이 호텔은 무너질 거야.
남자2 좋았어. 어서 나가자구!

일어나려는 세 남자. 이때 갑자기 (E)깡! 문소리가 난다.

남자1 누구야!

카메라 TILT UP. 보면 웬 기력 없는 노인(블랙 머쉬룸)이 서 있다.
중후한 정장 차림에 얼굴에는 검버섯이 선명하게 있는.
[스틸컷으로 프로필 뜯다]
직업 : 스파이 / 코드네임 : 블랙 머쉬룸

남자2 (비웃는) 뭐야. 그냥 노인네잖아?

남자3 저 사람은...! ‘블랙 머쉬룸’?!
남자1 블랙 머쉬룸?!
블랙 머쉬룸 (기침小) 쿨럭 쿨럭!
남자2 블랙 머쉬룸이 누군데?
남자3 그것도 몰라? 한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스파이!
블랙 머쉬룸 (기침中) 쿨럭 쿨럭!!!
남자3 전성기 팬 혼자 북한에 잠입해 김정일의 겨드랑이 털을...
블랙 머쉬룸 (기침大) 쿨럭 쿨럭!!!!
남자1 (버럭) 거 아까부터 기침 엄청 해대네!!!
블랙 머쉬룸 (가래 모으는) 크아악 똥!!!!
남자2 감기야?
블랙 머쉬룸 (손수건으로 코 푼다) 쿵!!!
남자3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좀 노쇠해졌지만...
그렇다고 만만히 봐선 안 돼.
블랙 머쉬룸답게 이름값을 한다구!
남자1 잠깐! ‘블랙 머쉬룸’이면... 씨발 그냥 ‘검버섯’이잖아!
남자2 조심해. 얼굴만 봐도 관록이 느껴지니까.
블랙 머쉬룸 (기력 없는 얼굴) 하아앗!
남자3 온다!!!

달려오는 블랙 머쉬룸. 그런데 그 속도가 슬로 모션처럼 매우 느리다.

남자3 대단해! 마치 슬로 모션처럼 보여!

남자2 슬로 모션이 아니야...!
남자1 그럼...?
블랙 머쉬룸 (느리게 달려오는 모습)
남자2 그냥 느린 거야!
블랙 머쉬룸 (느리다) 하아앗!!!
남자3 온다!!!

블랙 머쉬룸, 걸어오는데 무릎에서 연신 (E)우드득, 소리가 난다.

남자1 (표정) 뭐 소리야?!

남자3 관절염이야. 전성기 때 전 세계를 돌아다녔거든.
남자2 너 저 사람 팬이냐?
블랙 머쉬룸 (느리다) 하아앗!!!!
남자3 온다!!!
남자1 씨발 도대체 언제 오는 건데?!
블랙 머쉬룸 (어느새 나타나서) ...지금.

[BGM : Lynyrd Skynyrd — Free Bird] (0.75배속)

영화 <킹스맨>의 교회 신처럼 카메라 원테이크로 액션 펼쳐진다.
다만 블랙 머쉬룸의 움직임이 느려서 음악 속도도 그에 맞춰 느리게 재생된다.

남자2 (표정) (다급히 테이블 위 커피잔을 들어 뿌리려는데)

손날로 남자2의 손목을 탁! 치는 블랙 머쉬룸.
남자2의 몸 위로 커피 쏟아진다.

남자2 으앗 뜨거!!!
남자3 (당황) (주먹을 크게 휘두른다)

[슬로 모션]

등을 뒤로 짓히는 블랙 머쉬룸. 주먹이 얼굴 앞을 간신히 스쳐간다.

블랙 머쉬룸 느려.

남자3 (당황) 피... 피했어...!

남자1 노인네라 봐줬더니! (권총을 꺼내 방아쇠 당기는데)

블랙 머쉬룸 (갑자기) 아!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에 고개를 숙이는 블랙 머쉬룸. 덕분에 총알을 피한다.

블랙 머쉬룸 이놈의 관절염.

남자1 (당황) 말도 안 돼...!

남자2 이럴 시간 없어. 빨리 나가야 돼! (나가려는)

남자1 차 대기시켜놨지?

남자2 (끄덕)

블랙 머쉬룸 (아파하다가 남자들 발견하고 달려온다)

남자3 (문 입구에 서서) 온다...!

전성기 때 100미터를 9.99초 만에 돌파한 그가...!

남자2 (밀치며) 설명 좀 집어치워!!!

남자1 (밀치며) 닥치고 좀 나가라고!

블랙 머쉬룸 (테이저건을 남자1 등에 갖다 댄다)

남자1 (외마디 비명) 악!

남자1 풀썩 쓰러지더니 몸을 부들댄다. 남자2·3 재빨리 도망쳐 나가는.

블랙 머쉬룸 안 돼...! (따라 나간다)

#4. 호텔/복도(낮)

다급히 나오는 블랙 머쉬룸.

남자2·3 시야에서 사라진다. 인이어로 상황 전하는.

블랙 머쉬룸 여기는 블랙. 적들이 도망쳤다.

여기는 블랙! 적들이 도망쳤다!

#5. 작전실 어딘가

호텔 내부와 외부 CCTV가 화면 가득히 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정장 차림 노인.

보청기(F) (반응 없자) 블루! 안 들리나? 대답해 블루!!!

노인(블루투스), 무선 이어폰같이 생긴 보청기를 '후후' 불며 먼지를 없애고 있다.

블루투스 (노래 흥얼거리는) ♪마이~~~ 웨이~~~

#6. 거리(낮)

주차되어 있는 검은색 승용차로 달려가는 남자2·3.

남자2는 보조석에, 남자3은 운전석에 재빨리 탑승한다.

뭔가를 찾는 남자3.

남자2 뭐해? 시동 안 걸고!

남자3 (안전벨트 메는) 안전벨트 좀...

남자2 씨발 이 와중에 뭐 안전벨트야?!

남자3 (억울) 야. 너넨 왜 자꾸 욕을 해...?

남자2 미안. 잘못했으니까 제발 출발해!

남자3 알았어... (운전대에 손 올린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 들리는.

레드 페이스(E) 안전띠는 생명띠.

남자2 (멈칫) 잠깐...

서로 눈 마주치는 남자2·3. 동시에 천천히 뒷좌석으로 고개를 돌린다.

남자2·3 (보고선) 으악!!!

뒷좌석에 웬 노인이 한 명 있는. 정장 차림에 손에는 레드와인 들고 있다.

조금 취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스틸컷으로 프로필 뜯다]

직업 : 스파이 / 코드네임 : 레드 페이스

남자3 (눈 동그랗게 뜨며) 레드 페이스!!!

남자2 (머리 쥐어뜯으며) 그건 또 누구야아!

레드 페이스. 술을 한입 벌컥 마시다가 사레들린다.

기침하며 여기저기 흘리는.

레드 페이스 콜록! 콜록!

남자2 아이씨! 그거 가죽 시트라고!!!

이때 갑자기 돌변하는 레드 페이스. 끈으로 남자2의 목을 조른다.

레드 페이스 폭탄의 위치를 말해라…!

남자2 케큱! 사…살려줘!

남자3 어떡하지?!

레드 페이스 하나… 둘…!

이때 차문이 열리더니 레드 페이스 얼굴 옆에 권총이 겨눠진다.

남자1 셋.

남자3 살았구나!

레드 페이스 이런. (술 마시다가 또 기침) 콜록 콜록! (시트에 뽀는다)

남자1 씨발 내 가죽 시트!!! 너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레드 페이스 말할 수 없다.

남자1 그래? (장전하더니) 말 안 하면 죽을 텐데?!

레드 페이스 (표정)

남자1 (바짝 갖다 대고) 누가 시켰는지 말해.

하나… 둘…!

이때 남자1 얼굴 옆에 권총이 겨눠진다.

블루투스(E) 숫자는 그렇게 세는 게 아니지…

남자1 뭐… 뭐야.

남자3 (보고) 브…블루투스!!!

남자2 (거의 쓰러진 채로) 또 할아버지야?!

보면 블루투스가 권총을 겨누고 있다. 이번엔 양쪽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는.

블루투스 한 놈, 두식이, 석 삼, 너구리…

[스틸컷으로 프로필 뜯다]

직업 : 스파이 / 코드네임 : 블루투스

남자1, 조용히 권총 내려놓고 두 팔을 든다. 나머지 둘도 포기한 모습.

레드 페이스 (차에서 나와서는) 폭탄 어딴어 이 자식들아!!!! 딸꾹!

블루투스 레드. 또 취했어?

레드 페이스 (전봇대에게) 폭탄 어딴냐고!!!!

블루투스 그거 전봇대야 레드.

레드 페이스 (행인에게) 폭탄이다!!!!

블루투스 못생긴 남자야 레드.

레드 페이스 (블루투스에게) 스타워즈 요다!!!!

블루투스 나야 레드.

레드 페이스 (보청기 만지며) 오올 에어팟~!!!

블루투스 보청기야 레드.

남자1 (비웃는)

레드 페이스 (남자1에게 권총) 웃어? 폭탄 어딴냐고!!!

남자1 (눈 질끈) 으으…

남자3 (갑자기 손들고선) 잠깐!

일동 (쳐다본다 / 정적)
남자3 제가 알아요. 폭탄이 어디 있는지.
블루-레드 (서로를 쳐다본다 / 끄덕이는)

남자3을 데리고 가는 블루투스 와 레드 페이스.
남자1 알 수 없는 표정 짓는다.

#7. 호텔/복도(낮)

복도에 경찰들 배치돼 있다.

남자3 저기! 203호에 폭탄이 있어요.

끄덕이는 블루와 레드, 방에 들어가려는데 경찰1이 막는다.

경찰1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블랙 머쉬룸(E) 들여보내줘.

경찰1, 고개 돌려서 보면 블랙 머쉬룸이다.

블랙 머쉬룸 내 동료들일세. (가리키며) 블루, 그리고 레드.

옆으로 비켜준 뒤 경례하는 경찰1.
스파이들 자기들끼리 잠시 이야기 나눈다.
이때 경찰2, 조용히 경찰1에게 다가오는.

경찰2 누구야 저 사람들?
경찰1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파이라는데?

품위 있게 종절모 벗고 인사하는 블루와 레드.
블랙과 함께 203호로 들어간다.

경찰2 (코 막으며) 흠애비 냄새...!
경찰1 (코 막으며) 술 냄새도...!
경찰2 근데 유명한 스파이라고?
경찰1 아까 그러던데?
경찰2 ...스파이가 유명하면 안 되지 않나?
경찰1 ...그러네?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간 방 쪽을 쳐다보는 경찰1,2.

#8. 호텔/203호(낮)

들어오는 블루와 레드, 블랙. 폭탄 근처에서 경찰들 경계가 삼엄하다.
고위급으로 보이는 경찰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하는데...

고위급 경찰 처음 보는 폭탄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간 폭발할 위험이...
블루투스(E) 내가 해보겠소.

일동 쳐다본다. 앞으로 한걸음 나오는 블루투스.

고위급 경찰 폭탄해체... 할 줄 아십니까?
블랙 머쉬룸 (경찰 어깨에 손 올리더니) 우린 스파이요. 비밀요원이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수천 가지 훈련을 받아왔다고.
레드 페이스 그중엔 물론 '폭탄해체'도 있고 말이야. (가리킨다)
블루투스 (찬찬히 앉아서 폭탄을 살펴본다) 어디 보자...

나뭇가지로 폭탄을 툭툭 건드리는 블루투스. 고위급 경찰 매우 불안해한다.

고위급 경찰 저 사람, 믿어도 됩니까?!
레드 페이스 그럼. 저래 봐도 블루 저 친구가 기계 하난 잘 다루거든.
블랙 머쉬룸 저 봐봐. 지 혼자 최신 에어팟 끼고 있잖어.
블루투스 (멀리서) 이거 보청기라고!

블랙레드 (조용히 키득거린다) 푸퐌!!! (방정맞게 팔꿈치로 툭툭 치는)
 고위급 경찰 (표정)
 블랙레드 (헛기침) 흠...!
 블루투스 아니 이건...?

폭탄의 케이스를 열더니 놀라는 표정의 블루.
 매우 복잡하게 전선이 엉켜 있다.

블루투스 가위가 필요해.
 레드 페이스 (핑킹가위 건넨다)
 블루투스 (전선 잘라보며) 이걸론 안 잘려.
 레드 페이스 (코털가위 건넨다)
 블루투스 다른 거.
 레드 페이스 (일반가위 건넨다)
 블루투스 (받고 침 꼴깍 삼킨다)
 블랙머쉬룸 할 수 있겠어, 블루...?

끄덕이는 블루. 천천히 손을 드는데 가위 든 손이 심하게 떨린다.

고위급 경찰 (불안) 폭탄해체, 언제 배운 거요...?
 블루투스 언제였더라. 한 30년 전인가...?

손을 더욱더 심하게 떠는 블루. 고위급 경찰, 카톡으로 '여보 사랑해' 보낸다.

블랙머쉬룸 (멋있게) 믿어보자구.
 고위급 경찰 (끄덕)
 블랙레드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
 고위급 경찰 (뉘하냐는 듯한 표정)

[BGM : 긴장감을 주는 음악]

초록색 전선에 점점 가위를 갖다 대는 블루.
 긴장된 상황에 주변 사람들 초조하다.
 초록색 전선과 빨간색 전선 사이에서 고민한다. 음악 점점 고조되는데...

블루투스 (초록색 전선 가리키며) 이 빨간색 전선만 자르면...!
 고위급 경찰 (놀란 표정) (다급히 말리며) 잠깐. 빨간색 전선이라니!
 블루투스 내가 또 실수했나?
 블랙머쉬룸 이 친구가 '적록색약'이라서 말이지.
 고위급 경찰 (어이없는) 적록색약?! (밀치며) 누구 다 죽일 일 있나!!!
 레드 페이스 이봐. 이 친구는 빨간색 초록색만 구별 못 한다구!!!
 고위급 경찰 그게 문제라고오!!! (가리킨다)

폭탄을 보면 90퍼센트가 빨간색 전선과 초록색 전선이다.
 망연자실하여 서 있는 스파이들.

블루투스 이를 어쩐다...?
 고위급 경찰 폭탄물 처리반을 부르겠어요. (무전 때리려는데)
 미스터오렌지 (얼굴 스욱 내민다)
 고위급 경찰 으악 깜짝이야!!!! (놀라 무전기 집어던진다)

일동 돌아본다. 딱 봐도 나이가 매우 많아 보이는 미스터 오렌지 모습.
 [스틸컷으로 프로필 뜯다]
 직업 : 스파이 / 코드네임 : 미스터 오렌지

블랙블루레드 리더!!
 남자3 대애박!

미스터 오렌지의 모습과 함께 장엄한 노래 나온다.
 [참고 : 미국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 'lemmiwinks song']

[장엄한 노래] ♪그의 이름은 미스터 오렌지~
 ♪그의 나이는 세 자리~
 ♪오렌지를 즐겨 먹는 미스터 오렌지~

고위급 경찰 아무나 들어보내면 어떡해!!!
 경찰2 그게... 막무가내로 들어갔습니다...!
 경찰1 고생한다면서 저희한테 이... (보여준다) 오렌지를.

고위급 경찰 ...당신 누구야!

미스터 오렌지 ...

고위급 경찰 누구냐고!!!

레드 페이스 (남자3 툭툭 친다)

남자3 네? 아...! 그 사람은 전설의 스파이, 미스터 오렌지예요!

고위급 경찰 미스터 오렌지?

남자3 여기 계신 스파이들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죠!
올해로 나이가 100살이지만, 아직까지 현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스파이들 (끄덕 끄덕)

남자3 또... 오렌지를 매우 좋아해요.

고위급 경찰 (미스터 오렌지 본다)

미스터 오렌지 ...

경찰1 살아 있는 건 맞지?

경찰2 아까 걸어왔잖아.

[BGM : 긴장감을 주는 음악]

미스터 오렌지, 폭탄 앞에 조용히 앉는다.

집중되는 시선들. 작업 과정은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는데...

손을 드는 미스터 오렌지. 블랙이 짹짹 가위를 가져다준다.

손을 드는 미스터 오렌지. 레드가 짹짹 손수건을 가져다준다.

얼굴이 땀범벅인 미스터 오렌지.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다. 긴장되는 순간.

미스터 오렌지 (갑자기 오렌지를 든다)

블랙·블루·레드 (서로 본다)

고위급 경찰 이번엔 뭐요?

블루투스, 다가가더니 오렌지를 집어 들어 껍질을 까기 시작한다.

한 알씩 미스터 오렌지에게 먹여주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블루투스.

고위급 경찰 지금 장난하는 거요? 폭탄은 언제...!

미스터 오렌지, 조용히 일어난다.

옆으로 가더니 바닥에 드러눕는 미스터 오렌지.

얼굴은 땀범벅이고 숨을 거칠게 내쉰다.

블루투스 리더! 폭탄은 해체했어요?!

일제히 폭탄에 다가가는 스파이들과 고위급 경찰.

블랙 머쉬룸 잠깐만...

레드 페이스 이건...!

이리저리 분해되어 있는 전선들.

그런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엉성하다.

고위급 경찰, 다급히 폭탄 밑바닥을 보는데

‘우당탕탕 장난감 폭탄’이라고 쓰여 있다.

고위급 경찰 장난감이잖아...!!!

#9. 호텔/복도(낮)

심기 불편한 표정으로 나오는 고위급 경찰. 경찰1이 묻는다.

경찰1 폭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위급 경찰 허탕이다. 가짜 폭탄이었어.

경찰1 예?

고위급 경찰 스파이? 비밀요원? 참 내! (나가려는)

경찰2 베테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위급 경찰 (멈춰서) 베테랑은 무슨. 그냥 늙어빠진 퇴물이지. (나가는)

#10. 호텔/203호(낮)

미스터 오렌지, 블루투스에게 오라는 손짓을 까딱한다. 다가가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괜찮아요 리더?
 미스터 오렌지 (더 가까이 오라는 손짓)
 블루투스 무슨 할 말이라도…
 미스터 오렌지 (겨우 소리 내는) 자네들은 내 친동생 같았어…!
 나는 이렇게 가지만은… 뒤를 잘 부탁하네.
 블루투스 (암울한 표정)
 미스터 오렌지 (보더니) 표정이 왜 그런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야겠구만.
 그거 알아?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눈을 감는 미스터 오렌지. 블루투스의 심상치 않은 표정. 조용히 일어난다.
 [BGM : Frank Sinatra – That's Life]

레드 페이스 뭐라셔?!
 미스터 오렌지 (조용히 눈 감고 누워 있다)
 블루투스 그게…
 블랙 머쉬룸 (표정)
 블루투스 하나도 못 들었어… (이제야 보청기 끼는)

엄숙한 표정으로 미스터 오렌지를 보는 세 스파이. 그저 말없이 누워 있다.
 블랙 머쉬룸,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에 숨결을 느껴보는데…

블랙 머쉬룸 (절레절레) 죽었어…
 중절모 벗더니 미스터 오렌지 옆에 놓고 일어나는 블랙 머쉬룸.
 블루와 레드도 각자의 중절모를 벗어 그 옆에 둔다.
 이때 누군가가 옆에 오렌지를 살며시 놓는데…. 일제히 쳐다보는 세 스파이.

블랙 머쉬룸 국장님…!
 국장 고생들 하셨어요. 폭탄은…
 레드 페이스 분명히 제보가 있었어! 블루가 들었다고!
 국장 잘못 들었겠죠. 귀도 안 좋으시잖아요.
 블루투스 (버럭) 내가 귀가 왜 안 좋아!!!

국장 아니에요?
 블루투스 아내라고? 나 총각인데?
 국장 (한숨)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랙·블루·레드 (본다)
 국장 은퇴식은… 이번 주로 앞당겼어요.
 레드 페이스 은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국장 (끓으며) 이젠 좀 쉬셔야죠.

잠시 서 있다 뒤도는 세 스파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슬로 모션과 함께 블랙 머쉬룸 내레이션]

블랙머쉬룸(E) 우리는 스파이다. 늙어버린 스파이.

걸어 나오며 문고리에 걸린 장난기 가득한 인형을 괜히 만져본다.
 스파이들 시선으로 천천히 문 열리면 은퇴식 장소로 이어지는데…

#11. 조출한 강당(머칠 후)

블랙·블루·레드 들어가면 양복 입은 젊은 요원들이 박수로 맞이해준다.
 강당에는 현수막으로 ‘은퇴식 – 블랙, 블루, 레드’라고 써어 있는.
 잠시 후. 강당의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국장. 블랙·블루·레드는 앉아 있다.

국장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숨은 영웅들입니다.
 블랙 머쉬룸 요원, 레드 페이스 요원, 블루투스 요원.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원들 (박수)
 국장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임무 중 안타깝게 떠나버린 미스터 오렌지 요원.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블랙·블루·레드 옆의 빈 의자에 미스터 오렌지 사진이 놓여 있다.

요원1 근데 오렌지 요원은 왜 죽었대?
요원2 그냥 자연사래. 100살이었잖아.
요원1 아…!

국장이 세 스파이에게 각자 흰 봉투를 나눠준다.

국장 퇴직금이예요.
블랙 머쉬룸 정말 끝이로구만.
레드 페이스 그럼 가자고…!
블랙블루레드 (뒤도는데)
국장 잠깐만요!

국장이 세 스파이에게 오렌지 봉투를 나눠준다.

블랙 머쉬룸 이게 뭐죠?
국장 열어보면 알겠죠.
블랙블루레드 (웅성댄다)
국장 그리고…!
블랙블루레드 (멈칫)
국장 옷은 두고 가세요.

#12. 거리(저녁)

[BGM 꺼진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만 들리는.
사복 차림의 세 스파이가 웬지 처량해 보인다.

블랙 머쉬룸(E) 우리의 스파이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다.
레드 페이스 (흰 봉투 열어보는) 뭐야.
블루투스 얼마 안 들었어?
레드 페이스 스파이도 공무원이라 이건가?
블랙 머쉬룸 (한숨) 다들 계획이 뭐야?

블루투스 모든 게 끝났어. 우린 그냥 늙은 할아버지야.
레드 페이스 근데 그 봉투는 뭐야? (오렌지 봉투 가리킨다)
블랙 머쉬룸 이거? 함 열어볼까?
블루투스 자연별곡 식사권 이런 거 아니야?

오렌지 봉투를 열어보는 블랙.

안에 '오렌지 실버타운 거주권' 세 장이 들어 있다.

블랙·블루레드 '오렌지 실버타운'…?

#13. 거리/실버타운 앞(밤)

실버타운 입구에 도착한 세 사람.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외경 : 신축 실버타운 건물]

블랙·블루레드 우와…!

#14. 실버타운/로비(밤)

안내데스크에 젊은 여직원, 앉아 있는데 굴을 까먹고 있다.

굴껍질 수북이 쌓인.

세 사람, 전직 스파이답게 고개 숙여서 '쉬섯'거리며 들어온다.

블랙·블루레드 췌… / 쉬섯… / 췌…

도희 어떻게 오셨어요?

블랙 머쉬룸 (빨쭈) 아. (봉투 보여주며) 이거…

도희 (받고) 성함이…?

블랙 머쉬룸 블랙 머쉬룸.

레드 페이스 레드 페이스.

블루투스 …블루투스요.

도희 (표정) … (갑자기 크게) 아! 혹시 스파이 분들?!

블루투스 (역정) 췌! 누가 들으면 어찌려고...!
블랙 머쉬룸 진정해 블루. 스파이들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미란(E) 굿 이브닝~
레드 페이스 그래 맞아. 스파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레드 페이스, 미란을 보고 반한다.
갑자기 배경 바뀌며 빗꽃잎 떨어져 내리는.
[BGM : Gary Wright — Dream Weaver]

블랙 머쉬룸 이봐 레드! 괜찮아?!
레드 페이스 (표정) 빗꽃이... 만연했어...!
블루투스 뭘 개소리야?
로즈(E) 오늘 저녁 스파게티라며?!
블랙 머쉬룸 레드, 전직 스파이답게 좀 냉정...!

보면 화려한 옷차림의 할머니 로즈가 서 있는.
블랙과 로즈, 서로 첫눈에 반한다.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두 사람.
손잡더니 우주로 걸어 올라간다.
[참고 : La La Land — Planetarium Scene]
영화 <라라랜드>처럼 춤추며 빙글빙글 돌기도 하는 두 사람.

도희 (흐뭇) 노인들도 첫눈에 반할 수가 있구나...

TV로 눈길 돌리는 도희. 호텔 폭탄 테러가 나오는데
폭탄의 정체는 인형이었다.
뉴스에서는 인형의 사진과 함께 폭발 장면이 계속 보도되는.

#15. 거리/실버타운 앞(밤)

가방 메고 퇴근하는 도희. 기지개를 켜 편다.

도희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아아—!

(하늘 보는) 할아버지. 벌써 보고 싶어요.

밤하늘 올려다보는 도희. 오렌지 요원의 얼굴이 투명하게 떠오른다.
구석에선 블랙과 로즈 아직도 우주에서 춤추고 있다.

1화 끝.

2화. 수색 작업

#1. 실버타운/블랙의 방(아침)

침대에서 잠옷 입고 자는 중인 블랙.
이때 핸드폰에서 요란한 전화벨이 울린다.

블랙 머쉬룸 (몸을 뒤척이며) 으음...

이내 꺼지는 전화벨. 그런데 곧바로 전화벨 다시 울린다.

블랙 머쉬룸 ...아우씨! (전화 받는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F) 안녕하세요 고갱님~ 다름이 아니오라~
고객님께서 핸드폰을 바꾸신 지 5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신 핸드폰...

블랙 머쉬룸 (통명) 안 바뀌요!

전화 툇 끊고 다시 자는 블랙. 금방 또 전화벨 울린다.

블랙 머쉬룸 으음...! (전화 받는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F) 안녕하세요 고갱님~ 다름이 아니오라~

블랙 머쉬룸 핸드폰 안 바꾼다고요!!!

여자 목소리(F) 예? 저희는 설문조사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블랙 머쉬룸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전에 광고 전화가 와서...

여자 목소리(F) 괜찮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블랙 머쉬룸 아 예... (눈 비빈다)

여자 목소리(F) 전화 받으시는 분 연령대가?

블랙 머쉬룸 (진지) 일흔셋입니다.

여자 목소리(F) 직장은 언제 은퇴하셨나요?

블랙 머쉬룸 (진지) 3일 전...

여자 목소리(F) 그러면 선생님.

혹시 최근에 핸드폰 바꾸신 적 있으신가요?

블랙 머쉬룸 없는데요?

여자 목소리(F)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상담원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갱님~
저희가 최신 핸드폰 맞춰드리겠습니다~

블랙 머쉬룸 (어이없는) 또 핸드폰?! 아이씨!!!

전화 끊고 핸드폰 던져버리는 블랙. 이불 뒤집어쓰고 잔다.
또 울리는 전화벨. 이번엔 안 받는다. 벨소리 한참 울려 퍼지는...
참다 참다 폭발하여 전화 받는 블랙.

블랙 머쉬룸 (전화 받는다) 핸드폰 안 바꾼다고!!!

여자 목소리(F) (다급한) 살려주세요...!

블랙 머쉬룸 (놀라며) 예?

남자 목소리(F) (위협) 조용히 해! 안 그럼 터뜨려버린다!

블랙 머쉬룸 (중얼) 터뜨려...?

여자 목소리(F) 도와주세요...!

블랙 머쉬룸 잠깐. 이거 또 핸드폰 광고 아니야?

여자 목소리(F) 아니에요!

(흐느끼는) 제 앞에... 폭탄이 있다구요...! 흑흑!

블랙 머쉬룸 (벌떡 일어나는) 폭탄?!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자 목소리(F) (흐느끼는) 여기가 어디냐면...

(상담원 목소리로 돌변) 안녕하세요 고갱님~

현재 핸드폰 폭탄! 세일 중입니다~

폭탄을 찾으셨다구요~?

블랙 머쉬룸 (분노) 아오!!!!

다시 또 침대에 들어가는 블랙.

곧바로 전화벨 울린다.

보지도 않고 짹짹 받는.

블랙 머쉬룸 (크게) 핸드폰 안 바꾼다고 몇 번을 말해 이 ××야!!!!

#2. 실버타운/카페(아침)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블루와 레드.
그런데 안에서 블랙 목소리 울려 퍼진다.

블랙 머쉬룸(E) 한 번만 더 하면 니 목젓을 믹서기에 갈아버릴 거야!!!!

레드 페이스 ...목젓을 믹서기에 갈아버린대.

블루투스 ...테리범한테도 저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전화 받으며 나오는 블랙. 핸드폰에 대고 큰소리친다.

블랙 머쉬룸 끊어 이 자식아!!! (전화 끊는) 에이씨!

#3. 작전본부 어딘가

멍한 표정의 국장. 전화 받는 자세 그대로 멈춰 있다.

국장 ... (멍한 표정)

#4. 실버타운/카페(아침)

남자 직원에게 주문하는 블랙.

블랙 머쉬룸 여기 카푸치노 하나요.

블루와 레드의 테이블에 동석한다.

레드 페이스 무슨 일이야?

블랙 머쉬룸 핸드폰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하는 게 참 지능적이더라고.

어휴 승질 나!

블루투스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누가 자꾸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는 거야.
계좌가 해킹당했다나 뭐라나? 거짓말도 참! 나한테도 어렵도 없지.

레드 페이스 ...그건 진짜 아니야?

블랙 머쉬룸 맞아. 너 통장에 있는 돈 자꾸 줄어든다며.

블루투스 ... (표정)

이때 도영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온다. 각자 자리에 놓는.

도영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레드 페이스 ‘커피 나오셨습니다’...? 왜 커피를 높이고 지랄이야?

주변 사람들 일제히 쳐다본다. 도영도 스윽 쳐다보고 가는.

레드 페이스 (당황) 안 갔구나...?

블루투스 니들 욕 좀 줄여. 창피해 죽겠으니까.

레드 페이스 죽어 그럼.

블루투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제스처)

레드 페이스 진짜 안 들리잖아 너.

블랙 머쉬룸 (향 맡는) 음. 향은 그저 그런데?

블루투스 실버타운에서의 첫 커피로구만.

커피 마시는 세 스파이. 그런데 다들 마시고 나서 표정이 좋지 않다.

블랙 머쉬룸 (투덜) 폼. 이거 왜 이렇게 써?!

블루투스 (투덜) 그러게.

레드 페이스 (크게) 생닭을 갈아 넣은 맛이구만!!!

도영 (쳐다본다)

블랙 머쉬룸 (투덜) 역시 커피는, 스타벅스가 최고야.

블루레드 맞아 맞아.

블랙 머쉬룸 이 커피는 근본이 없어 근본이!

이때, 로즈와 미란이 재잘거리며 등장한다.

스윽 쳐다보는 스파이들.

로즈 (도영에게) 안녕하세요옹~
미란 (도영에게) 라떼 한잔 주세요~
로즈 (도영에게) 그럼 난 카푸치노~
블랙머쉬룸 (설레발) 카푸치노! 나랑 취향 똑같애!
블루레드 (한심하게 쳐다본다)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스파이들.
이때 로즈와 미란이 자리를 찾으며 다가온다.

로즈 어디에 앉지~?
블랙블루레드 (다가올수록 커피잔을 부들부들 떠는)
미란 여기 앉을까? 쿠션도 있네.

스파이들 옆자리에 앉는 로즈와 미란. 이들을 발견하고 인사를 건넨다.

미란 어머! 어제 처음 오신 분들이네?
블랙블루레드 (팬히 판짓)
미란 안녕하세요~
블랙블루레드 (애써 무시)
미란 (더 크게) 안녕하세요!
블랙블루레드 (어색하게 인사) 아 예 뭐... / 좋은 아침... / ...하이!
로즈 (미소) 하하. 커피들 어떠세요?

서로 눈치 보는 스파이들. 블루가 입을 연다.

블루투스 입맛에 영 안 맞아요. 마치 흙탕물을 마시는 기분이랄까?
로즈 그래요? 전 여기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이때 치고 나오는 블랙.

블랙머쉬룸 (점잖게) 저도 좋아해요. 정말 훌륭한 커피죠.
특히 이 쓴맛이 입맛에 딱이더라고.
로즈 어쩜 저랑 취향도 같으셔라.

블루레드 (어이없는 표정)
로즈 살면서 이런 커피는 처음 마셔봐요.
이 커피는 뭐랄까...!
블랙머쉬룸 근본이 있는 커피죠. 요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로즈 어머, 맞아용. 호호호!

어이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블루.
뒤이어 도영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다.

미란 맛도 맛있지만, 난 이 집 커피의 향이 좋더라~

이때 치고 나오는 레드.

레드 페이스 산미가 확 올라와서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죠.
미란 어머 맞아요~
레드 페이스 음~ 이 향긋한 커피향!

갑자기 쿵쿵대며 냄새의 근원을 찾는 레드.
점점 미란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한다.

레드 페이스 아! 커피향이 아니라 숙녀분 향기였구나?
미란-레드 (분위기 좋은) 뭐에웃 호호호! / 조크 조크!
미란 (블루 보며) 근데 저분 귀에 에어팟이요?
레드 페이스 (웃으며) 보청기 보청기!
미란-레드 (분위기 좋은) 하하하! / 호호호!
블루투스 (눈치 보다가) ...한번 꺼보실래요? 하하하!

보청기 꺼내 들자 로즈와 미란 표정 굳는다.
일순간에 차가워진 분위기.

로즈 그걸 저희가 왜 꺼요...?
미란 저기 앞부분이 누래...!
블루투스 (실패했다는 표정) 농담이었는데...

이때 카페에서 80년대 노래가 작게 흘러나온다.
[BGM : Cyndi Lauper — Girls Just Want to Have Fun]

미란 어? 이 노래…! (오묘한 표정)
블루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데! 이 노래 좋아하세요?
미란 (정색)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위스트 1위!
블루투스 (실패했다는 표정) 되는 게 없구먼.

본격적으로 작업 가는 블랙.

블랙 머쉬룸 그나저나,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로즈 전 올해 1월에 들어왔어요.
미란 전 3월!
레드 페이스 그러시구나. 두 분 원래 아는 사이셨나 봐요?
로즈 그건 아니고요. 여기 들어와서 친해졌죠.
미란 여기 들어오면 다 친해져요.
나이 먹고 외롭게 지내는 것보단 낫잖아요!
블랙-레드 (맞장구) 그렇지 그렇지! / 지당한 말씀!
블랙 머쉬룸 (머뭇) 저희도 앞으로 친하게 지내죠?
미란 저희야 좋죠!
레드 페이스 좋아요?
로즈 그럼요!
레드 페이스 (블랙에게) 좋으시대!
블랙 머쉬룸 (레드에게) 나도 좋아!

분위기 화기애애한 네 사람.
블루만 심술 가득한 표정으로 커피 마시고 있다.

로즈 아! 근데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미란 맞아. 궁금해!
블랙 머쉬룸 (손가락 까딱까딱하며) 이런이런.
레드 페이스 그건 1급 기밀입니다만?
로즈-미란 (보채는) 에이~ / 알려줘요~

블랙 머쉬룸 (허세) 한번 맞춰보시든가.
로즈 음… 선생님?
블랙-레드 에이~ / 땡!
미란 회계사!
블랙-레드 에이~ / 노노!
로즈 알았다… 전직 에로배우?!
블랙-레드 땡! / 거의 할 뻔했었죠.
미란 너무 어렵다~
로즈 잠깐. 가까이 좀 가도 돼요?
블랙 머쉬룸 (당황) 네?
로즈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얼굴 좀 가까이서 보게.
블랙 머쉬룸 그… 그러세요 뭐.

블랙 바로 옆자리에 앉는 로즈.
블랙은 뭔가 부끄러운 표정이다.

로즈 (가까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네.
거친 피부에, 선명한 검버섯.
그리고… 이 사연 많은 듯한 눈동자.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이 입술…! (입술 어루만지는)
블랙 머쉬룸 (커피 질질 흘린다)
로즈 설마…!

다들 긴장된 표정.
그런데 이때 레드 핸드폰에서 전화벨 울린다. 분위기 깨지는.

블랙 머쉬룸 …설마 뭐요?
로즈 아니에요. 전화 먼저 받으세요.
블랙 머쉬룸 (짜증) 아오!!!
레드 페이스 국장이잖아…?
미란 국장?
로즈 방송국 출신들이신가? 아무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미란 다음에 또 봐요!

인사하고 나가는 미란과 로즈.

레드 페이스 ...가버렸네. (전화 받는) 여보세요?

블랙 머쉬룸 ...이런 개 같은 국장! 분위기 딱 좋았는데!

#5. 작전본부 어딘가

멍한 표정의 국장. 전화 받는 자세 그대로 멈춰 있다.

국장 요원들. 급히 전할 얘기가 있으니 빨리 와주세요.

레드 페이스(F)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 그리고 방금 개 같은 국장이라고 한 사람.

기억하죠. (전화 끊는다)

#6. 실버타운/카페(낮)

멍때리는 표정의 세 스파이. 멈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레드 페이스 (나가며) 큰일 났구만.

블랙 머쉬룸 (나가며) 어차피 은퇴했어.

도영 맛있게 드셨어요?

블루투스 맛없게 드셨수다!!!

도영 (표정)

블루투스 (나가다 말고) 그리고 이 거지 같은 노래 좀 꺼!!!

왠지 화가 나 있는 듯한 블루. 도영은 그저 멍하니 쳐다본다.

#7. 작전본부/국장실

책상에 앉아 있는 국장. 이때 후줄근한 사복 차림의 세 스파이가 들어온다.

국장 (일어나는) 오셨어요?

일렬로 서 있는 세 스파이. 국장이 일어나 한 명씩 악수한다.

국장 (악수한다) 블루, 레드, 그리고...

블랙 머쉬룸 (눈 피한다)

국장 (악수) 블랙, 실버타운은 지낼 만해요?

블랙 머쉬룸 뭐 그냥...

블루투스 잘 지내다마다! 아주 여자들에 폭 빠져 지낸다우! 푸하하!

국장 ...말투가 왜 저러죠?

레드 페이스 (어깨 으쓱) 글썩요.

블랙 머쉬룸 근데 저희는 왜 부른 겁니까?

국장 그계...

서랍장에 뭔가를 가지러 가는 국장. 들고 온 거 보면 몇 장으로 된 종이다.

블랙 머쉬룸 그계 뭐죠?

국장 이건... 미스터 오렌지의 부검 결과예요.

블루투스 예?!

국장 오렌지 요원은 자연사한 게 아니었어요.

독살... 당했죠.

블랙·블루 독살?!

국장 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계획적으로!

이때 갑자기 레드가 국장의 목살을 잡는다. 흥분 상태인 레드.

레드 페이스 무슨 소리야! 오렌지 형님이 독살이라니!

그게 말이 돼?! (몸부림) 말이 되냐고오!!!!!!

일동, 왜 저러나 싶은 표정.

레드 페이스 ...좀 오버했나?

블랙·블루 (끄덕)

국장 놓으세요.
레드 페이스 (살포시 놓는다)
블랙 머쉬룸 그럼 누가 범인이죠?! 단서 같은 거 없어요?
국장 단서라...

서랍장에 뭔가를 가지러 가는 국장.

블루투스 (궁시렁) 종이 가져올 때 한 번에 갖고 오지.

국장, 웬 액자를 하나 들고 온다.

레드 페이스 그게 뭐죠?
블랙 머쉬룸 옛날 사진이잖아...? 우리랑 같이 찍은...!

젊었을 적의 오렌지·블랙·레드·블루 사진.

블루투스 이뻐 전부 젊었구만.
레드 페이스 오렌지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군.
블랙 머쉬룸 처음 봤을 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지...

#8. 회상. 작전본부/사무실(낮)

젊은 모습의 블랙·블루·레드. 맞은편의 미스터 오렌지에게 인사한다.

젊은 블랙 안녕하세요!!! 신입 스파이, 블랙!
젊은 블루 블루!
젊은 레드 레드입니다!

맞은편 보면 젊은 미스터 오렌지가 오렌지로 저글링을 하고 있다.

젊은 오렌지 반갑구만. 난 미스터 오렌지일세.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는 젊은 세 스파이.

#9. 회상. 식당(낮)

밥에 오렌지를 짜내서 넣고 있는 미스터 오렌지.
세 스파이가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본다.

#10. 회상. 샤워실

각자 샤워기 밑에서 몸을 씻고 있는 세 스파이.
그런데 어디선가 신음소리 들린다.

젊은 오렌지(E) 으으...!

돌아보면 미스터 오렌지가 오렌지 즙을 짜내 세수하고 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11. 작전본부/국장실(#8에서 연결)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세 스파이.

레드 페이스 그는 오렌지에 미친 사람이었어...
국장 아무튼. 오렌지 요원은 프로 스파이답게 흔적을 남기는 걸 극도로 꺼렸죠. 남은 건...
블루투스 (사진 보면서) 이 사진 하나군요.
블랙 머쉬룸 (한숨) 그럼 어떡하지?
국장 사진 말고 또 있긴 해요. 그가 남기고 간 것.
레드 페이스 그게 뭐죠?
국장 바로 여러분이 지내고 계신. 실버타운이죠.

놀라는 세 스파이들. 이때 한 명씩 놀라면서 화면 4분할된다.

블랙 머쉬룸 실!
레드 페이스 버!
블루투스 타!

마지막 화면에 아무도 없다. 카메라 다급히 국장의 얼굴 잡는다.

국장 (눈치 보다가) …운!

#12. 거리/실버타운 앞(낮)

다시 정장을 차려입은 세 스파이. 실버타운 입구에 멈춰 선다.

국장(E) 실버타운을 샅샅이 뒤져서
오렌지 요원이 남긴 단서를 찾아내세요.
레드 페이스 이 실버타운이 오렌지 리더 거였다니.
블루투스 근데 이름부터가 대놓고 오렌지잖아.
레드 페이스 그렇긴 해.
블랙 머쉬룸 잡담 그만하고. 어서 실버타운 안을 수색해보자고.

손으로 정장 상의 펄럭이며 혼자 멋있게 걸어가는 블랙.

레드 페이스 갑자기 멋있는 척이야?
블루투스 지가 잘생긴 줄 알아.
레드 페이스 그러니까.

#13. 실버타운/로비(낮)

굴 까먹으며 앉아 있는 안내데스크의 도희.

이때 세 스파이들, 또 오버하며 스파이처럼 들어온다.

블랙·블루·레드 컷… / 쉬컷… / 컷…

블랙 머쉬룸 (손으로) (하나, 둘…) (작전 개시하자는 손짓)

갑자기 도희 앞 책상 위를 뒤지는 스파이들.

도희 (당황) 뭐 하시는 거예요?!
레드 페이스 (연필 들고) 연필 수상한데?
블루투스 (TV 보며) TV 수상한데?
블랙 머쉬룸 (굴 들고) 오렌지! 오렌지 수상해!!!
도희 굴이에요!
블랙 머쉬룸 (굴 내려놓고) 굴은 안 수상해.
여기는 이상 없다. (가자는 손짓)

우르르 이동하는 스파이들. 도희 어처구니없는 표정이다.

#14. 실버타운/식당(낮)

식사하고 있는 어르신들. 로즈와 미란도 식판에 밥 먹고 있다.
요란하게 등장하는 세 스파이.

블랙 머쉬룸 (손으로) (작전 개시하자는 손짓)

밥 먹는 사람을 뺀히 쳐다보는 레드. 식판을 들었다 놔다 하는 블루.
밥 먹고 있는 사람의 입을 벌려서 들여다보는 블랙.
어르신들, '뭐하는 놈들인가' 하고 쳐다보며 웅성거린다.

로즈 (궁금) 저기, 뭐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블랙 머쉬룸 (멋지게) 알면 다칩니다. (크게) 여기도 이상 무!

손으로 정장 상의 펄럭이며 혼자 멋있게 걸어 나가는 블랙.

레드 페이스 또! 또 멋있는 척이야!

블루투스 (진심 궁금한)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인 거지?
레드 페이스 ...검버섯?

#15. 실버타운/누군가의 방(낮)

아이들 놀면서 웅성거리는 소리 들린다. 스파이들 들어오셔서 멍뚱하는.

블랙 머쉬룸 할머니 어디 가셨니?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 보고 있는 두 명의 아이.

아이12 (반응 없는)

블랙 머쉬룸 ...뒤져!

또다시 방 이곳저곳을 뒤지는 스파이들. 아이들 계속 스마트폰만 본다.

블랙 머쉬룸 난 화장실을 볼게!

블루투스 그럼 난 주방!

각자 구역으로 사라지는 블랙과 블루.

레드 페이스 (말투 따라 하며) 그럼 난 여기서 쉴게!

레드, 아이들 옆으로 가 침대에 걸터앉는다. 아이들 빤히 보는.

아이1 너 <급식왕>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이2 난 구구쌤.

레드 페이스 니들 뭐 보니?

아이들 (반응 없는)

레드 페이스 할머니 언제 오시니?

아이들 (반응 없는)

레드 페이스 (슬슬 짜증) 애들아! 할머니 언제...

아이1 (말 끊고) 몰라요! 할머니 당구 치러 갔어요!

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아이들.

레드 페이스 ...니들 전부 스마트폰 중독이여! 알아?!!

아이1 스마트폰 안 하면 뭐하고 놀아요?

아이2 야...! 말대답하지 마. 무섭게 생겼잖아...

레드 페이스 뭐하고 놀기는! 가위 바위 보도 있고. 얼마나 많어!

아이1 우리 그거 할래? '텐찌나 후레쉬!'

아이2 아니거든! '데덴~찌!'거든!

아이1 아니거든! '텐찌나 후레쉬!'거든!

아이2 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이1 할아버지! 할아버지 댐 뭐라고 불렀어요?

레드 페이스 우리 때는...

아이12 (본다)

레드 페이스 우리 때는 친구들이 손이 없었어.

아이1 네...?

레드 페이스 작전 수행하다가 폭탄에 손이 날아가부리고 그랬다구.
(무섭게) 손모가지가 너덜너덜...

아이12 으아앙! (울면서 뛰쳐 나간다)

아이들 나가고 블랙과 블루 들어온다.

블루투스 애들한테 또 뭐 소릴 한 거?

레드 페이스 옛날이야기.

블랙 여기도 이상 없어. 가자!

#16. 실버타운/로비(낮)

터벅터벅 걸어가는 세 스파이.

블루투스 아무리 뒤져봐도 뭐 없는데?

블랙 머쉬룸 그러게...

이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난다.

어르신들이 도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할머니 밥 먹는데 식판을 들었다 놔다 하더라니깐!

할아버지1 내 방을 막 헤집고! 손주 놈한테 팔 잘린 얘기를 했다고!

도희 진정하세요. 저희가 누군지 찾아볼게요.

할머니2 그 할방탱 세 명이었는데!

할머니1 꺼른 정장 입고 있었어!

할머니2 맞아 맞아. 꺼른 정장!

조용히 정장 재킷 벗는 세 스파이.

할머니1 그리고 까만 구두도!

조용히 구두 벗는 세 스파이.

할머니2 그리고 한 놈은! 양쪽 귀에 에어팟을 끼구 있었어!

조용히 보청기 빼는 블루.

할머니1 또 한 놈은 얼굴에 검버섯 요만한 게 있더라구!

할머니2 그래 검버섯!

손으로 검버섯 떼어보는 블랙. 소용없다.

레드 페이스 빨리 여길 벗어나자고.

블랙블루 (끄덕)

세 스파이, 조용히 자리를 뜨려는데 도희가 나타난다. 놀라는 스파이들.

도희 저랑 얘기 좀 하시죠.

#17. 실버타운/카페(낮)

도희와 마주 앉아 있는 스파이들. 카페에서 80년대 노래가 작게 흘러나온다.

[BGM : Cyndi Lauper — Girls Just Want to Have Fun]

블루투스 그러니까 아가씨가...

블랙 머쉬룸 오렌지 형님의 손녀딸이라고?

도희 네 맞아요.

이때 도영이 커피 가져다준다.

도영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

레드 페이스 (짜려본다)

도영 커피 나왔습니다.

레드 페이스 (만족스러운 끄덕임)

도희 (도영에게) 땡큐~

도영 누구셔?

도희 그제...

블루투스 (말 끊고) 어이. 가서 이 촌스러운 노래나 좀 끄지?

도영 아 네... (가는)

잠시 후 음악 꺼진다. 이때 백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는 도희.

도희 이거... 할아버지가 전해주셨어요.

블랙 머쉬룸 오렌지 형님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는 블랙. 종이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적혀 있다.

레드 페이스 (감격) 리더가 남긴 암호야...!

블루투스 이것만 해독하면 범인을 알 수 있겠어!

블랙 머쉬룸 됐다. 찾았어!!!

일어나서 얼싸안으며 좋아하는 스파이들. 이때 로즈와 미란이 다가온다.

혼자 종이 들고 자리에 앉는 블루.

블랙 머쉬룸 어... 안녕하세요.
로즈 당신들, 스파이라면서요?
블랙블루레드 (쑥스) 아 뭐...! / 헤헤...! / (끄덕끄덕)
미란 다시 봤어요.
로즈 너무 멋있는 직업이네요.
블랙 머쉬룸 (쑥스) 아닙니다.
블루투스 (중얼) 놀구들 있네.
도희 (블루 본다)
로즈 전 로즈라고 해요.
미란 전 미란.
블랙 머쉬룸 전 블랙 머쉬룸이라고 해요!
레드 페이스 전 레드 페이스!
미란 호호호! 무슨 이름이 그래요?
로즈 스파이라서 그런가?
블랙 머쉬룸 진짜 이름은 아무나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레드 페이스 코드네임뿐이라서 미안합니다.

이때 자막으로 블랙과 레드 밑에 '김훈(73)', '이정섭(72)' 뜬다.

로즈 괜찮아요. 앞으로 차차 알게 되겠죠.
미란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로즈 아참! 저기 에어팟 끼신 저분은 코드네임이 뭐예요?
블루투스 (안 보는 척)
블랙 머쉬룸 아! 저 친구는 블루투스. 줄여서 블루라고 부르죠.
미란 어머! 블루라니. 너무 낭만적이다!
블루투스 (관심 보인다)
로즈 그러게. 얼굴도 되게 젠틀하게 생기셨어!
블루투스 (환한 표정) 정말요?
미란 네, 호호! 저희 친하게 지내요~

블루, 기쁨을 주체 못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괴성과 함께 종이를 뿌리는데...

블루투스 까호웃!!! (종이 공중에 흩날린다)
(크게) DJ! 빨리 음악! 음악 틀어!

[BGM : Cyndi Lauper — Girls Just Want to Have Fun]

카페에 음악 흘러나오고. 블루는 음악에 맞춰 팝핀 춤을 춘다.

이때 블루 밑에 자막 뜨는. '최동춘(70)'

다들 박수 치고 몸 흔들며 흥겨운 분위기. 도희 혼자만 빙뚱 표정이다.

2화 끝.

3화. 키오스크 배틀

#1. 거리/횡단보도 앞(낮)

블랙의 시점. 이때 신호등 보면 파란불이다. 남은 시간 10초... 9초... 8초....

블랙 머쉬룸(E)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것이 버거워진다.

뒤늦게 뛰기 시작하는 블랙. 화면 '느리게' 흔들리고 거친 숨소리 들린다.
전단지 알바생, 방송하는 유튜버 등의 각종 장애물들을 뿌리치는 블랙.

블랙 머쉬룸(E) 세상은... / (전단지 뿌리친다)
너무나... / (유튜버 뿌리친다)
빠르게 돌아간다...

이때 초등학생들이 뛰어든다. 놀라 멈추는 블랙.
횡단보도를 순식간에 건너가는 초등학생들. 블랙과 비교되는 속도...
신호등은 무심하게 빨간불로 바뀐다.
결국,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멈추는.

블랙 머쉬룸(E) 저 10초는 누구에게 맞춰진 걸까.
너무 버겁지 않은가...

이때 전동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시선에 들어온다.
바로 옆에 휠체어를 세우는.

블랙 머쉬룸(E) 이런 노인에게는.

보면 미니 태극기를 손에 쥐고 있는 할아버지(영춘).
태극기를 흔드는 손이 불안정하게 덜덜 떨리고 있다.
가만히 지켜보는 블랙. 그런데 영춘이 들고 있던 태극기를 땅에 떨어뜨린다.

영춘 (태극기 가리킨다)
블랙 머쉬룸 ...네?
영춘 ...주워달라고.
블랙 머쉬룸(E) ...언제 봤다고 반말이지?

갑자기 블랙과 영춘의 신경전 펼쳐지는데...

영춘 주워달라고!
블랙 머쉬룸 왜 반말이세요?!
영춘 이런 새파랗게 젊은 놈이!
블랙 머쉬룸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영춘 요즘 것들은 예의범절이...
블랙 머쉬룸 70대예요 저! 48년생!
영춘 48? 난 26이여. 마릴린 먼로랑 동갑.
블랙 머쉬룸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영춘 당신 민주당이야?
블랙 머쉬룸 예?
영춘 민주당이야 한국당이야. 누구 지지해.
블랙 머쉬룸 갑자기 그게 무슨...
영춘 누구 지지하냐고!
사람들 (웅성웅성)

어느새 모인 인파들. 블랙과 영춘을 보며 웅성거린다.

영춘 어느 쪽이야. 민주당이야 한국당이야!!! 진보야 보수야!!!
블랙 머쉬룸 (결심한 듯) 저는...
영춘 누구 지지하냐고!!!
블랙 머쉬룸 ...송가인.
영춘 ...뭐?
블랙 머쉬룸 나는, 송가인 지지합니다.
영춘 송가인...? (분다 / 점점 환하게 잇몸 보이며 미소)

잠시 후 파란불이 켜진다. 같이 손잡고 건너는 블랙과 영춘 모습.

화합된 모습에 주변 사람들 감동한 듯한 표정이다. 누군가는 박수까지 치는.

#2. 거리/실버타운 앞(낮)

실버타운 앞까지 영춘을 밀고 오는 블랙. 잠시 멈춘다.

블랙 머쉬룸 저 이제 진짜 가 봐야 돼요.
 영춘 다 왔어.
 블랙 머쉬룸 대체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영춘 다 왔다고.
 블랙 머쉬룸 그 말씀만 벌써 열다섯 번째예요! 저 이제 집 도착했다고요!
 영춘 다 왔다고! 우리 집도 여기야!
 블랙 머쉬룸 ...형님도 여기 사세요?

#3. 실버타운/로비(낮)

레드, 어딘가 화나 있다. 오렌지가 남긴 종이 손에 들고 있는.
영춘과 블랙 등장.

레드 페이스 아오 이 자식!!! 이런 놈은 죽쳐놔야 돼!!!
 블랙 머쉬룸 무슨 일이야?
 레드 페이스 아니 오렌지 형님이 남긴 이 암호 있잖아!
 블랙 머쉬룸 뭐 좀 알아냈어?
 레드 페이스 해독이 하도 안 돼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블랙 머쉬룸 근데?
 레드 페이스 그런데 그 자식이 글썄 내공만 빼먹고 도망갔어!!!
 아오씨 내 내공!!!
 블랙 머쉬룸 내공...?! 너 어디에 물어봤는데!
 레드 페이스 어디긴. 네이버 지식인이지.
 블랙 머쉬룸 네이버 지식인에... 암호해독을?
 레드 페이스 당연하지. 거기 석박사들이 널렸거든.

블랙 머쉬룸 ...너 일루 와!!! (레드를 툭툭 때린다)
 레드 페이스 왜 이래!
 블랙 머쉬룸 기밀문서를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 이 멍청한 자식!

투닥거리는 블랙과 레드. 이때 블루가 나타나 둘을 말린다.

블루투스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보청기 안 낀 내 귀에도 다 들렸어 방금.
 블랙 머쉬룸 애가 암호해독을 지식인에 올렸대잖아!
 블루투스 (레드 보며) 에휴 멍청한 놈.
 블랙 머쉬룸 그치?
 블루투스 구글에다 물어보아야지. 쫓쫓.
 블랙 머쉬룸 (어이없는 표정)

블루, 뒤에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영춘 발견한다.

블루투스 누구야?
 레드 페이스 블랙의 새로운 파트너?
 블루-레드 푸썹!!!
 블랙 머쉬룸 인사해. 영춘이 행님이셔.
 블루투스 영춘이 행님...?
 영춘 (블루에게) 자네! 한국당이야?
 블루투스 예?
 영춘 자네 보수냐고 진보냐고. 어?!
 블루투스 저 보수인데요.
 영춘 보수?

갑자기 작은 수첩 꺼내서 뭔가를 끄적이는 영춘.
이어서 핸드폰으로 블루의 모습을 찍는다. 어이없이 바라보는 블루.
영춘, 태극기 흔들며 나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 스파이.

레드 페이스 ...저건 무슨 캐릭터지?
 블랙 머쉬룸 나도 모르겠어.

블루투스 (진심 궁극한) 방금 저 행동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로즈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로즈(E) 까아악!!! 도와주세요!!!

레드 페이스 잠깐.

블루투스 방금 그 목소리는...

블랙 머쉬룸 ...로즈!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세 스파이. 그 속도는 조금 느리다.

#4. 실버타운/식당(낮)

길게 줄 서 있는 어르신들. 스파이들 두리번거리며 등장한다.

블랙 머쉬룸 로즈! 어디 있어요?

블루투스 사람이 왜 이리 많아?

레드 페이스 황천길 줄 손겨?

그 소리에 일제히 쳐다보는 어르신들. 레드 탄짓하며 휘파람 분다.

로즈(E)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블랙 머쉬룸 (듣고) 로즈!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는 스파이들. 줄 앞쪽으로 쪽 따라간다.

블랙 머쉬룸 로즈!

로즈 블랙!

보면 로즈와 미란이 키오스크 앞에서 찹찹매고 있는 모습.

레드 페이스 미란!

미란 레드!

블루투스 ...선영!

급식 아줌마 (통명스럽게) 에?!

블루투스 ...그냥 아무나 말한 건데.

블랙 머쉬룸 다행히 무사했군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로즈 큰일 난 거 맞아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키오스크를 가리키는 로즈. 스파이들도 잘 모르는 듯한 표정이다.

블루투스 그러니까 이 괴물이 로즈를 공격했다는 거죠?

미란 뭘 공격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못 먹고 있다니까!

레드 페이스 아줌마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로즈 말해봤죠! 근데 오늘부터 규정이 바뀌었대.

이 기계로만 밥을 시켜야 한다는 거야 글썄!

미란 망했어 망했어! 점심 굶겠네 오늘!

이때 치고 나오는 블랙.

블랙 머쉬룸 나와봐요.

선망의 눈빛으로 보는 로즈와 미란. 다른 사람들도 숨죽여 지켜본다.

블랙 머쉬룸 (키오스크 테두리를 ‘통통통!’ 친다)

키오스크 ...

블랙 머쉬룸 (키오스크 테두리를 ‘통통통!’ 친다)

키오스크(E) 어서 오십시오.

관중들 오오...!

블랙 머쉬룸 예 안녕하세요. 지금 숙녀분이 배가 많이 고프시거든요?

키오스크 ...

블랙 머쉬룸 (키오스크 테두리를 ‘통통통!’ 친다)

(키오스크 테두리를 계속 친다. ‘통통통통통...!’)

이때 치고 나오는 레드.

블랙 머쉬룸 너 몇 살이야? 임마!
레드 페이스 내가 해볼게. 기계는 살살 다뤄줘야 하는 법!
키오스크를 쓰다듬기 시작하는 레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쓸어내린다.

레드 페이스 밥은 언제 줄 거니~? 응~?
레드, 쓰다듬다가 슬슬 짜증난다. 갑자기 키오스크 거칠게 흔드는.

레드 페이스 야이... (흔들며) 밥 내놓으라고 밥!!! 어?!!
미란 진정하세...!
블루투스 (권총 꺼내며) 햄버거 내놔!!!
갑작스러운 권총에 어른신들 비명 지르며 도망간다.
스파이와 로즈, 미란만 남은.

로즈 결국 아무도 못 하는 거죠?
미란 그런가 봐.

이때 영춘이 휠체어 끌고 나타난다. 조용히 키오스크 앞에 서는.

블랙 머쉬룸 영춘이 행님...!
블루투스 설마...!
영춘, 손가락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하는가 싶더니 곧 주먹으로 광광거린다.

영춘 이 깡통! 이 깡통!
선영(E) 기계 때리지 마세요!!!
그 소리에 휠체어를 뒤로 이동하는 영춘, 갑자기 멈춘다.

레드 페이스 포기한 건가?
블랙 머쉬룸 ...아니야!

블루투스 ...막아!!!
키오스크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영춘.

영춘 죽어어!!!
잠시 후. 급식 아줌마(선영) 앞에 선 스파이들.

선영 (무뚝뚝) 뭐 할 말 있어요?
블랙 머쉬룸 주문하려고 왔는데요.
선영 (말없이 키오스크 가리킨다) !
블루투스 이리지 말고. 우린 사람이 편하다니깐.
선영 (말없이 키오스크 가리킨다) !
레드 페이스 거 진짜! 이러다 사람 굶어 죽겠...!
선영 (눈 부라리며 키오스크 가리킨다) !!!!!
레드 페이스 (약간 기죽은 표정) ...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5. 실버타운/로비(낮)

시위를 하고 있는 스파이들. 마스크에 뺨말까지 들고 있다.

블랙 머쉬룸 (외치는) 깡통 기계를... 철회하라!
레드.블루 (외치는) 철회하라! 철회하라!
블랙 머쉬룸 (외치는)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폭파시키겠다!
레드.블루 (외치는) 폭파시키겠다! 폭파시키겠다!

이때 나타나는 도희. 이들의 시위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블랙 머쉬룸 도희 양. 키오스크 저거 없애야 돼.
레드 페이스 맞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저런 걸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도희 (가만히 보더니) 맞춤법 틀렸어요.
레드 페이스 응...?

팻말 보면 '키오스크 철회하라!'라고 써 있다.

도희 혜가 아니라 회예요. 회춘할 때 회!
블루투스 혜미리마트 할 때 혜 아니었어?
도희 ...혜미리마트가 뭐예요?
블랙 머쉬룸 (레드에게) 아이씨. 너가 이거 맞다며!
레드 페이스 팬찮어~ 어차피 우리나라 노인 문맹률이 90퍼센트여.
블루투스 문맹률이 90퍼센트? 무슨 고조선이냐?
블랙 머쉬룸 아무튼 키오스크! 저 차가운 비석 같은 것 좀 치워부러!
블루투스 요즘 사회는 정이 없어 정이.
레드 페이스 우리 때는 말이야... 주문할 때도 사람과 사람 간의 정이 있었어! 막 주문하다가 서로 정분나고 그랬단 말야!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블랙 머쉬룸 하지 마.
블루투스 넌 한번 말하면 끝이 없어.
도희 저희가... 일단 관리자분께 말해볼게요.
레드 페이스 빨리 해야 더!
블랙 머쉬룸 지금 노인네들 다 굶고 난리여 난리!
도희 네?
블루투스 그 기계 못 만져가지구 식당에 줄이 짹! 섰다니까?
도희 식당에 줄 없던데요?
블랙 머쉬룸 뭐...?
도희 저 방금 식당에 있다 왔는데. 어르신들 다 식사하고 계세요.

서로 쳐다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스파이들.

#6. 실버타운/식당(낮)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는 스파이들.

정말로 어르신들 대부분이 앉아 식사하고 있다.

스파이들,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는 듯한 표정.

옆을 보면 키오스크 앞에서 한 할머니가 찢찢매고 있다.

할머니1 시방 어떻게 하는 거여...

이때 한 백발의 할아버지(기봉)가 백마 탄 왕자처럼 등장하는데...
수려한 외모에 옷차림도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다.

기봉 (멋있게 누르며) 여길 누르시고요. 요걸 누르고...
그리고 드시고 싶으신 거! 우리 소녀는 뭘 먹고 싶으실까~?
할머니1 (수줍) 난 비빔밥...!
기봉 오케이! 비빔밥 누르고 이거 누르면... 끝!
할머니1 (박수 치며) 와! 너무 못있어! 짱!!!

마치 공연을 끝낸 마술사처럼 과장된 제스처하며 인사하는 기봉.

블랙 머쉬룸 뭐하는 놈이여?
레드 페이스 약간 그 뭐랄까...
블루투스 제비 같다고?
레드 페이스 그래 맞아 제비!

이때 옆자리 키오스크를 보면 로즈가 찢찢매고 있다. 미란은 그냥 가버리는.

미란 언니. 난 그냥 밖에서 사먹고 올게! (나가는)
로즈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럴까...?
블랙 머쉬룸 (중얼) 안 돼...
로즈 저기... (부르려는데)
기봉 (이미 와 있는) 저 찾으셨나요?
로즈 (부끄) 어머!
기봉 메뉴는?
로즈 (수줍) 떡볶이요...
기봉 떡볶이. (짱긋) 접수 완료!

[1.5배속]

기봉, 키오스크를 누르기 시작하는데 그 동작이 현란하다.

움직일 때마다 잔상 남는.

로즈는 반해버린 듯한 표정. 블랙의 표정 심상치 않다.
옆에서 팝콘 먹으며 구경하는 블루와 레드.

기봉 (영수증 건네며) 자. 여기 다 뺐습니다.
로즈 너무 감사해요!
기봉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길…! (가려는데)
로즈 저기 흑시…
기봉 (본다)
로즈 식사 같이하시겠어요? 혼자 먹기 좀 그래서. 호호!
블랙 머쉬룸 (눈 커진다)
기봉 …종조.

같이 하하 호호거리며 사라지는 로즈와 기봉.
레드와 블루 고개 천천히 돌린다.
블랙, 온몸을 주먹 꼭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블랙, 멍한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키오스크로 다가간다.

블루투스 (팝콘 먹으며) 갑자기 지독한 연애물이 되었네.
레드 페이스 (팝콘 먹으며) 그러게.

그러더니 키오스크를 주먹으로 광광 쳐대는 블랙.

블랙 머쉬룸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선영(E) 기계 때리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더니 좌절하는 블랙.

블랙 머쉬룸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반드시 그 녀석에 복수하고 말겠다…!!!
레드 페이스 (팝콘 먹으며) 갑자기 복수극으로 바뀌었어.
블루투스 (팝콘 먹으며) 그러게.

#7. 실버타운/블랙의 방(낮)

유튜브로 뭔가를 훑어저러 보고 있는 블랙. 레드와 블루가 들어온다.

블루투스 뭐해?
블랙 머쉬룸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 공부하고 있어.
레드 페이스 (비웃는)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보고) 있네…?

동영상 보면 박막레 할머니가 키오스크 작동법을 알려주고 있다.
구수한 욕 섞어가며 차근차근 알려주는

박막레(E) 일단 보이는 대로 눌러재껴!
블랙 머쉬룸 (노트에 적는) 일단 눌러라…

노트에 필기까지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블랙.
그러던 블랙, 갑자기 노트를 가방에 챙기더니 나갈 채비를 한다.

블루투스 어디 가?
블랙 머쉬룸 이론 공부 했으니까.
이제 실전 연습 들어가야지.

뛰어나가는 블랙 머쉬룸. 레드와 블루 서로 쳐다본다.

#8. 맥도날드(낮)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는 청년. 그 뒤에 블랙이 서 있다.
정장 차림의 블랙은 긴장된 표정이다. 잠시 후 영수증 뽑고 나가는 청년.
블랙이 키오스크 앞에 선다.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 몸을 편하게 만든다.

블랙 머쉬룸 이거 누르고… (화면 바뀌자) 그렇지!

무난하게 진행하는 블랙. 그런데 그것도 잠시, 주문이 막히기 시작한다.

블랙 머쉬룸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얼굴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블랙 머쉬룸.

입술은 바짝 타오르고 손은 점점 떨린다.

어느새 뒤에는 청년 두세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는 블랙. 무슨 연구원처럼 열심히 노트 넘겨본다.

블랙 머쉬룸 (노트 넘겨가며) 도저히 모르겠어...!

청년들 언제 끝나... / 짜증 나!

블랙 머쉬룸 (눈치 보며) 죄송합니다. 금방...!

옆 키오스크로 자리 옮기는 청년들.

구석에서 블루와 레드가 아이스크림콘 먹으며 보고 있다.

레드 페이스 일행인 척하지 말자.

블루투스 (끄덕)

#9. 실버타운/로비(낮)

의자에 앉아 좌절하고 있는 블랙. 블루와 레드가 위로한다.

레드 페이스 괜찮아 블랙. 좀만 더 공부하면 돼.

블루투스 그래 맞아. 언젠간 그 기계로 주문할 수 있을 거야.

블랙 머쉬룸 그 기계, 도저히 모르겠어.

분명 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자꾸 빌어먹을 장바구니에 담긴다고!

...난 틀렸어!!!

머리를 쥐어뜯는 블랙. 그런데 이때 영춘이 휠체어 타고 다가온다.

블루투스 블랙. 누가 찾아왔는데?

블랙 머쉬룸 (보고) 영춘이 행님...?

블랙에게 뭔가를 건네는 영춘. 보면 너털너털한 낯은 노트이다.

표지에는 손수 쓴 듯한 '주문하기' 써 있는. 영춘의 비밀 노트인 듯 보인다.

블랙 머쉬룸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영춘 (끄덕)

블랙과 영춘, 뭔가 통한 표정이다.

키오스크 특별 훈련에 돌입하는 두 사람.

특별 훈련 몽타주 시작된다. 블랙이 수련하고 영춘이 옆에서 코치해 주는.

[BGM : AC/DC - BACK IN BLACK]

#10. 실버타운/블랙의 방(낮)

영춘의 비밀 노트로 공부하는 블랙. 옆에서 영춘이 집중하라고 다그친다.

#11. 실버타운/로비(낮)

마치 무술 단련하듯 손가락을 짝 펴는 연습을 하는 블랙.

영춘 고개 가로짓는다.

#12. 거리(낮)

허공에 버튼 누르는 연습하는 블랙. 영춘이 고개 가로짓고 시범 보여준다.

블랙, 끄덕이고 다시 허공에 버튼 누르는 연습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는.

#13. 맥도날드(낮)

어딘가를 보며 매우 화난 듯한 표정의 점원.

점원 아이씨 또 왔네...

보면 블랙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다. 땀범벅인.
잠시 후 키오스크에서 영수증 나온다. 패재를 부르는 블랙.

블랙 머쉬룸 해냈다!!! 몇 초예요?!

블랙에게 스톱워치 보여주는 영춘. 시간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을 본 블랙의 미묘한 표정.

블랙 머쉬룸 ...가시죠.

끄덕이는 영춘. 맥도날드를 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 비장하다.

점원(E) 햄버거 나왔다고요!!!

#14. 실버타운/식당(밤)

식사하고 있는 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로즈와 미란이 주문하고 있다.

미란 잘 좀 해봐~

로즈 잘 안 되네~?

미란 그럼 그 사람 불러, 언니!

로즈 어머. 그럴까~?

누구 좀 도와주실 분~?

또다시 기봉이 멋있게 등장한다.

기봉 제가 가르쳐드리죠.

로즈의 손을 잡고 키오스크를 같이 누르는 기봉.
이때 어디선가 소리 들린다.

블랙 머쉬룸(E) 그 손 놓지 못해?!

- 쳐다보는 로즈와 기봉.
- 쳐다보는 블루와 레드.
- 쳐다보는 식사하던 어르신들.
- 쳐다보는 액자 속 인물화.

천천히 걸어오는 블랙과 천천히 휠체어 끌고 오는 영춘 등장.

로즈 블랙...!

기봉 흥! 주문하시게?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블랙 머쉬룸 (가소롭다는 웃음) 후훗...

기봉 왜 웃지?

레드 페이스 잠깐...! 블랙의 검버섯이... 빛나고 있어!

보면 블랙의 검버섯이 평소보다 빛나고 있다.

블루투스 저렇다는 건... 블랙의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뜻이야!!!

블랙 머쉬룸 너에게. '키오스크 배틀'을 신청한다!!!

미란 키오스크 배틀?!

[BGM : Bill Conti — Going The Distance (영화 Rocky)]

시작되는 키오스크 배틀.

양쪽에서 걸어 나오는 블랙과 기봉. 교차로 얼굴 보여준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레드 페이스 시작됐다...!!!

블루투스 키오스크 배틀...!!!

걸어 나오며 목을 푸는 블랙. (E)우드득, 삐 소리 크게 들린다.
걸어 나오며 손을 푸는 기봉. (E)우드득, 삐 소리 크게 들린다.

블루투스 소리로 기선제압을 하고 있어…!!!

각자 키오스크 앞에 서는 두 사람.
로즈,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걱정되는 표정이다.

영춘 제한 시간은 10분.
제육볶음 하나와 콜라 하나를 먼저 주문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다.

영춘과 블랙 눈을 마주친다.
힘내라는 표정의 영춘.

블랙 머쉬룸 (끄덕)
영춘 그럼… 시작!!!

주문을 시작하는 두 사람. 기봉의 움직임 역시 화려하다.
반면 블랙은 정공법으로 천천히 가는.

레드 페이스 기봉은 벌써 제육을 담았어.
블루투스 지깅는데…?

가소롭다는 표정의 기봉, 그런데 콜라에서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한다.
이때 제육을 장바구니에 담는 데 성공하는 블랙, 치고 나온다.

로즈 블랙이 제육을 담았어!!!
기봉 (쳐다보는)

땀 뻘뻘 흘리는 블랙, 콜라를 찾아 화면을 이리저리 넘긴다.
기봉도 콜라를 찾아보는. 두 사람 모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미란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레드 페이스 (어깨에 손 올리는) 믿어보자구요.
미란 (어깨에서 손 내리는)
레드 페이스 (실망한 표정)

이때 눈 커지는 블랙. 콜라를 발견한다.
같은 시각 기봉도 콜라 발견하는.

[슬로 모션]
— 콜라를 담은 모습. 이후 다급히 결제 버튼을 누르는 화면.
— 주변 사람들 긴장 최고조인 리액션.
— 환호하는 듯한 블랙의 표정.
— 놀라는 듯한 기봉의 표정.

블루투스 블랙이 주문을 완료했다!!!!
블랙 머쉬룸 이겼다!!!!

곧바로 옆을 보는 사람들. 기봉이 실수로 '처음으로' 버튼을 눌렀다.

레드 페이스 실수로 처음으로 버튼을 눌렀어…!
기봉 아…!

풀썩 주저앉는 기봉.
블랙과 사람들 얼싸안고 환호한다.

블랙·사람들 와아아!!!!
기봉 내가 졌다…!

이때 구석에서 흐뭇하게 보는 영춘.
스톱워치 보면 9분 38초를 지나고 있는.
그 옆에 도회가 어처구니없게 바라보고 있다.

#15. 실버타운/식당(다음날)

주문하러 오는 세 스파이와 로즈, 미란.
그런데 키오스크가 사라져 있다.

로즈 오늘 주문 대신해주는 거죠?
블랙 머쉬룸 나만 믿으라구.
레드 페이스 어? 뭐야.
블루투스 키오스크가 사라졌네?

이때 도희 등장한다.

블랙 머쉬룸 도희 양. 여기 있던 키오스크 어디 갔어?
도희 그거요? 없애버렸죠.
블랙 머쉬룸 아니 왜!
도희 어르신들에게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아이를 데려왔어요!
블루투스 새로운 아이?

이때 움직이는 로봇 브리트니 등장한다.
영화 <스타워즈>의 R2D2처럼 생긴.

레드 페이스 뭐여 이놈은.
브리트니 (기계음) 안녕하세요. 브리트니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희 브리트니는 청소도 하고 음식 주문도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라 엄청 똑똑해요!
로즈 브리트니. 나 비빔밥 하나 주문해줘.
브리트니 (기계음) 비빔밥 하나. 접수 완료.

블랙을 제외한 일동 ‘와—!’ 한다.

블루투스 브리트니. 우리 방 좀 청소 해줘!
브리트니 물론이죠!

어디론가 가는 브리트니. 블랙을 제외한 일동 신기해하며 쫓아간다.

블랙 머쉬룸 손이 부르토도록 배워놨더니만! 아이쌍…!

3화 끝.

설레는 마음으로 공모대본을 썼습니다. 시트콤 부문이 신설된 것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평소 좋아하던 블랙 코미디와 노인 코드를 마음껏 대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야말로 하고 싶었던 걸 거의 다 넣은 대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으로 오픈에 합격까지 하다니. 하고 싶었던 장르에 하고 싶은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큰 기쁨과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픈에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추구하는 코미디(웃음)의 방향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또 극이라는 형식에서는 웃음보다는 감정이나 그 외 상황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작품집에 올릴 대본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원했던 당시 그대로의 대본을 보며 앞으로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멘토링을 받을수록 공모대본에서 점점 더 많은 빈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창피함까지 느끼고, 때론 자존감까지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곧 성장임을 믿습니다. 추후에 민낯 그대로의 대본을 보며, 저는 그때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성장했는지) 반성하고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그리고 현재에도), 밀도 높은 조언을 주셨던 콘텐츠 베테랑이신 센터장님, 코미디 작가 출신이셔서 더욱 의지가 되었던 이남규 작가님, 디테일한 로맨틱 코미디 작법을 알려주셨던 박준화 감독님,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등불 같은 백미경 작가님, 그리고 저희 시트콤 반을 위해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커다란 아이디어까지 던져주시는 김성미 시트콤 담당자님의 도움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바른 길로, 또 지속적으로 이끄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시트콤 팀 동기 분들과 함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소감문을 부끄러움이 아닌, 흐뭇한 감정으로 볼 수 있게 말입니다.

민트 컨디션

방소민

민트 컨디션(Mint Condition)

: 오래됐지만 새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빈티지, 앤티크, 중고 물품 거래 시,
신품이었을 때 가치 그대로 완벽히 보존된 상태를 의미.

여기 불법 개조 중고 MRI 기계에 들어갔다,
젊은이가 되어 나온 아저씨가 있다.
이 럭키한 의료사고로 탄력 있는 바디와 쫄쫄한 피부를 되찾았으나,
그에게 20대는 그저 끔찍한 생고생의 시절일 뿐.
살 만해진 황혼을 박탈당하고, 무일푼으로 인생 제로점에 복귀한 아재는
되돌아온 청춘이 억울하기만 한데.

걸은 멀쩡한 민트 컨디션의 중고 청년. 속은 여전히 꼬일 대로 꼬인
꼰대가 젊은이들과 북닥북닥 부딪히고, 사사건건 설교하고, 시시때때
박살나는 이야기.

특하면 “요즘 것들”을 들먹이며 트집 잡던 前어르신은 이제,
現 “요즘 것”의 입장에서 나이부심 빌런들을 핵사이다 역꾼대질로 받아치고.
25세 애어른, 예순에 자아 찾는 아줌마, 소녀가 된 치매 할머니 등
나잇값과 거리가 먼 주변 인물들은, 나이 따위 개나 쥐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혈혈단신 2020년에 뚝 떨어진 갱년기 청년의 현실 라이프는
여느 회춘, 청춘 드라마처럼 호사스러운 판타지로 가득 차진 않을 것.
이 비운의 꼰대가 멘봉의 연속인 회춘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코믹하지만 따뜻하게 그려보고자 한다.

종국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주인공을 통해,
회춘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민트 컨디션>을 시작한다.

이현철(64세 → 27세 추정, 남) 젊은이가 싫는데 젊은이가 된 비운의 꼰대

심각한 수준의 꼰대 아저씨.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폐소공포증을 일으킨다.

강박하고, 꼬장꼬장하고, 인색하고,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까탈스럽고, 고압적이고, 고지식한. 성격을 형용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다 끌어모아야 묘사 가능한 인물. 그런데 +해병대 출신. 이런 사람이 어르신인 건 참 괴로운 일인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 특하면 나이부심.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사장, 서장, 원장 등 책임자를 소환해 일장 연설을 한다. 딱히 틀린 말들은 아닌데, 듣고 있으면 엄청 무례한 오지랖이다.

40년간 일한 작은 시계 수리점을 정리하고 나름 은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무료 체험 이벤트에 혹해서 MRI 찍으러 갔다가 그 안에 갇히고 만다. 기절했다가 깨보니 매표사. 20대 청년이 돼 있다! 이런 제길... 젊은 시절 고단하고 삶에 찌든 기억뿐인 현철에게 되돌아온 청춘이란 질병과도 같은 것. 가족, 연금, 황혼, 신분, 모든 것을 잃고 즐지에 젊은 거지가 된 현철. 살길이 막막한 그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내민 이는, 하필이면 그가 경멸해 마지않던 힙합 판파라. 사사건건 못마땅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젊은이로 사는 건 영 고역인데...

외모는 열혈 청년. 속은 세상만사 불만인 갱년기 아재. 나이라는 슈퍼파워를 잃은 이 불우한 꼰대는 과연 2020년 젊은이 월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문세(25세, 남) 레트로 힙합 뮤지션

보라색 머리에 살벌한 피어싱과 문신. 용모는 범접 불가 하드코어 포스인데, 속은 참 선하고 긍정적인 박카스 청년. 힙합도 센 거 말고 건전한 뉴 잭 스윙한다.

아버지 사망. 엄마의 재혼. 녹록지 않았던 유년기의 폭풍 방향 산전수전이 범죄자 아닌 애어른을 양산해낸 바람직한 케이스. 속 깊고, 정 많고, 의리 있고. 공감능력 만렙이라 남 일에 울기도 잘 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 못 한다. 그놈의 동성심 때문에 길바닥에서 만난 현철에게 숙식까지 제공하는 문세. 그러나 모두가 미친놈 취급한 현철의 비과학적 스토리를 믿고 호의를 베풀 텐 다 사연이 있었으니...

익스(28세, 남) 문세 힙합크루 멤버1

작고 마르고 사나운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본명은 심초롱). 통렬한 사회비판 랩에 강하다. 경상도 부농인 아버지의 가업 승계 압박에 맹렬히 저항 중. 현재 힙합과 병행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은근 젊은 꼰대라 현철과 자주 부딪힌다.

장풍(25세, 남) 문세 힙합크루 멤버2

덩치에 맞지 않게 사랑에 여린 순정남. 외모는 액션 영화, 마음은 노상 로맨스. 많은 여자를 만나고 금방 차이지만, 본인은 늘 결혼까지 염두에 두며 정열을 쏟는다. 이성보다 본능에 충실한 전형적 타입. 단순무식, 다혈질에 감정 기복 심한 스타일.

마이키(22세, 남) 문세 힙합크루 멤버3

흑인 혼혈아. 애국심 짱짱한 토종 한국인인데 외모만 보고 “웨어 아 유 프롬?” 영어로 말 거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다. 좀 소심하고 눈치 없고 우유부단한 것만 빼면 참 괜찮은 애. 순수하고 착하다.

홍채리(25세, 여) 88 영상학과 의원 간호사

문세의 불알친구. 붙었다 하면 유치뽕짝 티격태격 초딩남매케미 자랑하나, 둘은 리얼 남매 이상으로 서로를 챙긴다. 뚱뚱한 체형 때문에 인신공격을 많이 받아 마음이 좀 딱딱해졌다. 매사 툭툭하고 감정변화도 없는 것이,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듯도 하고.

심은효(60세, 여) 현철의 아내

꼬장꼬장한 독불장군 남편과의 40년, 성격부터 식습관까지 모든 것을 맞추고, 감내하고, 조정하며 살았다. 고기 누린내라면 질색하는 남편 때문에 육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젠 먹고 싶은 삼겹살을 못 먹는 게 영 성질이 나는 거다. 예순 되면 좀 유순해질까 싶던 남편은, 이순(耳順) 나이에 귀가 순해지긴커녕 더 귀를 틀어막고.

현모양처도 갱년기 오면 갱스터 된다. 결국 소통불가 독재자를 들이받는 은효. 당당히 이혼을 선포하고, ‘은효 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영혼이 식민지배 당했던 기간만 수십 년. 당최 자유란 건 어떻게 쓰던 건지 잊어버렸다. 나이 육십에 자아와 자유를 찾아 나선, 이 귀엽고 어설피쁜 돌싱. 풍문으로 들은

것과는 판관인 황혼 이혼녀의 현실은 영 당혹스러운데….

그 외

닥터 김(38세, 남) 88 영상의학과 의원 원장

본명 김석훈. 문세의 불법개조 중고 MRI 기계를 구매한 양심 제로 의사.

미세먼지보다 가벼운 인간성. 그보다 가벼운 윤리의식을 지녔다.

이남진(27세, 남) 현철의 아들, 9화부터 등장 예정

이여진(25세, 남) 현철의 딸, 댄스 학원 원장

민순옥(80세, 여) 문세네 주인집 할머니

지미선(52세, 여) 문세네 주인집 아줌마

미니마우스 할머니(80세 → 23세 추정, 여) 88 병원에서 회춘한 노파, 혹은 아가씨

박선생(64세, 남) 비뇨기과 병원 원장

줄거리

캐비닛에서 나온 사나이

암막 커튼 사이로 얇은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의료폐기물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닥에 눕혀져 있는 사무용 철제 캐비닛.

그 안에서 사람 신음이 들리더니,

문이 발각 열리며 웬 20대 남자가 불쑥 튀어나온다.

57년생 닭띠 이현철, 꽃띠 청년 되다

이 청년은 24시간 전만 해도 꼬장꼬장한 64세 아저씨 이현철이었다.

집안 내 폭군 독재자로 군림하던 권위주의 아버지를 견디지 못한 장남은

열다섯에 집을 나갔고, 막내딸은 스물넷에 연을 끊었었다.

그리고 이날, 현철의 가장 갑질을 무려 40년이나 초인적 인내심으로

견뎌낸 아내마저 이혼서류를 내밀었다. “여태 내 인생은 누런 똥색 같았어.

황혼은 황금빛으로 살아볼 거야!”

“괘씸한 여편네. 썩빠지게 먹여 살려놨더니 뭐? 똥색?” 씩씩대며

집을 나온 현철에게 내밀어지는 전단지 한 장— ‘최첨단 MRI 도입 기념!

3명 한정 무료체험 기회!’

무료란 말에 흑한 현철. 몸속의 병을 살살이 찾아내, 아내의 인생을 병수발로
마감시키겠다는 불순한 보복 의도로 88 영상의학과 의원에 입성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MRI 촬영. 처음 경험하는 폐소공포증에
이성을 잃은 현철이 기계를 부서져라 두드렸고 고장 난 MRI는 그렇게 현철을
삼켜버렸다. 거기까지가 현철의 기억.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캐비닛 안.

그는 20대 청년이 돼 있다.

오! 나의 보랏빛 구세주, 래퍼 이문세

아재가 하룻밤 사이 청년이 된 믿지 못할 상황. 경찰서에서는 미친놈
취급이고, 아내 은효마저 현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칼에 쫓아낸다.

그렇게 무일푼 젊은 거지로 전락한 현철은 버스 정류장에서 방황하다
낮익은 보라색 머리를 마주치는데….

사건 당일 88 영상의학과 의원 MRI 대기실에는 현철을 포함한 세 명의 이벤트
당첨자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팔에 미니마우스 문신이 있는 80대 할머니,
나머지 한 명이 보라색 머리 힙합 청년, 문세였다. 본인 기준, 용납 불가 복장
불량 판따라야던 문세를 현철은 쉽게 기억해냈고. 이 얼뜬 청년에게 동정심을
호소 하니, 호통쳐서 녀석 옥탑방에서의 하룻밤 숙식을 강탈한다.

그러나 문세의 호의는 동정심 아닌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그날 문세는 MRI 찍으러 간 게 아니라 단짝 여사친인 간호사 채리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고. 현철이 죽은 줄로 알았던 채리와 원장의 시신 수습 과정을
도왔던 것. 멀쩡한 사람을 캐비닛에 유기했다는 미안함에, 문세는 청년 현철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리하여 문세는 알고, 현철은 모르는 그날의 비밀이
문힌 채, 둘의 동거가 시작된다.

아프니까 청춘? 청춘 어게인? 다시 청춘이라 곱이 아프다!

영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한답시고 시답잖은 말을 지껄이는 ‘힙합사람’
문세의 주변에는 온통 못마땅한 인물들뿐이고. 딱히 젊은 시절의 좋은 기억이
없는 현철은 되돌아온 청춘이 달갑긴커녕 앞길이 막막할 뿐. 그 빠센 인생을
반복할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힌다. 멘탈은 여전히 자신감 팍팍 쪼그라든 남성
갱년기 환자인 현철에게 끊임없이 긍정 파워를 주입하는 문세. 덕분에 현철은
낮에는 공부를, 밤에는 문세 크루의 매니저를 하며 공무원의 꿈을 키워보기로

한다. 청춘... 살아내야지, 뭐. 해병덴데.

미니마우스 아가씨

2020년도 청년 라이프에 적응해 슬쩍 재미까지 느낄 무렵, 현철은 20대 아가씨가 된 미니마우스 문신 할머니를 만나고, 그녀 역시 문세의 MRI를 찍고 젊어졌음을 알게 된다. 심지어 이 미니마우스녀, 화려한 관절꾸기 댄스로 클럽을 장악한 밤의 여왕이 돼 있다. 제대로 회춘 라이프를 즐기던 그녀가 눈앞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신원미상 무연고자로 유족도 없이 화장되는 것을 보고 충격받는 현철. 그놈의 고물 MRI는 겉모습만 젊은이를 만들어냈지, 속은 제 기능 상실한 지 오래인 장기들은 그대로 남겨뒀던 것. 남은 수명을 계산해보니, 겨우겨우 끌어올린 삶의 의지가 허무하게 무너진다.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중2 때 가출한 후 연락 두절된 아들 남진의 신분을 도용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오던 현철. 그런 현철 앞에 어엿한 경찰이 된 남진이 나타난다. 의료보험 사용 내역을 추적해 현철이 갱년기 치료를 받아온 비뇨기과를 찾아온 남진. 졸지에 경찰의 신분을 도용한 무모한 사기범이 된 현철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난감한데... 결국 아들의 손에 체포돼 끌려온 경찰서. 그런데 이럴 수가. 남진의 자리에 놓인 중·고·경찰대 졸업사진 속에 은효, 남진, 여진 세 식구가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간 자신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끼리 단란한 3인 가족 체제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한 가정의 그림에서 자신은 열외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가족에게서 완벽히 버려진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현철. 독거 청년으로 죽기보다 중년으로 돌아가 식구들과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제 와 가족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지난날을 후회해보지만, 사죄하기엔 너무 늦었고. 아... 늙었을 때 잘할걸...!

내 황혼을 돌려다오~

시간을 돌릴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늙어버려 중년의 모습을 되찾겠다! 급속 노화 프로젝트를 결심한 현철. 문세의 도움을 받아 노화를 촉진할 모든 전략을 시도하는데. 자외선에 맨살을 노출하고, 폭식으로 내장지방을

축적하고, 일부러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봐도 64세가 되기엔 턱도 없이 팽팽한 27세... 거기에 문세가 감추고 있던 비밀까지 알아버린 현철. 과연 그는 무사히 황혼을 되찾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1화. 캐비닛에서 나온 사나이

#1. 프롤로그. 어딘가

회색 같기도 카키색 같기도 한 매끈한 질감의 무지화면.
화면 천천히 멀어지면, 철제 캐비닛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낸다.
사무실에서 흔히 보이는, 그 애매한 색감의 캐비닛.
그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신음 들린다. 공...헉...
잠시 소리 멎는 듯하더니 이어 쿵-쿵-
신음 더 선명해지며, 쿵쿵 소리도 점점 커지고.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는 듯, 그 필사적인 움직임에 문이 들썩거리더니,
이윽고 획- 양 문 열리며 동시에 불쑥. 한 남자의 머리가 튀어나온다.
마치 관에서 튀어나온 드라큘라처럼 벌떡 “얏는” 남자의 정수리.
화면 각도 바뀌면, 이 캐비닛이 벽 아닌 바닥에 누워 있던 것이 드러난다.
속싸개에 싸인 신생아처럼 하얀 천에 전신이 곱게 싸인 20대 남자.
잠시 멎어 있더니, 주위를 둘러본다.
암막 커튼 틈새로 뻗어 나온 얇은 햇빛을 따라 암전히 부유하는 먼지.
윙-기계 소리.
몸을 퍼덕여 싸개를 벗어내는 남자. 팬티 차림의 탄탄한 알몸 드러나고.
뻗뻗한 몸을 좀비처럼 일으켜 걸음을 내디딘다. 다리가 휘청.
비틀비틀 빛을 따라 걷는 다리.
바들바들한 손이 벽 더듬어 스위치 찾아내고. 파바팟- 형광등 켜지면,
방 3면 두른 선반 가득 의료폐기물 상자들. 전자온도계 표시 2°C.
수치가 명확해진 한기가 돌며 정신이 번덕. 감각이 쭈뼛 선다.
본능적으로 양팔로 몸 감싸는데, 뭔가 이상하다.
제 몸 내려다보곤 식겁하는 남자.
캐비닛으로 달려가 쭈그러 앉아 문에 붙은 거울 확인하는데.
거울 속, 마치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본 듯한 그의 표정.

남자 이러언... 예에길...

#2. 콩나물국밥집(아침)

물컵 안에 비친 60대 아저씨의 얼굴이 일렁인다. 자막 - ‘딱 24시간 전’
인상 잔뜩 찌푸리고 컵 속 노려보는 중년 남자=현철.
맞은편에서 현철 눈치 살피며 국밥 먹는 아내=은호.

현철 (쿵쿵-컵 냄새 맡고는) 이러언... 예에길...
은호 (뭔가 많이 든 가방을 뒤적뒤적. 종이컵 찾아내 현철에 건네며)
 그니깐 그냥 가서 먹지, 뭐얼 먹고 가겠다고...
현철 (종이컵에 물 따르며) 상갓집 육계장 냄새 딱 질색이야.
은호 (구시렁) 밥 안 먹고 부의금 조금 낼라 그런 거면서...
현철 시끄러.
은호 ...얼마 넣었어?
현철 넣을 만치 넣었어.
은호 얼마?
현철 ... (못 들은 척 물 마시고)
은호 3만 원??
현철 ... (못 들은 척 국밥 그릇 휘적휘적) 국물이 한참 남았네...
은호 아우 차암!! 제일 친한 친구 장례식에 3만 원이 뭐야야?!
현철 간 놈한테 공들여 뭐해!
은호 간 놈 말구! 남은 놈들 위로하는 돈이야, 그게!
현철 (손 번쩍 들더니) 여기! 공깃밥 하나 추가!!
은호 (한숨)
젊은 사장 (공깃밥 가져오며) 추가는 2천 원입니다.
현철 뭐? 2천 원?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은호 (중얼중얼) 또 시작이다...
젊은 사장 ...제가 사장인데요.
현철 (훔으며) 그대가 사장이야?
젊은 사장 네...
현철 거, 젊은 사람이 비즈니스를 박하게 하네.

공깃밥에 2천 원을 책정해버림,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거야?
 젊은 사장 (애써 상냥하게) 쌀값도 많이 오르고, 저흰 또 이천 쌀만 쓰니깐...
 현철 (O.L.) 이천 쌀이건 삼천 쌀이건, 한국인 정서상 공깃밥은
 일천 원이 상식이지! 사실 추가 밥 정도는 싸비스로 쥐도 훈훈하고!
 젊은 사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내가 여기 구의원님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인데. 본인 지역구
 내에서 공깃밥 시세가 2천 원이다? 아주 크게 노하실 사안이라고,
 이게. (주절주절. 허세) 내가 그이랑 식사도 자주 하고 말야...
 은효 (창피하다. 가방에서 선캡을 꺼내 폭 눌러쓰고)

#3. 장례식장(아침)

빈소 입구. 부의금 접수 테이블에 척— 돈 봉투 올려놓는 현철.
 방명록에 사인펜으로 꺾꺾 이름을 적는다. 굳이 한자로 '李現鐵'.
 조문실로 향하는 현철. 은효가 따라 들어가며,
 민첩하고 은밀하게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슬라이딩한다.
 접수 테이블의 남자에게 정확히 안착하는 봉투. 한글로 '이현철' 적힌...

분향실. 절하는 현철 내외. 뒤로 통곡하는 유족 보인다.
 반절 후 현철, 친구의 영정사진을 퍽 무심하게 바라보는 얼굴에서.

#4. 버스 정류장(아침)

사람 드문드문한 버스 정류장. 의자에 나란히 앉은 현철과 은효.
 현철 옆자리, 군복차림 해병 청년이 핸드폰 본다.

현철 (대뜸) 몇 기야?
 해병 네?
 현철 (위풍당당 오른손 들어 보이면, 중지에 두툼한 해병대 금반지가
 번쩍. 가운데 박힌 큼지막한 레드 큐빅은 더 번쩍) 364기야.
 해병 (시큰둥) 필승... 255겁니다.

현철 시키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하긴 요즘 군대가 군대야?
 해병대도 갈 만해졌지. 우리 댄 말야. 그때구로 경례했다간
 바로 은어 터졌어.
 은효 (가방에서 선캡을 꺼내 눌러 쓴다.)
 현철 밥은 또 잘 나와? 맨 폴떼기에 김치, 싸구려 소세지 쪄가리. 어이구.
 그러니 초코파이가 달지, 안 달어?

CUT TO
 해병 자리에 아기 띠 맨 젊은 엄마가 앉았다.

현철 (대뜸) 둘째는 안 낳아?
 아기엄마 네?
 현철 얼른 낳아. 그게 애국이야. 요즘 사람들, 애를 하나만 낳구 말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고, 지들 생각만 해요.
 은효 (저만치 벤치 끝에 모르는 사람인 척 앉았고)

CUT TO
 이번엔 유모차 미는 다른 애 엄마. 옆으로 흐르르 아이가 셋인...

현철 뭘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
 다둥엄마 ...
 현철 (구시렁) 저걸 어떻게 다 키울라구.
 은효 (아예 얼굴 가려지도록 턱까지 선캡 폭— 내린다)

#5. 거리(오전)

뒷집 지고 앞서 걷는 현철. 은효가 종종걸음으로 열심히 따라가며,

은효 그니까. 당신도 이제 건강검진 받을 나이라고.
 현철 시끄러, 이 여자야.
 은효 형구 씨 갑자기 그렇게 된 거 보면 겁도 안 나우?
 현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여태 병원 한번 안 가고도 멀쩡히 잘 살았어!

은호 게 멀쩡한 거우? 미련한 거지? 병이 있음, 찾아 고치는 게 맞지!
 그러라고 의학이 발전하는 건데!
 현철 시끄러! 건강검진이 한두 편이야?
 은호 (우뚱 서고. 급 진지) 당신은 나 죽음,
 막 제일 싼 관에 처넣을 거지?
 현철 (꽤— 돌아보더니 상대하기 귀찮다는 듯) 먼저 가.
 은호 어디 가?
 현철 뭘 물어?! (획— 돌아 가버리고)
 은호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꺼내 들고 부들부들)

#6. 비뇨기과/대기실(낮)

부루퉁한 얼굴의 현철이 살벌하게 노려보는 것은
 남성호르몬 주사 광고 입간판.
 접수 데스크에서 잡지 보던 간호사1, 투명스럽게 “이현철 씨 들어가세요”

#7. 비뇨기과/진료실(낮)

현철에게 주사 놓는 박 선생.

박 선생 이 남성 갱년기란 게, 여성 갱년기랑 똑같아. 기운 없고, 우울하고.
 현철 (불통하게) 그 갱년기 소리 좀 그만해.
 박 선생 왜, 창피해?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현철 ...박 선생도 그런가?
 박 선생 나라고 별수 있어? 의사도 늙지.
 안 늙을라고 재들 종류별로 먹잖아.

보면, 책상 위에 일렬종대로 늘어선 각종 비타민 컬렉션.

현철 구질구질하긴. 사람이 늙을 때 되면 늙고, 죽을 때 되면 죽고.
 그게 순리지. 약처럼 오래 살아 뭐해?

박 선생 오래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살 때까지 건강히 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아픈 누구 고생이야? 병수발 드는 마누라 고생이지.
 현철 그래서 병은 모르는 게 낫단 거야.
 아는 데 돈 들어, 고치는 데 진 빠져.
 박 선생 그런 사람이 비뇨기관 참 꼬박꼬박 잘 와?
 (턱짓으로 아래 가리키며) 거긴 꼭 고치고 싶나 보지?
 현철 큘큘. 오늘따라 주사가 왜 이리 빠근해?

#8. 횡단보도(낮)

신호 대기 중. 컬러풀한 염색 머리 대학생 무리가 시끄럽다.
 그들이 못마땅한 현철, 허 끌끌 차며 혼잣말
 “요즘 것들은 하여간 점잖질 못해...”

#9. 현철&은호의 집(낮)

거실. 은호, 피곤한 몸을 막 소파에 누이려는데, 현관 도어록 소리 들리고.

현철(E) 배고파! 밥 차려!
 은호 (일어나며) 저 삼식이... 기가 막히게 밥때 되면 겨 들어와...
 부엌. 한 상 가득 차려진 식탁. 마주 앉은 부부.
 현철 (미역국을 못마땅하게 내려보다) 고기 넣었어?
 은호 ...어.
 현철 아 고기 누린내 싫다니까!
 은호 한우야. 냄새 안 나.
 현철 냄새나!
 은호 그냥 좀 먹어.
 현철 (마지못해 밥 한술 뜨며) 된장이나 끓이지...
 (기어코 숟가락으로 국그릇 멀리 밀어내다, 문득) 잠깐...!

은효 (말없이 밥만 먹고)
 현철 (순가락 던지며 호통) 망할 놈의 자식, 먹지도 못할걸!
 뭘 미역국을 끓여가며 청승을 떨어?! 비싼 한우까지 처넣고!
 은효 망할 놈이라니! 아들한테 그게 할 소리유?
 현철 아들 좋아하시네. 가출한 새끼 생일은 축하해 뭐해?
 은효 (폭발) 그래!! 미역국 좀 끓였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 미역국!!!!!!
 남진이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나 먹고 싶은 거 좀 먹어볼라 그랬다!
 (뺨) 왜! 왜!!!!!!!!!!
 현철 (부라린 눈에 당황한 흔적이 역력하고) 이 여편네가! 미쳤어??
 은효 나 고기 좋아해! 환장해! 내가 40년간 육식을 참고 살았어!
 내가 왜 당신 뺨에 삼겹살을 참아야 돼!!!
 현철 (미역국 옆으며) 이깟 고기 뺨에 남편한테 이 발광을 떨어?
 썰빠지게 가장 노릇한 대가가 이거야? 내가 뭘 못 해줬어?
 돈을 안 벌어서 뵈었어? 때리길 했어?
 은효 ...당신은 때리지만 않았지, 나를 정신적으로 너무 학대했어...
 현철 얼씨구?
 은효 아들은 열다섯에 집 나가. 딸은 연 끊고 살아.
 자식 둘 다 기겁하고 도망갔음, 좀 느끼는 바가 없어?
 현철 뭐얼!!
 은효 당신은 너무...! 사람을 숨 막히게 해!!!
 현철 (좀 충격을 받았고)
 은효 평생 사는 게 고달랐으니 당연히 성격이 껍떡하겠거니.
 당신이 안쓰럽고 불쌍했는데.
 이제 증말이지 숨이 턱턱 막혀 죽을 거 같애...
 현철 그래서 뭐! 아주 확 질식사라도 시켜줄까?!!!
 아예 식탁을 쓸어버리는 현철.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참던 은효.
 별떡 일어난다.
 이 비이성적 상황에서도 외려 이성적으로 보이는 곳곳한 은효.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꺼내 현철에게 건넨다.
 현철 (종이 받아들면, 은효의 도장 찍힌 '합의 이혼 신청서')
 은효 여태 내 인생은 누런 똥색 같았어. 황혼은 황금빛으로 살아볼 거야!

현철 (서류 찢으며) 이놈의 집구석!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인간이
 없어! 에이! (퇴장하고. 이어 우당탕탕— 집기 부수는 소리 들린다)

#10. 거리(낮)

씩씩대며 걷는 현철.

현철 망할 놈의 여편네... 썩 고생을 해가며 먹여 살려놨더니 뭐? 똥색?
 내가 뒤져야 정신 차리겠지! 내가 뒤져야!!!
 전단 알바 (불쑥 전단 내민다)
 현철 (인상 찌푸리며) 뭐야?
 전단 알바 무료 건강 검진입니다!
 현철 ('무료'란 말에 솔깃해 전단지 받아든다)
 전단지— '팔팔한 백 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 건강검진!
 국내 최초! 최신! 첨단! MRI NewAge 668 도입 기념!
 오늘 하루 선착순 단 3명, 무료 MRI 체험 기회!!
 88 영상의학과 의원'
 현철 (눈빛이 번뜩이고)

#11. 건물 계단(낮)

손에 전단지 쥔 현철. 좁고 동굴 같은 계단을 오른다.

현철 이혼? 쳇! 내가 병을 살살이 찾아내서! 꾸역꾸역 백 살까지 살아서!
 인생 똥 빛! 병수발로 마감하게 해준다!
 현철, 묵직한 스테인리스 문 앞에 도달한다.
 문에 붙은 '88' 숫자 네온사인인 파발— 하고 깜빡인다.
 현철 들어가고 문 쿵— 닫히면. 88 중 8자 하나 90도
 기울어 ∞ 무한대 표시로...

#12. 88 영상의학과 의원(낮)

고요한 대기실. 80대 할머니와 20대 청년(=문세) 사이에 앉은 현철.

문세의 헤드셋에서 쿵작대는 비트가 희미하게 새어 나오고.

좌측의 할머니, 박카스 한 모금 마시더니 거기에 판피린을 섞는다.

쫄글쫄글한 팔에 주인과 함께 나이를 먹은 주름진 미니마우스 문신이 인상적이다.

우측의 문세, XXXL 필라 트레이닝복. 현란한 보라색 머리. 얼굴 여기저기 박힌 피어싱. 핸드폰 만지는 손엔 해골 문신까지. 현철, 고개를 절레절레.

CUT TO

살이 상당히 찐 간호사(=채리)가 수동 혈압계로 현철 혈압 체크 중.

현철 몇 킬로야?

채리 네?

현철 100 넘나?

문세 (옆에서 듣고 웃음 쿵 빠져나오고)

채리 ... (대구 없이 혈압계 펌핑만)

현철 살이 그렇게 찌서 시집을 어떻게 갈라 그래?

채리 (뚝뚝하게) 시집갔는데요?

현철 ?!! 남편은 몇 킬론데?

채리 (부러 고무줄을 튕겨 매듭을 풀고)

현철 아, 아퍼어!!!

#13. 88 영상의학과 의원/MRI 실 앞

긴장한 얼굴로 대기 중인 현철.

옆에서 랩을 중얼거리는 문세가 영 거슬리는데.

검사실 문 열리더니, 미니마우스 할머니가 산뜻한 표정으로 나온다.

굽어진 허리에 뒷집 지고 느릿느릿. 현철 지나치며

씨익- 이를 드러내 웃는 할머니.

웁니 아랫니 올 금니가 화려하게 반짝인다.

#14. 88 영상의학과 의원/MRI 실 안

MRI 기계 베드에 누운 현철. 채리가 현철 몸을 고정하고.

비상 버튼 손에 쥐어주고, 머리에 헤드셋을 씌운다.

신나는 비트의 음악이 나온다.

맞은편 유리 부스 안의 닥터 김, 마이크 앞에 앉아 방정맞게 리듬 타며,

닥터 김(F) (헤드셋 통해 들리는, 마치 아침 라디오방송 DJ와 같은 발랄함)
안녕하세요~ 오늘 이현철 님과 MRI 촬영을 함께할 닥터
김석훈입니다~ 우리 현철 님, 평소 폐소공포증은 없으시죠?

현철 없어, 그딴 거.

닥터 김(F) 금속류 장신구 다 빼셨고요?

채리 (쓱 훑는데, 현철 손에 큼지막한 해병대 금반지. 헤드셋 벗기곤)
반지 안 빼잖아요.

현철 금인데?

채리 빼세요.

현철 아까 그 할머니 이가 죄 금니드만!

금니는 되고! 금반지는 안 되는 게 어딴어?

채리 꼬장 부리지 마세요.

현철 이런 망할! 싸비스직 종사자가 말투가 왜 이리 글러 먹었어?

채리 (상대하기 싫다. 헤드셋 다시 씌운 후 기계 버튼을 눌러버리고)

현철 (점점 기계 안으로 들어가며) 너 똥땡이 너! 이따 혼날 줄 알아!!

채리, 노려보다 감정 담아 조작 버튼 푹푹 누르니

발밑에 부품 하나 툭 떨어진다.

부품 줍고 잠시 고민하는 채리.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닥터 김(F) 검사 중에 소음이 날 거예요. 많이 불편하다, 못 참겠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비상 버튼을~누르세요~!!

MRI 기계 안으로 들어온 현철의 시점에서,

몸에 밀착된 폐쇄적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진다.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는 현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닥터 김(F) 괜찮으시죠?
 현철 (괜찮지 않다. 손에 쥔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침을 꿀꺽)
 닥터 김(F)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숨 참으세요. 원투쓰리~

윙—기계음이 들리고. 본격적으로 불쾌한 소음이 시작된다.
 코앞의 기계는 내려앉을 듯하고.
 기계 소음과 음악 소리가 뒤섞여 뇌가 울린다.
 죽음의 폐소공포를 기어코 참는 현철.
 점점 정신이 혼미하고, 시야가 어지럽다. 가쁜 숨 턱까지 차오를 무렵,
 마침내 비상 버튼을 누르는 현철의 손.
 그런데 맙소사. 버튼이 툭 떨어져 나온다.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는 현철. 광광!! 기계를 마구 두드리기 시작한다.

현철 (핏대가 잔뜩 선) 살려... 살려줘어!!!
 닥터 김(F) 이현철 님, 움직이지 마시고... 어? 이거 왜 이래?

당황한 의사의 목소리와 함께 굉음에 가까운 기계음이
 한층 더 요란해지더니,
 이제는 급기야 기계가 번쩍번쩍 이상한 불빛을 내뿜는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현철, 기계를 부술 듯 두드리며 괴성을 지르지만,
 엄청난 데시벨의 기계음과 음악 소리에 묻혀버리는 비명.
 눈 부릅뜬 채 발작 일으킨 현철의 모습에서 소음이 멀어지며 화이트 아웃.

#15. 현재. 의료폐기물실(낮)

프롤로그의 연결. 쭈그린 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현철.
 얼굴과 몸을 이리저리 만져본다. 믿기지 않는다. 청년이 되어 있다!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 출입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달려가 커튼 젖히고 창문 여는 현철.
 내려다보니 2층 정도의 높다.

#16. 거리(낮)

하얀 천을 뒤집어쓴 채 괴성을 지르며 절뚝절뚝. 거리를 내달리는 현철.

#17. 파출소(낮)

“사람이 젊어졌다!!!” 외치며 긴박하게 뛰어드는 현철.

CUT TO

POLICE 적힌 목 늘어난 티셔츠 입은 산발의 현철.
 시큰둥한 고참 순경과 어린 순경에게 상황 설명 중.

고참 순경 그니까아,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MRI 기계에 갇혔다?
 현철 그렇다니까!!
 고참 순경 일어나보니 사물함 안이었고?
 현철 어!!!
 고참 순경 정리하면, MRI에 들어갔다가 사물함으로 나왔다.
 근데 젊은이가 되어 있더라, 이거네?
 현철 그르치!! 정신 차려보니 몸이 이렇더라고요!
 고참 순경 ...선생님은 원래 몇 살이신데?
 현철 나 57년 닭띠.
 고참 순경 ...예순넷?
 현철 어!
 고참 순경 예순넷... 그래서 반말을 하시는 거고?
 현철 그르치! 정 못 믿겠으면, 같이 가보면 될 거 아냐?
 내가 지금 그 병원에서 탈출해 온 길이라니까?
 어린 순경 (웁다구나) 아! ‘병원’에서 ‘탈출’하셨구나? 그럼 보호자 분께
 연락부터...
 현철 (O.L.) 씽! 이거이거 경찰들이 일을 알아서 하면 쓰겠어?
 신고가 들어왔음, 빠릿빠릿하게 출동을 해야지! 여기 서장 어딴어?
 고참 순경 (골치 아프다는 듯, 어린 순경에게 ‘가라’는 톱잇)

#18. 88 영상의학과 의원(낮)

텅 빈 병원. 현철 난감하고.
어린 순경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인데.
마침 의료폐기물실에서 나오는 채리.

현철 (급 위풍당당) 어이! 똥땡이! 너 일루 와봐!
채리 …누구세요?
현철 나? 내가 그 고물 덩어리에 갇힌 사람이다!
채리 (동요 없다) …왜 반말이니?
현철 이 죄간한 똥땡이가 또 뼈뺏하게 구네.
이런 대형 의료사고를 치고도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 원장 나와!! 내가 이 똥땡이랑 그 시키, 싹 콩밥 먹일라니까!
채리 …나, 이 사람 영업방해랑 모욕죄로 고소할래요.
현철 (어이가 없다) 사람 꼴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고소?
어린 순경 (끌고 나가며) 좀 이상한 분 같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현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하고) 이거 놔! 안 놔?
어린 순경 (몸 씩름하며 끌어내고) 자꾸 이러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현철 이것들이! 피해자를 뭐? 고소하고 체포해?
(아예 드러누워버린다) 어디 끌어내봐!
내 몸 본래대로 고쳐놓을 때까지! 절대 못 나가야!!!

#19. 횡단보도(낮)

신호 대기 중. 격한 실랑이의 흔적이 남은 현철의 처참한 행색.
60대 아저씨 행인, 현철을 아니꼽게 훑으며 허를 끌끌 차며
“요즘 것들은 하여간…”

현철 왜? 뭐? 왜??!!!

#20. 현철&은효의 집 앞(낮)

현철, 도어록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다 멈춰한다.

현철 설마… 40년을 같이 산 남편을 못 알아볼까…

#21. 교차. 현철&은효의 집/거실+안방(낮)

거실. 거실로 들어서서 현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집 안.

현철 여진 엄마! (안방에서 어렴풋이 샤워기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흥분하며) 씻어? 씻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씻어?!

현철, 안방으로 쳐들어가려는데, 배가 사르르 아프다.
일단 화장실로 향한다.

— 안방. 화장대 앞. 트로트 틀어놓고 콧노래 흥얼거리며 드라이 중인 은효.
두꺼운 롤 빗으로 정수리 볼륨 만들고 있고.

화장대 위 고데기는 180도로 예열 중.

— 거실. 기운 쏙 빠진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현철.

소파 위에 털썩 늘어진다. 익숙한 일상의 냄새. 긴장이 스르르 풀린다.

신문 집어 들더니 아예 누워버리고.

— 안방. 머리 말리던 은효, “어머, 내 정신 좀 봐!”

빛 든 채 급히 부엌으로 향하고.

— 부엌. 무언가 끓어 넘치고 있는 냄비. 가스레인지 불 끄는 은효.

— 거실. 다시 안방으로 향하던 은효. 문득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고.

돌아보니 소파에 누가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다. 조심조심 다가가는 은효.

신문지를 획— 걷어내보니, 웬 20대 남자다.

꺅! 비명 지르며 달려드는 은효. 손에 든 뽕족뽕족 롤빗으로

현철을 난타한다.

현철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여편네야! 나야 나! 당신 남편!!!
 은효 (인정사정없이 때리며) 어머 어머! 순 미친놈이네, 이거!!!
 현철 (흠씬 맞으며) 아... 아... 오른쪽 엉덩이에 점 있는 심은효!!!
 은효 ?!!! 어머 어머! 변태 시끼!! (더 세게 때리고)
 현철 아... 아... (간절한 외침) 40년간 육식 참은 심은효오오!!!

CUT TO

낮은 원목 의자에 몸통 묶인 현철. 얼굴 곳곳에 빗 자국이 송송 나 있고.
 앞엔 달궂진 고데기를 든 은효가 흡사 고문관의 자세로 심문 중.

은효 아들.
 현철 이남진이. 귀 뚫고 들어왔다, 야구 빠다로 맞고 열다섯에 가출.
 지금껏 연락 두절.
 은효 딸.
 현철 이여진이. 기껏 대학 보내줬더니 배꼽 흔드는 춤에 빠져서
 욕 디지게 먹고 가출. 여지껏 지애비를 개똥 취급하는 년.
 은효 ...결혼식.
 현철 강동 예식장. 드레스에 김치국물 묻었다고 질질 짜고
 난리가 났었지.
 은효 ...신혼여행.
 현철 부곡하와이.
 은효 첫 키스.
 현철 수잔 다방... (하다 은효 눈치 보고) 뒷골목...?
 은효 이봐 이봐. (고데기를 위협적으로 들이대고)
 현철 아니 이보게! 내가 그걸 기억할 사람이야?
 은효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나더러 총각이 내 남편이란 말을
 믿으라고?
 현철 내가 당신 남편이 맞다니까. 아님, 그걸 다 어떻게 아냐고?
 진짜야. 좀 믿어줘.
 은효 내가, 궁합 좋단 사주쟁이 말 듣고 결혼했다 아주 피 본 사람이야.
 그때부터 비과학적인 건 일체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현철 당신이 안 믿음 난 어떡하라고!!!
 은효 미친놈! 너 자꾸 반말 짹짹할래?!!

현철 어떡하라고...요...
 은효 (기가 찬다) 이현철이가 시키든? 침입해서 뭐, 협박이라도 하래?
 현철 아우, 진짜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
 은효 가족사를 달달 외는 걸 보니, 우리 아저씨랑 교류가 있긴 한가
 본데. 만나거든 이거나 전해. (봉투 주고)
 현철 (열어보면, 또 이혼서류)
 은효 딱 전달해. 난 수십 년을 고민한 거니까. 재고할 여지 없다고.
 이런 짓거리로 질척거리지 말고 쿨하게 빠이빠이 하자고.
 현철 (완전히 절망한다)
 은효 머리가 좀 헤까닥 한 거 같으니 경찰은 안 부를 테니까.
 조용히 나가셨으면 좋겠어.
 현철 ...
 은효 경찰 불러???
 현철 (의자에 묶인 채로 일어난다.
 뒹뒹뒹뒹 현관을 향하는 처량한 뒷모습)
 은효 (현철 중지에 붉은 반지 흔적 보고 좀 놀란) 어?
 현철 (돌아보고)
 은효 얼른 안 나가?

#22. 거리(오후)

원목 의자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현철.
 쓰레기 모아둔 곳에 의자를 버리려다,

현철 아까운 걸 왜 버려... (다시 의자 들고 걷는다)

#23. 거리(오후)

남성복 할인행사장의 전신 거울 앞을 지나던 현철.
 줄지에 의자 하나 든 청년의 모습이 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다.

INSERT

과거. 빠르게 스치는 현철의 젊은 시절 기억들

- 건설현장(낮). 지게에 벽돌 지고 옮기는 10대 현철.
 - 지하 단칸방(밤). 바짝 밀착해 쪽잠 자는 10대 현철과 3남 3녀 형제들.
 - 해병대 포항 1사단(낮). 선임에게 구타당하는 해병 현철.
 - 해병대 포항 1사단(밤). 변기 위에 쪼그린 현철. 울면서 초코파이 먹는...
 - 언덕(낮). 땀을 뻘뻘 흘리며 과일 리어카 끄는 20대 현철.
 - 당구장(밤). 대걸레 들고 청소하는 20대 현철.
 - 지하 단칸방(밤). 우는 신생아를 안고 달래는 30대 은효.
- 구석에서 새우잠 자다 인상 찌푸리는 30대 현철.
- 시계 수리점(낮). 좁고 낡은 가게 안.
- 드라이버 들고 꾸벅꾸벅 조는 30대 현철.

다시 현재의 현철. 애처럼 훌쩍훌쩍 울먹이더니 오열하기 시작한다.

현철 아이고오... 그 힘든 걸... 다시 어떻게 살라구...
 (아예 통곡) 내 황혼을 돌리도...

#24. 현철&은효의 집(오후)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는 은효. 결혼사진을 찾아낸다.
 시무룩한 신부의 얼굴. 드레스에 묻은 얼룩.
 그리고 신랑(=젊은 시절의 현철).
 고개를 가우뚱하는 은효. 아까 그 총각과 닮긴 닮았다. 혹시나 하다가...

은효 (고개 털며) 에에이. 설마. 에에이. 말도 안 돼.

#25. 버스 정류장(오후+밤)

노선도 방향으로 의자를 놓고 앉은 현철. 어디를 가야 하나... 갈 곳이 없다.
주머니를 뒤져본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어차피 어딜 갈 수도 없겠다.

멍하니 노선도를 응시하는 현철.

그 옆을 바쁘게 지나치는 행인들의 무심한 분주함.

현철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간은 경과해 어둑어둑한 밤.

어느덧 조용해진 정류장. 적막 속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보면, 정류장 벤치에는 헤드셋 낀 청년뿐.

비트에 맞춰 들썩거리는 청년의 손. 그리고 손가락의 해골 문신!

광고판의 빛을 받아 더욱 선명한 보라색 머리.

#12의 그 청년(=문세)이다.

#26. 88 영상의학과 의원/원장실(밤)

의료폐기물실 비추는 CCTV 화면(사건 당일의 녹화분).

캐비닛에서 튀어나온 현철이 창밖으로

점프하기까지의 과정이 빠르게 재생되고.

사색이 된 채 서로를 바라보는 채리와 닥터 김.

#27. 버스 정류장(밤)

문세 앞에 우뚝 선 현철. 다짜고짜 문세의 헤드셋을 벗긴다.

현철 자네, 어제 MRI 찍지 않았나?

문세 네?

CUT TO

아예 문세 앞에 의자를 마주 놓고 앉아 한탄 중인 현철.

현철 글썄 눈 떠보니 요 모양 요 꼴이 돼 있더라, 이 말이야.

문세 (눈만 껌뻑껌뻑)

현철 근데 어째, 그대는 멀쩡허네?

문세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났다고 그래서...

현철 운 좋았구먼. 난 졸지에 멍전 한 폰 없는 노숙자가 됐다고.

아무도 믿질 않고.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겠누?
 문세 …그걸 왜 저한테…
 현철 젊은 사람이 왜 이리 책임의식이 없어? 으른이 곤경에 처했으면,
 도의적으로라도 마음을 베풀어야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박해서야
 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맘 편히 나이나 먹겠어?
 문세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현철 일단 있는 거라도 쥐봐.
 문세 (얼결에 주머니를 뒤지고)
 현철 (그런 문세를 뺨히 보다, 문득) 자네. 혼자 사나?

#28. 버스 안(밤)

승객 없는 버스 안. 나란히 앉은 문세와 현철.
 현철 딱 하룻밤만 신세 좀 지세. 그대 이름이 뭐가?
 문세 …이문세요.
 현철 이름이 뭐 그래… (중얼중얼) 지가 가수야 뭐야…
 분위기 어색한 두 남자.
 버스 흔들릴 때마다 둘의 몸도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29. 문세의 옥탑방(밤)

힙합 뮤지션들의 포스터, 키보드,
 전자 드럼 등 음악용품들로 가득한 문세의 집.
 좌우 양쪽 벽에 바짝 붙인 잠자리. 널찍이 떨어져 누운 두 남자.
 현철 그대가 뭐 그… 힙합 사람인가?
 문세 …힙합피요? 네.
 현철 …마약 같은 건 안 하지?
 문세 …담배도 안 피웁니다, 저.

현철 그래. 괜히 호기심에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문세 …저기요 …살인 같은 건 안 하시죠?

CUT TO

드르릉 코 골며 대자로 뺨은 현철. 자막 — ‘딱 1분 뒤’
 신기한 동물을 보듯 현철 보던 문세. 일어나 현철 자리로 간다.
 자는 모습 본격 관찰하는데.

문세 아무래도 좀 미친놈인가? 생긴 건 멀쩡한데.

더 가까이 가보는 문세. 이때 진동 울리는 문세 핸드폰.
 문세, 핸드폰으로 무언가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30. 골목(밤)

후드 뒤집어쓴 문세. 주변을 잔뜩 경계하며 다급히 어디론가 향하고.

#31. 편의점 앞(밤)

문세가 도착한 곳은 편의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12, 14의 간호사 채리.

1화 끝.

2화. 오! 나의 보랏빛 구세주, 래퍼 이문세

#1. 편의점 앞(밤)

후드 뒤집어쓴 문세가 주변을 잔뜩 경계하며 도착한 곳은 편의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간호사 채리.

#2. 편의점 안(밤)

소시지 하나씩 들고 심각한 채리와 문세.

채리 이 등신아!! 그렇다고 집엘 데려가냐??
 문세 그럼 썩까? 무일푼으로 쫓겨났다는데?
 근데 진짜야? 그 아저씨가 진짜 그렇게 된 거냐고?
 채리 나도 몰라!!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문세 와 씨! 이제 어떡해?
 채리 (태연하게도) 뭘 어떡해? 죽지 않고 살아 있음 된 거지.
 전신성형을 한큐에 시켜줬는데. 외려 완전 땡큐지.
 (소시지 꺾꺾) 그냥 잘 살아보시라고 살살 달래서 보내.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니가 같이 살아라. 옆에서 감시하게.
 문세 넌 진짜 싸이코니? 아오. 불알친구만 아님, 진짜 확 그냥!!
 채리 그 끈대 성격 장난 아냐! 언론에 까발린다 어쩐다, 일 키움 어쩔래?
 나 잡혀감, 넌 무사할 거 같아?
 문세 내가 뭘 했다고!
 채리 너도 따지고 보면 공범이지!

INSERT

짧고 빠르게 스치는 사건 당일의 기억.
문제의 MRI실. 축 늘어진 60대 현철의 몸을 옮기는 채리와 닥터 김,
그리고 문세.

채리 분명히 죽었었는데... (우걱우걱 기계적으로 소시지를 씹고 있다)
 문세 이 와중에 소시지가 넘어가냐?
 채리 나 스트레스받음 먹는 거 몰라??
 문세 뭘 스트레스를 일평생 받고 앉았어!
 후... 그나저나 그 아저씨 불쌍해서 어떡하냐...
 가족들도 찾고 난리가 났을 텐데...

#3. 은효의 집/부엌(아침)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집 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식탁 위 불판에서 고기 굽는 은효.

은효 음음음~ 고기는 역시 모닝 고기지!!
 한껏 브런치 느낌 낸 한식 아침상.
 쌈장은 버터 그릇, 파채는 샐러드 볼, 예쁘게 플레이팅 된 쌈 채소.
 거기에 수북하게 고기 쌓은 메인 접시 추가하며 마냥 행복한 은효.
 핸드폰 들어 인증샷까지 찰칵 찍는다.

#4. 문세의 옥탑방(아침)

소시지를 비롯한 편의점 음식들로 차려진 밥상.
 못마땅한 식단에 인상 쓰는 현철.
 문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 연달아 울리고.
 화면 오른쪽에 뜨는 '웬수 똥'과의 카톡 대화창 —
 '자립할 때까지만 도와드려' '불쌍하신 분이잖아'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해'
 '그럼 니 책임♥'
 부아가 치미는 문세. 조용히 입 모양으로 '이 또라이...'

문세 저... 영화에서 보면, 젊어지는 게 꽤 낭만적인 일이던데.

새로운 사랑도 하고, 못다 이룬 꿈도 이루고, 그러던데.
 현철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애기지.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당장 막노동을 뭘 판에 무슨...
 문세 그래도... 군대는 안 가도 되잖아요.
 현철 게 대수야? 군대보다 빠센 인생이 천리만린데.
 문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현철 고생을 왜 사서 해?
 문세 ...뭐 피할 수 없음 즐기는 것도...
 현철 피할 수 있음 피하는 게 좋지... (한숨)
 개고생하며 살았는데 인생 막판에 개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신세 생각하니 막막하다. 훌쩍거리며)
 지문이 삭도록 일해 모은 돈, 이제 좀 써보나 했는데...
 문세 (같이 울먹울먹. 미안해 죽겠다)
 현철 올해부터, (급기야 운다) 연금도 나오는데...!

#5. 거리(낮)

힙합 옷 입은 현철. 무릎 아파 절뚝대는 걸음이 묘하게 힙합 스타일.
 옆에 바짝 따라붙은 문세와의 모습은 어쩌면 힙합 듀오 같기도 하고.

문세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현철 (못 들은 척. 괜히 바지춤 끌어올리며 심통) 옷이 뭐 이따구야?
 문세 갈 데 없으시잖아요.
 현철 (힙합바지 가슴까지 끌어올려 배바지 만들고는 호통)
 내가 갈 데가!!! (생각해보니 없고) ...없어도!
 자존심은 있는 사람이야! 사내가 말을 뱉었음 딱 지켜야지.
 거, 하룻밤 신세 졌으니 됐고. 그만 쫓래쫓래 쫓아와.
 문세 (쫓래쫓래 쫓아가고) ...돈도 없으시잖아요
 현철 (딱 걸음 멈추고) 지금 으른 말을 뭘로 듣는 거지?
 내가 꼴이 이렇다고 괘시하는 건가, 자네?
 (근엄하게 호통치는 현철의 힙합 배바지. 쓱—흘러내린다)
 문세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현철 ...병 고치러!

#6. 비뇨기과/접수 데스크(낮)

접수 중인 현철. 현철 옆에 딱 붙어 있는 문세.

간호사1 (전과 달리 상냥한) 초진이세요?
 현철 재진.
 간호사1 (대기자명단 적힌 스프링노트 주며) 성함이랑 생년월일 적으세요.
 현철 (무의식적으로 '이현철, 1957.04.21' 적는데)
 간호사1 (노트 보더니) 57. 이거 잘못 적으셨네.
 현철 (아차 싶고) 생각해보니 처음 왔네.
 간호사1 (초진의뢰서 주고)
 현철 (망설이다가 적는... '이름: 이남진, 주민등록번호: 931025-1234...')
 문세 (그런 현철을 유심히 본다)

#7. 비뇨기과/진료실(낮)

황당한 얼굴의 박 선생. 환자 현철은 부담스럽도록 절박한 눈빛이고.

박 선생 젊어진 게 어떻게 병입니까? 회춘은 축복이지.
 현철 그럼... 못 고치는 건가...
 박 선생 (차트 보며) 뭐 얼마나 젊어졌단 건지 모르겠지만,
 남성호르몬 수치를 보면, 전혀 젊지 않아.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주사나 맞으세요.
 (헛웃음 치며) 별걱정을 다하시네. 그 나이가 된담 난 영혼이라도 팔겠구만. 아이고. 시간을 돌릴 수 있담 얼마나 좋아.
 현철의 허망한 얼굴 위로 푹푹딱딱 시계 소리 선행되고.

현철(E) ...시간을 돌리면, 난 다시...

#8. 과거+현재. 예지동 시계골목(저녁)

문 달힌 작은 시계 수리점 앞의 현철. 옆에서 눈치 보는 문세.
내려진 셔터 사이로 보이는 내부. 피곤함에 찌든 과거의 현철이
패증시계를 고친다.

현철(E) 시간에 갇히는데...

신 사장 (옆 가게 들어가다 참견) 광장시장은 저쪽이야.

현철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어? 신 사장...!

신 사장 빈대떡 먹으러 온 거 아냐?

현철 (슬픈 눈으로 닫힌 가게 향해) ...여기 사장 좀 만나러 왔네만.

신 사장 이 사장네? 그이 은퇴한 지 1년 넘었어.

현철 ...사장님. 사람 하나 안 쓰실래? 내 이래 봐도 경력이 출중한데.

신 사장 이 경기에 누가 사람을 구해?

현철 ...그렇지...

신 사장 한창에 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현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그러...

신 사장 젊은 사람이 왜 이리 패기가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을 나이 아냐!

좋을 때지. 좋을 때야. 많이 즐겨, 이 사람아!

젊을 땐! 강 막 구르는 거야! 문란하고 되바라지고

광란적으로다가! 청춘은! 그래도 다 용서가 되니까!

#9. 읍지로 만선호프(밤)

노가리와 맥주잔 놓인 테이블에 앉은 현철과 문세.
복적복적.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을 둘러보며 한숨만 나오는 현철.

현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뭘 즐겨봤어야 즐기지. (술 마시고)

문세 (누구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손 번쩍) 여기야!

마르고 사납게 생긴 놈(익스), 덩치 큰 놈(장풍),
그리고 흑인(마이키)이 합석한다.

문세 여긴 아는 아저씨...아니아니. 지인? 아니아니 아는 형...님.

그리고 여긴 우리 크루 멤버들. 익스, 장풍 그리고 마이키.

친구들 (차례로 힙합 스타일 인사하고)

현철 (똥. 반응 없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놈들이다.

깊은 한숨만 폭—)

CUT TO

즉석 랩 공연 한판 중인 장풍, 익스, 마이키.

주변 테이블에서는 리듬 맞춰 박수치고 환호하며 동영상 찍는데,
현철만 똥하다.

현철 니들 애비들은 니들 이려고 다니는 거 아시냐?

문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전.

현철 (조용히) 하여간 애비 없이 자란 놈들은 티를 내요...큘.

별 시답지도 않은 말이나 씨불이는 것도 노래라고.

저딴 걸 대체 왜 하는 거야?

문세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꿈이니까. 아저씨 꿈이 뭐였어요?

현철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 그냥 살았지.

니들이야, 세상 좋아졌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우리 때 제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나.

문세 그래도 하나는 있었을 거 아녜요. 마음속에 묻어둔 무언가.

현철 ...공무원. 살다 보니 그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최고야.

문세 그럼 하면 되겠네요! 공무원!

현철 에라이.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이 무슨 공무원이야.

문세 아들 주민등록번호 쓰면 되잖아요. 이남진. 아들 맞죠?

현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아들놈 신원을 도용하란 말이야?

문세 좀 하면 어때요?! 아들인데!

현철 됐어!! 그런 불법적인 건 일절 않는 사람야, 내가!!

준법정신 하난 후덜덜하게 지키고 산 놈이라고, 이 이현철이가!

#10. 주민센터(낮)

지문 스캐너에 연달아 지문 인식이 되지 않고. 초조한 현철, 다리를 달달.

직원 (현철 손가락을 보더니) 지문이 다 닳으셨네? 습진 있으세요?
 현철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직원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일단 본인확인 질문으로 처리해드릴 테니까, 회복하면 다시 지문 찍으러 오세요. 보자.
 어머니 성함이 뭐죠?
 현철 (반갑게) 권순화.
 직원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현철 (자연스럽게) ...는 할머니고. (달달 읊는) 엄마 심은효 육공년생. 아버지 이현철은 오칠년생. 누나는 팔오년생 이어진이. 본적은...

#11. 공연장/대기실(밤)

93년생 이남진의 신분증 들고 기분 묘한 현철.
 괜히 소매로 사진을 좀 닦아보고.
 그 옆엔, 익스가 대기업 적성검사 문제집 풀고.
 심각하게 통화 중인 장풍은 '그래! 헤어져!' 화를 내며 전화 끊는다.

현철 (덜똥덜똥 앓은 마이크를 못마땅하게 보더니) 유 양키?
 마이크 ...저 마이크...
 현철 (전형적인 아재 영어) 코리안 노 스피킹?
 마이크 ...형 나 한국 사람이야.
 현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얼굴로 보는데)
 행사담당자(E) (언성 높이며) 원래 행사는 후불 정산인 거 알잖아.
 현철 (소리 나는 쪽 보면, 문세가 행사 담당자와 언쟁 중)
 문세 작년 것도 정산 안 해주셨잖아요.

행사 담당자 그건 주최 측 책임이고. 우리 대행사라 예산에 권한 없다니까!

INSERT

과거. 건설현장.

임금체불 항의농성 무리 속,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10대 현철.

현철 (끼어들며 버럭) 거, 애들을 부려먹었음 돈을 쥐야 할 거 아냐?!
 행사 담당자 참나. 니들 이제 막 나가기로 했니? 이 바닥서 일하기 싫어?
 현철 이런 예에길. 공연관이건 공사관이건! 임금체불이 쉼(트)렌드야?
 적당한 노동의 대가를 왜 안 주고 빠팅겨?
 긴말할 거 없고. (애들에게) 니들 그냥 집에 가!
 행사 담당자 아니, 행사 5분 앞두고 핑크를 내면 어찌잔 거야?
 현철 노 머니!! 노 행사!!
 일동 ...!!!
 현철 선 입금!! 후 힙합!!!

#12. 교차. 공연장/무대+관객석(밤)

무대에서 방방 뛰며 노래하는 문세 크루.
 환호하는 관객들 사이 홀로 심통인 현철.

현철 저런 것도 노래라고.

열광하는 관객들 둘러보는 현철.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다.

#13. 공연장 앞(밤)

#11의 행사 담당자와 문세. 마주 서서 핸드폰으로 송금·입금 내역 확인하고.
 문세, 밝은 얼굴로 현철에게 다가온다.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는 현철.

현철 사내자식이 돈이나 뜯기고. 너, 군대 안 갔다 왔지?

문세 딱 해병대를 가. 귀신도 때려잡는다, 인마.
 현철 아저씨. 우리 매니저 할래요?
 문세 에에?
 문세 이 바닥에 어리다고 쉽게 보고 등쳐먹는 놈들 천지거든요.
 젊으니까 열정으로 통치라는 귀신 같은 놈들,
 아저씨가 때려잡는 거지!
 현철 건달을 하란 말이야? 됐어!
 그런 천박한 짓은 일절 않는 사람야, 내가!
 너도 딴따라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공부나 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문세 요즘 공부는 돈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게다가 요새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현철 ...얼마 줄 건데?
 문세 (긱긱말로 액수 소곤소곤) 플러스 숙식 제공.
 현철 (좀 놀랐고) ...힙합인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
 문세 (씩웃으며) 저 스폰서 있거든요.

#14. 편의점 앞(밤)

 씩은 표정으로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채리.

문세 (봉투 벌려 액수 확인하며) 합의금이다, 생각해.
 채리 꺼져. 이 협박범아.
 문세 다 니 업보야. 그러길래 지갑은 두라니까?
 채리 (게맛살 꺾듯이 까며) 원장님이 증거물이라고
 다 태우라 했던 말야!
 문세 너 니 원장한테도 확실히 전해. 결제일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언론사로 달려간다고! ‘공범’ 아니고 ‘증인’이 여기 있다고!!
 채리 (노려보며 게맛살을 씹어먹는)

#15. 공무원학원 입구(낮)

 바글바글한 수강생들 사이 심란한 표정의 현철.
 스치는 얼굴마다 하나같이 대학생들.

현철 (주눅 들어) 다 늙어 공부는 무슨 공부야. (돌아서고)

#16. 문세의 옥탑방(낮)

 익스와 문세 누워서 노트에 가사 쓰고 있고.
 마이크는 택견 품밧기 중.
 장풍인 구석에서 울고 있다.

익스 근데 말이야. 그 형.
 문세 어?
 익스 현철이 형.
 문세 아...어.
 익스 어떻게 아는 사이야?
 문세 그냥 뭐. 오며 가며.
 마이크 어디 오며 가며? (택견하고) 이크에크이크.
 문세 그냥. 여기저기. 왜?
 익스 형이 아닌 거 같아서.
 문세 어???
 익스 (날카롭게 바라보면)
 문세 (!!! 어떻게 알았지? 긴장하고)
 익스 형 아니지?
 문세 (들켰구나) 사실 그분은...
 익스 나 다 알아.

FLASH BACK 2화 #11

93년생 이남진의 신분증 든 현철, 괜히 소매로 사진을 좀 뒤아보는데.
 그 옆에서 대기업 적성검사 문제집 풀던 익스, 신분증 훔깃 본다.

익스의 눈에 확 들어온 '93' 글씨 점점 커지는...93 93 93 93

익스 93이지, 개?
 문세 어? 아 그게...
 익스 난 92인데. 내가 형. 갠 동생이지.
 마이크 그렇지! 힙합에도 장유유서는 있지! 이크에크이크.
 문세 (당황해 말투 어색하고) 근데...그... 형이 출생신고가 한참 늦었다더군?
 익스 (단칼. 단호) 서열정리는 서류상 생년월일로 하자. 깔끔하게.
 마이크 그렇지! 족보는 공식기록으로 가야지! 이크에크이크.
 (스텝 밟다 내지르기 발차기 날리면)

#17. 문세의 옥탑방(밤)

대적 중인 익스 vs 현철. 사이에서 난처한 문세.
마이크는 익스 옆에 바짝 붙어 편들고, 장풍 여전히 구석에서 울고 있다.

현철 형이라 부르라고? 내가 널?
 익스 (흔들림 없는 눈빛)
 문세 (곤란해 죽겠고)
 현철 (문세에게) 내가 젤?
 문세 그게... 익스 형은 92년생이거든. 형은... 93년생이잖아...
 현철 92, 93... (어이없다) 자, 익수야.
 익스 익. '쓰'. 형.
 현철 그래, 익수 군. 난 말일세. 93년생이 아니야.
 익스 민중 까.
 현철 !!!

익스, 현철 얼굴에 딱! 주민등록증 들이민다.
범죄자 느낌의 증명사진 옆 확실한 1992년생. 이름은 손으로 가렸고.

현철 (타이르는) 그래. 서류상으로 나이가 그러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자넨 형이라 부르기엔 좀 적절치 않은 이유가 있어.

익스 흥길둥이세요?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게 왜 문제가 되지?
 문세 (목소리 떨리는) 이 형님이, 외국서 오래 살아서 형, 동생 그런 호칭 시스템이 익숙지 않다더군?
 마이크 (끼어들며) 한국에 왔음 한국식으로 해야지.
 익스 그래, 현철아.
 현철 (얼 뻑!) 뭐? 현철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시키들이 콧 기냥! 왜 아주 현철이 시키라 그르지?

#18. 은효의 집/거실(밤)

스피커폰으로 전화 거는 은효의 핸드폰. 저장 이름 - '남의 편 현철이 시키'
핸드폰 소리(E)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은효 (뭔가 분주히 하며) 아니, 이 인간이 정말 아예 잠수를 탔네?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보면, 이혼서류 복사본 수십 장에 도장 찍고 있는 은효.
눈 부릅뜨고 도장 꺾꺾- 내리찍는 압력이 뒷장으로 갈수록 세지고.

현철(E) 싫어! 안 돼! 못해!

#19. 문세의 옥탑방(밤)

가사 노트에 적힌 호칭 후보지 -
'1. 익스 형 2. 익스 님 3. 익스 씨 4. 익스 브로'
2번 '익스 님'에도 줄 그어 지우는 문세.

문세 그럼 익스 씨.
 현철 (익스 씨. 익스 씨. 중얼중얼. 가웃가웃)
 익스 어감에 존중이 느껴지지 않는데.

현철 (호통) 이노무 자식이 보자보자하니까! 내가, 마! 너보다 화장실을
가도 백만 번은 더 갔는데! 씨 정도면 받아들여! 이 익스 씨야!!

익스 (‘그것 바라’ 하는 얼굴로 문세 보고)

문세 (한숨. 3번 ‘익스 씨’에도 줄 찌적 그어 지우고)
그럼 마지막. 익스 브로.

현철 부로? 뭐 말어, 그게?

마이키 (친절하게) 브로. 브라더 줄여서 브로.

문세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합리적이고 애매한데 동등하면서
친밀하고도 힙합적인! 브로!

익스 (괜찮단 듯 어깨 으쓱)

현철 (한숨만 푹푹)

문세 서로 ‘브로’라고 부르는 걸로? 극적 타결 고고씽?

현철 아이고. 어머니...

마이키 (현철 어깨동무하며) 현철 브로오!

#20. 골목(밤)

걷는 익스와 문세. 눈 툭툭 부어 휘청대는 장풍 부축해 걷는 마이키.

익스 어디서 왔길래 저렇게 위아래가 없어?
영어권은 아닌 것 같고?

문세 어. 저기 그 뭐냐. 저기...
(옆에 주차된 경찰차 — ‘POLICE’) 폴란드 쪽...

익스 본명도 이남진이던데. 가명 쓰는 거 보면, 어디 좀 구린 놈 아냐?

마이키 (해맑은) 우리 다 가명이잖아. 문세 형 빼고.

익스 그건 활동명이지! 여튼 난 맘에 안 들어. 풍, 넌 어떻게 생각해?

장풍 (혼이 나가 횡설수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다 떠날
건데... 정 주고 마음 쥐 봐야... (말 못 맺고 북받쳐 울고)

문세 최근에 좀 큰일을 겪어서 심적으로 불안정해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냐. 가족들도 다 외국에 있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따뜻하게 받아주자. 이방인이잖아.

마이키 (고개 끄덕끄덕. 이방인이란 단어가 마음에 콕 박힌다)

근데 참 익스 형. 본명이 뭐야?
3년을 붙어 다녔는데 형 이름을 몰라.

문세 (씩- 웃으며) 심...(하는데 익스가 입 틀어막고. 버둥버둥)

마이키 오! 채리 누나다!! 누나!!!

보면, 멀리서 채리가 치킨 두 봉지 들고 걸어온다.

#21. 문세의 옥탑방/화장실(밤)

씻은 현철. 뿌연 거울 닦고 제 얼굴 보더니 흠칫 놀란다.

현철 아우 씨.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변기로 가 소변 보는데. 모처럼 시원하게 팔팔 터지는 소리.
제 소변 즐기 내려다보더니 문득 만족스러운 얼굴이고.

현철 젊음이 좋긴 좋구먼.

#22. 채리의 집(밤)

치킨 먹는 일동.

마이키 그래서. 그 이상한 형이 우리 매니저 한대.

채리 (닭 다리 뜯다 확 뽀고. 문세 노려보며) 아주 휴머니스트 납셨어.
동거도 모자라서 고용을 해가며 보필하냐, 호구 새끼야?
왜 아주 양자로 삼지?

문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라.

채리 누가 가정을 꾸리랬냐? 감시나 좀 하랬지.

문세 너 진짜 확 감방에서 살림 꾸러볼래?

채리 어! 내가 오늘 너 한 대 치고 감방 간다! (닭 뼈 들고 덤비고)

익스 (문세와 채리 보는 눈빛 날카로우려고)

마이크 (그러거나 말거나 닭이 맛있고)
장풍 (슬픈 눈으로 치킨 뜯으며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흥얼거리는)

#23. 문세의 옥탑방(밤)

TV 켜져 있고. 보던 자세 그대로 리모컨 손에 꼭 쥐고 잠든 현철.
문세 조심히 들어와 리모컨 빼내는데.
현철, 마치 절대 안 잤다는 듯 눈 번쩍 뜬다.

현철 (리모컨 꼭 사수하며) 뭐야? 보는 중인데?
문세 코 고시던데.
현철 안 잤어, 인마!
문세 주무시는 줄 알고.
현철 (하품하면서도 기어코) 안 잤어!
문세 저기요. 호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편의상 앞으론 저도... 아저씨 형이라 부르는 건 어떨까...
현철 (벌떡 일어나고) 야 됐어. 딱 됐고! 그냥 말해! 나 57년생이라고!
문세 그걸 누가 믿어요.
현철 (한숨) 하긴 같이 산 মানুষ라든 미친놈 취급인데 (그냥 누워버리고)
근데 말이다. 문세 넌 왜 내 말을 믿는 거지?
문세 ...

INSERT

짧게 스치는 문세의 기억 — 사건 당일. 의료폐기물실.
— 현철의 늘어진 몸을 들여오는 채리, 닥터 김, 문세.
— 광 달히는 캐비닛 문. 채리와 닥터 김 자리 뜨는데. 몸 굳어 서 있는 문세.

문세 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현철 ...
문세 뭐라도 돕고 싶어서.
현철 사내자식이 그렇게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 뭐에 쓰누?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구먼.

자다 눈 뜨면 옆에 মানুষ라든 누워 있을 것 같은데...

문세 눈 뜨면... 제가 있을 거예요.
현철 (보면)
문세 저도 눈감고 그런 상상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눈 뜨면 우리 집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있었음, 좋겠다.
눈 뜨면 아빠가 앞에 계셨음, 좋겠다.
근데 눈 떠도 모든 건 똑같더라고요. 마음만 훨씬 더 비참하지.
현철 ...
문세 안 그렇게 됐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내일도 어차피 그렇겠구나. 하면 차라리 가뿐해요.
과거를 돌릴 순 없어도 미래는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시계는 다행히 리셋이 되니까.
현철 (맑게 웃는 문세가 새삼 달리 보인다)

CUT TO

새벽녘. 잠에서 깬 현철 시점. 모로 누워 자는 문세의 뒷모습 보인다.

현철 (중얼) 시계는 리셋이 된다. 짜식.

#24. 문세네 옥상(새벽)

어스름한 새벽 달동네 위로, 해 뜬다. 쓰윽—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는 현철.
이리저리 몸 풀어보는데 몸이 가뿐하다. 괜히 국민체조도 좀 해보는 현철.
등배운동—몸통운동—온몸운동 갈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땀뿜기 동작 가서는 날아갈 듯 통통 뒹다.

#25. 골목(새벽)

새벽 공기 흠뻑 마시며 달리는 현철. 얼핏 드링크 CF의 청년 모델 모드.
젊어진 신체를 마음껏 즐기기도 하듯 폴짝폴짝 뛰어보고.
속도도 좀 내보는데.

얼마 못 가 픽 주저앉더니 쿵쿵쿵 토탈 듯 기침하는.

현철 혁혁... 젊었을 때도 체력이 썩 좋진 않았어...

요구르트 마시며 자전거 타던 이웃 꼬마. 유유히 현철 지나치며,

꼬마 (한심하단 듯) 오빠 운동 좀 해야겠다.

#26. 문세의 옥탑방(아침)

씻고 나온 문세.

보면, 책상 위에 덜렁 남겨진 궁서체 쪽지 — ‘人生 리셋하러 간다.’

#27. 공무원학원 앞(낮)

등록증 들고 고무된 표정으로 학원에서 나오는 현철.

입구에서 뭔가 종얼거리며 서 있던 마이키.

현철 발견하고 오두방정 손 흔들며,

마이키 현철 브로!

현철 뭐야? 넌 여긴 웬일이야?

마이키 형님 뵈시러 왔지. 문세 형이 여겼을 거래서.

현철 용건이 뭐야?

마이키 환영 이벤트.

현철 뭐?

마이키 (또박또박) 비파미 브 코레이! (자막 — ‘한국에 온 걸 환영해!’)

현철 ...

마이키 브라썬에! (양손 엄지 척. 자막 — ‘형제여!’)

#28. 몽타주. 현철에게 인사동 구경시켜주는 마이키(낮)

— 인사동 거리 일각. 마이키 이것저것 가리키며

한국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다.

내내 똥 씹은 얼굴인 현철.

— 싫다고 내뱉는 현철에게 굳이 나무 같고리

안마기로 어깨 지압해주는 마이키.

현철 한사코 마다하다 어느 순간 눈감고 “거기거기. 아이고, 좋다.”

— 인사동 일각. 양손에 같고리 안마기 하나씩 든 현철.

인사동 곳곳을 끌려다닌다.

— 전통찻집. 쌍화차 한 잔씩 들어 건배하는 마이키와 현철.

마이키 이방인으로 사는 거 많이 힘들지?

현철 뭐?

마이키 사람들이 그래. 딱 봐서 자기랑 좀 다르면 무시하고 막 대하고.

현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마이키 그래도 형은 좋겠다. 겉모습은 이방인이 아니잖아.

난 한국 사람인데도 다들 날 외국인 대하듯 하거든.

현철 (괜히 찢려서) 거, 사연을 모르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내자식이 그런 거로 공하고 그러는 거 아냐!

마이키 (밝게) 이젠 뭐.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해. 나도.

현철 (해맑게 차 마시는 마이키를 보며 미안해지는)

#29. 인사동 골목(낮)

벽에 기대 문자 중인 마이키.

중학생 대여섯 명 지나가다 마이키 보고 장난기 발동.

중학생1 헤이 흑형!! 웨어 알 유 프롬?

중학생 무리 (낄낄대며 웃고)

마이키 (시무룩. 그냥 무시하고)

중학생1 김미 쪼꼴레또 김미 쪼꼴레또!!

중학생2 퍼킹 유에세이!! 고 백 투 유어 컨트리!!!!
 마이크 (고개 들어 좀 노려보고)
 중학생2 두유 원 투 파이트? (간죽간죽 무술 자세) 히얼 컴즈 어 뉴 챌린저!
 마이크 (참고. 무시하려는데)
 중학생1 커몬!! 커몬!!!!
 현철 (뒤에서 나타나 안마기로 중학생1,2 뒤통수 탁! 탁! 연달아 때리며)
 중학생2 아 뭐야?
 현철 뻘! 이런 쪼무래기 시키들이! 어디서 형한테 농락질이야?
 중학생1 이씨! 왜? 외국인한테 영어 연습 좀 한 건데, 뭐?!
 마이크 나 한국인이거든?
 중학생2 뭐야? 이 양키 한국말 할 줄 아네?
 현철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새 나라의 일꾼들이 이렇게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어서야 어디, 나라가 발전을 하겠어?
 (마이크 들이밀고) 애 봐! 누가 봐도 한국인이구만!
 중학생1 뭐래? 생긴 게 딱 양키구만!
 현철 넌 뭐! 생긴 게 딱 오랑캐다!

인상 험악해지는 중학생 무리. 위협적으로 현철과 마이크 둘러싸고.
 현철, 양손 안마기 용맹하게 들고 울버린 모드인데,
 보면 마이크 뒤로 슬쩍 물러나 있다.
 마이크, “이크에크이크” 턱컨 품밟기 시작하고. 긴장감 고조되는데.

장풍(E) (복식호흡으로 끌어낸 저음으로) 이런 하찮은 청소년들!

일동 돌아보면,
 덩치 좋은 장풍과 인상 매서운 익스. 범거지 쓰고 카리스마 뽐는 문세.
 골목길 역광 받으며 잔뜩 불량한 본새로 걸어오는 셋.
 문세, 모자 벗어 보라색 머리 탈탈 터는데.
 현철 눈에 그 모습 아주 영웅적이다.
 리더로 보이는 중학생1 앞에 고개 탁! 정면 대치하는 문세.
 머리칼 반짝 휘날리고.
 비릿하게 웃으며 반항기 충만히 맞서던 중학생1.
 난데없이 털썩— 무릎 꿇는다.

CUT TO
 무릎 꿇은 중학생1의 등판에 사인하는 문세.
 매우 반듯한 글씨체의 정직한 사인
 — ‘행복하세요. 래퍼 이문세 올림. 2020. 0월 0일.’

중학생1 (수줍게) 문세 형 저 짤팬이에요. 헤-
 문세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현철 (어이없고. 중학생2에게) 니들 세계에선 재가 그렇게 유명하냐?
 중학생2 문세 형 언더에서 개 유명하죠. 팬덤도 꽤 있고.
 현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얼굴 위로 언덕, 개, 판다 그림 뜨고)
 허...참. 이문세 하면... 붉은 노을인데.
 중학생2 붉은 노을은 빅뱅인데??
 현철 ...

#30. 거리(밤)

현철과 문세 앞서 걷고. 익스, 장풍, 마이크 뒤따른다.

문세 아저씨. 저랑 지내는 게 영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현철 큼! 뭐 어차피 갈 데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니 녀석도 애비 없이 자란 놈치곤 썩 괜찮고.
 저 맹추 같은 놈들도 내가 딱 붙어 정신 교육을 따끔히 해야겠고.
 여러모로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다가. 그렇게 가보지 뭐.
 문세 괜찮으시겠어요?
 현철 어찌겠누. 안 그렇게 됐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청춘... 까짓거 살아내야지, 뭐. 해병단데...
 문세 (미소)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걸어오는,
 안 어울리는 듯, 어울리는 다섯 남자.

#31. 문세의 옥탑방(새벽)(#23 연결)

잠에서 깬 현철. 고개 돌리면, 모로 누워 자는 문세의 뒷모습 보인다.

현철 (중얼) 시계는 리셋이 된다. 짜식...

현철,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자, 꿈틀꿈틀 움직이는 문세 이불.
사실 이미 깨어 있던 문세. 눈 뜨더니 핸드폰 카톡 창 연다.
'웬수 똥'과의 카톡 창. 대화 내역 올려보면, 채리가 보낸 동영상 있고.
마지막 장면에서 정지된 CCTV 영상 속,
의료폐기물실 안의 문세 뒷모습 보이는 데서.

2화 끝.

3화. 아픈 우리 젊은 날

#1. 과거. 88 영상의학과 의원

사건 당일. 문세의 기억 일부.
MRI실. 헤드셋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신명 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신 잃은 현철을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채리와 닥터 김.
맥박 짚어보고, 호흡 확인하는 닥터 김의 얼굴에 낭패가 서린다.

CUT TO

머리 쪽은 채리. 다리 쪽은 닥터 김.
축 늘어진 현철을 들어 올리는 찰나,
별걱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것은 문세.

문세 (짜증 내며) 흥채리! 너 10분 안에 끝난다며!!
(보니, 상황이 좀 이상하고)
채리 (울상인 얼굴로) 문세야... 나 좀 도와줘...

의료폐기물실.
현철의 늘어진 몸을 들어오는 세 사람.

CUT TO

천으로 돌돌 말린 현철의 깨끗한 몸을 캐비닛에 넣는 닥터 김과 문세.

CUT TO

광-캐비닛 문 닫힌다.

CUT TO

채리와 닥터 김 자리 뜨는데.
몸 굳어 캐비닛만 응시하는 문세의 모습에서.

#2. 현재. 공연장/대기실(밤)

초점 나간 채 멍해 있는 문세.

손에 든 핸드폰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정지된 동영상
— CCTV 시점에서 캐비닛 내려보는 문세의 뒷모습이다.

현철(E) (들어오며 중얼중얼) 에레이, 미친놈들.

문세 (황급히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현철 행사비를 왜 할부로 준대? 니들 오늘 앵콜 하지 마.
얄짤 없이 딱 두 곡만. 알았어?

문세 네... (나가고)

현철 젊은 놈이 왜 저리 눈에 충기가 없어?
(뒤 도는데 과하게 스모키 메이크업 한 장풍 떡하니 서 있고)
(흠칫) 아이고 깜짝이야.

장풍 요 브로.

현철 (피해 가려는데 옆에 더 심한 스모키 메이크업 한 마이키)

마이키 요 브로.

현철 (나직이) 아이고 어머니...

CUT TO

현철 생과가 뭔데?

마이키 생일파티.

현철 됐어. 니들끼리 해.

장풍 문세 형 생과에 형이 빠지면 돼?

이제 우리 크루 멤버에 룸메이트이기까지 한데?

현철 내가 왜 니들 멤버야? 그리고 몇 년이나 살았다고 잔치를 해?

개 몇 살인데?

마이키 스물다섯.

현철 아이쿠야. 60년을 살아도 환갑잔치도 안 하는 세상에.

고작 25년 살아놓고 유세는... (중얼대며 나가버리는)

장풍 저 형은 뭐 저렇게 쉬운 게 없지?

익스 (구석에서 회전 의자 탁 돌면.

개중 제일 과한 스모키 눈빛 짱—하고)

#3. 공연장/무대 앞(밤)

앵콜 외치는 관객들. 무대 위 쭈뼛쭈뼛 서 있는 문세 일동.

구석에서 눈 부릅뜨고 내려오라 손짓하는 현철 눈치 보더니,
결국 공연 시작한다.

현철 저 맹추들. 저러니까 돈을 떼이지...

(무대 위, 그러거나 말거나 신난 문세 크루 보며)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저렇게 신이 나나?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20대 여자 관객들. 둘러보는 현철의 얼굴.

#4. 여진의 벨리댄스 학원(낮)

벨리댄스 추는 여자 수강생들 가득한 강의실.

여진은 앞에서 수강생들 동작 살핀다.

강의실 밖 창문에 붙어 여진 모습 바라보는 현철 눈빛 애뜻한데.

웅성웅성 동요하는 수강생들.

강의실 안에서 보면, 창문에 웬 남자가 음흉하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강생 하나가 창문 쪽 가리킨다.

돌아보는 여진과 눈 마주치자 식겁해 도망가는 현철.

여진 (나오며) 저기요!

현철 (우뚱 멈추고. 최대한 근엄하게 돌아본다)

여진 (의심스레 훑으며) 누구세요?

현철 (말 못 하고 잠시 딸 쳐다보는데)

FLASH BACK 1화 #21

은효, 롤 빗으로 현철 때리며 “어머! 어머! 변태 시끼!!!”

다시 현재. 여진과 마주한 현철.

현철 변태 그런 거 아니고. (난데없이) 내가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여진 …창피해할 것 없어요. (전단지 내밀면)
 — ‘성인 남성 저녁반 모집’
 남자도 벨리댄스 취요.
 현철 …

#5. 거리(낮)

원장 이어진 약력과 프로필 사진 크게 인쇄된 전단지 보는 현철.

현철 한국무용 배우라고 무용과 보내줬더니. 에레이, 정신 나간 년.
 (길에 획— 전단지 버리고)
 남자 (현철 뒤에서 걸어오다 전단 집어 들며) 오오! 벨리댄스 언니들!!
 현철 (귀 쪽긋)
 남자2 와우! 이쁜 시스터들.
 몸매가 그냥… 와우… 우리 원장 언니는 S라인이
 대문자네. 이름 뭐야? 이어진?
 남자1 여진 누나 완전 내 스타일! 우리 실물 보러 가자!
 현철 안 돼애애애!

현철, 눈빛 살벌해져 달려와 전단 획 뺏더니,

현철 개!!! …실물 별로야!!!

#6. 문세의 집/대문 앞(아침)

문세와 현철 나오는데,
 잘 차려입은 곱상한 80대 할머니가 여행 가방 끌며 따라 나온다.
 주인집 할머니, 순옥이다.

문세 (반갑게)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옥 (고상하게) 어머, 옥탑 총각. 오랜만이야.
 문세 편찮으시다더니 이제 괜찮으세요?
 순옥 병원 신세 좀 졌지 뭐. 총각도 젊었을 때 몸 관리 잘해.
 팔팔하다고 막 굴리면 말년에 고생한다?
 문세 아우 어찌나. 전 벌써 여기저기 쭈시는데!
 순옥 (밉지 않다) 젊은 사람이 별소릴 다 해.
 문세 (순옥 가방 보곤) 근데 여행가시나 봐요? 어디 가세요?
 순옥 응. (너무나 멀쩡하게도) 피난.
 문세/현철 …
 순옥 (시계 보더니) 어머 늦었네. 중공군 오기 전에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럼 먼저 갈게! (나가려는데)

이때 안에서 며느리 미선이 “어머니!!” 외치며 다급히 뛰어나오고.

미선 (순옥 붙들고) 또 어디 가서!!
 순옥 (뒤돌더니 눈빛 완전히 변하며) 네 이 도둑년!!!
 미선 (자연스럽게) 알았으니까, 도둑년 집으로 가자.
 (끌고 들어가며 문세에게 간단히 눈인사+입 모양으로 ‘치매치매’)
 (조용히 하소연) 내가 화장실을 못 간다니까, 화장실을!
 문세/현철 …

#7. 골목(아침)

문세 (걸으며) 병원에 계셨단 게, 요양병원이었구나.
 진짜 정정하셨었는데.
 현철 뭐, 지금도 정정은 하시더만.
 문세 치매는 진짜 무서운 병 같아요.
 몸은 멀쩡한데. 머리는 애가 되잖아요.
 현철 그 냥반이나 나나 다 병이지 병.
 나는 몸뎡이가 어려졌고. 그 노인네는 정신머리가 어려졌고.
 문세 …그래도 차라리 몸이 어려워지는 게 낫지 않나요?
 현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를 엄마라 불렀었다.

나는 지금 92년생 꼬꼬마를 형이라 부르고 있고.
마누라는 서른 살 연상이요, 딸은 동년배에... 개관이야 개관.
치매나, 이거나. 제 나이대로 못 사는 건. 다 병인 것이야...

#8. 은효의 집/거실(아침)

소파에 앉아 연속극 보는 은효. 현관 도어록 소리 들린다.

은효 (!) 당신이우?
여진 (들어오며) 나야, 엄마.
은효 (실망하며) 응... 왔니?
여진 아빠 아직 연락 안 돼?
은효 유치해 죽겠다. 이혼 좀 하자 했다고 주책맞게 나이 육십에 가출은.
(비꼬는) 질풍노도의 시기서, 아주! 비행 중년이야, 아주!

테이블에 옛날 사진들 꺼내져 있다.
젊은 시절 은효 사진 넘겨보는 여진.

여진 우리 심 여사 보소. 고왔네. 고왔어.
은효 왕년에 나 좋던 남자들이 줄을 백 메다는 썼었어!
그땐 이 심은효 앞길에 걸림돌이 없었지! 좋은 시절 다—갔다.
여진 (결혼사진 발견) 아빤 그 좋은 시절에도 얼굴에 성깔이 그득하구나.
은효 야, 지금은 성격 많이 죽은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나 몰라.
이 주름, 뺨살! 다 니 아빠 때문이야. 스트레스받아서!!
여진 뺨살 빼고 싶음 벨리댄스 배우라니까.
은효 어우, 니 아빠 질색해!! (말해놓고 본인도 이상하다)
여진 이혼한다며, 눈치는 디기 보네? (사진 속 현철 얼굴 낮익고) 근데...
(사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똥 씹은 얼굴 낮이 익은데...

#9. 공연장/대기실(밤)

#8의 결혼사진 속 얼굴과 똑같은 표정 한 현철.
맞은편엔 팔짱 낀 익스가 대적 중.

익스 형이 좋게 말할 때 협조하자.
현철 내가... 너희들 노닥거리는 데 끼고 그럴 군번도 아니고.
그럴 심정도 아니거든. 그니까, 잔치는 니들끼리 혀라?
익스 너 형 말에 딱박딱박 대꾸가 많다?
현철 거기. 부라잔지 부랄인지는 딱박딱박 잔소리가 많네?
익스 너 아직 수습 기간인 거 알지?
현철 이런 예에길.
익스 난 아직도 너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 크루 내 연장자로서,
팀웍을 해하고 구성원 간의 전통과 문화를 어지럽히는...
현철 (O.L.) 아! 알았어, 알았어! 파틴지 뭔지 가면 될 거 아냐!

#10. 채리의 집 앞(밤)

골목 걷는 채리. 집 앞에 주차된 차 하나 보인다.
머리 정돈하고 립밤 바르는 채리.
운전석 앞에 서니 차창 찌익— 내려가고. 불쑥 손 하나가 뺨뺨로를 내민다.
채리, 상자 받아 열어보는데, 안에 돈뭉치 들어 있다.

닥터김 (얼굴 뺨뺨 내밀고) 흥 간호사. 매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채리 (조신하게) 저도 협박당하는 입장에서 상황을 공유해드리자면.
그쪽에선 고소는 물론이고 1인 시위, 국민청원, 언론제보 등
공론화를 위한 모든 꺾판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더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닥터김 아니! 어떻게 CCTV가 본인한테 유출이 됐느냐 말이야.
(의미심장한) 분명 내부자의 소행인데.
채리 (표정 싹 바뀌며)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닥터김 아니이—? 그럴 리가!! 우린 이제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데!

해서 말인데. 그냥, 그 아저씨랑 나랑 다이렉트루
쇼부를 보는 게 어떨까?
채리 그쪽에서 접선은 저랑만 하길 원한다고.
닥터 김 아니, 대체 왜?
채리 저야 모르죠. 그 미친놈의 심리를.

#11. 채리의 집(밤)

노래 틀어놓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머리 흔들고 있는 문세.
한참 흔들다 보니 눈앞에 무표정 채리 서 있고.

채리 지랄을 다채롭게도 떤다.

CUT TO

방바닥에 누워, 돈 세고 있는 문세. 그 옆에 채리가 조출한 생일상 놓는다.
고기와 미역 건더기가 80퍼센트인 미역국과 반찬 몇 개 차린.

문세 뭐야?
채리 생일이잖아.
문세 내일이거든?
채리 내일 아침엔 그 아저씨 땀에 내가 못 끓여줄 거 아냐.
문세 ...
채리 안 먹냐?
문세 (한술 뜨는데. 목이 메어 안 넘어가고)
앞으론 이런 거 끓이지 마라...
채리 ...감동이냐?
문세 개 맛없어...
채리 ...
문세 이게 미역찜이지 국이냐?
채리 (천천히 일어나며) 내년엔 생일상 말고 제사상을 차리게 생겼구나.
문세 (뒤로 슬금슬금)
채리 (소매 걷으며) 생일빵으로 전치 8주 가보자! (헤드락 걸고)

문세 킁킁...

#12. 은효의 집/거실(밤)

육포 뜯으며 TV에 몰입한 은효. 시청 중인 것은 <동치미> 내지는 <알토란>
느낌 토크쇼. 화면 자막 - '오늘의 사연, 은퇴한 삼식이 남편. 세 끼 챙기기
너무 힘들어요'

패널로 나온 중년 여배우가 찰진 입담 토하고.

은효는 TV 속 그녀와 깊이 교감 중.

중년 여배우 죽을 때까지 밥만 하란 거예요? 웬만하면 이젠 좀 사 먹읍시다!
은효 (크게 공감) 그래!
중년 여배우 한 끼 좀 밖에서 먹으면 어때요? 세상이 망합니까?
그놈의 집밥! 삼시 세끼 해 먹고 나면 하루가 다 가요.
아침 먹고 치우면 점심. 점심 먹고 치우면 저녁.
저녁 먹고 치우면 과일. 무슨 끼니가 카드 돌려막기 같아!
은효 (아주 그렇다) 맞아! 맞아!
중년 여배우 남편 밥. 자식 밥. 이제 손주 밥도 해줘야 돼. 밥하다 인생 쫓이야.
왜 엄마가 인생을 밥에 묻어야 합니까!
이젠! 나도 내 인생 좀 삽시다! 접시를 깨버립시다, 여러분!!
방청객/패널 (박수. 환호한다)
남자 패널 (아재 개그) 그러고 새 접시 사달라 그럴 거지?
방청객 (웃고, 야유하고)
여자 패널 남자들 저렇다니까? 자꾸 대화가 탄 데로 새!
남자 패널 (개갱. 방청객 웃고)
중년 여배우 우리가 저런 거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게 참았어요?
이게 뱃살 같지? 아냐! 이게 다 인내의 흔적이야!
엄마들 뱃살은, 스님들 사리 같은 거라고.
(갑자기 은효에게 말하는 듯 카메라 정면 보며)
언제까지 현철이 눈치 보며 살 거야?
풀리는 대로 살아! 되는대로 막살아!
이젠 심은효 맘대로 좀 살아봐!

은효 (마음이 크게 동했다)

#13. 골목 일각(밤)

나란히 걷는 채리와 문세.

문세 왜 따라와?
 채리 편의점 가거든?
 문세 학교서 못 받은 개근상을 편의점에서 받을라 하나?

채리 달려들고, 문세 도망가다
다 젖은 머리로 골목 뛰어다니는 미션 마주친다.

미선 (정신 반쯤 나가) 어머니! 어머니!!
 문세 아줌마!
 미선 (다급한) 어? 문세 총각! 우리 어머니 못 봤어?
 문세 할머니요? 왜요?
 미선 정말 환장하겠네. 이 밤에 또 어딜 가신 거야?
 채리 (문세에게) 왜?
 문세 주인집 할머니. 치매 오셨대.
 채리 이쁜이 할머니?
 미선 (발 동동) 아우 어떡하면 좋아!!
 채리 아줌마, 빨리 경찰서 가보시고요. 문세 넌 저쪽. 나 이쪽 찾아볼게.
 미선 부탁 좀 할게!! (급하게 뛰어가고)

CUT TO

“할머니! 할머니!” 외치며 골목 곳곳 뒤지는 문세.

CUT TO

“할머니! 할머니!” 외치며 골목 곳곳 뒤지는 채리.

#14. 버스 정류장(밤)

버스에서 내리는 현철. 정류장 인파 틈에서 무언가 본 듯 걸음 멈추고.
 우르르 탑승하고 하차하는 승객들 빠지면.
 텅 빈 정류장에 손목이 암전히 앉아 있다.
 옆엔 커다란 캐리어와 함께.

#15. 골목 일각(밤)

“할머니!!” 외치며 뛰는 채리. 저기 골목 어귀에서 손목이 걸어온다.
채리, 손목 알아보고 소리치려는 순간, 옆에 캐리어 끄는 현철이 시야에 들어온다.

채리 아씨. 뭐야 저 인간?
(우왕좌왕. 재빨리 몸 숨긴다는 게 전봇대 뒤.
그러나 그녀를 숨기기엔 너무나 가냘픈 전봇대의 몸매)
 현철 (채리 쪽 지나치며) 중공군이 오늘은 추워서 안 온다데?
그니까 오늘은 도둑년네서 주무시고…
 채리 (안도한다)
 현철 (계속 걸으며) 추이를 봐서 피난을 가시… (돌아보니 손목이 없다)
 손목 (채리 몸 빠져나온 전봇대 앞에서 고개를 가우뚱)
 현철 (손목에게 가) 할머니! (보니 전봇대에 누가 있고)
 채리 … (최대한 팔 붙여 차렷 중)
 현철 뭐야… (자세히 보다가 놀라는) 너, 그 똥뎅이?
 채리 … (젖싸게 자리 뜨려는데)
 현철 여기서 뭐해? 이 동네 살아?
 채리 (못 들은 척 빨리 걷고)
 손목 이쁜이 우리 동네 사는데?
 채리 (우뚱 멈추는 뒷모습)
 현철 ??
 손목 그뿐이야? 뒷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현철 ?? (영문 모르겠고)

순옥 소꿉친구잖아, 윗집 총각이랑.
현철 (!!!!!) 똥땡이랑... 문세랑?
채리 (망했다 싶은 표정)
순옥 마침 저기 오네! 옥탑 총각!!!

채리와 현철 천천히 돌아보는데.
머리 벗어진 동네 아저씨가 쓰레기봉투 들고 온다.
채리 조용히 안도하고. 현철은 치매라 그러려니.
순옥은 열심히 총각을 부르는데 쿨하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아저씨.

현철 할머니. 이제 집에 가십시다.
순옥 (기분 나쁜) 왜 대답을 안 해?
현철 누가 봐도 총각이 아니잖수...
순옥 (채리에게 인사하며) 잘 가, 이쁜아.
현철 누가 봐도 이쁜인 아냐...
(으름장) 너 똥땡이!! (손짓으로 가만 안 두겠다는 온갖 제스처)

순옥과 현철 멀어지고. 안도하는 채리.
아까 아저씨가 쓰레기 버린 곳에 가 서는데.
보면, 문세가 아주 불편한 자세로 숨어 있다.

INSERT
조금 전 상황 — 동네 아저씨, 쓰레기봉투 던지려는데
이상한 자세로 쓰레기통에 붙어 있는 문세와 눈 마주친다.
놀라지도 않고 묵묵히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아저씨.

#16. 문세네 옥상(밤)

과일 한가득 든 곰탕 냄비 안고 있는 문세. 미선과 대화 중이다.

미선 자물쇠를 하나 달든가 해야지.
저러다 사고라도 당하실까 무서워 죽겠어.

문세 전쟁 때 기억이 나시나 봐요.
미선 원래 치매 걸리면 제일 불안했을 때로 돌아간다잖아.
그 시절 열댓 살밖에 안 됐을 때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고개 돌리면)

좀 떨어진 평상. 현철과 순옥이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담소 중.
(말소리는 안 들린다)

미선 나이 들면 다 잊었구나 싶지만.
머릿속 어딘가엔 아픈 거, 슬픈 거. 다 이고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느라 바빠서 꺼내볼 겨를이 없는 거지.
늦었는데 어여들 자. 고생들 했다.

미선, 돌아서 계단 쪽으로 가는데 몸통에 빨랫줄 묶여 있다.
바닥에 늘어진 빨랫줄의 끝엔 순옥의 몸이 연결돼 있고.

미선 어머니, 가셔야죠!
순옥 (일어나며, 멀쩡하게) 실례가 많았어요.
현철 폭 주무셔. 기운이 있어야 피난을 가지.
순옥 ... (애매한 웃음)

순옥과 미선 퇴장하고. 평상으로 가 현철 옆에 앉은 문세. 둘 밤하늘 본다.

문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현철 뭐? 줄? 자다가도 수시로 나가신다잖아. 저렇게라도 해야지.
문세 그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갇혀 사는 거요.
현철 ...
문세 하고 많은 시절 중에 하필 왜 가장 두려웠고 힘들었던 순간일까요?
어차피 기억 속의 시간에 갇히는 건데.
이왕이면 제일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아저씨도... 괴로우시죠?
현철 뭐 생각보단 괜찮아. 세월이 사람을 참 단단하게 하거든.
시간에 베이고 깎이고. 그렇게 아파가며 쌓아 올린 정신적인 내공.

이건 이소룡이가 와도 못 이기지.

세상이 얇만 덩벼봐야 째 있는 놈 못 당한다고.

근데 그 째밥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게 뭘 줄 아냐? ...가족.

그놈의 가족, 그거 온전히 지키느라 평생을 갖다 바쳤는데,

그걸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게 너무 아픈 거야...

문세(E) (슬픈 현철 보는 얼굴 위로) 우리는 모두 아프다.

#17. 몽타주. 아픈 우리들

— 좀 전에 옥상 계단 내려가던 순옥과 미선.

순옥 애미야.

미선 네.

순옥 새로 온 총각. 좀 이상해.

미선 왜요?

순옥 자꾸 피난이 어찌네, 자기가 욕심이 넘었네 하는 게...

정신이 나간 거 같아.

미선 (순옥 잔하게 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쩔 좋누...

문세(E)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우리 모두 아프다.

— 편의점. 창가 테이블에서 휴대폰 보는 채리.

닥터 김의 카톡 프로필 사진 확대한다.

늘씬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창문에 비친

뚱뚱한 자기 얼굴이 문득 싫어지는 채리.

— 익스 오피스텔. 통화 중인 익스. 많이 흥분했다.

익스 내가 알아서 한다!

(듣고) 아, 올해까지만 하고 취직한다 안 카나?!!

책상 위 보면, 빼곡한 가사 노트 옆.

토익 책, 대기업 적성시험 문제집 쌓여 있고.

— 장풍 여자친구 집 앞. 집에 들어가려는 전 여친을 간절히 붙잡는 장풍.

장풍 (눈물 흘리며) 진짜...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장풍 전 여친 (그냥 들어가려 하고)

장풍 (붙잡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너 없인 이제 못 사는데?

장풍 전 여친 (냉정하게) 난 잘 살 건데. 딴 남자랑. (집으로 들어가고)

장풍 (가슴 베인다. 풀썩 무너지는)

— 목욕탕 탈의실. 탈의 중인 마이키. 바지 내리려다 갑자기 멈추는데.

보면, 탈의실 여기저기서 무언가 굉장한 것을 기다리는 듯 기대에 찬 눈빛들.

뒤통수를 뜨겁게 달구는 부담스러운 시선들.

마이키, 바지 올리고 화장실로 간다.

문세(E) 아직 세월에 깎이지 않은 미숙한 우린.

— 목욕탕 안. 마이키 온탕에 들어가니,

안에 있던 사람들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다.

탕 속에 홀로 남은 마이키.

물 온도 때문인지 모욕감 때문인지 얼굴이 달아오른다.

— 가사 노트 박박 찢는 익스, 바닥에 주저앉아 꺾꺾 우는 장풍,

옷 대충 걸치고 도망치듯 목욕탕 뛰쳐나오는 마이키.

각각 컷으로 빠르게 지나는 화면 위로.

문세(E) 이소룡을 이길 단단한 내공이 없는 젊은 우린...

— 문세의 옥탑방 안. 책상 위 벨리댄스 학원 전단지 집어 드는 문세.

전단지 보면, 원장 여친의 사진. 펜으로 노출 부위를 까맣게 칠해냈다.

문세(E) 훨씬 더 많이 아프다.

죄책감에 괴로운 문세. 잠든 현철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에서...

#18. 여진의 벨리댄스 학원(낮)

창문에 붙어 빼꼼. 신나게 몸 흔드는 수강생들 보는 은효. 눈빛이 반짝반짝.

CUT TO

원장실. 상담 테이블에 앉은 은효와 여진.

여진 남사스러워서 싫다더니?

은효 이 나이에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어!
나 이제 막 살 거야. 완전 막 나갈 거야. (의지 담아) 나!
막가파야!!!

여진 ... (고개 절레절레) 갱년기라더니 갱스터야?
부부가 질풍노도 불량 중년이시네.
중2병보다 중년병이 더 무서워...
(등록신청서 내밀며) 수강료는 10회씩.
횟수 늘어날수록 할인 들어가.

은효 뭐야. 돈 받게?

여진 어.

은효 엄만데?

여진 근데?

은효 가족 할인도 없어?

여진 없어.

은효 (지갑 꺼내며) 알짖없는 년. 지 애비랑 똑같아요, 아주.

여진 현금 할 거지?

CUT TO

빠죽대며 원장실 나오는 은효. 복도 끝에 모자 눌러 쓴 현철 어슬렁댄다.

은효 뭐야? 남자들도 이런 걸 배우나?

여진 (원장실에서 나오며) 저 사람 또 왔네?

은효 누구야?

여진 (회심의 미소) ...잠정적 수강생.

은효 시선 느끼고 돌아보는 현철. 멀리 아내와 딸이 서 있다.

거리 두고 마주한 현철과 모녀. 둘 향한 현철의 시선 애뜻, 절절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옆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저 젊은이.

현실 직시하고 주춤주춤 도망가는 현철.

그 모습 보며 어리둥절한 은효와 여진.

현철 서 있던 자리 가보면, 입구에 세워놓은 여진 등신대에 한복 입혀 놔다.

은효 (어이없고 열 받는) 저거저거, 완전 변태 새끼 아냐?

#19. 문세네 옥상(밤)

바닥에 나뒹구는 풍선, 일회용 접시, 과자, 음료, 플래카드 등.

난장판이지만 나름대로 생일파티 준비 중인 흔적들.

평상 위 마이크는 맥없이 풍선을 불었다 말았다 하고, 장풍 얹어져 있고.

익스는 새 노트에 험악한 낙서 중. 축하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모습들.

마이크 (풍선 들고 장풍에게) 테이프 줘...

장풍. 보지도 않고 발로 대충 토스하는데 바닥에 툭-떨어지는 테이프.

...누구도 주울 생각을 않는다.

#20. 편의점(밤)

창가 테이블에 잔뜩 놓인 편의점 음식들 옆 라면 먹는 채리.

한 젓가락 크게 들고 후후- 창에 입김 서린다.

라면 입에 넣고 뽀뽀뽀 창 닦는데,

뒹은 자리로 보이는 창밖. 순욱이 캐리어 끌고 걸어간다.

INSERT

미선네 집. 샤워기 소리 새어 나오는 화장실

문틈으로 빨랫줄 빠져나와 있고.
바닥에 늘어진 줄 따라가다 보면 냉장고 문에 줄이 대충 묶여 있다.

다시 편의점의 채리. 놀라서 입에 있던 라면 우르르 쏟아낸다.

#21. 문세네 옥상(밤)(#19 연결)

익스 (바닥에 떨어진 테이프 쓱 보더니, 발로 장풍 툭툭) 주워.
장풍 ...
익스 떨어졌다고, 새까.
장풍 ... (묵묵부답. 꿈쩍 않고)
익스 야!
장풍 마이키!
마이키 (한숨 쉬더니 일어난다)
익스 마이키 가만있어.
마이키 (풍선 들고 얼음)
익스 (다시 장풍 발로 툭툭) 니가 해.
장풍 마이키!
마이키 (눈치 보며 천천히 움직이는데)
익스 마이키, 가만있으랬지!
마이키 (또 얼음)
익스 (발로 장풍 또 툭툭)
장풍 (벌떡 일어나 발광) 아 줌!! 진짜! 가만히 두라고 줌!!!
익스 (자기도 일어나 장풍 앞에 서는데 많이 작다) 너 많이 컸다?
장풍 아, 진짜 *(E ㅁ—)만한 게...
익스 뭐? *?? *???
장풍 그래! *!!! *나게 쪼그만 *!!
익스 깡패세요? 그러다 한 대 치시겠네, 이 *나 무식한 놈아!
장풍 아, 진짜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게!! (주먹 올라가는데)
마이키 (풍선 평—터뜨리고) 형들 너무 하는 거 아냐? 일은 맨날

나만 하고! 들은 싸우고! 그러다 훅 가고! 그럼 난 또 남아서
수습하잖아!

장풍 오바하지 마. 니가 언제 뭘 수습했다고?
익스 그래. 너 뭐 했는데?
마이키 (빠졌다. 애처럼 뛰어나가는데)
장풍 (자기도 뛰며) 야! 나도 갈 거거든?
익스 (더 빨리 뛰며) 내가 먼저 갈 거야!!

유치하게 서로 밀치며 뛰어가다 마침 들어오던 현철과 세계 부딪히는 셋.
현철의 손에 들려 있던 케이크 상자.
공중 2바퀴 회전 후 바닥에 툭 떨어진다.
케이크 상자 밖으로 빠져나온 빵이며 크림은 이미 죽사발.
거기에 풍선, 종이 따위가 을씨년스럽게 바닥에 굴러다니는 광경.

현철 ...이게 잔칫집이야? 초상집이지.
(둘러보며 짜증) 생판지 뭐시깡인지. 그냥 개판이구만, 자식들.

바닥의 물건들 요리조리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현철.

문세(E) 우리는 미성숙하다.

#22. 버스 정류장(밤)

벤치에 홀로 멍하니 앉은 순옥. 채리, 순옥 옆에 가 앉는다.

순옥 이쁜이 왔네?
채리 (말없이 아이스크림 꺾데기 까서 순옥에게 내밀고)
순옥 (받아먹는다)
채리 (자기 것도 까며)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순옥 ...몰라. 어딜 가려고 나왔는데. 그제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채리 ...괜찮아요. 생각나면 가면 되죠. (아이스크림 먹고)

조용한 정류장.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 먹는 두 여인.

문세(E) 아픔을 이겨낼 짬밥과 맷집이 부족한 우린...

#23. 문세네 옥상(밤)

익스 (마이키에게) 야 이 새끼. 어떡할 거야?
장풍 (마이키에게) 너 때문이잖아?

씩씩대는 마이키. 떨어진 케이크 한 줌 집어 던진다. 장풍 얼굴에 척—명중.
케이크 범벅에 열 받은 장풍도 마이키에게 한 줌 던지는데,
마이키 찹쌀계 피하자 옆에 있던 익스에게 명중.
마치 눈싸움하듯, 케이크를 파내 서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녀석들.
순식간에 난장판 되는 옥상...
소란에 나와본 현철. 눈앞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현철 야 이 시키들아아아! (하는 얼굴에 척—케이크 투척됐다)

이판사판. 난장판에 합세하는 현철.
케이크, 과자, 각종 파티 음식들이 허공을 가르고.
소동이 극에 달할 때쯤, 갑자기 일동 멈추고 얼음 된다.
문세가 왔다. 분위기 숙연해지는데.

문세(E) 이소룡을 이길 단단한 내공이 없는 젊은 우린...

마이키, 수습한답시고 슬그머니 정리 시작.
이때 문세, 무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케이크 퍼내 현철에게 던진다.
재개되는 싸움. 콜라 흔들어 붓고, 물 뿌리고 점점 격해지는데,
녀석들 어느새 웃고 있다.

문세(E) 이렇게 미숙한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24. 골목(밤)

순옥과 걷는 채리.

채리 할머니. 근데, 할머니 왜 맨날 나한테 이쁘이래요?
순옥 (뻘히 보더니, 당연하다는 듯) 이쁘니까.
채리 ...할머니도 엄청 이뻐요.
순옥 (편안히 웃는다)
문세(E) 미숙한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며.

#25. 클럽 안(밤)

광란의 젊은이들 사이. 뻗뻗하게 서 있는 현철. 문세 일동, 현철 부추기고.

현철(E) 미숙한 내일로 오늘을 지운다.

옛날 옛적 군바리춤 발동 거는 현철. 문세 일동, 현철 놀리며 웃고 신났는데.
반대쪽 군중 틈에서 분위기 압도하고 있는,
어느 20대 여성의 현란한 관절꾸기 신공.
장난기 발동한 아이들. 현철 끌고 가 여성 옆으로 밀어버리고.
여성은 적극적으로 망측하며 이상한 몸짓으로 현철에게 밀착해 온다.
민망해하면서도 춤은 추는 현철.
들의 근본 없는 부비부비에 점점 흥이 오른다.
이 순간만큼은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긴 청춘 현철.
잠시 혼을 놓고 젊음의 희열을 만끽하는 순간,
번쩍 손을 드는 여자의 팔에서 미니마우스 문신을 발견하고 만다.
이때 현철을 향해 씩—웃어 보이는 여자. 이가 모두 금니다.

FLASH CUT 1화 #13

금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

그리고 보니 이 아가씨, 춤사위가 묘하게 관절 뻑뻑한 노인 같고.
상황 파악 중인 현철은 눈만 꼼빡꼼빡.
여성은 흥미를 잃은 듯, 자리를 뜨는데.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걷는 본새가 영락없는 할머니인.

현철 (놀라서 따라가며) 저기요!!!

#26. 클럽 앞(밤)

보도에 앉아 박카스에 판피린 섞고 있는 미니마우스녀.

현철 얼마 전에 공짜로 MRI 찍었죠?

미니마우스녀 (귀가 어두워) 이?

현철 MRI 찍지 않았냐고?

미니마우스녀 (여전히 안 들리는 듯) 뭣이?

현철 안 들리세요?

미니마우스녀 (주머니에서 보청기를 꺼내 낀다) 총각. 뭣이라고??

현철 어르신!!! 나! 나 알죠?

미니마우스녀 (현철을 뻔히 보고)

현철 나도 같은 데서 이렇게 됐다고요!! 할머니!!!

미니마우스녀, 현철 보는 눈빛 또렷해지는데.

3화 끝.

작가 후기

2019년 오픈 공고를 봤던 그 순간엔 차마 짐작도 못 했었지요.
2020년 오픈 작품집에 후기를 쓰게 될 줄요.

제출 직전까지 고치고 또 고쳤던 작품인데, 지금 보니 어쩔 이렇게 별로일까요?
이대론 너무 창피하지? 근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많이 고민하다가, 수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민트 컨디션'은, 그냥 부족하고 어설픈 첫 작품,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요.
라고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오픈.

처음으로 작가의 꿈을 각성시켰고, 처음으로 작가라 불러준 곳.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의미인데,

여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가요. 자꾸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감히 확신컨대,

오픈은 가장 호화롭게 지망생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곳 아닐까 싶어요.

늘 작가 우선, 작가 위주의 환경을 만들려 진심으로 노력해주시는

오픈 담당자분들과, 모든 4기 작가님들, 우리 시트콤 동료들, 김성미 대리님,

이남규 작가님, 박준화 감독님, 백미경 작가님.

어머. 얼굴 떠올리니 눈물 내려 그러네.

모두, 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두려움을 잊지 않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2말 3초
증후군

최유현

인생의 어느 페이지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겠지만,
20대 말에서 30대 초는 꽤나 특별한 시기다.
일명 '2말 3초'로 불리는 이 특별한 시기는, 꿈과 현실의 기로에서
기대와 불안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때이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거나, 만나려 발버둥 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막 생기기 시작한 경제력으로 자신이 꿈꿔온 삶을 본격적으로
실현해보는 때이며, 숨 막히는 현실에 가로막혀 진한 좌절감에
휩싸여보는 때이기도 하다.

이 변화무쌍한 삶의 페이지를 바라보는 방식은 각자 다르겠지만 '웃음'과
'함께'라는 키워드로 접근한다면, 이 특별한 시기를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지나왔거나, 또는 언젠가는 지나야 할 그 특별한 삶의 좌표를,
이 시트콤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조금 더 웃기게.
함께여서 행복한 모습으로.

등장인물

장보름(28세, 여) 연예기획사 직원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로 활동해, 보통 그 나이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 대학 진학 후, 독하게 자격증을 따 취업에 성공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머리 기르는 게 어색해 짧은 머리를 고수하고, 여성스러운
옷은 간지러워서 피한다. 등장인물 중 성격이 비교적 노멀하고 털털-대범한
편이지만, 연애나 썸 등에 있어서는 속맥이라 가끔 못 봐줄 모습을 보인다.

‡ 주변 인물 : 동료 직원들, 회사 소속 연예인들

전소윤(28세, 여) 웨딩플래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가끔 애늬은이 같은 면모를 풍긴다.
 설렘과 행복이라는 환상에 이끌려 웨딩플래너가 되었지만, 수많은 커플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학을 때, 이제 결혼 공포증이 생길 지경이다.
 소심하고 내숭 떠는 스타일이지만, 친한 사람 앞에서는 활발하고 장난도 많다.
 † 주변 인물 : 웨딩플랜 담당 커플들, 웨딩플래너 선후배

최하린(28세, 여) 유튜버

대학 졸업 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해 몇 년 치 먹고살 돈은 벌어들였다.
 원래 꿈인 쇼호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미련 없이 쇼핑몰을 정리했는데,
 매번 시험에서 낙방한다. 방송 경험을 쌓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1인 방송을 한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성질나면 필터링 없이 성질을 부리고,
 기분 좋으면 느닷없이 개다리춤도 춘다.
 † 주변 인물 : 동료 크리에이터들, 쇼호스트 준비생들

진박(28세, 남) 알짜배기 중견기업 홍보팀 대리

명문대 신방과를 나왔다.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으나, 변변히 완성한 작품
 없이 취업 전쟁에 휩쓸려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세간의 관심을 별로 받지 않는
 기업이라 홍보팀 업무는 널널하기 그지없고, 가끔 너무 할 일이 없어 눈치까지
 봐야 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워너비 ‘꿀빨리’다. 몸이 편하니, 잡생각이
 많아지는 걸까. 시나리오 작가의 꿈을 놓지 못하고 틈틈이 습작을 한다.
 겉으로 보면 명문대 출신 엘리트 같지만, 실제로는 해맑다 못해 멍하기까지
 한 성격. 단순하고 착하다.
 † 주변 인물 : 회사 사람들

나도현(28세, 남) 프리랜서 번역가

공부를 썩 잘한 편은 아니지만, 영어 하나는 자신 있어 번역가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차고 넘치는 게 영어 번역가고, 유학파나 네이티브스피커도
 아니기에 그다지 경쟁력 있진 않다. 근근이 생활하는 수준.
 부모, 형제 모두 명문대 출신에, 의사와 변호사를 밥 먹듯이 배출하는
 집안이라, 공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그는 어릴 때부터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겉으로 보면 짜질하고, 소심하고, 아웃사이더 전문일 것 같은데,
 실제로도 상당히 그러하다.
 † 주변 인물 : 잘나가는 부모, 형제, 친척들

저스틴 곽(22세, 남) 재미교포 교환학생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혼남 재미교포 2세. 미국 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현식네 옆방 원룸에 세를 얻는다. 그런데
 교환학생으로 등록한 대학교가 여대로 변해 졸지에 여대생이 되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중반부 이후 활력소로 등장)

그 외

집주인 가족(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 중국으로 사업하러 간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집.

줄거리

지방 출신 고교 동창 여자 세 명이 서울 어느 다가구주택 1층에 모여 산다.
 그리고 집 안쪽 계단으로 연결된 2층에는 동갑의 남자 두 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한국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세어하우스에서 남녀 친구들이
 허물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생의 격동기인 2말 3초 청춘들의 일과 사랑,
 꿈이 매회 코믹하게 펼쳐진다.

1화

#1. 1층 여자 집(낮)

1층엔 여사친, 2층엔 남사친들이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
친구들이 모두 모여 1층 여자 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다.
진박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다.

보름 (진박 보며) 치킨 좀 먹으면서 해.
진박 (노트북에 시선 둔 채 건성으로) 어.

진박, 여전히 노트북에 시선 둔 채, 한 손은 타이핑을 하고,
한 손을 치킨 쪽으로 뻗는데,
마침 치킨을 가져가려던 도현의 손을 치킨으로 착각해 입으로 가져간다.

도현 야! 뭐 하는 거야? 내 손이잖아!
진박 어? 어... 미안.
하린 진박이 엄청 열심히 한다.
시나리오 공모전 당첨되겠는데? 많이 썼어?

말하고 노트북 얼핏 보는데,
진박이 쓴 것은 치킨 배달 사이트 후기다.

하린 뭐야? (읽으며) 처음 후기 남깁니다. 사장님이 미치셨나 봐요.
너무 맛있네요...? (진박 보며) 여태 이거 적은 거야?

진박 (민망하게 끄덕끄덕)
하린 (황당)
보름 (진박 보며) 너 어제도 뭐 엄청 썼잖아?

진박 (민망) 어젠 족발...
도현 (황당) 야, 너 어찌려고 그래? 공모전 대상 타겠다고 회사
일주일이나 휴가 내놓고 웬, 쓸데없는 것만 적고 있어?
진박 쓸데없다니... 사장님이 후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원래 작품 들어가기 전에 다른 해야 할 일 안 해놓으면
집중 안 돼서 못 해.
소윤 막상 글 쓰려니까,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진박 (속마음 들켜) ...무슨 소리야? 찝찝하면 집중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린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제 다른 할 일은 다 했어?
진박 응, 이제 정말 쓰기만 하면 돼. (하고는 갑자기) 아! 맞다!
하린 왜?
진박 통신사 대리점도 다녀와야 돼.
보름 통신사는 왜?
진박 응, 족발집 포인트 적립해야 되는데, 통신사 멤버십이랑 중복
적용이 잘 안 먹혀서, 알아보려구.
일동 (황당)

이때, 소윤의 핸드폰이 진동한다.

소윤 (빠릿하게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전화 받으며) 네 신랑님! (듣고)
대리 하객이요? 다 모집했죠! (듣고) 그럼요. 신부님한테는
당연히 비밀로요. (듣고) 네, 그래서 저희가...
(대화 길어지자 자리 옮기며 통화)

진박 대리 하객?
하린 결혼식에 돈 받고 친구인 척해주는 거?
보름 어, 나도 알바루 가본 적 있어. 소윤이 소개루.
도현 (보름 보며) 맞다! 너 떨린다고 단체 사진 찍는 연습까지 했잖아.
별일 없었지?

보름 그럼! 신부 옆에서 팔짱 끼고 베프인 척 사진, 잘 찍었어.
(뿌듯해하면)

소윤 (전화 끊고 돌아오며 한숨) 근데 그때 그 부부,
사진 받아보고 쇼크로 병원 입원했잖아.

보름 왜?

소운 내가 실수로 너한테 결혼식장 잘못 알려줬거든.
 일동 아아... (고개 끄덕이다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서
 얼굴이 일그러진다)
 소운 사진에 귀신 찍혔다구, 낫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보름 (울상 되어 입틀막) 어떡해...
 진박 결혼식 하객도 돈으로 사는 거, 좀 씹쓸하네.
 하린 에휴, 우리나라 뭘든지 과시해야 하니까.
 소운 (명단 체크하며) 그래도 적당히 불러야지.
 대리 하객 서른 명이 뭐야.
 도현 서른 명이냐? 그럼 대리 하객이랑 진짜 친구랑 다 합쳐서
 몇 명이나 오는 건데?
 소운 (집중하여 혼잣말로 한참 계산하더니) 서른 명.
 일동 아아... (고개 끄덕이다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고개 가우뚱)
 소운 (갑자기 폰 보더니 정색) 어머! 이제 와서 핑크 내면 어떡해. 결혼식
 몇 시간 남았다고!
 보름 왜? 대리 하객이 핑크 냈어?
 소운 어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어떡해!
 아! 보름아, 너 혹시 시간 돼?
 보름 아... 나 오늘 집에서 일할 게 좀 있어서...
 진박 난 글 써야 돼서...
 도현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 결혼식, 하객으로 가는 거,
 좀 찝찝하기도 하잖아.
 소운 (한숨) 그렇긴 하지... 쫓. 신부가 스튜어디스라 예쁜 친구들 많이
 오면 뭐해, 신랑 측 친구가 없는데.
 도현 (2층으로 다급히 뛰쳐 올라가는)
 진박 야! 어디 가?
 도현 결혼식 가려면 씻고 준비해야지!
 소운 (반색) 어! 빨리 준비해!
 하린 (한심해하며) 으유, 하여간.
 소운 (하린 보며) 남자 승무원들도 많이 와.
 하린 (현관으로 다급히 뛰쳐나가며) 머리하고 올게!

#2. 결혼식장/비상구 계단 통로(오후)

소운, 도현, 하린 및 대리 하객 두 명이 통로에 있다.
 소운은 명단을 체크하며 대리 하객 두 명을 들여보낸다.

소운 (명단 보며) 휴, 이제 거의 다 왔네.
 대리 하객 30명 모집은 또 처음이다.
 하린 신랑이 변호사라고 했지? 직업도 좋은데 왜 친구가 하나도 없어?
 소운 몇 년 동안 공부만 한다고 인간관계 다 파탄 났나 봐.
 도현 에휴... 참. (소운 보며) 들어가자.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하린 잠깐.
 도현 (?)
 하린 (기생충 제시카 노래 패러디) 변호사, 서울대 (도현도 함께)
 사법연수원 동기. 사는 곳은 강남구 스카이캐슬.
 소운 뭐 하는 거야?
 도현 그래도 역할 대행인데, 캐릭터 설정은 해놔야지.
 하린 신랑이랑 사법연수원 3인방인 걸로 짜봤어!
 소운 (어이 상실) 무슨 캐릭터야! 그냥 박수치고,
 사진만 같이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남자 한 명이 커다란 법전을 들고 급하게 계단을 올라온다.

법전남 (소운 보며) 어? 저 안 늦은 거죠? 오늘 대리 하객...
 소운 (명단 보며) 아,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법전은 뭐예요...?
 법전남 아, 제가 오늘 설정한 캐릭터가 워커홀릭 변호사라서요.
 일하다 급하게 달려온 느낌을 내다 보니...
 소운 (황당해하면)
 하린·도현 (거 봐, 하는 표정)

#3. 2층/진박 방(오후)

진박,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진박 (심호흡 크게 하고) 그래, 이제 족발 포인트도 다 적립됐고, 맘 잡고 글 좀 써보자.

하지만 좌판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안절부절못한다.

진박 (방 둘러보며) 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찻집해서 집중이 안 되네. 청소 좀 하고 하자. (하고 일어나 정리를 시작한다)

#4. 결혼식장/입구(오후)

신랑 및 신랑 부모님, 장인 장모가 식장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법전 든 남자가 신랑과 인사 중이고, 도현과 하린은 뒤에 대기 중이다.

신랑 (형식적으로 고개 숙이면)
법전남 휴.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다행히 안 늦었다! 결혼 축하해!
신랑 (황당하지만 마지못해) 어... 고마워.

하면, 부모님과 장인 장모 모두 흐뭇한 얼굴. 법전남 식장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하린과 도현의 차례.

도현 (심하게 친한 척) 이 자식. 드디어 장가가는가! 축하해!
하린 (흐뭇하게) 우리 3인방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결혼에 골인하네. 잘 살아!
신랑 (황당하지만 마지못해) 그래... 고마워.

역시 부모님과 장인 장모 모두 흐뭇한 얼굴.
하린, 도현 마주 보며 회심의 미소 짓고 식장에 들어간다.

#5. 결혼식장/하객석(오후)

하객석은 원형 테이블에 대여섯 명씩 앉는 방식.

도현 (자리에 앉아 식장 둘러보며) 어우, 좋다. 역시 고급지네.
하린 (속삭이며) 응. 엄청 잘사는 집인가 봐. 가족들이랑, 하객들 다 상류층 티 팍팍 나.
도현 (속삭이며) 뭐, 우리도 오늘은 잘나가는 변호사로 설정했으니까, 맘 편히 구경하고 가자. 최 변.
하린 어? 최 변? ㅋㅋㅋㅋ. 좋았어. 나 변.

하며 도현, 하린 킁킁할 때,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흰칠한 남자(민수)와 늘씬한 여자(주연)가 맞은편에 앉는다.

민수 (도현을 유심히 보더니) 나... 도현?
도현 누구... (하다가 민수를 알아보고 움찔) 헉!
민수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도현 주...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민수 BST 도현!
주연 (끼어들며) BST? BTS도 아니고, BST가 뭐야?
민수 아, 빵셔틀 줄임말이야. 푸하하하.
도현 (난감)

이때, 지나가던 하객이 민수와 주연에게 인사하며 말을 걸자, 이 틈을 타 하린과 도현이 속삭이며 정보를 나눈다.

하린 뭐야? 너 저 사람 빵셔틀이었어?
도현 아이... 씨. 짜증 나. 저 인간을 왜 여기서 만나. (찡그리면)
하린 야, 너 왜 주눅 들어? 이제 풀릴 것도 없잖아. 안 그래, 나 변?
도현 어? (생각해보고는 하린과 눈 마주치며)
하린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건데, 입 좀 화려하게 돌려보자구!
도현 좋았어. 최 변!

민수와 주연, 지나가던 하객과 대화 끝낸다.

하린 (도현 보며) 야, 나 변. 어제 재판 승소했는데 한 톨 싸라.
도현 어어? (당황하다 차츰 자연스럽게 연기) 아유, 처음 한두 번 승소할

때나 기쁘고 좋지, 이제 뭐 특별한 일이라고. 최 변도 참. 허허허허.

민수 (도현 보며 깜놀) 나 변? 너 변호사야?

도현 (거만하게) 응. 너 뭐하고 살아?

민수 어. 난 파일럿이야. (주연 보며) 이 친구는 승무원이자, 내 와이프. 신부랑 다 같은 항공사 다녀.

도현 하린 아... (어쭈? 꽤 성공했네? 하는 표정)

주연 (민수 살짝 밀치며 투정) 찻, 자긴 이제 다른 항공사 가잖아.

도현 응?

민수 아, 요새 파일럿들 몸값이 좀 뛰었어. 중국 쪽에서 연봉 열 배 불러서 그냥 경험 삼아 가기로 했거든. 뭐 그래 봐야 강남 아파트 두 채 샀더니, 남는 것도 없긴 하지만. (웃으면)

도현 (놀라 당황했다가 마음 가다듬고) 아... 너네 회사 문제다. 나 같은 자문 변호사한테는 파일럿 연봉 스무 배 주면서, 정작 중요한 파일럿들은 중국으로 유출시키고. 내가 문제 제기 좀 해볼게.

민수 (깜놀하면서도 떨떠름) 어, 그... 그래.

하린과 도현 마주 보며 회심의 미소 짓는.

테이블 밑으로는 손바닥 마주치며 몰래 하이파이브.

#6. 2층/진박 방(오후)

보름이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진박 방으로 향한다.

보름 (진박 방 앞에서 노크하며) 진박아!

진박 어! 들어와!

보름 (방 들어가며) 드라이기 잘 썼어.

하고, 방 안을 보는데, 진박이 옷장 옷을 다 꺼내놓고 대청소 중이다.

보름 깜짝 놀라서,

보름 허어? 대청소하는 거야? 너 글 안 써?

진박 (옷 포개어 접으며) 어, 이것만 좀 하고. 전부터 정리한다 한다 해놓고 못해서 찻찻했거든.

보름 야... 너 근데 정말 글 쓰는 거 어려워서 다른 할 일 찾는 거 아니야?

진박 (웃으며) 아니야. 나 진짜 찻찻하면 글 못 쓰잖아.

이거만 해놓고 죽어라 쓸 거야.

보름 (황당하고 걱정스러운 표정) 아... 그래...

#7. 결혼식장/하객석(오후)

도현 (민수 보며 능청)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금 몇백억짜리 소송이 있어서 얼마나 부담이 큰데.

하린 에휴, 나 변! 이제 재판 생각 좀 그만해! 하나뿐인 동기 결혼식인데.

도현 (손바닥으로 이마 짚으며 오버액션) 아! 이놈의 일 중독.

알았어, 최 변!

이때, 테이블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어떤 노신사가 대화에 끼다.

노신사 변호사인가 보구만. 사법연수원 몇 기인가?

도현 네? (당황하지만 정신 차리고) 사...사십오기인데요?

노신사 아... 그때 내가 연수원에서 '법과 사회' 수업을 했을 때인데...

하린 (당황하지만 정신 차리고) 아...! 교수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도현 갑소사. 세월이 너무 지나서 못 알아봤어요. 아직 건강하시죠?

노신사 그럼. 자네 같은 후배들이 변호사로 활약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구만.

하린 (연기에 심취) 다 교수님 은혜죠. 저희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워낙 법조계가 바쁘다 보니... 언제 한번 45기 동기끼리

인사드리러 갈게요.

노신사 (사람 좋게) 괜찮네. 괜찮아...

이때, 소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근처를 지나다가 노신사를 발견한다.

소운 어머,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노신사 (깨갱하여) 밥만 먹고 갈게.

소운 이거 스테이크 한 끼가 얼마나 비싼데요, 안 돼요! 나가주세요!

하면, 노신사 나가고.

도현 (당황하여 소운 쳐다보면)

소운 (일반 하객 대하듯) 아, 저분이 결혼식마다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가는 분이세요. (머리 짚으며) 여기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이래...

도현 (난감한 표정)

소운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소운 사라지면)

민수 (도현 정체 의심하며) 뭐...지...? 너랑 인사한 건 뭐야?

하린 (과도하게 긴장했지만 티 안 내려고) 아하하하! ‘법과 사회’ 과목을 강당에서 수업하는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뒤에서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도현 (손바닥으로 이마 짚으며 오버액션) 카... 이런 해프닝이 다 있네. ‘법과 사회’ 교수님이랑 진짜 닮긴 했다. 그치 최 변?

하린 그러니까, 미치겠다. 나 변. (하고 긴장을 감추려 과도하게 웃으면)

민수주연 (뭔가 떨떠름하지만 받아들이는 표정)

장내방송(E) 이제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도현과 하린은 민수의 시선을 돌리고자 과하게 환호한다.
환호하다 손 내리면, 테이블 밑으로 덜덜덜 떨리는 손.

#8. 2층/진박 방(오후)

먼저 한 톨 없이 잘 정리된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은 진박.

진박 (양손 비비며) 그래, 이제 진짜 한번 써볼까.

하고 좌판에 손 올렸다가 이내 안절부절못한다.

진박 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하겠지? 커피나 한잔 마시고 하자.

#9. 1층 여자 집(오후)

진박, 1층 여자집 주방에 들어서는데, 보름이 냉장고 정리 중이다.

보름 어? 왜 내려왔어?

진박 어... 2층 커피가 다 떨어져서, 한잔 마시려고. 근데 뭐 하는 거야?

보름 응, 냉장고 정리. (코 막고 상한 음식 봉지 꺼내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거의 생화학 폭탄 저장고 뒀어. 흐흐. 커피 내린 거 있으니까 따라 가.

진박 으응... (하고, 고심에 빠진 표정)

CUT TO

진박이 냉장고뿐 아니라, 찬장, 싱크대 등 온 주방 살림을 다 꺼내놓고 정리 중이다.

진박 (보름에게) 거기 세제 좀 줘봐. 여기 싹 좀 닦아야겠다.

보름 (세제 건네며) 어,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너 이제 정말 글 써야 되잖아... 공모전 대상 타겠다며... 에이, 1층 주방 그렇게 드나드는데, 안 도와주면 어차피 짹짹해서 집중이 안 돼.

보름 (황당하고 걱정스러워) 아... 그래... 고...고맙긴 한데...

#10. 결혼식장/하객석(오후)

예식 후 단상에서는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사진 촬영 중이고, 친구들은 테이블에서 대기 중이다.

도현 (신랑, 신부 보며) 이제 사진 찍고 신혼여행만 가면 되네. 좋겠다.
 민수 왜 부러워? 너 여자친구는 사귀어봤냐? 아... 하긴 있으면 이럴 때 같이 오지. (하린 보며) 재 중학교 때 여자애들한테 하도 맞고 다녀서 여자 공포증 있잖아요.
 도현 (당황) 애도 노... 농담은...
 하린 (도현 대신 나서며) 제가 도현이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어머, 밖에서는 티를 잘 안 내서 모르셨나 보다. 제가 엄청 따라다녀서 결혼했어요. 허허허. (하고는 도현 팔짱을 낀다)
 도현 (당황했다가 마음 추스르고 하린의 어깨 감싸는)
 민수 (의심스럽지만 받아들이는) 아... 몰랐네.
 주연 (건수 생각하다가 하린에게 은밀히)
 혹시... 그쪽 남편분도 그러세요?
 하린 (역시 은밀히) 뭐가요?
 주연 저희는 결혼 3년찬데, 이이가 신혼여행 때보다 더 뜨거워져서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민수 아하하하하... (민망한 척 뿌듯해하는)
 하린 (민망) 아... 네...
 주연 저흰 올 초부터 뜨거운 밤 보낼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만 원씩 저금했는데, 벌써 백만 원 채워서 TV 바꿨잖아요. 진짜, 이이 힘이 얼마나 폭주기관차 같은지... 역시 피지컬이 넘사벽이니까 뭐...
 민수 (뿌듯) 당신도 참...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하하하.
 하린 (지지 않으려) 아, 요즘 침실에 저금통 놓는 게 유행인가 보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금 80 정도 모았어요.
 주연 (에게게?) 아... 80만 원요?
 하린 (도현 보며) 우리도 그냥 한 번에 만 원씩 넣을 걸 그랬나? 5천 원씩 넣으니까 돈이 너무 느리게 모여.
 도현 아하하하하... 5천 원씩 해도 올해 안에 충분히 TV 바꿀 수 있어.
 하린 냉장고도 가능할까?
 도현 아하하하하... (하고는 하린 보며 끄덕끄덕)
 하린 으이구, 완전 핵잠수함 같아. 뭐 걸로 보이는 피지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도현 (뿌듯) 아하하하하... 당신은 별 얘기를 다...
 민수·주연 (더 이상 할 말 없어 헛기침) 으음...

도현과 하린, 기뻐하는 표정으로, 테이블 밑에서는 서로 손 꼭 맞잡는.

#11. 2층/진박 방(오후)

진박, 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켜다.
 진박 (손 비비며) 하... 이제 진짜 글 좀 써볼까.
 하는데, 또 안절부절못하다가,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칼같이 정리돼 있는 책상, 침대 등등.
 진박 (마약 중독자처럼 손, 발 떨며) 하...
 하고는 옷장 열어보는데, 종류와 색깔별로 완벽히 정리돼 있고, 다시 다급히 책상 서랍 열어보는데, 완벽히 정리돼 있는 필기구, 메모지 등등
 진박 (마약 중독자처럼 손, 발 떨며) 하... (하고 컷 튀면)

#12. 1층 여자 집(오후)

진박, 1층 여자 집으로 계단 내려오자
 보름 (놀라) 왜... 또?
 진박 어... 이상하게 계속 찻찻해서... (하고 여자 집 거실 둘러보는데)
 보름 왜... 그래? 아까 니가 여기 거실이랑 내 방, 걸레질까지 싹 다 해줬잖아.
 진박 어... 근데 대청소하는 김에 다른 애들 방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보름 아니야. 애는 무슨. 사람도 없는데. 진짜 빨리 글이나 써! 너 대상 탄다매!
 진박 어...

실망하여 계단 올라가려는데, 바깥에서 동네 방송 소리가 들린다.

방송(E) ○○동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동 환경 정비의 날을 맞이하여, ○○동 골목 구석구석과 방치돼 있는 공터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다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하 반복)

진박 (환희에 찬 얼굴) 아... 동네 일인데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고. 보름 야, 너... 글 써야 되잖아. (핸드폰 보며) 아, 내가 할 일이 좀 빨리 끝났으니까, 오늘은 내가 나갈게...

하고 진박 있던 곳 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진박.

보름 (황당)

#13. 결혼식장/단상(오후)

하객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신랑, 신부 친구들이 모두 단상에 열 맞춰 서 있다. 신랑, 신부 바로 뒤쪽에 도현, 하린, 민수, 주연이 나란히 서 있다.

사진사 저기, 신랑이 조금만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모두 웃으세요!

도현과 하린, 활짝 웃는다.

사진사 하나, 둘, 셋!

하고, 사진 찍는 순간 식장으로 형사 두 명이 들이닥친다.

형사1 잠깐만요. 강남경찰서 강력계 마준택 형사입니다.

잠시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랑 무슨 일입니까?

형사2 직업 및 신분 사칭 건에 대해 제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일동 (웅성웅성)

신랑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 감싸며 울먹) 죄송합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끝마치고 연행해주세요.

신부 뭐...? (망연자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자리에 풀썩 앉아버리고)

장모 (뒷목 잡고 쓰러지며) 정 서방! 이게 무슨 일이야? 다 가짜야?

도현과 하린, 입틀막 하고 옆을 보는데

민수와 주연이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다.

민수 뭐? 사법연수원 동기?

도현·하린 (창피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형사2 (수첩 훑으며) 아... 근데 제보는 신부에 대한 건데요?

신랑 (놀라 신부 보며)

신부 (부케 내팽개치며) 아, 씨. 끝까지 속일 수 있었는데. 누가 분 거야!

신랑 아빠 새아가! 아이고...

도현 (민수 보며) 뭐? 신부 회사 동료 파일럿이라고?

민수·주연 (헛기침하며 먼산 바라본다.)

신랑 엄마 새아가! (하고 뒷목 잡고 쓰러지면)

신랑 (신랑 엄마에게) 아줌마. 이제 연기 그만해요. 다 끝났잖아요!

신랑 엄마 (벌떡 일어나며) 이제 그만 해도 돼?

일당은 정상적으로 주는 거죠? 총각?

신부 엄마 (역시 벌떡 일어나 신부에게 달려가며) 이봐 아가씨.

나도 돈 주는 거지?

신랑 (사람들에 둘러싸여) 돈 없어요! 이제 개털이라구요!

법전남 (법전 내팽개치며) 아씨.

나 오늘 하객 알바비 못 받으면 고시원비 못 낸단 말이야! 돈 내놔!

이후 사진 찍으러 나와 있던 하객들

모두 각각 신랑, 신부 주위로 몰려들어 돈 달라고 아우성.

형사1 (황당) 나 참... 살다 살다.

형사2 아주 균들끼리 모였구만.

난장판 한가운데서 집요하게 신랑, 신부에게 따지는 하린,
도현, 민수, 주연 모습.

사진 속 진박은 'OO동 주민 봉사 대상' 현수막 앞에서, 한 손에는 빗자루,
다른 한 손에는 트로피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다.

#14. 1층 여자 집(며칠 후 밤)

1화 끝.

친구들이 소파에 앉아 커다랗게 인쇄된 사진 한 장을 둘러보고 있다.

소윤 참, 나. 회대의 결혼사진이네.
보름 (사진 같이 보며) 그러니까...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에 아무도
진짜가 없었던 거지?
소윤 응. 신랑, 신부부터 부모님, 하객에...
(하린과 도현 보며) 참, 최 변, 나 변도 다 가짜였어.
하린 우리 역할에 충실했던 것뿐이야.
도현 맞아.

하린과 도현, 서로 주먹 맞부딪치며 하이파이브한다.

소윤 (하린, 도현에게) 이 사진 너네들이 가지든지 버리든지 해라.

하고, 사진 건네려는데,
결혼사진 뒤에 다른 사진 한 장이 더 있다.

소윤 (사진 보며) 어머, 이 사진은 뭐야? 진박인데?
하린 (사진 보고 놀라며) 허? 대상? (진박에게)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대상 탔구나, 대박!
진박 (머리 굽적이며 감격에 찬) 고마워.
일동 축하해!
한턱 싸라!
역시 너 탈 줄 알았어.
등등.

하고, 소윤, 사진 탁자에 내려놓는다.

2화

#1. 공원(아침)

조깅하러 나온 진박이 슈퍼 앞에서 음료수를 사 마신다. 그때 눈부신 형광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조깅하던 웬 할아버지가 슈퍼 쪽으로 다가온다.

진박 어우, 눈 멀겠네. 무슨 형광을 저렇게 도배하셨데.

하고 음료수 마시면, 어느새 슈퍼 앞까지 다가온 형광 할아버지가 좌판을 둘러본다. 진박이 형광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니 반지하 현식이다. 현식은 헛기침하며 좌판의 과일을 둘러보는 척하더니, 구석의 정력팬티를 째싸게 낚아채 계산하러 들어간다.

진박 (빵 터져서) 어? 정력팬티? (하고 킁킁댄다)

현식 (검은 봉지에 정력팬티 담아서 나오며 헛기침) 허음...

진박 할아버지! 운동 나오셨어요?

현식 (화들짝) 어, 윗집 총각도 아침 운동 하나 보네?

진박 몸이 좀 찌뿌둥해서요. 근데 할아버지 그런 거 왜 사세요?

현식 (경계하며) 뭐가? 입이 궁급해 참외 하나 샀는데.

진박 에이, 정력팬티 사는 거 다 봤어요. 그런 거 대부분 사גיע요!

현식 (들켜 당황했다가 진박에게 한 수 가르치는) 어이, 나도 원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팬티는 다르더라구. 처음엔 조금 까슬까슬하지만, 몸에 착 밀착되서 24시간 기를 모아주는데... (고개 끄덕이며 꿀꺽) 달라.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침 밥상이 달라져.

진박 (안 믿으며 웃는) 에이, 뭐 할아버지가 그렇게 느끼신다면 된 거죠.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정력엔 백 배 좋으실 거예요. 저 먼저 갑니다! (하고 뛰어간다)

#2. 대문 앞(아침)

진박이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마침 대문 앞에서 현식의 부인(미자)이 장을 하나 가득 봐와서는 킁킁댄다.

진박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미자 아, 고마워. 운동 갔다 와?

진박 네, 아이고,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미자 영감 좀 해먹이려고.

진박 아... 할아버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미자 (수줍게) 아니, 그 반대. (하고 혼자 킁킁댄다)

진박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 에이 몰라. 그냥 요즘 영감이 이뻐 죽겠어서.

아이고, 고마워.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진박 (혼자 남겨져서) 할아버지가 이뻐 죽겠다고?

(생각하는 진박 얼굴 위로)

현식(E)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침 밥상이 달라져.

이 팬티는 다르더라구.

진박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하고는 황급히 대문 밖으로 뛰쳐나간다)

#3. 1층 여자 집/주방(아침)

진박이 정력팬티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온다.

주방에선 친구들이 빵과 잼 등으로 아침을 먹고 있다.

보름 (현관 들어오는 진박 보며) 와서 빵 먹어.

진박 어. (진박, 식탁에 앉으면)

도현 (진박 비닐봉지 보며) 그건 뭐야?

진박 어... (흐뭇하게 웃으며 농담) 아침 밥상 좀 다르게 먹으려고.

소운 뭐래? 맛있는 거 사왔어? 같이 좀 먹자. (하고 봉지 뺏는 바람에 정력팬티 날아올라 도현 얼굴 위로 떨어지고)

도현 (팬티에 얼굴 파묻혀 양팔 허우적) 에휴휴. 이거 뭐야? (팬티

확인하고는) 뭐야? 팬티잖아!
 진박 (난처한) 그... 그냥 속옷이 다 떨어져서 샀어.
 운동 갔다 오다가. (화제 전환) 빨리 빵이나 먹자.
 하린 참, 오늘 저녁에 파티 안 갈래?
 보름 무슨 파티?
 하린 어,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들 모이는 자리인데,
 클럽 하나 빌려서 노나 봐. 친구들 데려와도 된대서.
 보름 정말? 재밌겠다. 나 갈래.
 진박 (기대에 찬) 크리에이터들 예쁜 사람 많아?
 하린 예쁜 애들 천지지. 연예인 하려다가 이쪽으로 방향 튼 사람들도
 꽤 되는데.
 진박 나도 갈게 그럼!
 하린 으이구, 그래. 오늘 다들 나사 풀려서 노는 날이니까,
 작업 한번 잘 해봐.
 진박 (의미심장하게 고개 끄덕이면)
 도현 (울상) 아씨, 난 오늘 소윤이 밥 사주기로 했는데. 그때 나
 일 소개시켜준 거 쏘다고 했거든. 외식 상품권이 오늘까지라.
 소윤 맞다. (하면서 먹던 빵 내려놓는다) 거하게 얻어먹을 타이밍에,
 난 왜 이 빵 쪼가리를 다섯 개나 먹은 것인가... (하고 울상)
 보름 뭐, 오후에는 소화 다 돼 있겠지.
 소윤 아... 나 요즘 변비라, 속에서 나가지는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한단 말이야. 한 5킬로는 쌓인 거 같아.
 도현 어우, 재는 남들 아침 먹는데!
 하린 (웃고) 우린 오늘 다섯 시에 같이 나가자. 참, 드레스코드가 있는데,
 화이트니까, 적당히 맞춰서 입고? 응?
 진박.보름 오케이. 그래.

#4. 레스토랑(오후)

교외 고급 레스토랑. 식사를 거의 마친 도현과 소윤. 행복한 얼굴이다.
 소윤 (음료수 한잔 마시고) 카! 오늘 너 때문에 완전 호강했다.

진짜 맛있었어. 시외버스 타고 온 보람 있네.
 도현 내가 거하게 쏘다 그랬지? 일 도와준 거 고맙다.
 소윤 친구끼리 뭘. 그나저나 변비도 짝 달아나겠어.
 난 배에 빠다 바르면 거하게 나오거든. 순풍순풍.
 도현 (기막혀) 야! 명색이 웨딩플래너가! 드러운 얘기 하지 좀 마.
 소윤 뭐가 드러워. 넌 뭐 화장실 안 가고 사냐? (하는 소윤 얼굴 위로)

(E)꾸르륵, 갑자기 배에서 신호음 울린다.

소윤 나 빠다칠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좀 비우고 올게.
 (하고 가다 뒤돌아서 장난으로) 순풍순풍.
 도현 (찡그리며) 어우, 왜 저래.

화장실에 다녀온 소윤이 도현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도현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소윤 (도현 귀에 대고 속삭이는) 나... 변비
 한 3킬로는 내려보낸 거 같아. 참 잘했쥬?

하는데, 그녀가 귀에 대고 말한 사람은 도현이 아니라 엉뚱한 남자다.

남자 (황당해서) 아, 네. 잘...하셨습니다.
 소윤 (입틀막) 어머! 죄송합니다...
 도현 (옆 테이블에서 손 흔들며) 소윤아!
 소윤 (종종걸음으로 가서) 뭐야? 자리 언제 옮겼어?

하고, 도현 보는데, 도현 맞은편에 흰칠한 남자(태오)가 앉아 있다.

도현 (맞은편 친구 가리키며) 어, 여기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
 고등학교 친구인데,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야.
 태오 (소윤에게) 반갑습니다. 강태오라고 합니다.
 소윤 (태오에게 한눈에 호감) 안녕하세요. 전소윤이에요.
 태오 소윤 씨. 피부가 정말 깨끗하시네요. (소윤에게 명함 건네며)

제가 피부과 의사라 좀 아는데, 소윤 씨는 레벨이 달라요.
 (좋아서 두 손으로 얼굴 감싸며) 어유...

태오, 물티슈로 명함통을 닦는다.
 그리고 명함통을 가방에 넣더니, 가방의 쇠 버튼도 물티슈로 닦는다.

소윤 어머, 태오 씨 엄청 깔끔하시네요.
 태오 아무래도 피부를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도현 (휴대폰으로 시간 확인하며). 우린 빨리 가봐야겠는데?
 버스 시간이 돼서.
 태오 서울 갈 거면 내가 태워줄까?
 소윤 (좋아서 입 찢어지고)

#5. 2층/진박 방(오후)

진박, 위아래 새하얀 흰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본다.

진박 이 정도면 드레스코드는 맞췄고...

하고, 방 나가려다, 정력팬티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눈에 띄자 멈칫하고
 바라보는 얼굴 위로,

하린(E) 예쁜 애들 천지지.
 오늘 다들 나사 풀려서 노는 날이니까, 작업 한번 잘 해봐.

진박, 회심의 미소 지으며, 비닐봉지를 힘차게 닦아낸다.

#6. 레스토랑 앞(오후)

태오는 차를 빼러 갔고, 도현과 소윤이 태오의 차를 기다리고 있다.

소윤 태오 씨 진짜 괜찮지 않냐?
 도현 근데 남자가 너무 저렇게 깔끔 떨구 다녀도 피곤하다 너.
 소윤 그럼 피부과 의사가 너처럼 하고 다녀야겠냐?
 도현 시끄러. 근데 너 화장실 또 안 다녀와도 돼? 기름진 거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
 소윤 아까 엄청나게 순풍순풍 내보냈거든. 걱정 마!
 도현 (쩡그리며) 어우. 알겠다.
 소윤 (태연하게 거울 보며 화장 고치는 소윤 얼굴 위로)

소윤(NAR)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찮더라도 그때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태오 (차 경적 울리며, 고개 내밀고) 타요!

#7. 태오의 차 안(오후)

운전석에 태오, 조수석에 도현, 조수석 뒤에 소윤이 앉아 있다.
 운전석 옆과 뒷좌석에 모두 물티슈가 비치돼 있다.

도현 야, 차 좋다! 이거 새로 나온 모델이잖아.
 태오 (핸들 툽툽 두들기며) 옛그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소윤 (태오 보이게, 물티슈로 손잡이 닦으며)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오 (룸미러로 소윤 보며) 손잡이에 뭐 묻었어?
 소윤 아, 아니요. 새 차 같은데, 지문 묻으면 기분 나쁘실까 봐요.
 태오 (웃으며) 괜찮아요. 소윤 씨.
 소윤 그래도 새 물건 사면, 계속해서 새 거 느낌 느끼고 싶은데.
 태오 하하. 그건 그래요. 역시 피부 좋은 게 이유가 있으시네요.
 생활도 깨끗하고, 마음도 맑으시고.
 소윤 (손으로 입 가리며 조심하게 웃으며) 아유, 아니에요.
 도현 (얼씨구?)

#8. 파티장(오후)

파티장에 들어온 하린, 보름, 진박. 파티장은 아직 한산하다.

하린과 보름은 각각 흰색 재킷과 흰색 스카프 등으로 포인트만 준 반면, 진박은 위아래 올 화이트다.

하린 (진박 보며) 어유, 넌 그냥 옷 하나 정도만 화이트로 하지. 뭘 그렇게 도배를 했어.

진박 난 드레스코드라길래...

(하고는 사타구니와 엉덩이를 슬쩍슬쩍 긁는다)

보름 (진박 보며) 그래도 멋지다. 트로트 가수 같고. 후훗.

하린 근데 너 아까부터 왜 그렇게 긁어? 어디 간지러워?

진박 아니야. 그냥 안 입던 옷 입어서 그런가 봐. 괜찮아. (하고 웃는 얼굴 위로)

진박(E) 아... 그 정력팬티 괜히 입었나. 처음에만 좀 까슬까슬한 줄 알았더니 갈수록 간지러워지네.

보름 근데, 아직 사람들이 별로 안 왔나 봐?

하린 어, 다들 원래 좀 늦어.

하는데,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아영)가 다가온다.

아영은 <금발이 너무해>의 리즈 위더스푼처럼 요란하고 여성스럽게 꾸렸는데 손에는 흰색 강아지까지 들었다.

아영 (강아지 내려놓고서는 목줄만 잡고) 어머! 하린 씨! 반가워! 짹!

하린 (아영과 두 손 맞잡고 방방 뛰며) 짹!

보름·진박 (아영에게) 안녕하세요.

아영 너무 잘 오셨어요.

보름 초대 감사합니다. (앉아서 강아지 보며)

근데 강아지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아영 진박이요.

진박 네?

아영 아, 원래 이름은 영어로 '밥'인데, 제 성이 진씨라서, 진밥이라고 불러요. 요즘 부쩍 가족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린 (웃고 진박 가리키며) 아... 재 이름은 진박이거든요.

아영 어머! 정말요? 너무 재밌다.

진박이랑, 진박 씨 이름도 비슷하고, 흰색 드레스코드도 딱 맞고.

진박 아... 하하...

하고, 무심코 밑을 내려보는데,

진박이 진박 다리를 잡고 마운팅'을 하고 있다.

진박 (기겁하는) 헉!

아영 (놀라서 얼른 진박을 들어 올리며) 어머, 애가 왜 이래.

요즘 폭풍성장 하더니... 종종 이래요. 죄송해요.

진박 씨... 진박아 사과드려... 얼른!

진박 (민망하고 난처한)

#9. 태오의 차 안(오후)

차가 교외의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다. 소윤, 기본 좋은 얼굴로 창밖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온다. 소윤의 찡그리는 얼굴 위로, (E)꾸르륵, 배에서 소리가 난다.

도현 (툼미러로 소윤 보며) 응? 너 혹시 배 아파? 왜 몸을 비비 파?

소윤 (들켜서 과민반응) 무슨 배가 아파? 잠깐 기지개 켜 거 가지고. (하고는 일부러 하품하며 기지개 켜면)

도현 배는 안 아픈 거지? 너 양식 먹으면...

소윤 (말 끊고) 어유, 나도현. 진짜 지저분한 애기 좀 하지 마! 시골길 구경하며 잘 가고 있었구만.

태오 (툼미러로 소윤 보며) 길이 참 예쁘죠? 조금 더 가면 예쁜 카페도 나와요.

도현 (반색하며) 허? 카페? 잠깐 들르면 좋을 텐데, 다들 바쁘...겠지?

1. 강아지가 다리 사이에 무언가를 끼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행동

태오 커피 마시고 싶어?
 도현 (굵적) 어, 근데 커피보단 화장실도 좀...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태오 하하, 소윤 씨, 아무래도 카페 가야겠는데요? 도현이 살리려면?
 소윤 (천만다행, 하지만 티 안 내려는) 어우, 하여간 나도현.
 그럼 카페 잠깐 들러요. 차도 얻어타는데, 커피는 제가 사드릴게요.
 태오 (룸미러로 소윤 보며 웃는) 네.
 도현 살았다! (하고 기쁨의 주먹 쥐면)
 소윤(E) 살았다! (하고, 가방 밑으로 기쁨의 주먹 쥘다)

#10. 카페(오후)

테이블에 커피 세 잔 놓여 있고, 소윤과 태오가 앉아 있다.
 도현은 화장실에 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온다.

태오 야, 이제 좀 시원하냐.
 도현 (자리에 앉으면) 커피 마시면 오줌 또 마려울 텐데.
 태오 (웃으며) 아, 진짜 드러운 얘기 그만 좀 해.
 소윤(E) 그럼 나도 화장실 좀 가볼까? 너무 들어오자마자 가면,
 화장실 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을 텐데, 지금은 괜찮겠지?
 소윤 (일부러 케이크에 손 갖다 대고는) 어머,
 저 잠깐 손 좀 씻고 올게요.
 태오 아 네.

소윤, 감격에 찬 표정으로 화장실로 향한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 손잡이를 돌리려 할 때, 카페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소윤을 크게 부른다.

종업원 아, 손님 잠깐만요!
 소윤 네?
 종업원 여자 화장실 지금 수압이 약해서 작은 건 괜찮은데, 큰일 보시려면
 2층으로 가셔야 해요. 안내문 붙인다는 걸 깜빡했네요.
 소윤 (난처) 아...

소윤(E) 아 미치겠네. 2층으로 가면 큰일 본다는 거 바로 들통나잖아!
 소윤, 난처한 표정으로 카페를 둘러보는데, 카페 안의 모든 손님이 소윤의 행방을 궁금해하며 지켜보는 느낌이다. 태오 역시 소윤을 지켜보고 있다.
 소윤(E) 어우, 나 정말... 전소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참자. 넌 할 수 있어!
 소윤 (힘겨운 표정으로 1층 화장실 들어가며 종업원에게)
 손만 씻는 건데요 뭐...

소윤의 답에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소윤의 힘겨워하는 얼굴 위로

소윤(NAR)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피하더라도 그때 2층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11. 파티장(오후)

진박, 파티장을 어슬렁거리며 구경 중. 그러면서 슬쩍슬쩍 사타구니와 엉덩이를 긁는다. 아영은 '크리에이터 교류의 밤'이라고 쓰인 현수막 앞에 있다. (현수막은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가 찍힌 형태인데, 매달린 한쪽 귀퉁이가 내려앉았다)

아영 진박 씨!
 진박 (엉덩이 몰래 긁다가 화들짝) 아 네?
 아영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가 내려앉아서.
 진박 아 네.

하고 달려가서 현수막 매는 것 도와주는 데서 CUT TO

아영 어우, 이게 현수막이 인쇄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묻었네.
 진박 (파란색으로 완전히 도배된 손바닥 보며) 아, 씻으면 되죠.

#12. 파티장/화장실(오후)

진박,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잉크가 지워지질 않는다.
다시 비누칠하려 하자, 뒤에 길게 줄 선 사람들이 편잔을 준다.

화장실남1 아... 뒷사람도 좀 생각합시다.

화장실남2 그만 좀 씻어요. 세면대도 하나밖에 없는데.

진박 아, 죄송합니다.

하고, 옆으로 비켜 종이타월을 꺼내 손을 닦는데,
파란색 잉크가 여전히 묻어 나온다.

진박 (난감한) 아...

하고는 엉덩이랑 사타구니가 간지러워 긁으려다 흰색 바지에 잉크가
묻어날까 봐 포기. 간지러움 참는 얼굴로 다시 파티장에 들어간다.

#13. 태오의 차 안(오후)

태오 조금 있으면 해 지겠다. 부지런히 가야겠네.

도현 짜식아. 화장실 가자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태오 누가 뭐래? 괜히 도둑이 제 발 저려서는,
하하하. 삼십 분이면 가겠다.

소윤(E) 아, 삼십 분 어떻게 참아!

(E)꾸르륵

소윤(E) 계속 꾸르륵거리고 미치겠네.
어우, 나 죽어. 가스라도 일단 내보내야겠다.

소윤이 창문을 내린다.

소윤 (이마를 짚으며) 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머리가 좀 아프네. 문 좀 잠깐 열게요.

태오 괜찮아요?

소윤 네. 바깥바람...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잠깐 심각한 표정으로 가스 분출)

(E)슈우욱, 바람 빠지는 방귀 소리

태오 (툼미러로 소윤의 심각한 표정 보더니) 바깥바람 뭐요?

소윤 바깥바람 쐬니까 좀 괜찮다고요.

도현 (쿵쿵대고)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태오 그러게? 무슨 썩은 내가... (장난) 도현이 너 방귀 편 거 아니야?

소윤 (툼미러로 도현 보며 장난에 동참) 나도현 못 살아 정말!

도현 아니야, 난 귀면 귀었다고 해! (도현 말에 다들 웃고)

태오 (저 멀리 하수처리장 표지판을 발견) 아, 여기 하수처리장 근처다.
그래서 냄새난 거였네.

소윤 (하수처리장 냄새로 생각해 천만다행) 아... 제... 제가 괜히 창문을
열었네요. 하수처리장 있는 줄도 모르고.

도현 그럼 그렇지. 야! 내가 아무리 방귀를 잘 꺾어도 이렇게 독한
방귀는 못 꺾어. 이걸 뭐 거의 한 3년 삭힌 파김치 먹지 않은 이상은
나올 수 없는 냄새라구!

태오 하하하. 파김치라니. 도현이 너 진짜 웃긴다.

소윤 (태연한 척 손부채질하며 웃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데서
FLASH BACK)

#14. 회상. 1층 여자 집/주방(아침)

오늘 아침 시간. 다들 식사를 마치고 주방을 나갈 때, 소윤이 냉장고 문을 열고
파김치를 꺼내 먹는다. 보름이 나가다 말고 소윤을 본다.

보름 파김치 먹어?

소윤 아우, 식빵을 다섯 개나 먹었더니 느끼해서. 역시 이럴 땐 역시 3년

묵은 파김치가 최고야. (하고, 맛깔나게 먹으면)

#15. 태오의 차 안(오후)

도현 (코 막으며) 아... 하수처리장 많이 지나오지 않았나?
근데 왜 아직도 파김치 냄새 나는 거 같지?

소운 (배 아파 죽겠는+민망한 표정)

태오 아, 이거 새 차에 냄새 배면 안 되는데.

소운(E) 아, 미치겠네. 이러다 나오겠다. 나오겠어!

태오 (룸미러로 소운 보며) 소운 씨 어디 아프세요?
땀 흘리시는 것 같은데...

도현 어? 정말? 너 어디 아파?

소운 그게 아니라... (하며 앞을 보는데, 저 멀리 상가건물이 보인다)
저 두통이 조금 있는데 저 앞에 약국 좀 다녀와도 될까요?

태오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태오가 차를 세운다. 소운 차에서 내리며.

소운 금방 다녀올 테니까 안에 계세요. (하고 급하게 나가는데,
밖에서 차 문을 닫고는 물티슈로 손잡이에 묻은 지문을 닦는다)

태오 아유, 소운 씨 너무 깔끔하셔. 아프시다면서두.

#16. 상가/정문 앞 주차장(오후)

상가 앞에서 중년 여자 두 명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중년1 집은 마음에 드세요?

중년2 여기 하수처리장 근처라 냄새 난다던데... 그게 걱정이네.

소운은 종종걸음으로 중년녀들이 있는 쪽으로 향한다.

소운(E) 아유, 죽는 줄 알았네. 일단 가스부터 분출 갑니다아.

(E)슈우우욱, 바람 빠지는 방귀 소리

중년1 아유, 언제 적 얘기하세요?
요새 정화시설 강화돼서 냄새 아예 안 나오.

중년2 (쿵쿵대며) 그런가... (하다가 소운 지나간 자리,
손부채질 거세게 하며) 어머, 냄새나네. 나잖아요!

중년1 (쿵쿵 대며) 어머... 진짜 없어졌었는데...

중년2 (목소리 높여) 어디서 사기를 치려 그래!

중년1 뭐? 사기? 너 말 다 했어?

중년 여자 두 명이 언성을 높여 싸운다.

본인이 저지른 상황은 전혀 모른 채 화장실로 질주하는 소운.

#17. 파티장(오후)

파티장에서는 어느새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아영이 진박을 잡아끌어 합류시킨다.

아영 (손 높이 들며 기분 만끽) 짹! 오늘 나사 풀린 것처럼 놀아봐요.
진박 (맞춰주며) 좋죠! 유후!

하고, 몸 흔들며 분위기 타는데, 사타구니가 간지러워 입술 꼭 깨무는.

진박 아... 음...

하지만 아영은 진박의 표정을, 더티 섹시한 표정으로 오해하고,
비슷하게 섹시한 표정을 짓는다.

아영 아... 음...

진박, 도저히 참기 어려워, 사타구니 앞까지 손을 갖다 대지만,
잉크가 묻을까 봐 포기.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

진박 읊... 읊...

하지만 아영은 진박의 사투를, 더티 섹시 댄스로 오해하고,
비슷하게 더티 섹시 댄스를 춘다.
진박, 황당한 표정으로 아영을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영의 화끈한 댄스를 보고 환호하며 빙 둘러싼다.
필 받은 아영, 진박을 이끌고 스테이지 위로 올라간다.
아영은 붓을 잡은 채 더티 섹시 댄스를 추고,
진박은 간지러워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분위기를 맞춘다.

#18. 상가/여자 화장실(오후)

드디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소윤. 하지만 빈칸에 들어가려 할 때,
거의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온다.

여자 잠깐만요. 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한 번만 양보해주실 수 있나요?
소윤 저도 지금 급해서... 죄송해요. (하고 들어가려는데)
여자 전 작은 거예요! 저 방광염도 있어서,
지금 안 누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제발!
소윤 방광염이요? (눈알 심하게 흔들리며) 저... 정말 소변만이죠?
여자 (간절히) 그럼요.
소윤 (고뇌하는 소윤 얼굴 위로)

소윤(NAR)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변만이라던 여자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소윤 그럼 정말 빨리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여자 네. 고마워요!

여자가 변기 칸에 들어간다.
하지만 소변만이라던 여자의 말과 달리, 큰일 보는 소리가 들린다.

(E)뿌지지직

소윤 (격앙되어 문 두드리며) 저... 저기요! 지금 뭐 누시는 거예요?
여자 죄송해요. 작은 일만 보려 했는데, 제 맘대로 안 돼서...
소윤 (거의 울먹이며) 아 뭐냐구요!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여자 모르겠어요... 저 좀 오래 걸리는데...

(E)뿌지지직

소윤 (폭발) 작은 거라면서 왜 큰 거 뉘!!!

망연자실하던 소윤, 다급히 여자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데, 마침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미화원 아주머니와 마주친다.

소윤 아주머니. 여기 화장실 또 어딴어요?
미화원 저 너무 급해서 죽을 것 같아요!
미화원 근처에는 없는데...
소윤 (거의 우는 지경) 아... 안 돼요. 저 몇 시간째 참은 거라구요.
미화원 아... 그럼 남자 화장실에 사람 없는데 들어가서 일 볼라우?
내가 밖에서 봐줄게.
소윤 (감격에 겨워 울 듯)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남자 화장실로 쏠살같이 들어간다)

#19. 파티장(오후)

아영이 붓에 온몸을 비비며 춤을 춘다.
역시 스테이지 위의 진박은 간지러워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영을 본다.

진박(E) (몸 흔들며) 아, 시원하겠다. 붓으로 긁으면 시원할 텐데.

그때 파티장 한편에 묶어놓았던 진밥이 즐랑 즐랑 어디론가 도망간다.

아영 어머! 진밥아 어디 가!

아영이 황급히 진밥을 잡으러 스테이지를 내려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파티는 여전히 광란의 분위기다.
한편, 아영이 내려가자, 진밥이 봉 앞으로 슬며시 다가간다.
그러고는 엉덩이를 봉에 부비며 더티 댄스를 추는 척, 굽는다.

진박(E) (황홀한 표정) 아, 이제 좀 살겠다.

그때, 갑자기 파티장에 정전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사람들 어? 뭐야?
정전이야?
아, 한참 분위기 달아올랐는데...

하지만 곧 불이 다시 켜지고, 음악도 재개된다.
사람들 다시 리듬을 타려고 하다가... 스테이지 위를 보고 경악한다.
스테이지 위 진박은 봉에 사타구니를 밀착시키고 위아래로 부비며 굽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엄청나게 더티한 댄스 같다.
그리고 진박 옆에서는, 진밥이 바닥에 놓인 스피커에 대고
마운팅을 하고 있다.

진박 (눈 감고서 시원해서 살겠다는 표정으로) 으허... 하...

진밥 (진박과 똑같은 자세로) 깨갱.

하린·보름 진박아! 뭐 하는 거야?

아영 (동시에) 진밥아! 여기서 그러면 어떡해!

하린, 보름은 달려가 진박을 끌어내리고, 아영은 진밥을 데려간다.

사람들 (황당, 경악) 어머...

웬일이야.

아유, 안 본 눈 삽니다.

(등등)

#20. 상가/남자 화장실 앞(오후)

미화원 아주머니가 남자 화장실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트로트 공연 영상을
보고 있는데, 노래에 푹 빠져 있다.

화면 (노래) 진또배기

미화원 (코스) 진또배기

화면 (노래) 진또배기

미화원 (코스) 진또배기

화면 (노래) 지이인또배기이이.

미화원 (정신 혼미) 짹!

이때 도현과 태오가 남자 화장실을 향해 다가온다.

미화원은 화면에 정신이 팔려 그들을 보지 못한다.

#21. 상가/남자 화장실(오후)

도현과 태오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기 앞에 자리 잡는다.

그때 변기 칸 안에서 굉음이 들려온다.

(E)우르르 광광. 우르르 광광.

도현 (입 모양으로) 대박.

태오 (고개 끄덕이며 입 모양으로) 대박.

일을 마친 도현과 태오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변기 칸에서 풍겨오는 냄새 때문에 손부채질하고 코를 막는다.

도현 (입 모양으로) 대박.

태오 (고개 끄덕이며 입 모양으로) 대박.

한편, 소윤은 변기 레버를 누르고는 문손잡이를 잡는다.
세상 행복한 소윤 표정 위로.

소윤(NAR)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잡이를 돌리기 전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변기 칸에서 소윤이 나온다. 행복한 표정이던 소윤은 도현과 태오를 발견하고는 급정색하여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도현·태오 (무의식적으로) 대에박...
소윤 (난처하지만 애써 웃는) 하하하...

FADE OUT
FADE IN

#22. 1층 여자 집/거실(밤)

여자 세 명과 진박이 소파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고 있다.
소윤은 치킨을 먹지 않고 치킨 무만 집어 먹는다.
그때 뉴스에서 정력팬티에 관한 소식이 나온다.

기자 최근 일부 무허가 기능성 속옷, 일명 정력팬티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점검 조사를 발표하고...

뉴스를 보던 진박,
놀란 듯 들고 있던 치킨을 떨어뜨리더니 황급히 2층으로 뛰쳐 올라간다.

하린 야! 갑자기 어디 가? 치킨 안 먹어?
보름 뭐야... (소윤 보며) 야 넌 왜 또 안 먹어? 다이어트 하는 거야?
소윤 (치킨 무만 먹으며 한숨) 하...

보름 이거 ‘빠다에 빠진 통닭’이라구, 새로 나와서 엄청 맛있어.
맛있으면 0칼로리라잖아. 먹어봐.
소윤 됐어...

그때, 2층에서 막 내려온 도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인데,
팔자걸음으로 걸어와 소파에 앉는다.

도현 소윤이 당분간 배에 빠다칠은 안 할 거야.
보름·하린 응?

소윤은 도현을 노려보며 치킨 무를 잘근잘근 씹어먹는다.
도현은 아랑곳 않고 짹짹처럼 다리 벌리고 앉아 치킨을 먹는다.

하린 (도현 보며) 다리 좀 치우지? 갑자기 웬 짹짹이야!

하지만 자세를 바꾸지 않는 도현.
한편, TV에서는 정력팬티 라돈 검출 관련 뉴스가 계속 진행 중이다.

기자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접촉시 접촉 부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뉴스를 보던 도현, 굳은 얼굴로 짹짹하고 앉았던 다리를 서서히 오므린다.

보름 (도현 보며) 근데 소윤이 당분간 빠다칠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린 (도현과 소윤 번갈아 보며) 그러게?

하지만 도현은 TV 뉴스에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눈치다.

기자 식약처에서는 정력나라 슈퍼파워 팬티 등 5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구매한 고객에게 즉시 착용을 중지할 것과 구매처를 통해
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윤 어머, 팬티 이름이 정력나라가 뭐야.
보름·하린 미쳐 진짜.

푸하하하.

여자들 웃고 있는데, 도현,
치킨을 떨어뜨리더니 황급히 2층으로 뛰쳐 올라간다.

2화 끝.

3화

#1. 1층 여자 집(저녁)

진박과 도현이 거실에서 보름의 방으로 새 매트리스를 옮기고 있다.
진박은 여유로운 반면 도현은 죽을 것 같은 표정이다.
여자 셋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진박 괜찮아?
도현 (괴롭고 다급) 어, 빨리 가!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도현이 허리를 삐끗한다.

도현 아악!
소운 왜 그래? 삐끗했어?
도현 (매트리스 여전히 든 채로 괴로운 얼굴) 어, 이거 어떡해.
 허리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하겠어!
보름 나한테 줘봐.
도현 야, 이거 엄청 무거...(보름이 매트리스를 가뿐히 들자)웠는데...
보름 으이썩. 진박아! 들어가자!
진박 (보름 힘에 놀라서) 어, 어... 조심해.
보름 (리드하며) 여기 놓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영차!
진박 (힘겹게) 끄.
보름 됐으!

하고, 진박과 하이파이브 하려는데, 진박이 팔을 높이 들자 거드랑이에서
심하게 냄새가 난다. 깜짝 놀라지만, 티는 내지 못하는 보름.

보름 (서둘러 방에서 나가며) 나... 나가서 피자 먹자.
진박 어! 야, 근데 너 힘 줘 쓴다?

하고 진박, 방 나가려다 화장대 위의 사진을 본다. 사진 속에서는 유도복 입은

소년이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이후 거실로 나와 소파에서 토크.

보름 (피자 두 개 겹쳐서 우악스럽게 먹으며) 내가 힘은 좀 세.
하린 재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했잖아. 유도부.
진박 정말? 그럼 남매가 다 유도를 한 거야?
보름 아니? 내 동생은 공부만 했는데, 왜?
진박 그럼 너 화장대에 있는 남동생 사진은 뭐야? 유도복 입고 있던데?
보름 (민망) 어? 그거... 나야...
진박 응...?! (당황하여 머리 긁적) 아... 미안.
보름 괜찮아. 가끔 그런 얘기 듣긴 해.
소운·하린 (진박에게 눈 흘기며) 으유...
소운 (화제 전환하려 밝게) 참, 남동생 잘 살고 있지? 재작년 설에 너네 집 근처 지나다 얼핏 봤어. 아버지랑 등산 가는 거 같은데 남자 다 됐드라.
보름 (민망) 아... 그것도 나왔어.
소운 (당황해) 무슨... 소리아. 머리로 완전 짧았어!
보름 그때 나 취업 독하게 준비한다고 짧게 잘랐거든.
일동 (어색하게 웃으며 말뭉치) 아...
하린 야, 넌 머리 기르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보름 그냥 이게 편해. 운동한다고 쪽 이래왔으니까.
소운 그럼 옷이라도 좀, 치마도 입고 청순하게 해봐라. 내일 백화점이나 갈까?
하린 그래! 가자!
보름 청순은 무슨, 됐어. 간지러워. 니네끼리 가.
도현 이야, 완전 상남자야, 상남자.
그럼 우리 내일 축구하러 갈 건데 같이 갈까?
보름 축구?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풀까!
도현 좋았어!
보름 아...! 나 축구 양말 사야 되는데. 어따 벗어났는지 맨날 없어져.
도현 내 꺼 빌려줄게. 청국장 냄새는 좀 날 거야.
보름 (호탕하게) 야! 괜찮아. 청국장 냄새 안 나면, 그게 축구 양말이냐?
도현 카! 역시 상남자야. 상남자. 건배!

진박·보름 건배!

보름, 도현, 진박이 호탕하게 건배하고 피자를 먹는다. 보름의 자태는 진박이나 도현보다 더 늙음하고 남성스럽다. (다리 벌리고 앉은 모습, 호탕하게 맥주 마시는 모습, 터프하게 피자를 뜯는 모습 등) 이와 반대로 깨작깨작 피자를 먹으며 그들을 보는 소운과 하린.

진박 (소운과 하린 보며) 참, 아까 말 나와서 그런데 혹시 너네 주변엔 청순한 스타일 있어?
소운 왜?
진박 아니, 내 친구 중에 청순한 스타일만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소개팅 시켜주려고. 개 완전 킹카야.
하린 정말? 나! 나 청순도 가능해.
도현 어영?
하린 (고개 45도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머리카락 날리는+입으로는 포카리스웨트 노래) 따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한다고. 따라라라라라라.
도현 (좌우 날리는 하린 머리카락에 연속 싸대기 맞고는) 야!
하린 (진박에게로 고개 돌리며 다시 머리카락으로 가격) 왜에?!
도현 너 지금 나 머리카락으로 계속 때리고 있잖아! 청순 싸대기냐?
하린 어머, 미안.
진박 (웃고) 근데 내 친구는 진짜루 그런 스타일 좋아하긴 해. 그 이온음료 광고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여자.
소운 어유, 실제로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 어딴어. 청순맞게.
진박 그러니까. 요새 그런 애들이 없어서 내 친구 몇 년째 솔로잖아. 그렇게 잘생겼는데두.
보름 어? 내 회사 선배가 딱 그래! 옷도 딱 그 광고처럼 입고 다니고.
진박 진짜?
보름 응... 근데 그 선배가 소개팅은 안 좋아하는데. 그런 자리에선 수줍어서 숨도 못 쉬겠대.
진박 아... 그럼... 너랑 나랑 께서 같이 한번 볼까?
그럼 좀 덜 부담되잖아.
보름 그럴까? 연락 한번 해볼게.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내면)

하린 (시계 보고 흠칫) 어머! 난 방송 있어서 가야겠다.
 도현 어이구, 누가 보면 진짜 방송국 가는 줄 알겠다.
 소윤 방송국은 방송국이지. 개인 방송국. 하린이가 얼마나 재밌는데.
 하린 정말? 너 내 방송 봤어?
 소윤 어... 그럼... (능청) 친구가 방송하는데 당연히 봐야지.
 하린 (소윤 보며 애뜻하게) 흐으응... 역시 너밖에 없어.
 아무리 구독자가 적어도 친구 때문에 힘난다!
 소윤 (똑같이 애뜻하게) 흐으응.

하린, 몸을 굽혀 장난스레 소윤의 배를 껴안으면.

도현 (하린 안 보이게 입모양으로) 너 안 봤잖아.
 소윤 (입모양으로) 닥쳐.

하린, 몸을 다시 일으키고.

하린 참! 근데 어제 방송은 조금 처졌지? 괜히 그렇게 했나?
 소윤 (상황 모면하려 능청) 아... 아니야! 얼마나 웃겼는데.
 애는. 아하하.
 하린 (패닉상태) 웃...겼어? 어제 방송?
 소윤 어어! 완전 때굴때굴 구르면서 봤어.
 어우, 지금 또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웃고)
 하린 (심각) 하... 대학교 교수님 돌아가셔서 추모 방송한 건데,
 웃겼으면 큰일이다. 어떡해...
 소윤 (입틀막) 어머, 아니야. 나 사실 방송 못 봤어... 미안.
 하린 (어이없어서) 뭐?
 소윤 아... 내가 어제 바빠서...
 하린 허! 참... 여태까지 본 거 있긴 해?
 소윤 아... 내가 요즘에 바빠서...
 하린 야! 구독은 했어?
 소윤 (눈 내리깔고 고개 짓는)
 하린 (황당)
 보름 오! 좋았어!

하린 (보름 노려보면)
 보름 왜? 아... 아니 내 선배 답장 왔다고.
 진박 같이 보겠대?
 보름 응!
 하린 (한숨) 난 방송하러 들어가려ندا.
 소윤 오늘은 진짜 볼게. (애뜻하게) 흐으응...
 하린 (똑같이 애뜻하게) 흐으응... (하다가 돌변) 그거 하지 마! 이제.

#2. 2층/진박 방(밤)

진박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방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을 때,
 보름이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

보름 (문 두드리며) 진박아, 잠깐 들어가도 돼?
 진박 (일어나며) 응.
 보름 (문 열고) 아까 그 소개팅.
 우리, 선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된다는데. 어때?
 진박 어, 내 친구도 그때 괜찮았어. 아... 근데 내가 그날 회사
 등반대회라 조금 늦을지도 모르겠는데? 끝나고 농구 시합도 있고.
 보름 설마, 요즘 세상에, 회사행사를 주말 늦게까지 할라구.
 진박 그렇겠지? 오케이 좋았어. (들떠서) 진박&보름 연애조작단 개시!
 하며, 진박이 하이파이브하려고 손을 높이 치켜드는데,
 보름이 냄새를 직빵으로 맡게 된다.
 보름 (억지로 하이파이브하고는 코가 매워 고개 돌리며) 읍. 콜록. 그래.
 그럼 토요일에 봐.
 진박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응, 근데 너 사레들었어?
 보름 아... 아니야. (하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온다)

#3. 2층/거실(밤)

진박 방에서 나온 보름, 아직 냄새가 가시지 않은 듯 손부채질을 하는데, 마침 거실로 나오던 도현이 보름을 본다.

도현 왜 그래?

보름 어? 아... 아니야. (하고 손부채질 몇 번 더 하면)

도현 (눈 지그시 감고 코로 숨 들이쉬며 냄새 감별. 목소리 낮춰) 진박이 냄새 때문에?

보름 너도 알고 있었어?

도현 응, 재 운동하고 힘쓰면 냄새 좀 나. 좀... 맵지?

보름 (찡그리며 끄덕) 얘기 안 해줬어?

도현 아... 평상시에는 별로 안 나서 괜찮거든.

재가 워낙 잘 씻기도 하고.

보름 그렇구나... 하긴 말 꺼내기도 좀 그렇지...

이때, 진박이 운동하던 차림 그대로 기지개를 펴며 나온다. 그 때문에 또 냄새가 풍겨 보름과 도현 모두 고개를 돌린다.

진박 어? 보름이 안 내려갔어?

보름 (숨 참으며 황급히 도망) 어, 내려가!

진박 (해맑게 기지개 계속하며) 나 화장실 지금 써도 되지? 샤워 좀 하게.

도현 (괴로운 얼굴로 격하게 긍정하며 등 떠미는) 어어어! 빨리 씻어!

#4. 1층/하린 방(밤)

방에 들어온 하린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다.

하린 하... 구독자 왜 이렇게 안 늘어.

하고 댓글창 확인하는데, '딩동' 하며 생성되는 댓글.

“핵노잼. 구독 취소합니다.”

하린 아, 뭐가 왜 핵노잼이야. 어제는 추모 방송하느라 그런 거잖아.

말 끝나기가 무섭게, ‘딩동’ 하며 또다시 생성되는 댓글.

“차라리 추모 방송이 더 웃긴 듯. 나머지 진짜 핵노잼.”

하린 아씨... 진짜... 그렇게 재미가 없어? 무슨 수로 구독자 늘리지? 미친년처럼 춤이라도 춰야 하는 거야? (하고 한숨짓다, 눈을 번뜩인다) 한번 취봐?

CUT TO

하린이 청순한 의상으로 갈아입고선 손에 가발을 들고 있다.

하린 (가발 보며) 아, 이 가발 비싸게 주고 빌렸는데, 이번엔 좀 터져라.

하고, 긴 생머리 가발을 쓰는데, 옆쪽 머리통에 달걀만 한 뿔통이 박힌 특수제작 가발이다. 하린, 카메라 앞에 서서 음악을 튼다.

(E)포카리스웨트 음악

하린 (청순+광녀 댄스) 따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개인방송 화면의 춤추는 하린의 모습 옆으로 폭주하는 댓글창.

“대박ㅋㅋㅋㅋ 뿔통 뭐임ㅋㅋㅋ”, “아놔. 이제 콘셉 잡으셨네.”,

“구독 취소했다가 다시 돌아옴ㅋㅋ”, “언니, 뿔통 잘 어울려요!ㅎㅎ” 등등.

#5. 길거리(오후)

며칠 뒤 토요일.

보름, ‘청순한’ 회사 선배 정혜와 소개팅 장소로 향하고 있다. 정혜는 과연 포카리스웨트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한 의상(흰색+하늘색 청순 원피스)에

흰색 머리띠까지 착용한 반면, 보름은 검정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다.
보름의 손에는 종이백이 들려 있다.

정혜 (손부채질하며) 휴... 은근 부담된다.
보름 어유.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그냥 남자 사람 친구 만든다는 생각으로 봐요.
(편의점 가리키며) 저기서 음료수 하나 먹고 갈까요?
정혜 아니야. 나 음료수 있어. (하고 가방에서 포카리스웨트 꺼낸다)
보름 아, 이걸 갖고 다니세요?
정혜 응, 난 이온음료만 마시거든.

하고, 예쁘게 마신다.
다 마시고 상큼하게 미소 지으며 옆머리 귀 뒤로 넘기는 정혜.
CLOSE UP 옆머리 넘기는 손길.

보름 우와, 선배 진짜 그 이온음료 모델 같아요. 청순함의 대명사.
정혜 어우 무슨.

하고, 부끄러운 듯 손등으로 입 가리며 청순하게 웃는다.
CLOSE UP 손등으로 입 가리며 웃는 얼굴.

보름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입 가리고 웃는 모습에 다소 놀라지만,
애써 장단 맞추며 웃는)

그때, 정혜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정혜 어머! 내 핸드폰.

하고는 가슴 앞섶을 지그시 누르고,
조신하게 제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줍는다.
CLOSE UP 가슴 앞섶에 얹은 손.

보름 (가슴 앞섶 누르던 거 보고 오글거리지만 티 안 내며) 안 깨졌어요?

정혜 응, 다행히. (하고 일어서려는데, 보름이 들고 있는 종이백 속의
가발을 보고 놀라는) 어머, 깜짝이야. 근데 이 머리카락 뭐야?
보름 아, 같이 사는 친구가 대여점에 반납 부탁했는데 깜빡해서요.
정혜 어우. 사람 머린 줄 알고 놀랐잖아.

하고는, 왼손은 가슴 앞섶에 얹어 놀란 가슴 진정시키기,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손등으로 입 가리고 웃기,
곧이어 왼손을 올려 옆머리 넘기기 등 청순 3중 세트 동시에 시전.

보름(E) (놀라서 입이 꺾 벌어지는 얼굴 위로) 이야. 이젠 찌이다. 찌.
완전 청순 끝판왕이네.

#6. 산/중턱(오후)

진박이 회사 사람들과 산에 오르고 있다.
꽤 높이 올라왔는지 진박 몸에 땀이 흥건하다.
그러던 중 저 앞쪽에 중간지점 이정표를 발견하고는 기뻐 뛰어간다.

진박 (회사 사람들을 향해 손 높이 치켜들어 흔들며)
이제 중간지점 왔어요!

하고 계속 손 흔들다가, 올라오는 회사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하기 위해 길목에 자리 잡는다.

김 과장 어? 윤 대리 벌써 왔어? 날다람쥐 같네.
진박 제가 산은 좀 타요. (분위기 띄우려) 유후후!

하고 하이파이브 위해 손 들면, 김 과장 손을 마주치고는 진박 안내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지나친다. 그렇게 동료, 선후배 몇 명이 고통스럽게 진박 옆을
통과하지만 아무도 냄새가 난다고 말해주진 못한다.

진박 (아무것도 모른 채 분위기 고조되어 두 손 번쩍 들며) 후우!!

#7. 길거리(오후)

길 한복판,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정혜 핸드폰이 진동한다.

정혜 (전화 받으며) 여보세요? (듣고) 어! 나 약속 있어서 나왔어.
(듣는데 표정 어두워지는) 어머, 어떡해. 어, 지금 갈게.
(하고 전화 끊는)

보름 왜요?

정혜 친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미안한데 가봐야 할 것 같아.

보름 (놀라) 아... 그럼, 가보셔야죠. 걱정 말고 얼른 가보세요. 어머,
근데 옷이... (하고 정혜 모습 보는데 의상이 상갓집 갈 의상이
아니다)

정혜 어머, 나 어찌면 좋지? 옷 갈아입으러 갈 시간도 없는데?
(하고 보름 모습 보는데, 딱 상갓집 갈 의상이다)

CUT TO

서로 옷을 바꿔 입은 보름과 정혜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정혜 어유, 그래도 다행이다.

보름 씨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상갓집 갈 옷 입고 다녀서.

보름 (살짝 빈정 상한) 아 네... 다행이네요.

정혜 아, 근데 보름 씨는 짧은 머린데,

내 옷 입으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다. 미안해서 어찌지.

보름 아니에요.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저야 뭐.

정혜 그럼 고마워. 옷은 월요일에 교환하자.

보름 네, 잘 다녀오세요.

하고, 정혜 사라지면

보름 아... 그럼 오늘 약속 취소해야 되나...

하고, 진박에게 전화 거는데, 받지 않는다.

보름 아 참... 앤 왜 전화도 안 받아.

#8. 산/정상 부근 가파른 바위 위(오후)

진박, 앞장서서 등산 중, 정상 길목의 가파른 바위 위에 올라선다.

진박 어우, 여기 꽤 가파른데? 마지막 '마의 코스'네.
사람들 좀 도와줘야겠다.

곧이어, 김 과장이 바위 밑에서 오를 준비를 하면

진박 (손 내밀며) 잡으세요. 영차.

김 과장, 진박 손잡고 바위에 올라서는데,
힘에 이끌려 진박 겨드랑이에 얼굴을 묻게 된다.

김 과장 (냄새 맡고 비틀거리며) 어어어!

진박 (김 과장 잡아주며) 괜찮으세요?

여기가 '마의 구간'이라 좀 힘들어요.

김 과장 (얼굴 찡그리며) 어, 꽤...괜찮아. (하고는 통과한다)

김 과장 다음으로 송 부장이 진박 손을 잡고 바위에 올라서는데,
역시 진박 겨드랑이에 얼굴을 파묻는다.

송 부장 으아아악!

진박 (송 부장 균형 잡게 도와주며) 송 부장님, 방금 '마의 구간'
넘으셨습니다!

송 부장 (냄새에 고개 돌리며) 어... 고마워.

하고는 진박을 통과한 송 부장, 기다리고 있던 김 과장과 나란히 걸으며

송 부장 (낮은 목소리로) 그래, 정말 마의 구간은 마의 구간이다. 어휴...

김과장 (고개 절레절레) 휴... 전 두통이 다 생기네요.
진박 (아무것도 모르고 바위 위에서 여전히 파이팅 넘치게 팔 번쩍)
자! 마지막 마의 코스! 조금만 힘냅시다!

한창 분위기 올린다, 핸드폰을 보는데, 보름과의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다.
부재중 전화도 여러 통이 와 있고, 배터리는 거의 방전 직전이다.

진박 (놀라서) 허?

#9. 길거리(오후)

보름의 핸드폰이 진동한다. 발신자는 진박이다.

보름 (전화 받으며) 어! 진박아. 안 그래도 전화...
진박(F) (말 끊고 다급하게) 보름아, 나 등산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거긴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보름 뭐? 야! 내 선배도 지금 상가...
진박(F) (말 끊고) 내 친구한테 대충 문자 보냈어.
배터리 다 돼서 끊는다! 부탁해!
보름 야 내 말도 좀 들어봐!

하는데 전화 뚝 끊긴다.
보름이 다시 진박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가 꺼져 있다.

보름 아, 뭐야? 지 할 말만 하고! ...아, 진박이 친구 혼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찌지? (걱정하는 보름 얼굴에서 컷 튀면)

#10. 교차. 패밀리레스토랑/보름 테이블+소윤 테이블(오후)

보름, 한숨 쉬며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카운터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한다.

종업원 어서 오십시오. 혹시 예약하셨나요?
보름 네. 진박 씨로 예약된 자리 찾는데요.

보름의 말 끝나자, 가까운 테이블에서 진박의 친구, 준석이 손을 든다.

준석 여기요!

보름, 준석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다.

보름 (입가에 미소 짓고 테이블로 걸어가며) 아, 안녕하세요.
준석 김준석입니다.
보름 장보름이에요.
준석 네, 오늘 진박이는 바빠서 못 나온다고 연락받았어요.
보름 아, 들으셨구나. 사실은 오늘 제가 같이 나오기로 했던 분도...
준석 (말 끊고) 네네. 알아요. (눈 가늘게 뜨며) 진박이 이 자식.
무슨 이런 고전적인 수법을. 하하.
보름 네?
준석 네 명이 같이 보기로 해놓고, 주선자 두 명은 싹 빠지는
수법이잖아요.
보름 네? 그게 아니라...
준석 (말 끊고) 전 그래서 더 좋은데요? 이렇게 둘만 볼 수 있어서.
보름(E) 아, 미치겠네. 오늘 소개받는 여자가 나인 줄 아는 거야?
(고개 숙여 본인 행색 훑어보며) 아... 하긴... 이려고 왔으니...
준석 보름... 씨는 아니세요?
보름 네? (하고, 준석 보는데, 그의 얼굴에 흘려 자기도 모르게)
저도... 좋아요.

하고는, 길지도 않은 옆머리를 청순하게 귀 뒤로 넘긴다.

CLOSE UP 옆머리 넘기는 손길.

준석 (흐뭇하게 미소 짓는)

한편, 보름의 테이블과 반대쪽 테이블에선 소윤과 하린,

도현이 음식을 먹고 있다.

소운 야, 오늘부터 방송 완전 열심히 볼 테니까, 화 풀어.
 하린 치, 알았어.
 도현 (열심히 먹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는데 보름이 보인다.
 하지만 보름인 줄 모른 채) 야, 저기 봐. 진짜 그 이온음료
 광고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소운 (보름이 있는 테이블 보며) 어머, 정말 웬 청승이야.
 하린 어우야, 안 본 눈 삽니다.

한편, 보름의 테이블에는 음식이 서빙된다. 그중 피자가 보름 앞에 놓인다.

종업원 맛있게 드십시오.
 보름 (짐승 눈빛으로 돌변, 습관적으로 피자 두 조각 포개어 가져오려다
 준석과 눈 마주친다)
 준석 (놀라서)
 보름(E) (난처한 얼굴) 아, 맞다. 청순한 여자 좋아했는지.
 보름 (임기응변으로 등 뒤에 앉은 여섯 살쯤 되는 꼬마에게 피자 건네며)
 꼬마야. 이거 먹어. 아까부터 쳐다보는 거 누나가 다 봤어.
 꼬마 (황당) 네?
 보름 (잡아먹을 듯한 눈빛, 속삭이며) 좋은 말 할 때 먹어.
 꼬마 (겁에 질려) 네... (하고, 피자 받아 든다)
 준석 아, 보름 씨.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보름 씨가 먹으려고 가져가는 줄 알았잖아요.
 보름 어우, 제가 두 개를 어떻게 먹어요. 반 개 먹기도 벅찬데...

하고는 보름, 손등으로 입 가리고 여성스럽게 웃는다.
 CLOSE UP 손등으로 가린 입.

소운 (떨떨감치서 보름 보면서) 아, 근데 재 보름이 아니야?
 얼굴이 보름인데?
 도현 야, 보름이가 저런 옷에, 손등으로 입 가리고,
 (재현하며) 이렇게 웃어?

하린 미치지 않고서야 안 그러지. 근데... 줌... 닭긴 닭았다.
 소운 내 말이! 뭐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전화 걸면)
 보름 (핸드폰 진동하자 여성스러운 톤으로 전화 받는) 응, 소운아.
 소운 (기겁하여 입틀막) 어... 보름아, 지금 어디야?
 보름 (여성스럽게) 응, 나 지금 저녁 먹고 있어서,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전화 끊으면)
 소운 (전화 끊고 하린, 도현에게) 대박. 보름이 맞아! 재 왜 저래?
 소개팅이야?
 하린 아무리 소개팅이라도 웬일이야.
 무슨 남자애가 여자 옷 입은 거 같잖아.
 도현 음... 뭔가 익숙한 느낌이긴 한데...
 소운 응? 보름이가 저러고 다닌 적 있어?
 도현 아니, 남자애가 여자 옷 입은 거 같다는 거.
 나도 예전에 엄마 치마 입고 그랬었거든.
 하린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예의상 대꾸) 아... 뭐... 남자애들
 어릴 땐 그러기도 한대드라.
 도현 고2 때까지 그랬어.
 소운·하린 (징그러워 찡그리며) 어...

#11. 산/정상(오후)

정상에 도착한 회사 사람들이 도시락을 배급받고 있다.
 진박도 도시락을 하나 받는다.

진박 (삼삼오오 자리 잡은 사람들 둘러보며) 음... 누구랑 같이 먹지?
 하고 보는데 송 부장과 김 과장이 보인다. 진박 신나서 달려가고.

진박 부장님. 같이 먹어요.
 송 부장 어... (하다가 진박 냄새 맡고는, 슬쩍 등지며)
 근데, 여기 자리가 좁은데 저어기, 여사원들하고 먹는 게 어때?
 진박 (해맑게) 아, 네.

송부장 (안도) 에휴…
 김과장 (송 부장에게 속삭이며) 잘하셨어요…
 그래도 밥은, 숨 쉬면서 드셔야죠.
 한편, 진박, 여사원들 무리에 끼려 하자, 여사원들 급하게 흩어진다.

여사원1 (진박 보고 화들짝 놀라) 어우, 다 먹었다.
 여사원2 바람 좀 쐬야지.
 여사원3 같이 가자.
 진박 (혼자 남아 뭔가 가우똥) 어? 왜 나 피하는 거 같지? (하고 골똥히 생각하면 뭔가 떠올라) 아! 내가 너무 등산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나? (손바닥으로 이마 치며) 아… 맛다. 맛아.
 이때 본부장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친다.

본부장 자, 식사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산하면 본부 농구 시합이 있겠습니다! 마케팅팀 대 홍보팀!
 일동 (환호하며) 유후!
 진박 (희심의 미소) 그래, 농구 열심히 해서, 점수 좀 만회하자.
 하고, 손 번쩍 들어 포효하는 진박.
 동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고개 돌리며 찡그리는.

#12. 교차. 패밀리레스토랑/보름 테이블+소운 테이블(오후)

보름과 준석이 한창 분위기 좋게 대화 중이다. 그때 보름이 몸을 움직이다가 의자 옆에 놓은 가방을 넘어뜨린다. 이때, 보름 가방 속에 있던 더러운 축구 양말 뭉치가 통로 쪽으로 굴러간다. 보름은 축구 양말 뭉치는 보지 못한다.

보름 어머.
 하고는 가슴 앞섶을 지그시 누르고, 몸을 굽혀 가방을 줍는다.

CLOSE UP 가슴 앞섶에 얹은 손.

준석 (보름의 행동에 반한 듯 미소)
 보름 (준석의 반응 살피고, 좋아서 손등으로 입 가리고 웃는)

이때, 종업원이 지나가다가 보름의 축구 양말 뭉치를 줍는다.

종업원 (보름에게) 손님.
 보름 네?
 종업원 (축구 양말 뭉치 건네며) 이거 떨어졌습니다.
 보름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네? 이… 이거 제꺼 아닌데요?
 종업원 손님 가방 떨어뜨릴 때 굴러나오는 거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건네주고 가면)
 보름 (당황해 할 말 잃으면)
 준석 (경악하여) 어우, 냄새. 보름 씨 그게 왜…
 보름 (난처한 표정 짓다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아아!
 준석 ?
 보름 (등 뒤 꼬마에게, 장난스러운 말투로) 너어!
 꼬마 (황당) 네?
 보름 (축구 양말 건네며 장난스러운 말투로) 너어, 이거 누나 가방에 몰래 넣었지? 아까 니가 들고 있는 거 봤어.
 꼬마 (황당) 네?
 보름 (잡아먹을 듯한 눈빛, 속삭이며) 좋은 말 할 때 받아.
 꼬마 (겁에 질려 받으며) 네…
 보름 (준석 보며) 어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나이 댄 한창 장난꾸러기잖아요.
 준석 (반해서) 보름 씨가 애들 대하는 거 보면 천사 같아요.
 보름 어유, 자꾸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하며, 손등으로 입 가리고 웃는다)
 하린 (보름 쪽 보다가 소운에게로 고개 돌리며) 어머, 어머.
 보름이가 남자 엄청 마음에 드나 보다. 웬일이야.
 소운 으유, 저러고 다닐 거면서 머리 좀 길러놓지.
 도현 하… 상남자였는데. (고개 절레절레)

준석 보름 씨는 일부러 머리 자르신 거예요?
 긴 생머리 하면 청순 끝판왕이실 텐데. (웃으면)
 보름 아... 머리오... (하고 머리 만진다)
 준석 하긴, 거기서 머리까지 길었으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남자들이 가만 안 놔둬서.
 보름 (수줍게 웃는)

이때, 준석의 핸드폰 진동하면

준석 (발신자 확인하고) 잠시만요. (하고 일어나 문밖으로 나간다)
 보름(E) 아... 머리... (옷 내려다보며) 옷만 이렇게 입으면 뭐해.
 청순함의 생명은 긴 생머린데.

하고, 머리 긁적이는데, 테이블 밑 종이백에 든 하린의 가발이 보인다.

보름 (반색) 아!!!

#13. 몽타주. 산 아래 공원 농구장(오후)

마케팅팀과 홍보팀, 각각 색깔이 다른 민소매 티셔츠를 맞춰 입고 농구 시작
 휘슬을 기다리고 있다. 홍보팀 진박은 가운데서 점프볼을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휘슬 불며 공을 위로 던지면, 진박 높이 점프해 한 손을 높이 치켜든다.
 마케팅팀 점프볼 담당은 진박 냄새를 맡고 떨어져 나간다.

홍보팀 (공 쟁취에 흥분) 짹!
 그렇지!
 좋았어!
 밀어붙여!
 등등.

진박, 다른 팀원에게 공 달라고 손 높이 치켜들자, 상대 팀 선수, 냄새에
 접근하지 못하고, 패스받은 진박은 넓은 공간 이용해 슛 성공.

상대 팀 선수, 골 밑에서 맹렬히 돌진. 하지만 진박이 팔을 휘저으며 수비하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진박에게 공 빼앗기는.
 진박, 한 손은 드리블하고, 한 손은 수비를 헤치려 휘젓는데,
 냄새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하자, 훗날 날아 레이업 슛 성공.
 손 높이 쳐들고 환호하는 모습 위로.

진박(NAR) (멋있게) 그날, 농구 시합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나는, 코트의 지배자, 끝판왕이었다.

#14. 패밀리레스토랑(오후)

보름, 냅다 가발을 쓰고,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확인해보려는데,
 준석이 들어온다. 보름, 황급히 거울을 다시 가방에 넣는다.

준석 (자리에 앉으며) 어? 머리가...?
 보름 아, 제가 사실 원래 이 머린데, 아까는 가발을 썼거든요.

하고, 고개 숙여 수줍게 웃는데, 그 때문에 머리 땀통이 확연히 드러난다.

준석 (땀통 확인하고 놀라서) 아... 그게 원래... 머리...세요?
 보름 (수줍은 척) 네... 긴 머리 보고 싶다고 하셔서...
 준석 아...
 보름(E) 어때? 청순 끝판왕 앞에서 할 말을 잊은 거야?
 하여간 남자들이란. 훗.
 준석 (어안이 병병)
 하린 (핸드폰 문자 알림 진동하면 확인하며)
 아... 가발 반납 독촉 문자 왔네. 보름이 재 반납해준다니 뭐야.
 도현 (보름 쪽 보며 놀라서 멍하니) 그 가발이... 저 가발 아니야?
 하린 (보름 보고선 입틀막) 허!!!! 어떡해! 땀통 가발인데!!
 소윤 (고개 돌리며 울상) 엄마야... 난 안 볼란다.
 준석 (자기 머리에서 보름 땀통 위치 해당 부분 만지며)
 머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신 거예요?

보름 아, 네. 초등학교 때부터 쪽 이랬어요. 머리에 손대는 거 싫어해서.
준석 (안타까운 표정) 아...

이때, 보름 뒤에 앉아 있던 꼬마네 식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꼬마 부모님이 카운터로 계산하러 가 있는 동안 보름이 꼬마에게 말을 건다.

보름 (아이랑 놀아주는 순수한 누나 느낌)
너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꼬마 (보름 땀통 보고 경악하여 말을 잃은)
보름 (장난스레) 왜 대답이 없어. 너어? 엄마 말 안 들으면 누나가,
(본인 땀통 위치에 주먹 갖다 대며) 이렇게 꿀밤 줄 거야아? 어어?

보름의 그 모습이, 아이 시선에서는 험박 느낌으로 다가온다.

꼬마 (기겁하여) 네... (하고는 무서워 레스토랑을 뛰쳐 나간다)
준석 (역시 보름을 공포스럽게 보고)
보름 아유, 귀여워. 꿀밤이 뭐가 무섭다고.
준석 저... 보름 씨. 갑자기 저희 회사에 사고가 터졌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보름 어머, 어떡해요.
준석 죄송한데,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름 네? 이렇게 갑자기요? 아직 얘기도 많이 못 나눴는데...
준석 네... 나...나중에 진박이랑 같이 한번 봐요...
보름 (귀엽게) 좋아요. 오늘은 봐줄게요. 대신 다음에도 그러면 준석
씨도, (본인 땀통 위치에 주먹 갖다 대며) 꿀밤 줄 거예요!
준석 (꼬마랑 똑같이 기겁하여) 네...
(하고는 무서워 레스토랑을 뛰쳐 나간다)
보름 (본래 목소리 톤) 아, 뭐야. 진짜. 왜 사고가 갑자기 터져.

하고, 물 한잔 들이켠 뒤, 컵을 격하게 내려놓는다. 그러자 보름의 눈치를 살피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놀라 시선을 피한다.

보름 (분위기 이상해서 둘러보며) 뭐지?

이때, 소윤과 하린, 도현이 보름에게로 온다.

소윤 보름아!
보름 어? 너네들 뭐야?
하린 (보름이 미친 줄 알고) 야, 너 왜 이래!
도현 우리 누군지 알아보겠어?
보름 뭐야? 무슨 말이야!
소윤 (울상) 어찌면 좋아... 우리 보름이...

#15. 산 아래 공원 농구장(오후)

농구 시합 시상식. 승리한 홍보팀 팀원들이 도열해 있고,
그 앞에 본부장이 '우승 상금 100만 원' 패널을 들고 있다.

본부장 오늘의 우승팀! 홍보팀!

본부장, 진박에게 패널을 전달한다. 일동 환호하는데, 산 정상에서 진박을
피하던 송 부장, 김 과장, 여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진박을 인정한다.

진박 (주인공이 된 기쁨에) 이야! 유후!!

하고 두 손 들어 패널을 치켜드는데, 옆에 도열해 있던 홍보팀 선수들,
준비했다는 듯 일제히 코를 막고 한 방향으로 고개 돌린다.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손 번쩍 들고 포효하는 진박.

3화 끝.

이 시트콤을 쓰면서 긴 서사보다는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코미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목을 <남사친's 여사친>에서 <2말 3초 증후군>으로 수정하였는데, 남사친과 여사친의 미묘한 감정보다는 전쟁 같은 2말 3초 시기를 지나는 청춘들의 웃픈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품집에 실린다니 얼굴이 많이 화끈거리지만, 오픈과의 인연을 만들어준 고마운 대본이라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달래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릴 분이 많습니다.

어설픈 아이들을 꼼꼼히 검토해주시고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신 이남규 작가님. 살아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상하면서도 날카롭게 지도해주신 박준화 감독님. 기획부터 상황설정, 디테일 있는 엣지 만드는 법까지 열정적으로 알려주신 백미경 작가님. 시트콤 팀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활력을 불어넣어주신 긍정 에너지 김성미 대리님.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오픈 센터장님 이하 관계자님 여러분들. 아직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십 년은 알고 지낸 듯한 시트콤 동기님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함께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럭키

진윤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를 줄여 이르는 청춘들의 자조 섞인 말.

“내 미래는 지금처럼 불행할 거야. 왜? 달라질 게 없으니깐.”

가장 의욕이 불타올라야 할 시기에 무기력한 노인의 말처럼 들려 안타까웠다.

만약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행복해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시작했다. 과연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한다. 지친 청춘들에게 유쾌함을 선사해주는 청춘 시트콤이

되기를 바라며…

등장인물

김철수(29세, 남) 출판사 직원

축망받는 괴물 신인이었으나 9년째 무명소설가.

비만과 탈모로 외모마저 역변했다.

이영희(29세, 여) 공시생

9년째 공시생. 별명은 노랑진 지박령. 오랜 시간 공부만 해서 그런지

성격이 매우 괴팍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나진우(30세, 남) 출판사 팀장

바람둥이다. 훗날 영희의 애인이 된다.

나미란(44세, 여) 유치원 원장

진우의 고모. 훗날 철수의 애인이 된다.

이태리(50대 추정, 남) 자살사이트 운영자

키는 2미터가 넘는 거구에 쿠션을 여친이라 칭하는 오덕후.

그러나 의문의 약을 가져온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그 외

출판사 직원, 사장, 민지

줄거리

9년 전, 스무 살이었던 철수와 영희는 한국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동기이자,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소설가를 꿈꾸었던 두 문학도의 풋풋했던 시절이 흘러 2020년이 됐다.

한때 천재 소리 들던 철수는 현재 출판사 일개 직원이 되어 여전히 무명작가로 지내고 있고, 작가의 꿈을 접고 공무원이 되겠다던 영희는 9년째 공시 준비생이다.

포카리스웨트 광고에 나올 법한 청순했던 영희는 추리닝 차림으로 고시원에 처박혀 아재 냄새 풍기는 거친 여자가 됐다. 복수할 사람도 없는데 늘 약에 반쳐 있는 영희. 훈남이었던 철수 역시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역변해버렸다.

탈모와 비만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철수.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견뎌내고 있는 두 청춘은 늘 서로를 그리워할 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 그러다 대학교 동창회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철수와 영희. 현재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 나갈지 말지 고민하던 두 사람, 혹 서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나가기로 한다. 한껏 꾸미고 나가는 철수와 영희.

그러나 영희는 심각하게 역변한 철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영희의 눈빛을 읽은 철수는 자신이 예전의 문예창작과 킹카 김철수라고 말도 못 꺼내고 도망쳐 오는데...

자신의 상사이자, 출판사 팀장 나진우의 명품 정장을 몰래 훔쳐 입고 나왔던 철수. 몸에 짝 끼는 바람에 거드랑이 쪽이 죄다 터져버리고... 괜히 동창회에 나왔다 남의 옷만 망가뜨린 철수. 명품 옷이 수백만 원짜리라는 걸 알게 된 철수는 옷을 변상해주기 위해 거처를 고시원으로 옮기고 누드모델 아르바이트까지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고시원 영희의 방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철수.

또 영희와 마주치게 된다. 문제는 누드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찍어둔 사진이 실수로 영희의 책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사진을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철수. 그러나 영희에게 변태 스토커로 오해받게 되며... 영원히 그녀 앞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시간이 흘러 영희는 2020년 공무원 시험에서도 또 떨어진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자살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는 철수. 그 사이트에서 고통 없이 죽는 약이 있다며 함께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사람의 글에 영희가 리플을 단 걸 철수가 발견한다. 영원히 그녀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이대로 그녀가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

철수는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죽고 싶은 척하며 비밀리에 그들과 함께 만난다. 고통 없이 죽는 의문의 약이 있다는 남자는 2미터가 넘는 거인이었다.

애니메이션 그림이 그려진 쿠션이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그 남자는 오덕의 느낌이 물론 풍겼지만, 마치 신기가 있는 듯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고 있어 미스터리한 느낌도 풍겼다. 철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빼돌리려 했지만 실패한다. 오히려 그 의문의 약을 영희의 강압으로 인해 억지로 먹게 되는 철수.

다음 날, 잠에서 깬 철수와 영희. 철수는 죽지 않았음에 안도한다.

그럼 대체 이 약은 뭐란 말인가?

미스터리 남은 삶은 소중한 거라며 행운을 빈다는 황당무계한 쪽지와 약만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이 아저씨가 장난하나? 죽자고 모여놓고 행운은 무슨 얼어 죽을 행운!!

영희는 그 약이 가짜였음을 깨닫고 열 받는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돌아가는 길에 영희를 위로하며 살아보자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철수.

영희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행복해 보이는 거리의 연인들도 바라본다.

“나만 빼고 세상은 봄날이구나... 확 눈이나 내려라!”

이때,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한다. 6월 하늘에 눈이 내리다니?

놀라운 일은 철수에게도 벌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울을 보며 말한다.

“머리술만 많았더라도... 영희에게 조금은 떳떳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자 머리술이 어마무시하게 풍성해졌다.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 불가인 이 현상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철수와 영희가 하루 전 먹었던 의문의 약 때문이었다.

그 약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행운의 약이었다.

무슨 요술램프 지니도 아니고 조그만 알약 따위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양심은 있는 듯... 한 알당 딱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지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고, 그저 자신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 약은 철수의 집 방구석에 처박히게 되는데...

영희는 공무원 시험을 접고 철수의 출판사 알바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철수와 또 마주치는 영희. 그곳에서 그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 김철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희는 실망한다. 그사이에 풍성해진 철수의 머리숱을 보며 수술했느냐 묻자 철수는 그날의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설명한다. 영희는 그 얘기를 듣자 촉이 강하게 온다. 자신과 똑같이 신비로운 일을 겪은 철수. 공통점은 뭐지...? 뭘까...? 뭐냐...? 혹시... 그 전날 밤 먹은 약? 그 약이 철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희는 그날부터 철수에게 관심 있는 척 연기하기 시작한다. 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철수의 집에 들어가게 된 영희는 그 미스터리한 약을 발견하고... 약을 얼른 꺼내 먹는데 철수에게 딱 걸린다. 철수는 재수 없게 이 약 먹지 말라며 쓰레기통에 버린다.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시험해본다. 죽은 화분을 바라보며 이 식물을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말해본다. 그러자 죽은 화분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또다시 목격하게 되는 영희. 영희는 그 약의 정체를 깨닫고, 자신이 가져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날 밤. 영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확신한 철수는 설레기 시작한다. 혹시 풍성해진 이 머리숱 때문인가? 갑자기 풍성해진 이 머리숱은 하늘이 내게 준 기적의 선물일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집에서 이벤트까지 준비하는 철수. 집에 초대받은 영희는 약을 훔쳐 갈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 영희는 철수에게 수면제를 타 먹인 후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 약병을 찾아낸다. 수면제를 먹고도 정신승리 해가며 영희에게 준비한 이벤트를 끝까지 펼치려 애쓰는 철수. 그런 모습이 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영희. 몰래 약을 하나 꺼내 먹고 철수에게 소원을 묻는다. 그러자 철수는 예전의 리즈 시절 몸매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한다. 이유는 그래야 영희 네가 나와 함께 다닐 때 창피하지 않지... 쫓쫓... 이 남자... 멍청한 건가, 순수한 건가...

“그래. 네가 예전의 리즈 시절 몸매로 돌아가길 바라.” 영희는 또박또박 마치 주머니라도 걸듯 즐려 하는 철수의 귀에 속삭여준다. 철수는 곧 잠이 든다. 영희는 약을 가방에 집어넣고 얼른 그의 집을 빠져나오려다 실수로 촛불을 떨어뜨리고... 철수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렇게 행운의 약을 갖게 된 영희는 알약 개수에 맞춰 소원 리스트를 작성해본다. 영희의 소원 리스트 1번은 통장에 수백억이 찍히는 거였다. 그 꿈같은 이야기는 곧 현실이 된다. 갑자기 부자가 된 그녀는 그날부터 패리스 힐튼 뺨치는 일상을 보내게 된다. 한편 화재가 난 철수는 모든 걸 잃는다. 갑자기 30킬로그램이 줄어든 바람에 아무도 그가 김철수라는 걸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도 몰라본다. 출판사에서도 무단결근으로 잘리고 마는 철수. 그렇게 그는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다. 철수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몸무게가 빠져 사람이 반쪽이 된 이유 역시 알 수가 없다. 영희에게 전화해보지만 그녀는 철수의 전화를 차단한 상태다. 그녀가 왜 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는지도 알 수 없는 철수.

영희는 출판사 알바를 할 때 만났던 팀장 진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출판사를 다시 찾아가는 영희. 철수가 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희는 안도한다. 그리고 진우와 잘해보고 싶어 약을 먹고 소원을 빌어 그 출판사에 취직까지 하게 된다. 첫 출근 날. 노숙자 생활을 하던 철수는 영희의 차에 치여 다리를 다치게 된다. 영희는 살 빠진 철수를 한눈에 알아본다. 그래, 나의 첫사랑, 김철수는 이 얼굴이었지? 자신 때문에 철수가 노숙자가 됐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든 영희. 하루아침에 화재로 빈털터리가 되고, 살이 갑자기 빠진 것까지... 리즈 시절 외모는 얻었으나 거지가 돼버린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준다. 여태까지 철수가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모두 믿어주는 영희.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게 영희 때문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영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 철수. 영희는 다리를 다친 철수에게 자신의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자고 권유한다. 철수는 그런 영희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는 감정은 더욱 커진다.

철수는 영희의 궁궐 같은 집을 보고 깜짝 놀란다. 로또라도 됐나? 얼마 전에 자살하려고 했던 애 맞아? 이상하기만 한데…
그러던 중 영희의 소원 리스트를 우연히 보게 된 철수. 이게 뭐지?
그때 약을 먹고 소원을 빌고 있는 영희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는 철수.
저 약이 뭐길래? 저 약은…? 예전에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미스터리 남이 놓고 갔던 의문의 약이라는 걸 알게 된 철수. 저 약은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재가 가져갔지?
철수는 그 약의 정체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많은 생각 끝에 철수는 깨닫는다.
갑자기 머리술이 늘어난 것도, 하루아침에 30킬로그램이 빠진 것도,
영희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도 모두 저 약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희에게 약을 하나만 달라며 사정해본다.
그러나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된 영희는 철수가 약을 탐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절대 내놓지 않으려 한다. 출판사 옥상에서 서로 약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영희와 철수. 결국 옥상에서 약병을 떨어뜨리고…
회식을 나가려던 출판사 직원 중 한 명이 그 약병을 가져가 버린다.
다시 옥상에서 내려와 약병을 찾지만 아무 데도 보이지 않자 영희와 철수는 좌절한다.

그리고 그날 밤, 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철수는 영희의 탐욕으로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원망한다.
영희 역시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 리스트만 생각하면 철수가 원망스럽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영희가 약을 먹고 진우의 마음까지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철수.
철수는 영희가 저 약을 갖기 위해 자신에게 호감 있는 척 연기하고 자신의 집에 화재까지 일으킨 사실을 알고는 더욱 분노한다.
죽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가? 순수한 자신의 마음을 짓밟혔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 철수.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장난친 영희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꿈꾸며 철수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순수했던 과거의 김철수를 버리고,
악랄하고… 나쁜 남자로 변신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또… 잃어버린 그 약은 과연 누가 가져간 걸까?

1화

#1. 프롤로그

마치 지니라도 튀어나올 듯한 램프처럼 생긴 약병.
그 속에 든 알약. 오팔 느낌의 보석 같기도 하다.
신비롭고 예쁜 느낌의 알약이 한 알 한 알 포도알처럼 보이며,
쳐진 달팽이의 노래 <말하는 대로>가 흐른다.
노래에 맞춰 알약이 한 알씩 날아오르며
'lucky'라 쓰였다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진다.

#2. 호프집(밤)

자막 — 2011년
대학생들 30명 정도가 호프집에 철수(20)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다.

학생 자, 자 우리 천재 작가 김철수를 위해서 건배 한번 하자.
서울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자 김철수를 위해!!

위하여~ 하며 짠— 잔을 부딪치는 학생들.

학생1 야 김철수 진짜 부럽다. 스무 살에 신춘문에 당선이라니...
학생2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글까지 잘 쓰는 놈들 재수 없어. 부럽다 인마.
철수 (민망한 듯 웃는)
학생1 야 상금으로 뭐할 거냐?
철수 뭐하긴. 니들한테 거하게 쓰는 중이잖냐.
학생2 진짜 부럽다. 역시 천재는 다르네. 처음 썼다는 소설이 단박에

당선되고.

철수 야... 그만 좀 띄워라. 나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주위 두리번거리다) 근데... B반 애들 몇 명 안 온 거 같네.

학생1 누구?

철수 ...영희 안 왔나?

학생2 개 학교 그만둔대.

철수 (놀라는) 뭔 소리야? 휴학도 아니고 아예 그만둔다고?

학생1 너 몰랐어? 영희네 아빠 공장에서 다리 다치셨잖아.
그것 때문에 중국집 일 돕는다고 학교 안 나온대.

학생2 진짜? 이영희 그럼 학교 안 와? (핸드폰 들어서 연락하려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네?

철수 (생각에 잠기는)

학생1 야 어쨌든 김철수 축하한다.

갑자기 일어나 가방 챙기며 나가는 철수.

학생 야 김철수 너 어디 가? (대답도 안 하고 뛰어나가는 철수에게) 야!
계산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냐! 저 새끼 뭐야...

#3. 거리(저녁)

철수 (핸드폰으로 전화한다) 네 몽고반점이죠? 짜장면 한 그릇
해태놀이터로 가져다주세요. 한 시간 뒤예요!!
네! (앞으로 달려 나간다)

#4. 몽고반점 중국집(저녁)

철가방 들고 들어서는 영희(20), 헬멧을 쓰고 있다.

미순 노숙자가 돈 모아서 짜장면 시켜 먹나 보네. (한숨 쉬며) 그래...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지.

영희 왜?
 미순 짜장면 한 그릇 해태놀이터로 한 시간 뒤에 보내 달라 그러잖아.
 영희 (멈칫) 어디라고? 해태놀이터?
 미순 어... 왜?
 영희 (헬멧 벗고 후다닥 밖으로 나간다)
 미순 야 이영희! 어디 가! 너 배달 마저 가야지!
 영희 (뛰어나가며) 줌만 있다가 올게!

#5. 해태놀이터(저녁)

철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영희,
 철가방과 어울리지 않는 여성스러운 원피스에
 오렌지빛 볼 터치, 분홍 립스틱, 어색한 화장에
 급하게 고데를 했는지 꼬불꼬불한 헤어스타일까지, 꾸민 티가 역력히 난다.
 놀이터에 장미꽃잎이 한 장 한 장 떨어져 있다.
 장미꽃잎을 보고 씩 웃는 영희.
 꽃잎을 따라 밟으며 사뿐사뿐 걸어간다.
 멀리 컵 초에 불을 붙이는 철수가 보인다.

영희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어? 거기 흑시... 김철수 아니니?
 철수 (놀라 보는) 어! 벌써 왔어? 아직 오면 안 되는데... 눈 감아!
 영희 (눈 감는다) 뭐 하는 건데?
 철수 아 씨... 망했어. 눈 절대 뜨면 안 돼. (콧물 흘쩍이며 컵 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불이 자꾸 꺼져.
 영희 뭐 하는 거냐고! 짜장면 한 그릇 놀이터로 시키는 뻔뻔한 인간이
 누군가 했더니... 너였구나!
 철수 다 뻘뻘... 이제 눈 떠도 돼.

영희, 눈 뜨면
 하트 모양으로 놓인 종이컵 안에 촛불이 바람에 나부끼는 중이다.
 그러나 바람 불어 금세 또 몇 개의 초가 꺼진다.
 다시 급하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철수.

어설픈 이벤트지만 마음에 드는 듯 웃는 영희.

영희 (괜히 통명스럽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철수 (기침 한번 하고) 이영희, 넌 나 (뺨사리, 다시 기침하고 목소리
 깔고) 이영희, 넌 나의 뮤즈야...
 영희 (쑥스러운 듯 푸하하 웃으며) 아 오글거려!
 철수 (뒤에 있던 커다란 꽃다발을 건넨다. 장미 꽃송이마다 포장된
 만 원짜리 지폐)
 영희 (좋아서 꽃다발 받다가 돈 보고 눈 휘둥그레) 어? 이거... 돈이야?
 철수 어... 신춘문에 상금 오늘 받았는데... 너 다 줄게.
 영희 왜?? 이런 건 부담스러워. 그냥 꽃만 줘...
 (다시 꽃다발 철수에게 주면)
 철수 부담 갖지 마. 그냥 돈도 꽃이라고 생각해. 향기는 없지만...
 영희 야... 진짜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돈다발 받고 향기를 맡는)
 어! 근데 돈에서도 향기 나는 거 같아.
 철수 무슨 향기?
 영희 음... 꽃보다 좋은 향기. (웃는)
 철수 (그런가? 고개 갸웃하다 영희 보고) 이영희 웃으니까 좋다!
 영희 (보면)
 철수 얘기 들었어. 아버지 다치셨다고...
 영희 (급 시무룩) 응. (한숨) 내가 태평하게 글만 쓸 순 없잖니.
 철수 그래도 학교 그만두지 마. 내가 글 써서 돈 벌면 너 등록금 줄게.
 영희 에이... 소설 써서 돈 버는 게 쉽나?
 철수 나 애들이 천재 작가래.
 내 나이에 신춘문에 당선되기 쉬운 줄 알아?
 영희 오... 막 자랑하는데?
 철수 (머리 굽적) 미안... 내가 내세울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러구 너도 글 쓰는 거 그만두지 마. 알았지? 약속해.
 (새끼손가락 내미는)
 영희 (철수의 진지함에 손가락 건다)

이때, 함박눈이 내리는

영희 어 눈이다 눈!! 눈 되게 이쁘다!!
 철수 (영희 보다가) ...니가 더 이뻐. (헛)
 영희 (쓱스러워하며 철수 주먹으로 꺾 하고 때린다) 야~
 철수 (맞고 아파하다) चु지 않아? 배달할 때 원래 이려고 다녀?
 (웃으며) 화장도 했네?
 영희 (당황) 어? 어... 나 원래 배달 갈 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입어...
 철수 (웃으며) 뺑치네. 난 줄 알았지?
 영희 아니라니까~ 배달 갈 때 원래 이렇게 갖춰 입어야 된됐어,
 엄마가...

철수, 영희가 귀여운지 웃고는
 은근슬쩍 영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는다.
 서로를 마주 보며 웃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다시 올려다본다.
 철수와 영희의 풋풋하던 한때...

#6. 노량진 학원가

자막 - 9년 후, 2020년
 겨울. 추리닝 차림에 옆구리에 문제집 몇 권을 끼고 걸어오는 영희(29).
 대충 묶은 똥머리, 머리를 오랫동안 안 감은 듯 기름진.
 세수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의 민낯. 너저분 그 자체다.
 맨발에 삼선슬리퍼를 신은 채
 인상을 쓰며 눈이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영희 아 씨...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네.

이때, 뒤에 오는 영희 친구 민지.

민지 (영희의 맨발을 보며) 야... 너 발 안 시럽냐?

영희 시렵지... 근데 좀 지나면 감각이 사라지더라. (돈 사람처럼 히죽)

민지 아 완전 호러... 슬리퍼 발에 붙은 거 아니지? 발에 자석 달린 거 아니지? 너 설마 무좀 때문에 그래?

영희 응...
 민지 아 드러.
 영희 드럽기는 씨... (옥박) 니가 참을 수 없는 그 가려움을 알아?
 민지 (존다)
 영희 (그러다 화들짝 놀라는) 어!!
 민지 왜... 이번에 또 그 신호 왔냐?
 영희 (인상 찌푸리며 끄덕끄덕)
 민지 아... 드... (하려다) 그놈의 변비는 참... 시도 때도 없다.
 영희 (다급) 야. 화장실로 휴지 좀 갖다줘!

배 잡고 뒤통이며 걸어가다
 고통스러운 듯 멍뭉뭉치는 영희의 뒷모습.

민지 (큰 소리로) 힘내 인마. 오늘은 순산해라!
 영희 (돌아보며) 야 조용히 해. 누가 보면 임신한 줄 알겠다, 씨...
 (다시 뒤통뒤통 걷는)
 민지 (한숨, 중얼) 차라리 임신을 해라... 쫓쫓.

#7. 철수의 원룸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꽂초.
 담배꽂초를 비벼 끄는 손. 손톱에 검게 때가 끼었다.
 철수(29)의 손이다.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원룸.
 다 늘어난 런닝구 차림의 철수.
 똥똥한 체격, 이중턱, 간이 안 좋은 듯한 안색,
 탈모 진행 중인 숄 없는 머리카락, 20대라고 믿기 힘들어 보인다.
 초고도 근시로 인한 도수 높은 두꺼운 안경,
 눈이 단춧구멍만큼 작아 보인다.
 과거와 달리 완벽하게 역변한 모습.
 옆에서 보면 잔뜩 굵은 등에 거북목으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중이다.
 오래된 노트북, 위잉- 하는 소음이 장난 아니고.
 점점 시니컬하게 타자를 쳐 내려가던 철수,

마음에 안 드는 듯 썼던 걸 모두 다 지워버린다.
 철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흰한 이마에 금세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철수.

#8. 영희의 고시원 방

이번엔 철수의 원룸보다 더 심한
 창도 없고 누우면 끝인 고시원 안,
 영희, 문제집을 채점하는 중이다.
 해결 못한 듯 배를 만지며 괴로운 표정 짓는데.
 갑자기 발가락까지 가렵다.
 발가락 뻑뻑 굽는데도 시원하지 않아 짜증이 나고.
 이때, 옆방에서 볼펜 꼭지를 연속으로 딸각대는 소리가 들린다.
 예민한 표정으로 옆방을 쏘아보는 영희.
 멈추지 않고 계속 딸각거리는 소리.
 영희, 벽을 손으로 광 친다.
 잠깐 조용해졌다 또다시 볼펜 딸각이는 소리가 들린다.
 열 받는 영희, 필통 안에서 꼭지 달린 볼펜을 꺼내 똑같이 딸각댄다.
 옆방보다 더 시끄럽고 빠르게 딸각대는 영희.
 옆방에서 영희가 딸각대자 지지 않겠다는 듯 더 빠르게 딸각댄다.
 마치 배틀을 뜨는 듯... 두 개의 볼펜 딸각이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리는데...
 영희, 점점 눈꼬리가 사나워지더니... 문을 광 열고 나간다.

#9. 고시원 복도

옆방 문 광광 두드리는 영희.
 문 열자 영희 못지않게 심하게 예민해 보이는 남자가 나온다.
 남녀가 한 층에 뒤섞여 사는 고시원.

영희 조용히 하시죠.
 옆방 그쪽 등 굽는 소리도 시끄럽거든요.
 영희 발바닥 굽은 겁니다. 또 한 번 딸각대면 민원제기합니다.
 옆방 (비웃는) 하세요. 여기 노랑진 바닥에서 젤 싼 텐데... 총무가
 관여나 하는 줄 압니까? (영희 자세히 보며)
 아... 그쪽이죠? 화장실 전세 낸 분?
 영희 (에헴)
 옆방 이거는 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를 하나, 냄새는 무슨,
 와... 나는 고향에 내려온 줄 알았어.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 조성하는 거 압니까?
 영희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옆방 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자에 대한 환상 그만 깨시고 여성
 전용으로 옮겨주세요! 알았어? (문 광 닫는)
 영희 (아오... 더 따지지 못해 분하다)

#10. 학원 강의실(다른 날 오후)

강사, 강의 중이다. 수업 듣고 있는 영희.
 노트에 필기하는데
 앞에 앉은 유난히 큰 남자의 머리통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인다.
 영희, 앞을 보려고 고개를 빼서 필기하는데...
 남자, 이번에는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목 돌리기를 해대서
 영희를 방해한다. 영희, 욕하는데
 다시 자세히 보이는 남자의 옆모습, 옆방 남자다.

#11. 학원 자습실

조용한 자습실.
 영희, 자습실로 들어와 책상에 앉는데
 옆에 앉아 있는 남자, 힐끔 보는데 또 옆방 남자다.
 아... 또 재야?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영희.
 남자, 영희를 보자 볼펜을 들며 씨익 웃는다.
 ‘안 해~ 걱정 마’ 입 모양으로 얘기해주는...
 저게? 하며 보는 영희.
 옆방 남, 다시 문제집 들여다보는데 다리를 덜덜 떨어댄다.
 다리를 떨 때마다 바지가 속속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더니 볼펜 꼭지를 천천히 딸깍이는 옆방 남자.
 영희, 열 받았다. 머리에 두껍이 열리는 느낌.

#12. 학원 건물 밖

열 받은 표정의 영희,
 웅얼웅얼 입 모양 ‘가만 안 뒤, 죽일 거야.’
 건물에서 학생들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핵 돌려본다.
 이때, 건물 밖으로 나오는 옆방 남.

영희 (드디어 나왔구나) 야!
 옆방 (이어폰 뽑고 영희 본다) 야아?? 지금 야라 그랬습니까?
 영희 (성큼 대며 다가가) 그래, 니가 액면가는 아버님인데 나보다 두 살 어리더라고.
 옆방 (기막혀하며) 아니 왜 남의 정보를 막 캐고 다니나.
 영희 내가 정보 캔 게 아니라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 니가 니 입으로 떠벌던 거야.
 옆방 이 여자 말하는 거 봐라? 화장실 매너도 그렇고 상당히 무례하네.
 영희 무례는 니 머리 사이즈가 말 다 했고. 너 효도해라, 어? 그 머리 낳아주신 니네 어머니한테! 이거는 뭐 칠판이 보여야지.
 옆방 (헛기침) 내가 어깨가 좀 넓어서 불편했을 수도 있겠네.
 영희 허... 나 지금 누구랑 대화하니... 아 됐고 아무튼 너... 학원에서라도 제발 내 주위에서 알짱대지 마라.
 옆방 알짱대? 누가 들으면 내가 맘에 들어서 들이됐다고 듣겠네?
 영희 (훗) 아... 그런 거냐?
 옆방 뭐래냐 얘.

영희 뭐래긴! (눈 희번덕) 나 지금 눈깔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조용히 하라잖아!
 옆방 (애 눈빛 좀 이상한데... 싶지만 티 안 내며) 어~ 구급 8년 차 장수생이 그쪽이구나? 무슨 고시도 아니고 9급을... (피식)
 영희 (멈칫)
 옆방 노랑진 지박령이라고 살짝 돌은 년이 하나 있다더니.
 영희 (영희 뛰어가 남자의 구레나룻을 위로 잡아당긴다)
 옆방 (당겨 올라가며) 으악!!!! (영희 밀치면) 죽고 싶어?
 영희 (팔 걷어붙이며) 그래. 지박령 한번 죽여봐라!

서로 마구 밀치며 싸움 벌이는 영희와 옆방 남자.
 구경하는 노랑진 학생들, 지루한 일상에
 재밌는 구경거리가 난 듯 오~오~!! 하며 구경한다.
 남자, 영희를 세게 밀치자 넘어지고... 완전히 열 받은 영희,
 마치 황소처럼 머리로 남자의 배를 들이받으며 돌진한다.
 우당탕 넘어지는 남자.
 영희, 남자 위로 올라가 앉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남자의 코 위에 얹는다. 으악!! 비명 지르는 남자.

옆방 사... 살려줘!
 영희 살려주세요!
 옆방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따라 한다, 간절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영희 (슬리퍼를 코에 대고 더 힘을 주면서 악에 받친) 내 눈앞에 또 거슬러봐! (앞에 서 있는 노랑진 학생들 쳐다보며) 그땐 진짜 다 죽여버릴 꺼야아!!

영희의 광기 어린 눈빛을 마주친 노랑진 학생들,
 다들 슬금슬금 피해 달아난다.

#13. 국회의원 사무실

한 국회의원과 인터뷰 중인 철수.

철수, 녹음기 옆에 두고 받아 적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얘기하는데

몹시 들뜨고 흥분한 듯 횡설수설 떠든다.

너무 흥분해서 꼭 화난 사람 같은...

국회 내가 열여덟 그 어린 나이에 자살하려고까지 했잖아!! 산속에서 수면제 먹고 3일 밤을 잤더라고, 어?

철수 (고개 끄덕이며 수첩에 받아 적고)

국회 일어났더니 그냥 팔이고 다리고 새까맣게, 어? 왜 까만 줄 아냐?

철수 글썄요... 수면제 많이 먹으면 피부가 까매지나요?

국회 저, 저, 말 같잖은...! 내가 뭘 고깃덩이라고 개미 떼들이 새까맣게 올라왔더라고! 그 박정희 엄마가 박정희 가졌을 때 말야... 애 떴겠다고 간장독에 간장을 한 사발 먹고 비탈길을 막 데굴데굴, 어? 그래도 안 떨어지더라! 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산다고! 어? (삐죽거리며 소리 지른다) 그거 알아?

철수 (당황) 아. 네... 그렇죠...

국회 근데 (철수를 훑어보며 못 미더운 듯) 그... 글썄운 좀 쓰냐? 그... 뭐야... 신춘문에 당선됐다 그랬지? 어느 신문사야?

철수 서울일보입니다.

국회 어, 좀 마음이 놓이네. 선거가 코앞인데... (히히히 웃고)

폼 나게 좀 쓰란 말이야... 어록 이런 것도 남기고, 어?

#14. 문화 출판사 사무실(저녁)

출판사 편집팀. 직원들 분주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철수의 책상 앞에 쌓인 원고들.

철수, 인터뷰한 국회의원의 자서전 대필 중이다.

제목은 <나의 열정, 나의 도전>

시간 경과. 동이 터오고

주위에 남은 회사 직원은 철수뿐이다.

책상 위에 군것질한 것들이 수북이 쌓였고

고개 뒤로 젖히고 입 벌리고 자는 철수.

#15. 학원 자습실(다음 날 아침)

조용한 자습실. 옆방 남자 다리를 떨고 있는데.

그 뒤에 앉은 여자, 다리 떨지 말라고 손짓한다.

그러든 말든 개의치 않는데 이때 자습실로 영희가 들어서는 게 보인다.

옆방 남자, 영희 보자마자 다리 떠는 걸 멈추고

차렷 자세로 조용하게 문제집을 본다.

영희, 많이 피곤한지 눈이 새빨갭게 충혈된 상태다.

노트를 꺼내 비장한 표정으로 빨간색 펜을 꺼내 드는 영희.

‘이번에도 떨어지면 죽자!’라고 쓴다.

#16. 파주 공원

강아지들 세 마리를 산책시키는 철수.

강아지 종 불테리어, 비글, 코커스패니얼.

기운 좋고 산만한 애완견 세 마리를 끌고 간다.

강아지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철수.

철수, 강아지들 따라가기에 기운이 달린다.

이때, 땀— 하고 경적을 울리며 차를 세우는 진우.

진우 철수 씨!

철수 아, 네 팀장님. 이제 출근하세요? (헉헉)

진우 애들 산책시키는구나... 나 부탁할 게 있어서... (카드 건네며)

아이스아메리카노 샷 한 잔 추가한 거랑 매일 피우던 담배 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철수 아... (강아지 세 마리를 다 잡고 있다 보니 손이 없고)

지금... 손이 없어서...
 진우 센스 없기는~ 입으로 받으면 되죠...
 철수 아... 네... (카드 입으로 잡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놓친다) 어?
 영수야!! 안 돼!
 진우 어어? 카드 잃어버리면 안 돼!
 철수 (카드 입에 물고 힘겹게 달리는) 네!

철수, 잡으려던 강아지가 똥을 싸려고 멈추고
 철수는 급하게 달리다 넘어지며 바닥에 미끄러진다.
 철수, 넘어져 있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마구 짖어대는 강아지들.
 철수, 힘겨워하며 일어서면 강아지들의 똥이 바지에 묻어 있고.
 일어나자마자 개들에게 끌려가는.

#17. 문화 출판사 사장실

출판사 사장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미란,
 분에 넘치는 옷 스타일과 도도한 표정으로
 태블릿 피시를 보고 있다.
 화면에는 드라마가 나오는 중. 걱정 멜로인 듯.
 남주가 여주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며 키스하는 장면.
 몇 번씩 그 장면만 돌려 보고 있는 미란.
 이때 사장실로 들어서는 용석. 미란, 화들짝 놀라며 드라마 끈다.

용석 그 골프강사랑 끝냈구나. 여기 또 할 일 없이 나타난 거 보니까.
 미란 (못 들은 척하며 앞에 놓인 커피 마시는)
 용석 이번에는 얼마를 주고 끝냈나? 커피숍 차려준 거 말고 또 있는 거
 아니지?
 미란 오빠. 개는 진심이었어! (자랑하는 듯) 등 뒤에 문신을 했더라.
 내 이름 이니셜을 새긴 거 있지. nml이라고!
 용석 니미럴 아니냐? 먹고살기 힘들다. 니미럴? (꺄꺄)
 미란 (찌리는) 어쩜... 출판사 사장님이 너무 경박스러워.
 용석 무섭네 요즘 젊은 애들. 돈 뜯어내려고 문신까지 새기고.

미란 오빠!! 언니한테 그런 얘기 했다간 봐. 가만 보면 진우 그놈도
 그렇고 무슨 소리를 들었나 아주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어쨌든 고문데!
 용석 진우 개가 고모를 닮았어...
 (한숨 쉬며) 보면 여자가 매일 바뀌는 거 같애.
 똑똑 두드리면 남자 직원 꾸벅 인사하며 들어선다.
 직원 (책 건네고) 말씀하신 원고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용석 응, 그래. 거기 놔두라고.
 직원 네. (꾸벅 인사하고 나가고)
 미란 켜 누구야? 못 보던 얼굴이네.
 용석 이번에 문화 신인 시로 등단한 애.
 미란 어머니... 손가락도 길던데 그 손으로 시를 써? (감탄) 로맨틱하네.
 용석 언제 또 손가락까지 봤냐. 니 오빠 늙은 건 안 보이니?
 미란 (듣지도 않는) 아! 맞다! 내가 그 얘기 하려 그랬어... 여기 새로
 들어온 편집장. 최석주 소설가. 그 오빠 둘싱이라며? 이참에 다리
 좀 놔봐.
 용석 너랑 동갑이야... 무슨 오빠래.
 미란 동갑이면 오빠지 뭐~
 용석 (혀 차는) 개가 뭐가 아쉽다고 널 만나겠니.
 미란 왜... 내가 어때서? (확고한 자신감) 나 남편 빼고 다 가진 여잔데?
 부록으로 애까지 있잖아?
 용석 (한심하게 보는)

이때, 문 똑똑 두드리고 철수, 강아지들 끌고 들어선다.
 미란, 철수 보자마자 켜 별로네... 싫은 표정.

사장 어이구. 우리 영수 민수 경수~ 철수 형하고 산책 잘했나?
 철수 (지쳐서 헐떡이며) 네... 잘했습니다.
 사장 철수 씨가 가서 목욕을 좀 시켜야겠네. 영수 민수는 요즘 아토피가
 생긴 거 같아서 약용 샴푸 써야 해요.
 철수 네...

철수, 강아지들 데리고 나가는데
면바지 엉덩이 쪽에 검은 똥이 묻은 자국.

미란 (나가는 철수 보며 조용하게) 어머머... 재 똥 샀나 봐...

#18. 출판사 탕비실 안

탕비실 안쪽에 강아지 장롱이 있다.
장롱 안 열어보면 알록달록한 강아지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는.

철수 니들이 나보다 옷이 많네... (옷 꺼내서 입히는) 영수야,
난 니가 부럽다.

강아지 철수가 손대자 으르렁거리고

철수 (겉먹은) 실컷 놀고 와서 왜 으르렁대...
(한숨) 이거야말로 개 무시구나.

#19. 고시원 화장실

변기에 앉아, 그 순간에도 종얼종얼대며 암기 중인 영희.
고시원 화장실, 빨리 나오라고 광광 두드리면
더 세게 문을 광광 두드리는 영희.
밖에서 “에이씨. 진짜 몇 시간째야? 더럽게 안 나온다!”

영희 (오히려 큰 소리) 더럽게 안 나오는 걸 낸들 어떡하냐!

“뽀뽀하다, 뽀뽀해!” 계속 밖에서 욕하는 소리.
그러든 말든 다시 책을 들여다보는 영희.
그때 책으로 코피가 뚝뚝 떨어진다.
어어! 하며 고개 뒤로 젖히고 코를 휴지로 틀어막는...

#20. 호프집(밤)

명우, 철수, 형일, 남자 셋이서 술 마시는 중이다.

명우 니들 문창인의 밤 안 나가? 애들이 다 김철수 궁금해하더라.
천재 소설가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철수 천재는 무슨... 그리고 살이 너무 썩어서 애들이 못 알아보면 어찌냐.
형일 형님... 그래도 살썩어서 형님 정도면 진짜 잘생긴 거예요.
명우 붕...
철수 그렇긴 한데...
명우 붕...?
철수 그렇다고 옷 살 돈도 없고...
명우 어휴 붕... 그러니까 나처럼 진작에 글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생산직
들어갔어야지! 그 박봉을 어떻게 견디냐?
형일 견디다 보면 해 뜰 날 올 거예요. 저는 시 쓴 거 후회한 적 없어요.
명우 붕...
철수 (생각에 잠기는) 근데 문창인의 밤에 이영희도 올까?
명우 개가 누구야?
철수 ...있잖아. 조용하고 되게 귀여웠던 애... 학교 중간에 관둬서
모르려나.
명우 야 문창과에 그런 여자가 어딴냐...
최다 알코올 중독에 골초밖에 없지.
철수 있어... (미소) 개는 달랐어.

#21. 영희의 고시원 방(밤)

영희, 발바닥 전체를 머리빗으로 벽벽 긁는 중이다.
노트북으로 메일함을 뒤적이는데
'문창인의 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메일 제목.
메일을 보던 영희,
옆의 박스를 열어 자신이 써놓았던 소설을 꺼내 본다.
이제 어떻게 바랜 원고들.

영희, 가만히 보는데... 철수가 쓴 낙서가 보인다.
'이영희 작가! 참 잘 썼어요!'
철수의 낙서를 보다... 옛 생각이 나는 듯 미소가 지어지는.

#22. 민지의 원룸 안(낮)

민지, 원룸 안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
민지, 화들짝 놀라고 문을 열면 급하게 들어오는 영희.

민지 야, 빗쟁이처럼 문 두드리지 말고 벨 누르라니까.
(영희 발 보며 코 막는)
영희 나 옷 좀 빌려 입자.
민지 안 돼. 무슨 옷을 빌려?
영희 (걸려 있는 옷들 뒤적이다 옷 하나를 꺼내 든다)
민지 야 그건 안 돼. 그거 최근에 샀는데 나도 아끼느라 잘 안 입거든?
진짜 너 이런 짓 민폐다!! 허구한 날 밥 사달라 커피 사달라!
궁상 좀 그만 떨어!
영희 (옷 다시 걸어놓고) 알았어. 궁상 그만 떨게.

영희, 쓸쓸히 걸어 나가려다

영희 (창문을 보며 쓸쓸하게) 여긴 햇빛이 드는구나.
민지 ...
영희 내 방은 창문도 없어. 그런 곳에서 8년째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닭일지도 모르겠다... 하긴... 닭대가리라 시험도 계속 떨어지는 거겠지.
민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목소리 깔고 동정심 유발이냐...
영희 그런 닭장 같은 곳에서 몇 년을 더 버텨야 사람이 되는 걸까... (쓸쓸한 미소)
민지 ...
영희 닭은 달걀이라도 낳지... 나는 그 쉽다는 쾌변도 못 해... (아련하게 민지 본다)

민지 (이상하게 마음 아픈) 아, 알았어. 입어 입어! 아— 또 낫이네...
영희 고마워. 깨끗하게 입을게.

영희 나가다 신발장에서 구두도 집어 들고 나간다.

민지 인간적으로 내려놔라. 구두는...
영희 ...난 전생에 닭이었을 거야. (다시 민지를 슬프게 본다)
민지 (포기) 가져가라, 가져가...
영희 (금세 신났다) 고마워~
민지 대신 발은 좀 닭고 신어. (영희 나가며 꼬꼬댁~ 큰 소리로 운다)
아우, 저 또라이년 진짜...

#23. 출판사 사무실(저녁)

원고 정리 중인 철수.
이때, 정장을 손에 들고 나가는 진우.

진우 어~ 김철수 씨.
철수 네, 팀장님.
진우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옷 세탁 좀 부탁할게.
(정장을 건넨다)
철수 아... 네. 그러세요.
진우 부탁해~

#24. 철수의 원룸(밤)

철수, 거울 앞에서 진우의 정장을 자신의 몸에 대보다 갈아입는다.
정장을 입은 철수의 모습.
터질 듯 꽉 끼지만... 본인은 마음에 드는 듯하다.
거울을 보다가 모자를 벗는 철수.
철수, 탈모가 진행되어 많이 벗어진 머리.

철수, 한숨 쉬다가 서랍 속 깊숙이 보물처럼 숨겨두었던 흑채를 꺼내 들고 머리에 뿌리기 시작한다.
나름대로 까매진 머리를 보며 만족한 표정을 짓는 철수.

#25. 예술대학 건물 안(밤)

‘문창인의 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현역 학생이 앞에 나가 시 낭송을 하고 있다.
앉아 있는 졸업생들.
철수, 들어와 거울에 정장을 입고 흑채를 뿌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
자신감이 생긴 듯 걸어 들어오는 철수. 옆에 동기들이 보인다.
철수, 인사하면 옆에 동기들, 알아보지 못하고 꾸벅 인사한다.
“야 김철수 이번에도 안 왔나 봐?”
“예전에 책 낸 거 총 열 권 팔렸대나...” “아냐, 정확히 일곱 권이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동기들.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철수.

#26. 예술대학 건물 밖(밤)

건물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영희.
친구의 정장을 입고 건물 밖을 살피고 있다.
들어가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대학교 축제가 한창이다. 이때 빗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희.

#27. 과거. 캠퍼스(밤)

과거. 9년 전.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학생들. 이때 비가 내린다.
영희, 손으로 비를 가리며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준다.

돌아보면 철수가 서 있다.
잘생긴 철수의 얼굴, 마치 강동원처럼 씨익 미소 짓는.

#28. 현재. 캠퍼스(밤)

다시 현실. 비를 맞으며 과거를 떠올리던 영희.

영희 김철수... 잘 지내나? (하늘을 보는데)

이때 앞에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철수와 딱 마주치는 영희.
영희,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본다.

철수(E) 이영희! 왔구나! 저 표정... 너는 날 알아보는구나...

철수, 영희의 표정을 바라보며
나를 알아보는구나 싶고... 반갑게 다가가 영희에게 우산을 씌워준다.

철수 오랜만이다.

영희 ...누구세요?

엇? 못 알아보나? 당황하는 철수. 이때 바람이 불며
우산이 날아가려고 하자, 철수 우산을 끌어당기는데
그때 정장 옷의 거드랑이 쪽이 퍽~ 하고 터진다.
영희, 깜짝 놀라 철수의 터진 거드랑이를 보고 있다.
우산이 위로 뒤집혀버리고
철수, 비를 맞는데 머리에서 검은 물이 주르륵 흐른다.
흑채가 빗물에 섞여 내리는 중이다...
놀라서 철수의 물골을 바라보는 영희.
당황한 철수의 표정에서.

1화 끝.

2화

#1. 캠퍼스(밤)

바람에 날아간 우산을 잡으려고 팔을 뻗은 철수, 빠져나온 수북한 거털과 얼굴에 검은 물이 주르륵 흐르는 상태인 철수의 물골이 말이 아니다.
영희, 그런 철수를 황당해서 보고 있다.

영희 저기요... 머리에서 검은 물이... (놀라서) 그게 뭐예요?

철수 아... 이거... 벼... 별거 아니에요. 흑채예요.

영희 아... (철수의 겨드랑이 쪽을 보며 혼잣말) 한쪽에 물뺩하셨네...
이런 것마저 빈익빈 부익부구나. (한탄스러운 듯 한숨)

철수 (얼른 팔을 내린다)

영희 (철수 들은 건가? 놀라서 입 가리며) 어머... 죄송해요.

내가 무슨 말을... 근데 저 아세요? 방금 전에 오랜만이라고...

철수 (창피함에 얼굴을 숙이며) 아... 아뇨... 죄송합니다.

사람 잘못 봤나 봐요.

이때 철수와 영희 근처를 지나가는 여자, 영희를 알아본다.

여자 이영희? 영희 맞지?

영희 어! 야. 오랜만이다!

여자 그러니까 몇 년 만이야, 이게! 비 맞는다. 이쪽으로 와!

영희, 여자 쪽으로 달려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간다.

철수, 걸어가는 영희의 뒷모습을 애잔하게 바라본다.

영희, 그런 철수를 다시 뒤돌아 바라보면

철수 얼굴을 핵 돌려버리는.

#2. 철수의 원룸(밤)

철수, 겨드랑이 쪽이 찢어지고 흑채까지 묻어

영망이 된 진우의 정장 셔츠를 바라본다.

철수 하... 이걸 어찌냐... 팀장님 옷 거의 명품 같던데, 큰일 났네.

이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린다.

철수, 현관문을 연다. 집주인이 서 있다.

주인 202호! 왜 전화를 안 받아? 월세 두 달 치 밀렸잖아.

철수 아...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병원비 때문에...

다음 달에 같이 넣어 드린다고 연락드리려고 했거든요.

주인 다음 달은 무슨... 이번 주까지 보내. 자신 없음 방 빼고!

철수 ...네. (구벽) 죄송합니다.

#3. 출판사 사무실(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보는 철수.

진우의 정장을 검색해보고 있다.

몇백만 원의 고가라는 걸 알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철수.

이때, 사무실로 들어서는 진우.

진우 김철수 씨!

철수 (깜짝 놀라) ...네? (얼른 컴퓨터 가리고) 네! 팀장님!

진우 뭘 그렇게 놀래~ 세탁물은 잘 맡겼죠?

철수 네... 네...

진우 (커피 건네며) 항상 고마워서 어쩔.

철수 에이... 뭘요.

진우 그럼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철수 네... 어... 다... 다... 다... 다음 주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진우 아, 다다다다음주? (땀 웃으며) 왜 이렇게 더듬어? 설마 내 옷 입어

본 거 아니지?
 철수 (당황) 네...??
 진우 안 맞을 텐데... 꼭 꺼가지고 겨드랑이 쪽 다 터지고
 그런 거 아니지?
 철수 (당황) !!
 진우 농담이야. 철수 씨가 어디 그럴 사람인가. 이 동네 세탁소야?
 다음 주에 내가 받아 와야겠...
 철수 (O.L.) 아뇨! 제가 받아 오겠습니다!
 진우 그래? 그럼 고맙고~ 수고해~! (씹긋 웃으며 나가고)
 철수 (식은땀 흘리며 앉는)

#4. 고시원 앞

철수, 잔뜩 짐을 챙겨 나온 채 고시원을 바라보고 있다.
 간판에서 ‘ㅅ’이 떨어져 ‘노망고시원’이라 쓰여 있다.

#5. 고시원 안

고시원 안을 보여주는 총무. 방을 빼려는 듯 짐 싸는 중인 영희의 옆방 남자.
 옆방 남자가 쓰던 방으로 들어오는 철수.
 창도 없고 누우면 끝인 좁은 방 안을 후... 답답하다는 듯 바라보는 철수.

총무 오늘부터 쓰실 생각인 거죠?
 철수 (끄덕) 네...
 총무 잘됐네요. (옆방 남자에게) 그럼 정리 잘하고 비워주세요.
 옆방 네.
 철수 (방으로 들어오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공용인 거죠?
 옆방 네... 혹시 비염 있으세요?
 철수 아뇨.
 옆방 하... 안타깝네요. 그럼 여기 옆방 사람이 쓰고 난 다음 화장실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철수 네??
 옆방 냄새가~ 냄새가... 코 썩어요.
 여기 살면서 제 소원이 비염 걸리는 거였다니까요.
 조용히 하라는 듯 캉! 벽을 치는 옆방 사람 영희.
 옆방 (속닥) 저 옆방 사는 여자 완전 또라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철수 (속닥) 어? 이층은 다 남자들만 쓰는 거 아닌가요?
 옆방 (속닥) 원래 그런데... 저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줄줄이
 다 자살했거든요?
 철수 (헉)
 옆방 (속닥) 아무도 안 들어오는 방이라 완전 싸게 내놔더니 저 여자가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사정사정했나 봐요.
 철수 아...
 옆방 (속닥) 근데 보통 남자보다 똥 냄새도 심하고 발 냄새도 심하고
 힘도 세니까 조심하시라고요.

#6. 영희의 고시원 방

공부하던 중 아주 예민한 표정으로 옆방을 찌러보는 영희.

영희 (발로 벽을 마구 찬다) 야! 속닥거리면 안 들릴 줄 알아?
 조용해 이 씨!

#7. 철수의 고시원 방

영희가 소리 지르자 화들짝 놀라는 철수.

옆방 (속닥) 봤죠? 성격도 개 같은데 청력도 개 수준이에요.
 영희(E) 다 들린다고 했지?
 옆방 (짐 갖고 나가며 옆방에 대고 큰소리로 개 짖는 흉내) 월월월월!!!

영희, 문 열리는 소리 들리자 후다닥 부리나케 도망 나가는 옆방 남자.

철수 (옆방 보며 혼잣말) 후... 무섭다. 누군지 몰라도 장난 아니네...

#8. 과거. 캠퍼스(밤)

INSERT

철수가 우산을 씌워주자 놀라서 철수를 쳐다보던 영희의 얼굴.

#9. 철수의 고시원 방

철수,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멍때리며 계속 영희를 떠올리다 고개를 연신 젖는다.

철수(E) 그만 떠올리자... 이제 이영희는 나 같은 건 쳐다도 안 볼 거야.

철수, 다시 고시원 방 안을 둘러본다.

철수(E) 이런 코딱지만 한 고시원에 사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다 하겠어. 근데 이영희... 갠 여전히 참 예쁘더라...

철수, 다시 고개를 저은 후 마음을 다잡는 듯 노트북을 바라본다.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고 있는 철수.

철수(E) 다음 주까지... 무조건 팀장님 정장 새로 한 벌 사야 되는데...

이때, 알바 구인란에 “누드크로키 모델 구합니다”를 클릭해보는 철수.

철수(E) 누드모델? 시간당 십만 원이라고... 와... 많이 반네.
일주일만 하면 금방 백만 원 정도 벌겠는데. 근데 이... 몸매가 비루해서... (다시 확인) 어?? 비만이신 남성분들, 환영한다고?

철수, 혹하는 눈빛으로 구인란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고 있다.

#10. 호프집(밤)

술 마시고 있는 영희와 민지.

민지, 영희에게 받은 쇼핑백에서 자신의 옷과 구두를 확인한다.

민지 시험 전까진 술 안 마신다더니... 웬일이래?

영희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서.

민지 뭐?

영희 이번에도 시험 떨어지면 나 그냥 죽으려고. 유서 같은 건 안 쓸 거니까 니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눈물을 참으며)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지 (젓) 또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너 매번 시험 보기 전에 그랬어.

영희 매번 그랬지. 근데 이번엔 진짜 죽을 거야... 십 년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 너 알지? 원래 내 꿈...

민지 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걸치고 돈지랄 하면서 허황되게 사는 게 어릴 때 꿈이었다며.

영희 (생각만 해도 좋은 듯 흐뭇한)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민지 지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재 냄새나는 추리닝에 삼선슬리퍼가 발가락에 붙어 있는 노량진 지박령이지.

영희 (소주잔 광 내려놓고) 이 망할 년이... 진짜...

민지 (위험 느끼며) 아... 미안...

영희 주머니 관리 잘해라. 나 오늘 진지해.

민지 (입 가리고 끄덕끄덕)

영희 나이 먹으면서... 꿈도 점점 소박해지는데... 그것마저 이루기 힘들어. 남들은 참 쉽게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든지.

민지 우울한 얘기 됐고~ 그래서 니 첫사랑은 만났어? 첫사랑 만난다고 빼입고 나간 거 아냐??

영희 (쓱쓸) 안 나왔어.

민지 뭐 하고 산대? 동창들이랑 연락 안 한대?

영희 소문만 무성해. 필명으로 활동한다는 얘기도 있고...
 민지 엄청 잘생겼었다며?? 그 정도로 작가가 잘생겼으면
 화제 됐을 거 같은데?
 영희 개 나대는 거 싫어하잖아. 아마 얼굴도 안 드러낼 거야. 참...
 완벽했어. 잘생긴 데다 글도 잘 쓰고... 겸손하고...
 민지 개도 너가 첫사랑이라 그랬다며. 그럼 니 생각 많이 할 거 같은데.
 영희 그럼 동창회 때 한 번쯤 나왔겠지. (소주 따라 마시는)
 민지 한번 찾아봐, 또 아냐? 유명작가 와이프 될지.
 영희 (술 마시며) 나 같은 건 잊었을 거야...
 (한숨 쉬며) 지금 잘 살려나... 뭐 하고 있을까...?

#11. 고시원 안

철수, 곰돌이 팬티만 입은 채 누드 상태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보는 철수.
 제일 과감한 포즈를 취한 채, 플라로이드로 사진을 찍는다.
 즉석에서 나오는 사진. 철수, 사진을 꺼내 본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점점 사진에 드러나고...
 접힌 뱃살에 탈모에 다리털이며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진. 그 사진을 보며 인상 찌푸리는 철수.
 옆에 펼쳐놓은 책 위로 집어 던지는 철수.
 책이 탁 덮인다. 책 제목 —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12. 거리

호프집에서 나오는 영희와 민지.

영희 가라...
 민지 잠깐만... (가방에서 책을 꺼내준다)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이 책 보니 니 생각 나더라고.

책 제목 —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영희, 가만히 본다.

영희 ...배불렀네. 떡볶이 먹고 싶은 거 보니... 죽고 싶은 생각 없네.
 민지 나랑 오랫동안 떡볶이 좀 먹어주라... 알았지?
 영희 (책 받아 들며)
 민지 간다~
 영희 (책 보며 옆구리에 끼고) 지지배... 막판에 멋있는 척하더라.
 (훌쩍하고 돌아서 간다)

#13. 고시원 부엌

라면을 끓인 후, 냄비째 가져와 식탁에 앉는 철수.
 철수, 책을 펼쳐 보면서 라면을 후루룩 먹는다.
 이때,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영희.
 철수, 영희와 눈이 마주치고 너무 놀라 입에서 라면을 주르륵 다시 뱉는다.
 철수, 너무 놀랐는지 기침하다 구역질까지 하는...
 영희, 더럽다는 듯 철수를 본다.

영희 (시큰둥) 못 보던 분이시네.
 철수 (기침 잦아들며) 네? 아... 오늘 들어왔거든요.
 영희 ...혹시 2호실?
 철수 (끄덕) 네.
 영희 아~ 내 옆방이네요? 어후... 그 옆방 왕대거리 나간다더니 진짜
 나갔나 보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영희, 책상 위에 책 올려놓고 가방 내려놓고

철수 (충격) 여...옆방요?
 영희 네. 제가 1호실 쓰거든요. 반가워요.
 철수 ...네에...
 영희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요.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조심 좀 해주셨음 좋겠어요.

철수 아, 네…
영희, 앞으로 걸어가 조리대 위에서 라면을 끓이려다가

영희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뒤를 돌아보면 철수 나가고 없다)
뭐야? 언제 나갔대? (라면 끓이는)

#14. 철수의 고시원 방

철수, 들어와서 숨차서 헉헉거린다. 멍때리는 표정.

철수 뭐야… 영희가 여길 왜…??
FLASH CUT #6 영희의 고시원 방

영희(E) (발로 벽을 마구 찬다) 야! 속닥거리면 안 들릴 줄 알아?
조용해 이 씨!

옆방 (속닥) 봤죠? 성격도 개 같은데 청력도 개 수준이에요.

철수(E) 그럼… 아까 그 남자가 말한 옆방 사람이 이영희였어? (헐…)
말도 안 돼. 그렇게 청순했던 애가… 어찌다가… (그저 멍한)

철수, 멍한 표정으로 책을 떨어뜨린다.
다시 집어 드는데 책 첫 장에 민지가 영희에게 적어놓은 편지가 보인다.
‘이영희, 죽겠다는 생각 접고 시험 때까지 마음 편안히 파이팅이야! —민지—’

철수 어?? 이게 뭐지?
FLASH CUT #13 고시원 부엌
고시원 부엌에서 영희, 책상 위에 책 올려놓고 가방 내려놓던 모습.
책 CLOSE UP 자신과 똑같은 책이다.

철수, 허걱!!! 생각났다.

철수(E) 어? 뭐야… 이… 이거… 이영희 책인가 본데?
(그러다 퍼뜩) 뭐야… 내 사진!!!!

#15. 고시원 복도

철수, 부리나케 달려 나와 부엌문을 열고 들어간다. 영희가 없다.
철수, 다시 복도로 나와 자신의 옆방 문을 똑똑 두드린다.
아무도 없고 문고리를 돌려보자 문이 열린다.
안에 영희가 없는 상태. 벽에 붙여진 빨간 글씨.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반드시 죽으리!’
헉, 놀라서 보는 철수. 이때 책상에 놓인 자신의 책을 발견한다.
철수, 내 책이 저기 있구나 싶어 바라보는데
책 위에 영희의 빨랫감이 접혀 놓였다. 영희의 속옷이다.
철수, 방에 들어와 얼른 한 손으로 속옷을 들고
다른 손으로 책을 집어 드는데
책 속에 있던 사진이 쏙 빠져 영희의 가방 안으로 들어간다.
허걱!! 당황하는 철수.
이때 방 안으로 딱 들어오는 영희. 영희와 눈이 마주치는 철수.
철수의 손에 들려 있는 영희의 팬티.
영희, 까악~~~ 비명 지른다.

#16. 고시원 총무실

총무 앞에 앉아 있는 철수. 열 받아 있는 영희.

영희 아, 놈… 진짜… 왕대가리 나갔더니 이번엔 변태가 들어와?
(철수 위아래로 훑으며) 어쩔들 그렇게 생긴 대로 노는지…

철수 (억울)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총무 근데 옆방에 왜 들어간 거예요?

철수 그게 아니고… 제 책이랑 이분 책하고 바뀌었는데…

영희 (O.L.) 어허~ 그러셔? 아주 그럴듯한데?

철수 진짜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제 책 가지고 내려올 테니까.
 증명할게요!

영희 근데 왜 하필이면 내 팬티를 막 만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막 느끼면서?

철수 제가 언제 느꼈어요!! 느낀 적 없어요!

영희 어허~ 느끼진 않았지만 내 팬티 만지긴 하셨다?

철수 (말이 안 통한다) 친구 이름 민지 맞죠?
 영희 씨한테 민지 씨가 책 앞장에 편지를...

영희 (O.L.) 어머머 내 이름도 알아, 내 친구 이름도 알고!
 이 사람 뭐야, 당신 뭐야!! 스토커 아냐??

철수 아니, 내 애길 제발 끝까지 줘...

영희 (소리 지르며 뒷걸음질) 가까이 오지 마!!! 확 그냥 신고해버린다!

철수 (하...)

총무 (귀찮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남자만 사는 층 사는 거 위험하다니까,
 여성분들 쓰시는 층으로 옮겨드려요?

영희 아니죠! 왜 내가 옮겨야 합니까? 저는 엄연한 피해자라고요.
 이런 번태를 왜 들여보내요, 그러게? 이 사람 당장 퇴출시키세요!
 (영희 나가려는데)

철수 저기요... (영희를 쫓아가며)

영희 (눈 찌르려는 듯 손가락 두 개를 들며) 가까이 오기만 해! 확 그냥!

철수 (움찔)

영희 (뒷걸음질 치다 계단으로 후다닥 올라간다)

#17. 고시원 밖(밤)

결국 고시원에서 짐 가방 든 채 쫓겨나온 철수.
 철수, 하... 이게 무슨 일인가... 한숨만 나온다.

#18. 영희의 고시원 방(밤)

영희, 툭툭대며 방 안으로 들어선다.

다시 책을 바라보는데 도서관 대여증이 붙어 있다.

#19. 고시원 옥상(밤)

영희, 책을 보며 핸드폰으로 민지와 통화 중이다.

영희 그러니까... 너 도서관에서 빌린 거 아닌 거 맞지?
 민지(F) 너 주려고 서점에서 샀다니까.
 영희 진짜 책 앞장에 편지 썼다고?
 민지(F) 그래. 대체 뭔 일이야?
 영희 아... 진짜... 암튼 알았다. (전화 끊고 한숨 쉬며) 아... 그럼 진작
 말을 제대로 할 것이지, 그 남자는 왜 남의 방에 들어와서...

#20. 고시원 총무실(밤)

총무, 앉아 있으면... 영희, 불쑥 얼굴을 들이밀며

영희 아까 제 옆방 남자 연락처 좀 주세요!
 총무 (명단 들이민다)
 영희 (읽어보다) 이름이 김철수...? 참 나, 이름 하나만 멀쩡하네.

#21. 찜질방(밤)

기운 없이 찜질방에 앉아 계란을 까먹는 철수, 한숨만 푹푹 내신다.
 이때 핸드폰 땡땡— 하고 연락이 와 열어본다.
 영희의 문자다. ‘소망고시원 1호예요. 아까는 오해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기에 진작 얘기를 하지 왜 남의 방에 들어오셔서 오해를 사죠?
 어쨌든 책 바뀐 게 맞는 거 같으니 내일 다시 책 교환하도록 하죠!’
 철수, 다행이다... 안도의 탄식을 내뿜는다.

철수 하, 다행이다! 사진 아직 못 본 거야. 제발... 하느님...
(무릎 꿇고 하늘에 기도한다) 부처님, 알라신 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시여... 제발 영희가 제 사진 못 보게 해주세요. 제발...

옆 사람들 수군거리며 철수를 본다.

#22. 고시원(다음 날 아침)

고시원 전경.
그 앞에 초조한 얼굴로 영희를 기다리고 있는 철수.

철수 (계속 중얼거린다) 못 봤겠지... 못 봤을 거야. 못 봤...

이때 고시원 밖으로 걸어 나오는 영희. 철수, 긴장한 표정으로 영희를 본다.
영희, 책을 건넨다.

철수 (책 받고 멍하니 영희를 본다)
영희 저도 책 주셔야죠.
철수 아... 네... (가방에서 책을 꺼내 영희에게 준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영희 뭐... 저도 딱히 잘한 건 없는 거 같네요.
철수(E) 아직 못 봤나? 못 봤을 거야.

영희, 돌아서 걸어가는데
이때, 영희의 가방,
하필이면 안에 내용물이 흰히 보이는 투명 비닐 가방이다.
그 안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딱하니 보인다.
헉! 당황하는 철수.
누가 볼까 가방을 가리려고 영희의 뒤에 바짝 붙으며 따라간다.

영희 (돌아보다 깜짝 놀라는) 아, 깜짝아! 뭐예요? 또?
철수 아... (구벽) 죄송합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영희 (돌아보며) 도서관요. (경계의 표정으로) 왜... 그러는데요?

철수 아... 저도 도서관 가는 길이거든요.

영희, 철수를 이상한 사람 보듯 힐끗— 보고 빠르게 걷는다.
철수, 난감한 표정으로 영희에게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 중이다.
이때 횡단보도의 불이 켜지고 빠르게 달려가는 영희. 철수도 쫓아서 달린다.
영희, 뒤를 돌아보면 영희의 가방을 노려보며 달려오는 철수.
영희, 철수가 무서워 급하게 도망치다 도로에서 넘어진다.
그때 영희의 가방 안에 있는 것들 모두 쏟아져 나온다.
철수, 재빠르게 가방 속에서 떨어져 나온 자신의 사진을 주우려고 찾는다.
철수, 영희의 물건 사이에서 자신의 사진 드디어 발견한다!
이때, 신호가 바뀌며 차들이 뱅뱅— 경적을 울리고
영희, 놀라서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모두 주워 문제집 속에 꽂아 넣고
가방에 다시 집어넣는다.
철수, 으이씨... 망했다 싶고
영희, 다시 뛰어가며 버스에 올라탄다. 영희를 따라 버스에 올라타는 철수.

#23. 버스 안

영희, 좌석에 앉으면 뒷좌석에 따라 앉는 철수.
영희, 철수가 심히 못마땅하다. 뒤에서 숨차 하며 헉헉거리는 철수.
영희, 철수의 숨소리마저 상당히 불쾌하다. 가방 안에서 문제집을 꺼낸다.
펼쳐 보려는데 철수 당황해서

철수 (시선을 돌리려 큰 소리) 우와! 저기 창밖에 좀 봐요! 대박이에요!

영희, 창밖을 보면 몸매가 드러나는 노출 의상을 입은 여성이 서 있다.
철수, 당황한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철수를 어이없어서 본다.
피식 웃는 사람도 있고...

철수 (말 돌린다) 그게 아니고 저기... 대박... 맛집이 있거든요.

영희, 이 인간 대체 뭐지? 싫어 철수를 돌아보다

다른 쪽 좌석으로 옮겨 앉는 영희.

영희, 가방 안에서 문제집 말고 헤드셋을 꺼내 음악을 듣는다.

다행인 철수.

#24. 도서관

영희, 도서관에 들어와 책상에 앉는다.

영희의 뒤쪽에 앉아 안절부절못하는 철수.

영희, 문제집을 펴는데 철수의 사진이 딱 나온다.

다행히 뒤집혀 있는 사진. 영희, 이게 뭐지? 사진을 다시 똑바로 보려는데...

철수, 히익~ 안 돼! 속으로 외치며 벌떡 일어서는데

이때 영희의 전화벨이 울린다.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 못마땅해서 영희를 보고...

영희, 핸드폰 들고 도서관을 뛰어나간다.

철수, 예쓰! 하며 빠르게 영희의 자리로 뛰어가 문제집 안에 있던 자신의

사진을 집어 든다. 사진을 들고 빠르게 나가려다 앞서 걸어오던

여자와 부딪힌다.

부딪히며 갖고 있던 책과 인쇄된 종이 여러 장과 쓰고 있던 안경까지

떨어뜨리는 여자. 철수도 사진을 놓쳤다.

철수 죄송합니다. (급하게 사진 주워 들러는데)

여자,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재빠르게 철수의 사진과 인쇄물 등을 집어 자신의 책에 끼워놓는다.

철수 (이 여잔 또 뭐야...) 엇?? 저기요!

여자, 재빠르게 도서관 밖으로 나간다. 철수, 쫓아 나간다.

#25. 도서관 밖

철수 (여자를 따라 나오며) 저기 잠깐만요! 거기 책에 제 사진이...

여자 (돌아보며)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철수 아뇨! 그게 아니고 그 책에요!

여자 (철수 밀쳐내며) 왜 이래요, 증말.

철수, 여자에게 밀쳐져 넘어진다.

이때 계단을 올라오던 영희, 그 광경을 보며 쫓쫓 혀를 찬다.

여자 (영희와 아는 사이인 듯 손 흔들며) 언니! 여기 있었구나!

영희 어.

여자 문제집 빌려줘서 고마워요. (책을 영희에게 건넨다)

철수 (허걱) !!

영희 고마우면 나중에 밥 사라.

여자 네~! 다음에 살게요.

영희, 도서관에 책 갖고 들어가려는데

철수 (영희에게 뛰어가) 저기요!

영희 (철수를 한심하게 본다) 뭐예요, 또? 뭐?

철수 저도 그 책 좀 빌려주세요.

영희 네??

철수 잠깐만 좀 빌려주세요. 잠깐만요.

영희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다 철수를 자세히 본다) 어??

철수 (당황)

영희 근데 낮이 익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철수 (날 알아보나? 당황하는데)

FLASH CUT #1 캠퍼스

캠퍼스에서 만난 영희에게 우산 씌워주던 철수의 모습.

바람에 우산이 날아가며 철수가 팔을 뻗자

겨드랑이 쪽이 터지던 장면,

머리에서 흑채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던 철수의 모습.

#26. 도서관 밖

영희 아~ 생각났다! 예대에서 봤었는데?
비 오던 날! 머리에 흑채 흐르던 분!

철수 ... (아 그게 생각난 거구나)

영희 그때도 나 보고 막 아는 척했죠?

철수 네?

영희 오랜만이다~ 이랬잖아요.
아~ 이 사람 이거 지금 보니 순전히 다 계획적이었네?

철수 네?? 무슨 소리예요? 뭘 계획해요?

영희 일부러 콧 끼는 옷 입고 와서 거드랑이 노출한 거 아냐!

철수 에?? 아니 그게 무슨...??

영희 (뒤로 물러서며) 경찰 부르기 전에 떨어져 서세요!

철수 (영희 소리 지르자,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는)

영희 와 진짜 살다 살다 이렇게 치밀한 변태는 처음이네.
(철수 경계하며 후다닥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는)

철수 (영희 쫓아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이대로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고
무릎 꿇고 괴로워하다, 머리를 쥐어뜯는)
따흑... (그러다 뺨힌 머리카락을 보며 그 와중에 아까워한다)

#27. 도서관 밖

영희, 가방 메고 걸어 나온다. 그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철수.

철수(E) 영희야... 나 사실 문창과 10학년 김철수야... 난 이렇게 영원히
네 앞에 나서질 못하겠구나. 그래... 너에게 변태 스토커로
남느니... 평생 너 앞에 안 나타날게. 잘 살아. 내 첫사랑...

이때, 영희가 옆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훔쳐 가는 소매치기 남.

철수, 헉! 놀란다.

영희 소매치기야! (소매치기 남 쫓아가며) 소매치기야! 안 돼! 야 이
새끼야! 저기 내 학원비 있는데!!! (미친 듯이 달리다 넘어진다)

영희, 넘어지고 얼굴 들어보면
이때, 철수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소매치기 남을 뒤쫓고 있다.

철수 (영희 돌아보며) 내가 가방 찾아줄게, 걱정 마요!

영희 어? 변태...? (소리 지른다) 변태 파이팅!!

#28. 골목길

너무 오랫동안 달렸는지 지친 표정의 소매치기 남,
빠른 속력을 내며 따라붙는 철수.
소매치기 남, 철수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진다.
철수 맞아도 끄떡없이 따라 댈다.
소매치기 남, 이번에는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진다.
철수, 머리에 벽돌을 맞는다. 그래도 끄떡없이 쫓아 달리는 철수.
놀라는 소매치기 남, 가방을 낚다 던진다.

소매치기 가져가, 가져가! (후다닥 도망치는)

철수 (가방 안을 뒤적여 문제집 안에서 자신의 누드사진을 꺼내고,
드디어 찾았다, 감격하는 표정, 하늘에 대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9. 거리

철수, 많이 힘든 듯,
창백한 표정으로 비틀비틀 걸어와 영희에게 가방을 건넨다.
영희, 가방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에 지갑을 꺼내 본다.

영희 고... 고마워요.
 철수 뭘요...
 영희 사례비라도 드릴게요.
 철수 아니요. 그냥...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 오해만 좀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아...
 철수 그날 아는 척한 건요... 제가 아는 분하고 닮아서... 착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옷을 껏 끼는 걸 입고 나와서 옷이 뜯어진 거예요.
 영희 아... (끄덕) 알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오해를 하네요.
 철수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요 뭘.
 영희 (혁) 저기... 근데 괜찮으세요? 머리에...!!

철수, 벽돌 맞은 충격 때문인지,
 이번에는 머리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다.

철수 아... 괜찮아요.
 영희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데... 그리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철수 아... 간만에 안 하던 운동을 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쓰러진다)
 영희 (허겁)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핸드폰으로 전화한다) 119죠? 여기 노량진역 근처인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영희, 전화 끊고 철수의 주머니를 뒤진다.

영희 이 사람 가족한테라도 연락해줘야 하나?
 (이때 주머니에서 나오는 철수의 사진, 허겁 놀라며 보는)

#30. 병원(밤)

병원에서 눈을 뜨는 철수.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고 허겁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간호사 환자분, 정신 드세요?
 철수 여기가... 어디예요?
 간호사 머리 다치셨죠? 충격 때문에 정신 잃으셨어요.
 철수 ...제가요?
 간호사 (침대 옆 테이블에 철수의 사진이 놓여 있는 걸 힐끔 보다
 웃음을 참으며) 잠시만요. 담당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간호사, 다른 쪽으로 가면
 철수, 왜 그러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사진을 본다.
 허겁... 놀라서 자신의 사진을 누가 볼까 뒤집어놓는데
 영희의 글씨가 적혀 있다.

‘사례금 얼마 안 되지만 밥이라도 사주세요.
 원래 얼굴 보고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지만...
 이 사진을 봐서 그런지 얼굴은 차마 못 보겠네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음 합니다.
 한 번 더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방 찾아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ps 음지에서 행복하시길... —고망 고시원 1호—’

철수, 옆에 몇만 원 놓인 걸 보고
 괴로워서 머리를 쥐어뜯는다. 따혹...
 손에 많이 뽀뽀한 머리털을 보며 울먹거리는.

#31. 출판사 전경(다른 날 오후)

#32. 출판사 팀장실

진우, 팀장실에 앉아 있고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는 철수.

진우 아, 철수 씨.
 철수 여기... 저번에 맡기신 세탁물 찾아왔습니다. (정장 건넨다)
 진우 아... 고마워요. (정장 보며) 와, 세탁 한번 했다고 새 옷 같네?
 철수(E) 새 옷이다. 이 자식아...
 그 명품 옷 때문에 변태로 낙인까지 찍히고...
 진우 (거울에 옷 대보며) 세탁 한번 잘했다. 누가 보면 진짠 줄 알겠네.
 철수 네? 진짠 줄 알겠다니요?
 진우 이거 째이거든요. 동대문에서 산.
 철수 ...네?
 진우 아무튼 나가봐요. (멍하니 서 있는 철수 보며 정신 차리라는 듯)
 김철수 씨!!
 철수 네? 아, 네...

철수, 비틀거리다 빼끗하기까지.
진우, 그런 철수 보며 쫓쫓 혀 찬다.

#33. 출판사 팀장실 밖

팀장실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온 철수,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34. 노망 고시원 전경

#35. 영희의 고시원 방

영희, 노트북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노트북 모니터 화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영희, 눈 질끈 감고 떨리는 듯 ‘확인’을 클릭해본다.

아래로 화면을 움직여 확인하는데... ‘김영희’라는 이름에 움찔,

그 밑에 ‘나영희’에 ‘박영희’에 움찔, 움찔... 이영희는 없다...

이때 같은 고시원생들의 환호 소리 이어 계속 연이어 들린다.

영희, 비참하다.

#36. 화면 분할

주먹을 입에 넣고 오열 중인 철수.

영희 역시 구슬프게 오열하는 모습에서.

2화 끝.

3화

#1. 호수공원

철수, 강아지 세 마리를 데리고 힘겨워하며 산책시키고 있다.
 다리 위에 자살자들을 막기 위한 문구들이 적혀 있다.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 힘내’,
 ‘이제까지 버틴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 등.
 그 문구들을 말없이 바라보던 철수. 퍼뜩 영희가 떠오르는 듯.

철수 이영희... 시험은 잘 봤나? 지금쯤... 합격자 발표 났을 텐데.

#2. 출판사 직원실

철수, 교정을 보던 중에 또 영희가 떠오른다.

FLASH CUT 2화 #15 영희의 고시원 방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반드시 죽으리!’
 벽에 붙어 있던 종이에 적힌 글씨.

철수, 그 기억에 벌떡 일어난다. 의자가 넘어지고,
 왜 저러나 의아한 출판사 직원들.

#3. 고시원 앞

전봇대에 숨어 고시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철수.
 영희가 보이지 않자, 용기를 내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본다.

#4. 고시원 총무실

철수 저기...
 총무 (보면)
 철수 이 고시원 2층 1호실 사는 분 있잖아요. 이영희 씨라고.
 총무 그분 나가셨어요.
 철수 (눈 동그래져) 그래요? 시험 합격해서요?
 총무 불합격한 것 같은데. 며칠을 시끄럽게 울어서 퇴출당했어요.
 철수 (혀)...
 총무 짐도 놓고 가고... 찾으러 가라고 연락해도 답문도 없네요.
 철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짐 찾아줄게요!!
 총무 (철수 경계하며 바라보다) 짐은 왜요? 그때 그분 방에도
 몰래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철수 그 후로 오해였던 거 밝혔고 화해했거든요. 진짜예요.
 총무 (못 미더워 철수 한번 보다가) 뭐 그러세요. 어차피 계속
 안 찾으러 오면 저희도 이거 버려야 해서 짐만 되거든요.
 (영희의 짐가방을 꺼내 건네준다)

#5. 철수의 원룸

철수, 영희의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꺼내 본다.
 오래된 노트북과 연습장 몇 권 등.
 연습장 펼쳐보면 빨간 글씨로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
 크게 쓰여 있다. 허걱- 하는 철수. 영희의 노트북을 펼쳐서 켜본다.
 배경화면에도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반드시 죽으리!’가 쓰여 있고
 또 허걱 하는 철수.

철수, 인터넷으로 들어가 영희가 들어가 본 목록을 뒤져본다.
 인터넷 검색창에 ‘안 아프게 죽는 법’ 검색해본 흔적이 보이고

철수 (한숨) 하... 애 왜 이래? 진짜 뭔 일 난 거 아냐?

철수, 다시 인터넷 흔적을 찾아보는데

구글에서 '소설가 김철수'를 검색해본 기록을 발견한다.
'92년생 김철수'의 SNS를 뒤져본 흔적들.

철수 (감동하는) 영희야... 너 날 이렇게 찾고 있었구나... 미안해.
도저히 이 꼴로 니 앞에 나서질 못했어.

그러다 기록 흔적에 의문의 사이트가 나온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철수.
사이트 이름은 '요단강 건너고 싶은 자들의 모임'

철수 요단강 건너고 싶은 자? ...이게 뭐지?
(설마 해서 보면) 혹시 자살 사이트?

영희가 들어가 본 기록의 글을 빠르게 클릭해보는 철수.
게시글 — 제목 '함께 요단강 건널 분을 찾습니다' 닉네임 '푸른 수염'
'제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약을 먹고 *월 *일 요단강 건널 생각이오니... 동반으로
건너고 싶은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선착순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만 남겨주세요.'
그 글에 리플 하나 달려 있다. 닉네임은 '다 죽일 거야', '010-1234-*****'

철수 어? 이 전화번호... (핸드폰 뒤져서 확인해본다) 이영희 번호 맞아!
미쳤나, 애가... 어찌지... 언제라고? 내일이잖아! (헉)

철수, 당황한 표정으로 열린 리플을 닫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는 철수.
리플을 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철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온다.
'내일 구파발역에 5시까지 모여주세요.' 철수, 핸드폰 문자 보는.

#6. 거리(오후)

다음날. 철수, 구파발역 앞에 상당히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다.
시계를 확인하면 오후 5시 10분 전이다.

철수 (혼잣말하고 있다) 영희 애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이트에
리플을 남긴 거야? 그리고 고통 없이 죽는 약이 어딴다고,
말도 안 돼...

이때, 전철역 밖으로 걸어 나오는 영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철수.
철수를 알아보는 영희, 눈이 마주치자 열린 고개를 핵— 돌린다.
이때, 철수와 영희 쪽으로 다가서는 한 승용차.
뺑뺑 경적을 울린다. 승용차를 보는 철수와 영희,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는.
승용차 운전석 차창이 내려지면 병색이 짙은 듯 창백하고 쾅한 느낌의 중년
남자, 태리다. 영희와 철수를 올려다본다.

태리 (점잖은) 요건자... 요단강 건너고 싶은 자들의 모임? 맞으신가요?

영희, 철수 고개 끄덕끄덕한다. 영희, 철수를 보며 재도? 싶어 본다.

철수 (꾸벅 인사하는) 아... 안녕하세요.
영희 (똥 씹은 표정으로 함께 꾸벅 인사한다)
태리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리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푸른 수염이고요.
타시죠.
영희 그럼... 리플 다신 분이 그쪽인가요??
철수 네.

#7. 차 안

운전하고 있는 태리. 뒤에 앉은 철수와 영희.
보조석에 커다란 쿠션이 하나 있다.

철수 (영희를 보며)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영희 그러게요. 그쪽하고 다시는 안 마주치고 싶었는데... (피식)
운명인가 보네요. 그쪽이랑 인생의 마지막 날을 같이 보낼 줄이야.
철수 인생의 마지막 날요?
영희 (철수 딱하게 보며) 하긴... 얼마나 살기 힘들면 번태 짓이 유일한

낙이겠어요. 그죠?

철수 그렇죠...

철수(E) 미친놈아, 그렇조라니. 뭘 동의하고 앉았어... 하, 이영희!! 정신 차려. 시험 그깟 게 뭐라고. 나 같은 놈도 사는데... 니가 왜...?

태리 (철수와 영희를 백미러로 본 후) 어떻게... 오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는 나눴습니까?

영희 ...일부러 안 보고 왔어요. 보면 마음 약해질까 봐.

철수 저... 저도요.

태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참... 소개가 늦었네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영희 그래요? 한 사람이 더 오나요?

태리 (옆에 보조석 쿠션 가리키며) 제 여자친구죠.

철수 (고개를 빼서 쿠션을 보면 애니메이션 여자 그림이 그려진...)

태리 낮을 많이 가려요...

영희 (창문 보며 조용하게) 오덕이네...

태리 (들었다, 풀죽은 느낌)

철수 (의심의 눈빛으로) 근데... 고통 없이 죽는 약이라니... 그게 무슨 성분이죠?

태리 ...비밀입니다.

철수 고통 없이 죽는 약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영희 보며) 그렇지 않나요??

영희 고통이 있다고 해도 죽기만 한다면 상관없어요. 혼자 죽기는 무서웠거든요.

철수 (영희를 안타깝게 본 후, 이 상황 큰일이다 싶다)

#8. 펜션 앞

펜션 앞에 주차하는 차. 차에서 내리는 철수와 영희.
 이때 운전석에서 내리는 태리. 일어서면 키가 2미터가 넘는 장신이다.
 허걱... 놀라서 태리를 올려다보는 철수와 영희.
 태리, 보조석에서 쿠션을 소중하게 끌어안고는.

태리 (계속 점잖은 말투) 가시죠...

태리, 너무 커서 휘청휘청 걷는... 철수와 영희 그 뒤를 쫓아 걷는다.

#9. 펜션 안

펜션 주인, 펜션 방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뭔가 심상찮다는 표정으로 철수, 태리, 영희를 보고 있다.
 태리는 천장에 머리가 닿아 구부정한 자세.
 딱 봐도 이상한 조화를 이루며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세 사람.

주인 (수상쩍은 듯) 멀리서 놀러 오셨는데...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시네.
 태리 (하하) 이 친구들이 표정이 원래 이래요. (팔 벌려 철수와 영희의 어깨를 감싸며) 애들아! 힐링하러 와서 왜 그래, 자. 웃어라~
 철수·영희 (동시에) 하하하...
 태리 녀석들... 우하하하하. (우렁차게 웃는)
 주인 ... (태리의 웃음소리에 흠칫) 네...
 그럼 내일 11시까지 퇴실인 거 아시죠?

주인, 문 닫고 나간다. 다시 우울 모드로 말없이 가방에서 준비한 걸 꺼내는
 철수, 영희, 태리... 철수, 영희와 태리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철수(E) 어찌지... 이러고 멍청히 있다가 나까지 요단강 건널 느낌인데...
 무조건 막아야 해.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영희를 탈출시켜야 돼.

이때, 영희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영희 (어이없다는 듯 피식) ...사람은 참 웃기네요.
 이런 날에도 배가 고프니.
 태리 (일어나는) 가시죠. 마지막 날인데 제가 아주 근사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철수와 영희, 태리 보는.

#10. 레스토랑

철수, 태리, 영희. 메뉴를 보고 있는 영희와 철수.

철수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물 마시는)
 태리 우리의 최후의 만찬일 텐데... 비싼 게 무슨 문제겠어요.
 철수 (물 마시다 꺾— 빨을 뺏하며) 최후의 만찬...
 영희 ...
 태리 (쿠션에 귀를 기울이며)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래요.
 여친이. 하하하하!
 철수 영희 ...

CUT TO

스테이크를 먹는 중인 철수, 영희, 태리, 쿠션...

태리 (영희 보며) 왜 이렇게 잘 못 드세요??
 영희 밥 먹을 때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제가 변비 때문에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태리 ...죽음 앞에서 그게 다 무슨 문제겠어요?
 영희 그렇네요.
 태리 (영희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영희 (흠칫하는데, 태리의 손아귀에 힘이 너무 세다! 허걱, 못 빼는)
 태리 (얼굴에 인상을 쓰며 눈을 감는다)
 변비뿐만 아니라 아픈 곳이 너무 많네요.
 영희 (뚱지 하며 보는)
 태리 나이는 스물아홉이지만 근력이 없어 신체 나이는 65세, 걸모습은
 정상으로 보이나 심각한 내장 비만, 지간형 무좀, 경추 골반 다
 틀어져 있고... 악성 변비로 인한 치질, 만성위염으로 인한 입 냄새,
 만성 피로, 화병, 패배감, 열등감, 한없이 추락한 자존감! 육체뿐
 아니라 정신이 피폐하군요. (눈을 떠 영희를 보며) 당신의 고통이

제게 느껴집니다.

영희 (손 뿌리치며 버럭)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나 치질 같은 거 없거든요?
 태리 아픈 곳을 자꾸 감추려 하면 더 악화될 뿐이지요.
 영희 (화끈) 뭐라는 거야 이 아저씨? 그리고 나 입 냄새 안 나요!
 태리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영희 기가 막혀, 정말.
 (입 가린 척하며 냄새 맡아보는, 어떻게 알았지 싶은 표정)
 태리 (쿠션 앞에 스테이크 놔주며) 나나짱. 많이 먹어~
 영희 (열 받고, 중얼) ...나나짱 같은 소리 하네. 진짜...
 태리 ...
 영희 ...
 영희 (말에 가시 돌아) 아뇨. 주위에서 여자가 안 만나주면 뭐 쿠션에
 여자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으면 사랑하고 싶고 내친김에 결혼도
 하고 싶고... 사람이 괜히 미쳐요? 다 이유가 있는...
 철수 (영희에게 섯 하며) 저기... 그만 좀 해요. 이거 비싸요.
 태리 남들이 뭐라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쿠션에 귀를
 기울인다) 여친이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기력지가... 하하!
 (다시 귀를 기울이며) 깡패래요! 어깨 깡패! 하하!
 철수 영희 ... (단단히 들었구나 싶은 표정)

#11. 거리

영희와 철수, 우울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을 나와 걷고 있고
앞서 태리가 쿠션을 안고 “저보고 여친이 미쳤대요! 비율이! 하하.”
계속 혼잣말을 지껄이며 휘청휘청 걷고 있다.

영희 ...참 나... 마지막 동행자가 정신 나간 오덕이라니... 키는 왜
 저렇게 크고... 생긴 것도 그렇고 무슨 프랑켄슈타인이야 뭐야.
 철수 (한숨) 그러게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그쪽 손만 잡고도 그쪽에 대해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설마 뒷조사 한 건 아니겠죠?
 영희 나에 대해 다 파악하다뇨? 맞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철수 (겁낸다) ...아, 네...
 영희 아까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닌 게... 단단히 미쳐서 괴력이 나오는가봐요.
 철수 (이때다 싶어) 그러니까요! 저렇게 제정신도 아닌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무슨 약을 가져왔을지... 정말 이따가 저 사람이 주는 약 먹을 거예요?
 영희 네. 저렇게 미쳤으니까... 확실히 죽는 건 보장될 것 같아요.

바닷가로 걸어가는 영희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철수.

#12. 펜션 안

태리, 쿠션과 어깨동무를 하고 누워 혼자서 끄냥대며 귓속말한다.

태리 (쿠션에 귓속말) 뭐? 내가 천재라고? 내 얼굴이? 하하...
 철수 (태리를 못 미더워 본다)
 태리 (철수 보며 더 조용하게 귓속말) 저 남자 많이 이상하지? 팬찮은 사람인데 안 됐어...
 철수 (황당해서 보다) 저기요.
 태리 (보는)
 철수 그 약...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따가 우리가 먹을 약이요.
 태리 왜요?
 철수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신기하기도 하고.
 태리 (가방 안에서 약병을 꺼내 건네준다)
 철수 (약병을 열어 알약을 꺼내 냄새도 맡아보고 이리저리 둘러본다) 이 약이 정말... 고통 없이 죽는 게 확실한 거예요?
 태리 (철수 보며) 왜요? ...김철수 씨는 죽고 싶은 생각 1도 없죠?
 철수 (당황)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리 계속 이 약에 대해 의구심만 갖는 거 같은데? 여기까지 왜 따라오신 거죠?
 철수 (당황, 어떻게 알았지 싶어) ...그게 아니고...

태리 (정색) 아무튼 나나짱과 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네요. 좀 나가주시죠.

철수 네??

태리 눈치가 없으시네요. (일어나 철수를 내려다본다)

철수, 너무 큰 태리를 올려다보는데, 태리의 기세에 놀려 펜션 밖으로 일어나 나간다.

#13. 펜션 밖 해변

펜션 밖으로 나온 철수.

철수 저 약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 해...

바닷가로 걸어가는 철수. 아직도 바다를 바라보는 영희를 발견한다.

철수 ...뭐해요??

영희 (울고 있다)

철수 (영희가 안쓰러운) 우...울어요? (마음 아프다) 죽고 싶은 마음 없죠? 맞죠? 우리 돌아갈래요? 같이 온 푸른 수염이란 사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우리 돌아가서... 다시 방법을...
 영희 (싫다고 고개를 젓고는 엉엉 큰 소리로 운다)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운 거예요. 그 흔한 연애 한 번 못 해봤는데... (흑흑) 키스 못 한 처녀귀신 될 생각 하니까... 불쌍해서... (흑흑)

철수, 당황하다가 영희를 토닥여준다. 영희, 철수의 어깨에 기대 엉엉 운다.

당황하는 철수. 이 상황은 뭐지? 키스해달라는 건가... 싶어 긴장한다.

영희의 입술로 조심히 다가가보는 철수. 키스할 듯 분위기 잡는데

영희, 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다.

나가떨어지는 철수.

그 바람에 모자가 벗겨지며 탈모가 심각한 정수리가 드러난다.

철수 (우씨, 피 보자 서러운) 왜 그래요? ...
 키스 한 번도 못 해봤다길래...
 영희 키스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랬지 그쪽하고 키스하고 싶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철수 (서럽다) 그깟 키스가 뭐라고...! 마지막 날에 그깟 게 뭐라고요!
 영희 내 마지막 날 더럽히지 마라.
 철수 더럽혀요?
 영희 (철수의 정수리 털을 바라보며) 대가리에 털도 없는 게...

영희, 돌아서 걸어간다. 철수, 화나는 듯 모래를 움켜쥐고 던져버린다.

#14. 펜션 안(밤)

영희, 유서를 쓴 편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눈물을 닦고 있다.

#15. 펜션 화장실 안(밤)

몰래 약병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선 철수. 약병 안에 있는 약들을 모두 병기 안에 털어 넣고 자기가 가져온 약을 몰래 집어넣고 있다.

#16. 펜션 안(밤)

철수, 화장실에서 나와 약병을 조심스레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혹시나 태리가 봤을까 봐 눈치를 살피는 철수.
 태리, 쿠션을 꺼안고 불안한 표정으로 구석에서 왔다 갔다 한다.
 무서운지 식은땀까지 흘린다.

영희 화장실 다 다녀왔어요?
 철수 네...
 영희 그럼, 우리 약 먹죠. 약은 어디 있나요??

철수 저기... 있네요. 테이블 위에.
 영희 (테이블 위로 다가가 약병을 집어 들며 비장한 표정)
 철수 (들키지 않았겠지, 태리의 표정을 살피는)
 태리 저... 우리... 오늘은 하루만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영희 (태리 노려보며) 지금 장난해요?
 태리 (영희가 무서운지 쿠션 꼭 꺼안으며) 나나짱...
 영희 (태리 보는데 갑자기 울분이 치솟는) 살아 있지도 않은 쿠션 꺼안고 평생 살고 싶으세요? 남들이 보면 다 비웃어요! 쓸데없는 거 붙들고 사는 이 바보 같은 짓... 다들 그만두자구요!

철수와 태리, 영희의 말에 숙연해진다.

영희, 약병 안에서 약을 세 알씩 꺼내 철수와 태리에게 나눠준다.

태리 (쿠션에 귀를 기울이더니, 놀란 듯) 나나짱이 살고 싶대요!
 영희 그만하시죠. 죽기 전에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태리 (조용하게 쿠션 꼭 꺼안는) 미안해... 나나짱.
 영희 하나 둘 셋 하면... 다들 한 번에 삼키는 거예요.
 철수 저기, 잠깐만요! (냉장고에서 맥주 세 병을 꺼낸다)
 이거랑 같이 마시는 게 어때요? 원래 모든 약은 술이랑 복용할 때 효과가 좋잖아요.
 철수(E) 수면제니까 맥주 마시면 더 빨리 잠들겠지.
 영희 좋아요. 오랜만에 옹은 소리 하시네요.
 철수 (칭찬해주니 좋은지)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영희 (끄덕)
 태리 (쿠션을 더 꽉 끌어안으며) 미안해... 독한 사람들을 만났어.
 철수 하나, 둘, 셋. (맥주와 함께 약을 삼킨다)
 영희 (역시 약을 삼킨다)
 태리 (약을 보다가) 어?? (냄새 맡아보며) 이 약이 아닌데??
 철수 (당황) 무... 무슨 소리예요? 안 먹으려고 지금 괜히 판청 부리는 거 아니죠?
 태리 진짜예요. 잠깐만요. 나나짱, 실례 좀 할게.
 (쿠션 안의 지퍼를 열어 그 속에서 약병을 하나 더 꺼낸다)

철수 (헉)
 태리 (투명한 알약을 보여주며) 이거 봐요! 약이 다르잖아요!
 영희 뭐야? 그럼 지금 우리가 먹은 약은 뭔데요?
 태리 그야... 저도 모르죠. (다 알고 있는 듯 철수를 본다) 누군가 죽기 싫어서 수면제랑 바꿔치기했는지도 모르죠.
 철수 (당황하는데)
 영희 얼른 그 약 주세요. 그럼...
 철수 (달려가 태리 앞을 가로막는) 안 돼! 뭔지 알고 먹어!
 영희 그 약 얼른 주세요.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요!
 철수 (고개 젓는다) 안 돼!!
 영희 (철수를 밀친 후, 태리의 손에 든 약병을 뺏는다)
 철수 안 돼! 하지 마, 제발... 먹지 말라고!
 영희 (결심한 듯 재빠르게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킨다)
 철수 안 돼!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영희 (철수 보며) 그쪽도 먹어요...
 철수 (고개 젓는) 싫어... (뒤로 물러난다)
 영희 다 같이 죽기로 했으면서 이럴 거예요?
 (강제로 철수의 입을 벌려 억지로 약을 넣는다)

안 먹겠다고 몸부림치던 철수, 알약을 입에 억지로 넣는 영희.
 철수, 뺨으려고 하는데 영희 목을대들 친다. 알약을 삼키는 철수.
 영희,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옆에 기절한 듯 잠이 든다.
 철수, 역시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고
 그런 철수와 영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태리.

#17. 펜션 전경(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번쩍— 내리치는 번개.
 펜션 문을 열고 나오는 태리, 숨을 한번 깊게 몰아쉬던 뒤
 쿠션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오는 태리.
 펜션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그 위로 번개가 번쩍 다시 치며

FADE OUT
 FADE IN

#18. 펜션 안(다음 날 아침)

마치 죽은 듯 미동 없이 누워 있는 철수와 영희.
 갑자기 크헉! 하며 코를 고는 철수.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는 영희.

영희 (돌아보다가 벌떡 일어난다, 자기 몸 만져본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옆에 자고 있는 철수를 본다.

영희 ...저승인가? (울먹울먹) 엄마 아빠... 이제 못 보는 거야?
 철수 (코 골다 뜨헉! 눈 뜨고 두리번)
 영희 ...우리 죽은 거 맞죠... (흑흑)
 철수 (심각한 표정) ...그런 거 같아요... (같이 울먹) 엄마 미안해
 영희 근데 그 오덕은 왜 없지? ...(두리번거리며) 망할 쿠션도 없네?
 (허겁 하며 눈이 휘둥그레) 어!!!!
 철수 (같이 놀라며) 왜?
 영희 발가락이 간지러워.
 철수 뭐?
 영희 (발가락 뻐뻐 긁으며) 죽어도 무좀은 안 없어지는 건가?
 이 죽일 놈의 무좀.
 철수 (헉 깬다 싶어 보고)

이때, 따르릉 울리는 전화벨.

영희 (이상해서 보다 전화 받는다) ...네?
 주인(E) 퇴실 시간입니다.
 영희 네?? 퇴실 시간이요?
 주인(E) 네. 11시에 퇴실이라고 어제 말했잖아요. 나갈 준비 해주세요.

철수 ... (영희 보다) 우리... 안 죽은 거 같은데?
영희 ...??

영희, 일어나서 집 안을 둘러본다.

영희 어떻게 된 거지? 그 오덕 아재는 도망친 건가?
철수 (다행이다 싶어 한숨만 쉬고)

이때, 테이블에 올려진 쪽지를 보는 영희.
'삶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영희 뭐래는 거야? 이 아저씨? 지가 먼저 죽자고 모이게 해놓고
개소리하는 거 봐.

옆에 놓인 약병을 본다.

영희 (약병을 들어보며) 뭐야... 이 약도 진짜 아니었던 거야?
(짜증 난다)

철수 (약병을 뺏어 들며) 이걸 내가 갖고 있을게요.

영희 (한숨만 푹푹 쉰다) 진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19. 버스 안

영희, 앉아 있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철수.

철수 저기...

영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갑시다...

철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보는 건 어때요?

영희 ...

철수 저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적 많은데... 돌아보면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다 지나가잖아요.

영희 그쪽도 죽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어제부터 행동은 꼭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철수 ...저는 다 운명이다 싶어서 그냥 살려고요. 나 같은 놈도 사는데...
그쪽은 아직 너무... 반짝반짝하다고요.

영희 (그 말에 살짝 눈빛이 등요되는 듯) 동시 써요? 반짝반짝은 무슨...

#20. 터미널

버스에서 내리는 영희와 철수, 영희, 꾸벅 인사하고 걸어가려 하면

철수 저기... 고시원 나와서 어디서 지내세요?

영희 알 거 없어요...

철수 연락해도 돼요?

영희 안 돼요.

철수 연락할게요... 이것도 인연인데 생사만 확인하고 살아요.

영희 ... (철수 보며) 지금 이 판국에 나한테 작업 걸고 싶어요?
한심하기는 진짜... (훅 돌아 걸어간다)

철수 (소리 지른다) 파이팅! 힘내요!

영희, 왜 저래... 창피한 듯 빠르게 걷는다.

#21. 거리

어두운 표정으로 거리를 걷는 영희.

철수(E)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보는 건 어때요?
그쪽은 아직 너무... 반짝반짝하다고요.

영희 ... (쳇 하며) 반짝반짝은 얼어 죽을...

하늘을 올려다본다. 벚꽃 잎이 떨어진다.
연인들 걸어가고 있고.

영희 (첿) 세상은 봄인데... 나만 겨울이구나... 확 눈이나 내렸음 좋겠다.

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오잉? 눈이 휘둥그레져 하늘을 바라보는 영희.
갑자기 눈이 내리자, 놀란 사람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난리가 났다.

#22. 철수의 원룸

원룸 안으로 들어서는 철수.
철수,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한 후, 거울을 들여다본다.
철수, 자신의 몇 가닥 없는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쉰다.

영희(E) 대가리에 털도 없는 게...
철수 (한숨 한번 쉬고) 대가리에 털이라도 붙어 있었으면... 이영희한테
내가 김철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거라도 붙어 있음 참
좋았을 텐데.

잊으려는 듯 고개 흔들고 세수하는 철수.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자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친다.
자신의 머리에 왕성한 솔이 생겨났다.
어떻게 된 거야? 눈이 휘둥그레져 거울을 바라보는 철수.

#23. 화면 분할

눈이 내리는 하늘을 휘둥그레져 보는 영희.
자신의 머리솔을 휘둥그레 보는 철수.

3화 끝.

작가 후기

〈럭키〉를 처음 쓴 건 4년 전입니다.
청춘의 끝자락에서 방향 중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만들어보고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작업할 때만큼은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대본을 읽어보니 철수가 그 시절 내 모습 같기도, 또 어떨 때는 영희가 내 모습
같기도 해서 살짝 찝찬 마음이 생기는 작품입니다.
당선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얼떨떨하면서...
숨겨놓고 저 혼자 보던 작품이 빛을 본 것 같아 기쁩습니다.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며 다른 접근도 고민해봤지만,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당선작 그대로를 제출합니다.

코미디를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시트콤이라는 장르를 접할 수 있게 된 건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늘 밝은 에너지 뽐어주시며 도움 많이 주신 시트콤 동기님들, 저희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애써주신 김성미 대리님, 심폐소생술이 시급했던 제 아이템 하나하나 정성껏 봐주신
이남규 작가님, 박준화 감독님, 백미경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오픈 관계자님들께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사랑해요 오픈...
잊지 않고 건필하겠습니다.

2020 오픈 작품집 시트콤

초판 발행.

2020년 12월 22일

글. 이수지, 김현민, 방소민, 최유현, 진윤주

제작. 오픈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엔엠

발행인. 허민희

등록번호. 제 2015-000016 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139

ISBN 0 979-11-972691-1-0 (04680)

ISBN 0 979-11-965931-8-6 (세트)

© CJ ENM, 2020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0 오픈 작품집 — 시트콤
ISBN 979-11-972691-1-0 (04680)

